

연구보고24-기본07

#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정아 · 강경균 · 최홍일 · 허창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

연구보고24-기본07

---

#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저 자 서정아, 강경균, 최홍일, 허창수

연구진 연구책임자\_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최홍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_허창수(충남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_박도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 보고서를 펴내며

2005년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한지 어언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심화되고 매체에서는 오랫동안 방 안에 있던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이들 청소년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나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고립·은둔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며 얼마나 많은 학자들과 현장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그들의 가족들이 고립·은둔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외로이 생활하는 그들이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 연구자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이 사회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충분히 적응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있을 만큼 오래 지속되기를 있기를 희망합니다. 수 십년 간의 값진 연구와 노력들을 단 한 권의 책에 정리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하겠으나 부디 이번 연구가 고립·은둔 청소년이 사회로 나오는 첫걸음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연구진 일동 -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국내·외 문헌 및 일본, 영국 등 외국 사례 검토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연령인 9~24세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첫 대규모 실태조사와 더불어 보다 심도 있는 원인, 과정, 결과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청소년 심층면접, 현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첫째,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개념, 유형, 원인, 과정, 어려움, 지원방안 등을 도출하고 셋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적, 실천적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 연구내용 및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술·연구·정책 자료, 정부·지자체 입법 현황, 국내·외 고립·은둔 연구 동향, 지원체계 및 실천 노력, 국내·외 서비스 및 정책, 서비스전달체계, 입법 현황 분석 및 제한점, 개선점, 외국 사례, 설문 척도 등을 검토함.
- 연구 전반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 고립·은둔형 청소년 설문조사 실시 방안(발굴, 섭외, 홍보 포함), 고립·은둔형 청소년 설문조사 문항 구성 및 수정·보완 방안,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당사자, 관계 부처 공무원,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 9~24세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되 고립·은둔 청소년 표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의 표집을 통해 2024년 6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를 웹 기반 조사로 실시함.
- 고립·은둔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을 보다 심도 깊게 탐색하고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한 청소년 중 참여하기를 희망한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함.
- 이상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토대로 법·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였음.

## ■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

- 문헌 고찰 결과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국내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정책, 국외 사례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립·은둔의 법적 근거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관련 근거를 살펴볼 수 있음. 전국적으로 36개 지역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서울 7곳, 인천 6곳 이외에 경기, 대구, 세종, 광주 등이 포함됨(2024년 5월 기준). 대부분의 조례가 청소년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대는 모두 같지 않음.
  -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 기관 및 단체가 운영되고 있음.
  - 히키코모리가 일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며 『히키코모리의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후 체계적으로 논의되었음. 2013년부터는 후생노동성이 히키코모리 서포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원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2015년과 2018년에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음. 일본 히키코모리 정책은 주로 후생노동성에 의해 계획, 시행되고 있으며 각 도도부현의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에서 각 지역의 히키코모리를 지원하고 있음.
  - 영국에서의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 양상 접근은 주로 ‘외로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2018년 정부의 외로움 전략 발표 이후,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외로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요구함.
-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 (규모) 응답완료 19,160명, 객관적 위험 5,484명(본조사 희망 4,789명)
  - (초고위험군) ‘방에서도 안나온다’ 응답 총 395명(응답완료자 중 2.1%)  
9-12세 33명(0.9%), 13-18세 254명(2.0%), 19-24세 108명(3.7%)
  - (응답자 특성) 심리상태 안 좋음, 도움이 필요하나 요청할 곳 없음  
(사회적 관계의 양) 비해당군 청소년 대비 현저히 적음

## 주요 연구결과(계속)

- \* (지난 2주간 가족·친척과 접촉) 0~2회 30.9% VS 9.0%(비해당군)
- \* (지난 2주간 친구·지인과 접촉) 0~2회 24.4% VS 3.5% (비해당군)  
(삶의 만족도, 정신 건강) 매우 낮은 상황(4.76점, 비해당군 평균 7.35점, 청소년 평균 6.61점)
- \* 9-12세: 고립·은둔군 5.90점, 비해당군 7.84점
- \* 13-18세: 고립·은둔군 4.85점, 비해당군 7.26점
- \* 19-24세: 고립·은둔군 4.14점, 비해당군 6.93점  
죽고 싶다는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2,139명 중 약 1,336명/ 62.5%)  
(온라인 활동 의존) 온라인 활동 의존 정도가 심각한 수준
- \* 주로 하는 활동(복수응답): OTT 서비스 시청(59.5%), SNS 커뮤니티 등 활동(48.0%), PC/모바일 게임(45.1%)

(고립·은둔 이유)(복수응답)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65.5%), 공부/학업관련 어려움(48.1%), 진로/직업관련 어려움(36.8%), 가족관련 어려움(34.3%)  
(회복 의지) 71.1%가 현재 상태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경험(9-12세 65.6%, 13-18세 68.3%, 19-24세 75.8%)

- \* 응답자의 55.8%는 현재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경험 있음(9-12세 41.7%, 13-18세 50.5%, 19-24세 61.7%), 반면, 도움받은 경험 없음 응답도 25.9%(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는 ① 도움 받기를 원하지 않아서(50.6%), ②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몰라서(20.2%), ③ 기타(13.5%))

(경제수준) 보통(42.4%), 낮은편(29.7%), 매우 낮은편(11.7%)  
(문제인식) 가족들이 문제로 인식하거나(27.3%) 고립·은둔으로 인해 갈등이 심각(6.5%)한 반면 모르거나(29.6%),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27.2%), 별관심이 없는 경우(9.4%)도 상당함. 스스로도 조금(34.3%) 또는 심각한(15.8%)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23.7%),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경우(8.5%)도 상당함

- \* 아버지와 사이가 나쁜 경우가 16.2%, 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경우가 10.5%, 형제자매와 사이가 나쁜 경우가 16.2%(사이가 좋은 경우 비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남)

## ■ 핵심 정책제언

### 핵심 정책제언

-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5개 영역과 13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함.

###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영역	추진과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령 마련</li> <li>② 고립·은둔 청소년 자치법규 마련</li> </ul>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생애주기에 따른 고립·은둔을 다루는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조직 마련</li> <li>② 학교현장을 통한 발굴의 확대와 단계별 연계와 협력</li> <li>③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li> </ul>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전문적 프로그램 및 평가 도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의 단계적·전문적 프로그램 개발</li> <li>② 국가차원의 공신력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척도 개발 및 보급</li> </ul>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li> <li>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li> <li>③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li> </ul>
고립·은둔 청소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립·은둔 청소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필요</li> <li>② 고립·은둔 이외 복합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서비스 제공</li> <li>③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li> </ul>

#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24-기본07

<b>제1장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3. 연구추진과정 .....	8
<b>제2장 이론적 배경</b> .....	<b>13</b>
1. 고립·은둔형 청소년 국내·외 연구동향 .....	15
2.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체계 .....	65
3. 외국의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체계 .....	73
<b>제3장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도구 작성</b> .....	<b>127</b>
1. 기존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 내용 및 문항 검토 .....	129
2. 전문가 자문 주요 내용 및 설문지 구성 .....	141
<b>제4장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b> .....	<b>157</b>
1. 조사 개요 .....	159
2. 조사 영역 및 내용의 구성 .....	161
3. 주요 조사 결과 .....	161

<b>제5장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 분석</b> .....	<b>185</b>
1. 연구 개요 .....	187
2.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에 대한 범주화 .....	192
3.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 과정 .....	193
<b>제6장 정책 제언</b> .....	<b>223</b>
1. 정책개요 .....	225
2. 정책과제 .....	228
<b>참고문헌</b> .....	<b>243</b>
<b>부 록</b> .....	<b>269</b>
1. 사전조사 설문지 .....	271
2. 본조사 설문지: 은둔형 청소년 .....	300
3. 본조사 설문지: 고립형 청소년 .....	333

## 표 목차

표 I -1. 주요 연구추진 과정 .....	8
표 II -1. 사회적 고립의 학술적 정의 .....	18
표 II -2. 사회적 은둔의 학술적 정의 .....	19
표 II -3. DSM-5-TR에 언급된 '히키코모리' .....	54
표 II -4. 지자체별 고립 관련 조례 현황 예시 .....	58
표 II -5. 지자체별 은둔 관련 조례 현황 예시 .....	60
표 II -6.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1차 스크리닝 기준 .....	62
표 II -7.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홍보 대상 및 내용 .....	64
표 II -8. 고립·은둔 청소년 운영 및 지원 기관 현황 .....	69
표 II -9.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운영 프로그램 .....	70
표 II -10. 지자체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치법규 대상 지원 내용 분석 .....	71
표 II -11. 히키코모리 주요 동향과 대책 .....	76
표 II -12. 히키코모리 조사 주요 결과(2015, 2018년) .....	77
표 II -13. 광의의 히키코모리 비율과 남녀비율 .....	78
표 II -14. 외출 빈도가 줄어든 이유 .....	78
표 II -15. 히키코모리 지원 로드맵 .....	82
표 II -16. 실시주체별, 지원 범주별 실천 사업 .....	83
표 II -17.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횡단회의 구성과 경과 .....	85
표 II -18. 동경도 히키코모리 지원 방향과 특징 .....	87
표 II -19. 동경도 히키코모리 방향과 실제 사례 .....	87
표 II -20. 효고현 히키코모리 주요 시책과 담당 부서 .....	90
표 II -21. 영국의 성인용 및 아동용 외로움 측정 도구 .....	96
표 II -22. 영국 정부 외로움 전략 청소년관련 약속(commitment) .....	107
표 II -23. 케어스 패밀리외 외로움 대응 핵심 정책 권고 .....	110
표 II -24. 영국 적십자사 외로움 대응 핵심 정책 권고 .....	112
표 III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관 차원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세부사항 .....	130

표 Ⅲ-2.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문항 비교 .....	143
표 Ⅳ-1.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조사지 구성 .....	161
표 Ⅳ-2. 조사규모 .....	162
표 Ⅳ-3. 시도별 인구비율 및 조사참여 고립·은둔 청소년 비율 .....	162
표 Ⅳ-4. 성별 .....	163
표 Ⅳ-5. 연령 .....	163
표 Ⅳ-6. 현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	164
표 Ⅳ-7.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	164
표 Ⅳ-8. 경제 수준 .....	165
표 Ⅳ-9. 삶의 만족도 .....	166
표 Ⅳ-10.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알게 된 경로 .....	167
표 Ⅳ-11. 고립·은둔 시작 연령과 이유 .....	168
표 Ⅳ-12. 고립·은둔 기간 .....	168
표 Ⅳ-13. 재고립·은둔 경험 .....	169
표 Ⅳ-14. 재고립·은둔 이유 .....	169
표 Ⅳ-15. 고립·은둔한 동안 주로 한 활동 .....	170
표 Ⅳ-16. 경제생활 .....	171
표 Ⅳ-17. 식사생활 .....	171
표 Ⅳ-18. 식사준비 .....	172
표 Ⅳ-19. 밤낮 바뀐 생활 .....	172
표 Ⅳ-20. 옷 갈아입기 .....	172
표 Ⅳ-21. 목욕·샤워 .....	173
표 Ⅳ-22. 세수·양치 .....	173
표 Ⅳ-23. 방정리 .....	173
표 Ⅳ-24. 신체 건강 .....	174
표 Ⅳ-25. 정신 건강 .....	174
표 Ⅳ-26. 심리정서적 어려움 .....	175
표 Ⅳ-27.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	175
표 Ⅳ-28.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과 대화 .....	176
표 Ⅳ-29.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 대화 .....	176
표 Ⅳ-30. 가족의 고립·은둔 상황인식 .....	177
표 Ⅳ-31. 본인의 고립·은둔 상황인식 .....	177
표 Ⅳ-32. 탈고립·은둔 생각 .....	178
표 Ⅳ-33. 탈고립·은둔 시도 .....	178
표 Ⅳ-34. 탈고립·은둔 노력 .....	178

표 IV-35. 탈고립·은둔 도움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	179
표 IV-36. 필요한 도움 .....	180
표 IV-37. 현재 자신의 상태 .....	181
표 IV-38. 현재 상태가 된 주된 이유 .....	181
표 IV-39. 현재의 어려움 .....	182
표 IV-40. 청소년관련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경험 .....	183
표 V-1. 질적 연구의 개요 .....	187
표 V-2. 면접 참여자 정보 .....	188
표 V-3.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 분석을 위한 면접 질문 내용 .....	189
표 V-4.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범주화 .....	192

## 그림 목차

그림 Ⅰ-1.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활용 자료 예시	11
그림 Ⅱ-1. 정신의학에서 심각한 사회적 은둔(히키코모리)에 대한 설명: 생물심리사회문화 모델	29
그림 Ⅱ-2. 심각한 사회적 은둔 발생에 관한 가설 모델	40
그림 Ⅱ-3. 은둔생활의 단계적 구분에 따른 변화	46
그림 Ⅱ-4. 히키코모리의 신체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에 기반한 다차원적 치료적 접근	47
그림 Ⅱ-5.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3.6)	65
그림 Ⅱ-6. 여성가족부 고립·은둔청소년지원체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3.6)	66
그림 Ⅱ-7.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원 체계 (관계부처 합동 2023.12.13)	67
그림 Ⅱ-8. 보건복지부 新취약청년지원추진체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2)	67
그림 Ⅱ-9.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의 서비스 지원체계	73
그림 Ⅱ-10. 일본의 히키코모리 시책의 전체 구조	82
그림 Ⅱ-11. 연령대별 보고된 외로움 빈도	97
그림 Ⅱ-12. 무상 급식 수급 여부에 따른 아동들의 보고된 외로움 빈도	99
그림 Ⅱ-13. 주관적 건강만족도에 따른 아동들의 보고된 외로움 빈도	100
그림 Ⅳ-1.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조사 접속 URL 및 QR 코드	160
그림 Ⅴ-1.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 도출 과정	225
그림 Ⅴ-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227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3. 연구추진과정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립·은둔형 청소년<sup>1)</sup>의 개념과 관련하여 은둔 청소년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개념 정의를 시도한 바 있으나 고립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 정의한 관계부처 합동(2023)에 따르면 은둔 청년은 “①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② 제한된 거주공간(방 또는 집)에 스스로를 가둔 청년”, 고립 청년은 “①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지만 ②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를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대적으로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 정의가 시도되었는데 학계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최근 정의들은 대체로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가족 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고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하되 정신지체나 정신질환이 원인이 아닌 경우”(김혜원, 2022)로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은 대략 1/3 내외의 고립·은둔이 청소년 시기에 나타난다고 보고한다(관계부처 합동, 2023; 박주홍·손지현·서두산, 2022).

청소년기의 고립·은둔은 청년기는 물론 성년기, 노년기까지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된다. 또한 학교가 문을 닫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립·은둔형 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나고 있다(서정아·조아미, 2023).

관계부처는 2023년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및 문제점, 지원을 위한 비전과 방향, 세부 지원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이 내용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첫 조사인 고립·은둔 청년 심층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 기본법

1) 본 장은 서정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상 청소년인 9세~24세를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또는 고립·은둔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박주홍·손지현·서두산, 2022; 서울특별시, 2022; 이상욱·김재희·박일연·이선미, 2022) 결과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서울특별시는 19세~39세, 부산광역시는 모든 연령, 광주광역시는 65세 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고립·은둔에 관한 사회적 관심 확대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으나(김미경, 2021; 김재희, 2023; 이진아, 2022; Kato, Tateno, Shinfuku, Fujisawa, Teo, Sartorius, & Kanba, 2012; Roza, Spritzer, Gadelha, & Passos, 2020) 고립·은둔형 청소년 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보호자나 고립·은둔형 청소년 소수를 심층 면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비, 의료비,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여성가족부, 2022). 그러나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고립·은둔되었는지,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과거에 겪었고 현재 겪고 있으며 어떠한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고위험군을 4만 3,000여명으로 추산한 이후(황순길 외, 2005)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연령인 9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립·은둔형 청소년 추산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일부 내용을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법, 제도적 보완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2019년 10월 광주시의회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조례를 국내 처음으로 통과시키며(「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제5282호, 2020. 7. 1. 시행) 지자체 차원에서 고립·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담론 수준에서 제도적 영역으로 끌어들이었으며, 뒤이어 제주·부산·서울 등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있다.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된 논의 또한 점차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기존의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3개월 이상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친구가 전혀 없고, 경제적 생산성이 없고, 혼자 있는게 괴롭지만 갈 곳이 없어 방에 틀어박혀 있는 청소년’(이영식, 2020)이라고 정의되었으나 최근의 고립·은둔형 청소년은 ‘IT 산업사회 발달로 집에는

있으나 IT 기술을 활용하여 외부와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안예린·권나현·김다경·이애리, 2024). 고립·은둔의 원인 또한 사회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 관련 특성(성별, 기질, 성격), 가정 관련 특성(출생 순위, 불안정한 부모와의 애착 관계, 부적절한 양육 태도, 가정 내 불화나 폭력, 잦은 이사나 전학), 학업 및 진로관련 특성(학교 부적응, 등교거부, 또래관련 어려움, 학교폭력,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 진로결정 어려움이나 진학 실패), 사회적 특성(사회적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하는 유교문화, 주체적 선택을 어렵게 하는 집단주의 문화, 과도한 경쟁사회와 취업전쟁, 사회의 공감 능력과 다양성 존중 부족, 인터넷과 게임 발달)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되는 추세에 있다(김혜원, 2022; 이경선, 2015; 이영식, 2020).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약 80% 이상이 남성에게서 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쟁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남성들이 절망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고립·은둔형 청소년이 된다는 주장 또한 나타나고 있어(이경선, 2015) 성별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고립·은둔이 일본·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적 사회적 현상이라는 주장에 반해 같은 동아시아 문화에서도 국가별 특성이 달라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한국의 징병제가 고립·은둔형 청소년이 사회로 유입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이영식, 2020) 연구 결과 고립·은둔형 청소년은 징병의무를 마친 후 다시 고립·은둔을 지속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정아·조아미,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 및 일본, 영국 등 외국 사례 검토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연령인 9~24세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첫 대규모 실태조사 와 더불어 보다 심도 있는 원인, 과정, 결과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청소년 심층면접, 현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첫째,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둘째,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개념, 유형, 원인, 과정, 어려움, 지원방안 등을 도출하고 셋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적, 실천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국내·외 학술·연구·정책 자료, 정부·지자체 입법 현황, 통계 수치 등을 토대로 국내·외 고립·은둔 연구 동향, 고립·은둔 지원 체계 및 실천 노력, 국내·외 서비스 및 정책, 서비스전달체계, 입법 현황 분석 및 제한점, 개선점, 외국 사례, 고립·은둔 설문 척도 등을 검토하였다.

### 2) 전문가 자문

연구 전반에 대한 수정·보완 사항, 고립·은둔형 청소년 설문조사 실시 방안(발굴, 섭외, 홍보 포함), 고립·은둔형 청소년 설문조사 문항 구성 및 수정·보완 방안,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당사자, 관계 부처 공무원, 현장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sup>2)</sup>

### 3) 양적 연구

9세~24세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되 고립·은둔 청소년 표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의 표집을 통해 2024년 6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선행연구(서정아, 조아미, 2023)와 고립·은둔 청소년 당사자 자문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회를 거쳐 웹 기반 조사로 실시하였다. 섭외가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조사의 경우 표집틀에 따른 대표성 있는 샘플보다는 눈덩이, 무작위 표집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중간점검하여 지역별, 성별,

---

2)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학계 전문가 5명, 현장 전문가 2명, 교사 전문가 3명(초, 중, 고 각 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청소년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문항, 청소년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 청년 실태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소년 설문지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처와 인용 범위를 명확히 표기한다면 연구윤리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립, 은둔을 판별하는 스크리닝 척도와 관련하여 청년 전문가의 경우 기존의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반해 청소년 전문가의 경우 우선은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청소년의 특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예: 취미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를 은둔으로 판별하는 것의 적절성 유의 필요). 셋째, 용어 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년대상 설문지를 초, 중, 고등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 편포되지 않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편포된 대상에 대한 표적화된 반복 홍보, 설문참여 독려를 실시하였다.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설문조사 실시 전 양적 연구 설문지와 질적 연구 질문지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였다 (승인번호 202404-HR-고유-010). 고립·은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특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부정적 낙인이 부여될 수 있는 바, 설문조사 참여대상을 9세에서 24세의 모든 청소년으로 하고 전국의 모든 초·중·고·대학교(약 85,000여개)와 17개 시도교육청, 파악 가능한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모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모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모든 복지관련 국립시설,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관련 부서 등에 공문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홍보함은 물론 다양한 공공기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포털사이트, 신문기사 등 가능한 많은 청소년들이 설문조사 실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 하였다.

#### 4) 질적 연구

고립·은둔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을 보다 심도깊게 탐색하고 분석하여 고립·은둔 청소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양적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 질적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한 달 동안 1명당 1시간에서 2시간 내외의 1:1 대면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고립·은둔하게 된 과정과 맥락, 고립·은둔의 발생원인 및 경로, 신체·정서·사회적 어려움, 사회관계망, 필요한 도움,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 등을 파악하였다.

#### 5) 정책 제안 도출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등을 토대로 법·제도적, 정책적, 실천적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 3. 연구추진과정

본 연구의 주요 연구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주요 연구추진 과정

일시	추진사항	세부내용
2024.1	정책연구실무협의회(1차)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2024년 연구과제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li> <li>- 참석자: (원내) 김00 원장, 최00 기획조정본부장, 황00 청소년삶의질연구실장, 서00 선임연구위원 등 (여성가족부) 김00 청소년정책관, 김00 청소년정책과장, 조0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전00 전문위원 등</li> </ul>
2024.2	정책연구실무협의회(2차) (여성가족부 프로젝트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고립·은둔청소년 조사대상 선정 방법, 온라인 웹조사 설문문항 검토 등</li> <li>- 참석자: (원내) 서00 선임연구위원, 최00 전문연구원 (여성가족부) 김00 청소년정책관, 김00 청소년정책과장, 조0 학교밖 청소년지원과장, 이00 사무관, 전00 전문위원 등</li> </ul>
2024.2	해외사례 전문가 자문회의 (본원 중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일본의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정책 및 지원동향에 관한 전문가 지문, 일본사례 집필의뢰 관련 사항 협의 등</li> <li>- 참석자: (원내) 서00 선임연구위원, 강00 선임연구위원, 최00 전문연구원, 박00 연구원 (외부) 김00 일본 아오모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li> </ul>
2024.3	실행계획서 심의회 (ZEP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고유과제 실행계획서 심의회</li> <li>- 참석자: (원내) 서00 선임연구위원, 강00 선임연구위원, 최00 전문연구원, 박00 연구원, 황00 청소년삶의질연구실장 (심의위원) 이00 광주대학교 교수, 허00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 김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li> </ul>
2024.3-4	외국의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문헌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고립·은둔관련 국내외 연구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해외 국가의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 서비스 등 문헌고찰(일본, 미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독일, 호주 사례 파악)</li> <li>- 결과: 문헌고찰 결과를 토대로 외국사례 집필의뢰 국가를 최종 일본, 영국으로 선정하여 집필 의뢰</li> <li>* 일본사례: 김00 일본 아오모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24년 3월~9월 계약)</li> <li>* 영국사례: 김00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영국 요크대학 박사)(2024년 4월~9월 계약)</li> </ul>

일시	추진사항	세부내용
2024.4.	정책연구실무협의회(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지 검토 및 연구방향 논의</li> <li>- 참석자: (원내) 서00 선임연구위원, 강00 선임연구위원, 최00 전문연구원 (여성가족부) 최00 청소년정책관, 김00 청소년정책과장, 조0 학교밖 청소년지원과장, 이00 사무관, 전00 전문위원 등</li> </ul>
2024.5	조사업체 계약 관련사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li> <li>- 조사업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수의계약)</li> <li>- 사업내용: 온라인 사전조사, 온라인 본조사(은둔형, 고립형) ※ 9-12세, 13-18세, 19-24세별로 별도 설문지 구성하여 총 3x3=9종 설문지 개발</li> <li>※ IRB 심의 및 웹구축 완료(2024.6.3.), 설문조사 실시 (2024.6.11.-8.31)</li> </ul>
2024.2-5	양적 조사 설문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과정</li> <li>·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 설문지 검토</li> <li>· 국내외 고립·은둔 관련 척도 검토</li> <li>· 설문지 구성 방식 협의 및 확정후 초안 작성</li> <li>· 척도 구성 및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진 집중검토 회의 개최(3회) 후 수정보완</li> <li>· 설문지 작성방식과 설문지(안)에 관한 전문가 자문 완료</li> <li>- 학계 전문가(5명): 김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00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00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최00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차0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부장</li> <li>- 고립·은둔 현장 전문가(2명): 주00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 김00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대표</li> <li>- 학교 현장 전문가(3명): 박00 서울 00초등학교 교감, 신00 경기 00중학교 교사, 조00 경기 00고등학교 교사</li> <li>- 청소년 자문(1차): 9-12세 1명, 13-18세 2명, 19-24세 4명 1, 2차 검토</li> </ul>
2024.5	정책연구실무협의회(4차)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최종설문지(안) 검토회</li> <li>- 참석: (원내) 서00 선임연구위원, 강00 선임연구위원, 최00 연구위원 (여성가족부) 최00 청소년정책관, 김00 청소년정책과장, 조0 학교밖 청소년지원과장, 이00 사무관, 전00 전문위원 등 (조사업체) 김00 시니어컨설팅트, 김00 홍보팀장</li> </ul>
2024.6-8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본원, 조사업체 공동 홍보 포스터 마련 및 배포</li> <li>· 설문 참여 독려 및 완주를 위한 캐릭터 디자인 마련</li> </ul>

일시	추진사항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조사 참여후 대상자 선정되었으나 본조사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 대상으로 일주일에 용기가 나는 문구를 첨부한 독려 문자 발송</li> <li>· 홍보대상 및 홍보방안, 업무 분담에 대한 사항 협의 완료(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업체 공동)</li> <li>· 관련부처, 공공기관, 전국 초중고대학교, 17개 시도교육청, 포털사이트,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기간 내내 수시로 공격적 홍보 실시</li> <li>· 그 결과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각 가정에 조사참여 독려를 위한 가정통신문 2회 발송 완료</li> <li>· 홍보과정에서 청소년의 공감대를 보다 확보하기 위해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 삽화가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삽화 포스팅 및 공유, 나의 고립·은둔 경험기 릴레이 글쓰기 활동 등을 통해 홍보 실시</li> </ul>
2024.9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참여자 중 도움희망 청소년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참여 완료한 2,139명 중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고 도움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청소년 총 592명 명단을 여성가족부에 전달 완료함 (개인정보 수집시 전달 주체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시)</li> <li>· 전달된 청소년 명단(연락처 포함)은 청소년 거주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달.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인근에서 고립·은둔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료함.</li> <li>· 단, 국무조정실와 여성가족부의 협의결과에 따라 20세 이상의 청년의 경우 거주 지역에 청년센터가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의사를 타진한 후 동의하는 경우 명단을 청년센터로 이관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li> </ul>
2024.8-9	고립·은둔지원현장 방문 및 현장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은둔지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전국의 5개(서울 2개 기관, 여수 1개 기관, 광주 1개 기관, 1명 전문가, 대구 1개 기관 총 6개 기관 현장 방문 및 자문 실시)</li> </ul>
2024.8-9	고립·은둔 청소년 심층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고립 또는 은둔으로 판정된 청소년 중 참여를 원한다고 개인정보동의서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성별 등을 안배하여 참여대상 인원 배분하고 유선 등 연락하여 다시 한번 참여의사 타진 후 참여를 밝힌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li> </ul>
2025.3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대국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대국민 발표하여 고립·은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론 및 방안 확대</li> </ul>

연구추진 과정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 조사 홍보 및 진행을 위해 활용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홍보용  
포스터

〈광고 노출 화면〉

온라인  
조사  
시스템 내  
조사 독려  
캐릭터

연령	캐릭터 제작 방향	온라인 조사 시스템 삽입			
		조사안내글 다음	생각과 욕구 파트 전	일반적 특성 파트 전	조사종료 후
9-12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톤앤매너로 어린 연령층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설문지를 캐릭터를 통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제시				
13-18세	학교를 다니는 대상자와 다니지 않는 대상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톤앤매너 제시				
19-24세	밝은 이미지 및 혼자가 아닌 주위의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톤앤매너를 간접적으로 제시				

조사원료를 위한 리마인드 문자 발송

<리마인드 문자발송 내용>	<리마인드 이미지>			
<p>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입니다. 시간 되실 때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소) 감사합니다!</p>	<p>8/9</p>	<p>8/12, 8/16</p>	<p>8/19, 8/23</p>	<p>8/26, 8/30</p>
<p>비록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달한다고 해도, 많이 풀리지 않았다면 어떤 어려움에서든 성공한 것이다 - 힘 이끄는 -</p>	<p>이걸 기억하겠다고 약속해 줬.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용감하고 강하고 독특하다는 걸 - 소설 '꿈들이 무우 중에서' -</p>	<p>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일어선다는 데 있다. - 넬슨 만델라 -</p>	<p>눈이 녹으면 땅이 되니까 선생님 이 물어보셨다 다들 물어 뭐라고 했다 소년은 물어 뭐라고 했다 - 문석민, 박승호, 데이머리, 우에서 -</p>	

그림 1-1.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활용 자료 예시



##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고립·은둔형 청소년  
국내·외 연구동향
- 2.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체계
- 3. 외국의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체계



## 1. 고립·은둔형 청소년 국내·외 연구동향<sup>3)</sup>

### 1) 청소년 고립·은둔에 관한 시각

청소년기 또래와 보내는 시간은 중기 청소년기에서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또래 경험, 또래 관계망 등이 청소년기 안녕감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유선, 손은령, 2015; Ohannessian, Milan, & Vannucci, 2017). 더불어 또래와 어울리고 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박과 기대 또한 증가한다(McCormick, Hodges, & Simone, 2015). 그렇다면 ‘청소년기의 고립·은둔은 부정적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학자들의 시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 ① 청소년 고립·은둔에 대한 중립적 시각

청소년기는 어떠한 형태의 ‘고독’은 잠재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가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처음 깨닫는 시기이다(Long & Averill, 2003; Weinstein, Nguyen & Hansen, 2021).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의 시간은 개별화와 자아정체감 형성에 필요한 건설적인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Stavros, 2015)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 스스로도 고독의 시간이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서정아, 조아미, 2023; Larson, 1997).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함께 있는 시간 만큼 혼자 있는 능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며 프라이버시 또한 중요하게 간주된다(최연실, 배희분, 2017; Wisniewski, Vitak & Hartikainen, 2022).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은둔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3) 2장의 1절은 서정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 ② 청소년 고립·은둔에 대한 우려의 시각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점차 벗어나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사회 정서, 사회 인지, 학업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Simmons, 2017). 이로 인해 주변부에서 상당 시간을 혼자 보내는 경향이 있는, 즉 또래에 비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은 종종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또래 상호작용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발달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받게 된다(Barzeva, Meeus, & Oldehinkel, 2019). 즉, 아동기에는 비사교성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데에 반해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비사교성이 부정적 결과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다(Rubin et al., 2010). 사회적 은둔이 청소년 혹은 후기 청소년기에 부적응적이거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또한 축적되고 있다(Bowker, Rubin & Coplan, 2016). 청소년의 고립·은둔을 무조건 부정적 시각만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으나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이 심화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청소년기 적응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Laursen & Hartl, 2013; Rubin, Bowker & Gazelle, 2010; Rubin & Lollis., 2015). Harding(2018), Dong 등(2022)은 지속된 심각한 사회적 은둔은 개인 정신 건강 뿐 아니라 국가수준의 노동력 안정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보건, 복지 및 노동 행정에 심각한 우려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은둔 청소년이 적절한 개입을 통해 식별되고 도움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을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Li & Wong, 2015).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에 관한 연구에서 애착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을 부정적 현상으로 보는 반면, Erikson의 발달 이론을 채택하는 연구자들은 이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Li & Wong, 2015).

## 2) 청소년 고립·은둔의 등장과 전세계적 보편성

심각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은둔을 일컫는 일본어인 히키코모리 현상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일본에서 ‘무단결석’ 또는 ‘등교 거부’와 연관되어 유래되었다. 이후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정신과의사인 Saito가 이들 사례 중 상당수를 ‘사회적 은둔’ 또는 ‘히키코

모리'라는 용어로 명명하였다(Kato, Kanba & Teo, 2019).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현대형 우울증(modern-type depression: 이하 MTD) 또한 청소년 사이에서 점점 더 큰 문제로 언급된다. 현대형 우울증과 사회적 은둔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되는데 Tarumi(2005)는 현대형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 직후에 우울한 기분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와 직장 등 사회 환경에서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의 장기화가 사회적 은둔으로 이어지는 '관문 장애(gate-way disorder)'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고한다. 사회적 은둔과 현대형 우울증의 공통점은 사회회피적 경향성으로 현대형 우울증의 지속은 심각한 사회적 은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Kato & Kanba, 2017). 현대형 우울증의 병전(premorbid)은 자기중심성, 사회적 회피 및 자기애적 경향, 쉬운 트라우마화, 낮은 적응유연성인데 이는 사회적 은둔의 특성과 일치한다(Kato et al., 2019).

심각한 지속적 은둔 현상 현상은 처음에 일본 사회만의 문제로 치부되었으나 이후 오만, 스페인, 호주,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 한국, 대만, 태국,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Sakamoto et al., 2005; Saito, 1998; Garcia-Campayo et al., 2007; Kato et al., 2011; Kato, Kanba & Teo, 2019에서 재인용). 사회적 은둔은 각국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한다. 일본에 비해 미국은 더 강한 외로움을 나타내며 인도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잘 유지되는 반면 기능 장애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고된다. 한국은 강한 외로움, 친구와의 교류 감소, 높은 수준의 기능 장애를 보고한다(Teo et al., 2015).

Kato 등(2019)은 각국의 사회적 은둔 연구가 참여자 수가 매우 적고 사례 수집 방법이 다양하여 표본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국제 설문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은둔 현상은 동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현대 사회 증후군'으로 간주되고 있다(Kato, Kanba & Teo, 2019).

### 3) 고립·은둔 청소년 개념 정의

고립과 은둔은 구별된 개념임에도 종종 혼재되어 혹은 함께 사용되고 있다(Kato, Kanba & Teo, 2019). Bowker, Rubin과 Coplan(2016)은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스스로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사회적 은둔과 청소년이 배제, 거부, 고립된 상태인 사회적 고립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고립은 주로

‘social isolation’으로 은둔은 주로 ‘social withdrawal’로 표현하고 있다. 본 고에서도 해당 표현을 활용한 논문을 살펴보되 가능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다.<sup>4)</sup>

### ① 고립 청소년 개념 정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이자 정책적 이슈이다.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사회적 고립을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접촉이 부족하거나 드문 객관적인 상태”로 정의하며(World Health Organization, n.d.)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사회적 고립을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의 접촉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한다(OECD, 2023). OECD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노동시장, 경제 및 교육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Matthews et al., 2017).

표 II-1. 사회적 고립의 학술적 정의

학자(연도)	정의
Nicholson (2009)	개인이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타인과의 교류가 부족하며, 사회적 접촉이 최소한에 그치고, 만족스럽고 질적인 관계가 결여된 상태.
Cornwell & Waite (2009)	사회적 단절은 소규모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드문 사회 활동 참여로 특징지어지며, 인지된 고립은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의 부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Cacioppo & Hawkey (2009)	인지된 사회적 고립(즉, 외로움)은 전반적인 인지 수행 저하, 실행 기능 저하, 빠른 인지 쇠퇴, 부정적이고 우울한 인지, 사회적 위협에 대한 민감성 증가, 자기 보호적인 확증 편향 등과 관련된 위험 요인이다.
National Academies (2020)	사회적 고립은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사회적 접촉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제한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이 적고, 사회적 접촉이 드물거나, 잠재적으로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Tomaka, Thompson & Palacios (2006)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들과의 객관적인 물리적 분리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혼자 살거나, 작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며, 사회적 접촉 빈도가 낮은 것으로 관찰된다.

4)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용어로 일본에서는 ‘프리터’, ‘오타쿠’, ‘히키코모리’ 등이 있으며 영미권에서는 취업에도 학업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니트(NEET)’, 독립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와 함께 사는 미국의 젊은이를 묘사하는 ‘슬래커(slacker)’, ‘트릭스터(twixter)’, ‘성인청소년(adultolescent)’, 실업 상태로 더 이상의 학업을 추구하지 않는 홍콩의 ‘NEY(Non-Engaged Youth)’ 등이 있다(Li & Wong, 2015).

\* 출처: "Nicholson Jr, N. R. (2009). Social isolation in older adults: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6), 1342-1352."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Measuring social isolation among older adults using multiple indicators from the NSHAP study.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4(suppl\_1), i38-i46." "Cacioppo, J. T., & Hawkley, L. C. (2009). Perceived social isolation and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3(10), 447-454."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Medicine, Division of Behavioral, Social Sciences, Medicine Division, Board on Behavioral, ... & Loneliness in Older Adults. (2020).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 Opportunities for the health care system. National Academies Press." "Tomaka, J., Thompson, S., & Palacios, R. (2006). The relation of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to disease outcome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8(3), 359-384."

## ② 은둔 청소년 개념 정의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에 관한 개념 정의는 임상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나 정의 또는 진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Li & Wong, 2015). 국제기구나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social withdrawal'을 정의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경우 정신건강보고서나 최신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ICD-11)에서 사회적 은둔이 우울증, 조현병, 자폐 스펙트럼 등의 증상으로 기술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일본 후생성의 경우 '히키코모리(hikikomori)'라는 용어로 사회적 은둔을 정의하고 있는데 2003년과 2010년의 일본 후생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히키코모리는 '6개월 이상 가정에 머무르며 사회참여(학교, 직장, 인간관계 등)을 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된다(Suwa & Suzuki, 2013).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사회적 은둔을 명확히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개념인 사회적 고립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24). 주요 학술 논문에서는 사회적 은둔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사회적 은둔의 학술적 정의

학자(연도)	정의
Saito Tamaki (1998)	사회로부터 완전히 철수하여 6개월 이상 집 안에 머무르며, 다른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 상태의 주요 원인을 더 잘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Teo & Gaw (2010)	거의 모든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사회적 상황과 관계를 회피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이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상태.

5) Li와 Wong(2015)은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에 대한 체계적 문헌 검색을 위한 키워드로 '청소년 사회적 은둔', '히키코모리', '심각한 사회적 은둔', '지속적인 사회적 은둔', '장기적인 사회적 은둔', '일차적 사회적 은둔', '사회적 은둔', '숨겨진(hidden) 청소년' 등을 활용하였다.

학자(연도)	정의
Kato, Kanba & Teo (2020)	집 안에서의 현저한 사회적 고립,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사회적 고립 기간, 그리고 이 고립과 관련된 상당한 기능 장애 또는 고통.
Dong et al. (2022)	히키코모리는 주로 청년층에서 관찰되는 심각하고 종종 장기적인 사회적 철수로, 처음에는 일본에서 설명되었지만 현재는 많은 다른 국가에서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Tajan (2021)	개인이 심각한 사회적 은둔 상태에 있어, 종종 한 방에만 머무르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기간 동안 집 안에 자신을 가두는 상태.

\* 출처: "Saito, T. (2013). Hikikomori: Adolescence without end (J. Angles,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p.22", "Teo, A. R., & Gaw, A. C. (2010). Hikikomori, a Japanese culture-bound syndrome of social withdrawal? A proposal for DSM-V.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8(6), p.446." "Kato, T. A., Kanba, S., & Teo, A. R. (2020). Defining pathological social withdrawal: Proposed diagnostic criteria for hikikomori. World Psychiatry, 19(1), p.116". "Dong, M., Wang, D., Jiang, Y., Wu, Z., Chen, R., ZhaOrganisationg, Q., & Ungvari, G. S. (2022). Prevalence of hikikomori in China: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urvey. Asian Journal of Psychiatry, p.167.", "Tajan, N. (2021). Hikikomori in Japan: Beyond the cultural construct. Palgrave Macmillan. p.xi."

Li와 Wong(2015)은 은둔의 정의를 '임상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사회적 은둔의 '임상적 정의'와 관련하여 2010년에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서 심각한 지속적 사회적 은둔을 나타내는 히키코모리는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 참여(의무 교육을 포함한 등교 수업 참여, 시간제 일자리를 포함한 고용, 기타 가정 밖에서의 상호작용)로부터 은둔한 상태로,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집에 갇혀 있는(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피해 집을 나서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음) 상태'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히키코모리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된 경우를 제외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히키코모리의 상당수가 진단 이전에 이미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들 간의 관련성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Saito, 2010; Kato, Kanba & Teo, 2019에서 재인용). 그 예로 일본 정부가 2003년에 발표한 공식 지침에서는 히키코모리가 조현병이나 기타 알려진 정신병리의 징후가 없다는 진단 기준을 제시했지만, 히키코모리를 정의하기 위해 지침을 수정한 5개의 논문 중 모든 정신 질환을 제외했던 논문은 단 3개뿐이었다(Suwa & Suzuki, 2013; Teo, 2010; Teo & Gaw, 2010). 2010년 개정된 지침을 사용한 2편의 논문에서는 '조현병 환자는 정신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히키코모리와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Kondo et al., 2013; 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어떠한 정신질환과도 관련 없는 '1차 히키코모리'와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2차 히키코모리'의 두 가지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Kato, Kanba & Teo, 2019).<sup>6)</sup>

사회적 은둔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해서는 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성, 사회적 관계, 생활 장소, 은둔 기간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 따라 정의가 다르게 나타난다.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를 은둔으로 보기도 하고 '간헐적인 외출을 하는 경우'까지 은둔으로 보기도 한다. Heinz와 Thomas(2014)는 이를 '심한(hardcore) 은둔 청소년'과 '약한(soft) 은둔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심한 은둔 청소년'은 결코 자기 방을 떠나지 않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 데 반해 '약한 은둔 청소년'은 가끔 나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은둔 기간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의 은둔 기간을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이나 홍콩의 경우 '3개월'과 같은 더 짧은 기간을 문제로 보고 있기도 하다(Li & Wong, 2015).

최근 들어 좀 더 개정된 방식의 사회적 은둔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임상분야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Kato 등(2019)은 Saito(2010)의 히키코모리 척도를 개정하여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히키코모리 진단 기준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히키코모리의 개념을 '병리적 사회적 은둔 또는 사회적 고립의 형태로 본질적으로 집에서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 집에서의 뚜렷한 사회적 고립, (㉡)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사회적 고립 상태, (㉢)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고통**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그들은 외출을 빈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는데 '가끔씩 집을 나서는 사람(주 2~3회)', '거의 집을 나서지 않는 사람(주 1일 이하)', 그리고 '방 한 칸도 거의 나가지 않는 사람'을 각각 약한 정도의(mild), 중간 정도의(moderate), 심각한(severe) 히키코모리로 분류하였다. 자주 집을 나서는 사람(주 4일 이상)은 히키코모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sup>8)</sup>. 히키코모리를 판단하는 기간도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적 은둔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정도의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

6) 사회적 은둔을 정신질환 유무로 1차와 2차로 분류하는 장점은 사회적 은둔을 경험한 사람에게 기존의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나 사회적 은둔에 정신질환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는 학자들 간에 불일치가 존재한다(Li & Wong, 2015).

7) 일반적으로 히키코모리는 '사회적 은둔'과 관련하여 설명지어 지는 데 반해 Kato 등(2019)은 히키코모리를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은둔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두 개념을 혼재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세계정신의학(World Psychiatry, 2020)에도 히키코모리의 외출 빈도를 주 3회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Kato, Sartorius & Shinfuku, 2024에서 재인용).

은둔한 경우는 히키코모리 전 단계(pre-hikikomori)라고 보고 있었다. 히키코모리가 발현되는 연령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또는 후기 청소년기로 제시하였으며 일부는 30대 이후 발현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심각한 사회적 은둔의 추가적인 특성 분석을 위한 부가적 기준을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참여 부족’**과 관련하여 학교, 직장, 병원 진료 등의 활동에 가끔(주 2~3일) 또는 주 1일 이하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 되며 이를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하 NEET)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한다.<sup>9)</sup> (2) **‘대면적(in-person) 사회적 상호작용 부족’**과 관련하여 가끔(주 2~3회) 또는 드물게(주 1일 이하) 집 밖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면적 사회적 상호작용(대화)을 하는 경우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처럼 함께 동거하는 사람과도 대면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 주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예: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히키코모리 개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3) **‘간접적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현대 사회의 인터넷 확산으로 웹 기반 또는 기타 기술을 통한 ‘간접’ 의사소통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간접적 의사소통을 직접 의사소통과 비교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일부 사례에서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또는 온라인 게임과 같은 온라인 도구를 통해 매일 양방향 간접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4) **‘외로움을 동반함’**과 관련하여 히키코모리 상태인 개인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스스로 인정하며 이러한 외로움은 히키코모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5) **‘동반 질환’**과 관련하여 히키코모리는 회피성 성격 장애(비판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고립), 사회 불안 장애(부끄럽거나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상황을 회피), 자폐스펙트럼 장애(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결핍), 조현병(정신질환의 양성 혹은 음성적 징후로 인한 고립) 등 여러 정신질환이 동반될 수 있다. (6) **‘발현 연령’**과 관련하여 많은 경우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에 발현하지만 30대 이후에 발현하는 경우도 있다. (7) **‘가족 패턴과 역학’**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와 양육 방식이 히키코모리 발달에

---

9)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기간 이후 시대에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새로운 표준’으로 널리 퍼져, 외출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 되지 않아 사회적 은둔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Kato, Sartorius와 Shinfuku(2024)은 외출 빈도 측면에서 사회적 은둔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 중 다수는 건강하고 병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모두 사회적 은둔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과보호적인 양육 방식 또는 아버지의 개입 부재가 이 현상의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8)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병리적인 사회적 은둔은 원래 일본에서 주로 특징화되고 기술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른 국가 특히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확인되었다. (9) ‘개입 방법(intervention)’과 관련하여 확립된 근거기반적 개입방법은 아직 없지만, 약물치료(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다양한 심리치료, 사회사업, 가족 개입이 제공되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개별화된 정밀한 접근을 하도록 권장되고 있다(Kato, Kanba & Teo, 2019).

이들의 새로운 히키코모리 진단 기준은 일부 한계점은 있으나 기간과 외출 빈도 등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 현대 사회의 특성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간접적 소통의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앞으로의 사회적 은둔 진단 체계를 보다 심화하고 세부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up>10)</sup>

#### 4) 종단적 고립·은둔 청소년 연구 사례와 함의

##### ①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환경 위험 종단 쌍둥이 연구: 고립에 관한 종단조사

사회적 고립을 연구한 대표적 종단조사로는 1994년과 1995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태어난 2,232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종단 쌍둥이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5세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의 보고를 통해 12세 아동의 자기 보고 측정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는 연구로 국가를 대표하는 종단적 코호트 연구로 평가된다. 표본은 1994년과 1995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태어난 쌍둥이의 대규모 출생 기록에서 추출되었으며 그 중 환경 위험(E-risk) 표본은 1999년과 2000년에 구축되었으며 이때 동성 5세 쌍둥이를 둔 1,116가구가 가정 방문 평가에 참여하였다. 후속 가정방문은 부모의 사전 동의와 아동의 동의를 받고 아동이 7세, 10세, 12세일 때 실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6개 항목을 사용하여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는 바 있다((Mattews et al., 2015).

10) 이 외에도 Teo 등(2018)은 일본 후쿠오카에 거주하는 399명의 일본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의 히키코모리 상태의 심각도를 파악하기 위해 ‘히키코모리 25개 문항 설문지(HQ-25)’라는 자가 평가 척도를 개발하였다(Teo et al., 2018). HQ-25는 세 가지 요인을 포함하는데 (㉠) 물리적 고립(히키코모리의 핵심 특징), (㉡) 사회화 부족, (㉢) 정서적 지원 부족이 그것이며 이중 사회화 부족과 정서적 지원 부족은 물리적 고립을 강화하는 매개 요인이다. HQ-25를 기반으로 Hiki-Lab@Q는 최근 ‘히키코모리 설문지 1개월 버전(HQ-25M)’라는 새로운 자가 평가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1개월 이내의 히키코모리와 유사한 상태를 측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Kato et al., 2023).

## ② 워털루 종단 프로젝트(The Waterloo Longitudinal Project):

### 은둔에 관한 종단조사

아동기의 사회적 은둔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한 첫 종단연구로 북미에서 1980년대에 워털루 종단 프로젝트(The Waterloo Longitudinal Project: 이하 WLP)가 시작되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고독 뿐 아니라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상호작용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정도를 조사할 수 있는 분류법을 개발하였다(Rubin, 1982; Rubin & Tuscano, 2021에서 재인용). 조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처음에는 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를 하는 과정을 관찰하였고 이들이 2학년, 4학년, 5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또래 평가를 통해 사회적 은둔과 고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척도를 개발하였다. WLP(1980-1995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찰 및 또래 평가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은둔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은둔 청소년은 비은둔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우정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은 추후 연구를 위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사회적 은둔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및 기타 웹 기반 평가를 언급하였다(Rubin & Tuscano, 2021).

## 5) 고립·은둔과 정신질환

Kondo 등(2013)과 Dong, Li와 Baker(2022)는 심각한 사회적 은둔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APA)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 상의 조현병, 기분 장애, 불안 장애, 인격 장애, 광범위한 발달 장애와 광범위하게 공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은둔이 우울증을 기반으로 하는지 정신질환을 기반으로 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치료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은둔과 공존하는 다른 질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Dong, Li & Baker, 2022; Kondo et al., 2013). Kato 등(2019)은 정신질환이 심각한 사회적 은둔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각한 사회적 은둔이 정신 질환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정신분열증 및 정신병, 우울증, 사회불안장애 및 기타 불안관련 장애, 성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및 외상관련 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기타 정신질환 및 신경발달장

에, 적응장애, 자살,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은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은둔 유사 증상 등에서 심각한 사회적 은둔이 동반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한다. Ito(2003) 또한 실제로 심각한 사회적 은둔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질병과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강조한다<sup>11)</sup>. 이전까지 심각한 사회적 은둔을 일컫는 히키코모리는 어떠한 정신질환도 없는 상태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히키코모리를 1차 히키코모리, 정신장애가 동반된 히키코모리를 2차 히키코모리로 나누어 살펴보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Dong, Li & Baker, 2022).

## 6) 청소년 고립·은둔의 특성과 기전

사회적 고립, 사회적 은둔<sup>12)</sup>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은둔을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Bowker, Rubin & Coplan, 2016). 그럼에도 연구자들은 청소년기 사회적 회피의 원인과 기전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Coplan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고립·은둔 연구 중 특히 ‘청소년’ 제한적으로는 ‘청년’이 연구 대상에 포함된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 ① 청소년 고립·은둔의 특성과 생물학적 기전

사교적인 또래에 비해 은둔 청소년은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기회를 덜 활용하며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낸다. 일부 청소년은 경계심과 불안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제한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 또는 장소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린 청소년은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 회피, 긴장 등 행동 억제적 기질 특성을 보이며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연연 중에 평가 받고 있다고 느끼는 등 불편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있는 청소년은 수줍음을 나타낸다(Kagan, 1997; Bowker, Rubin

11) Ito(2003)는 사회적 은둔을 고려할 때에는 (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심각한 사회적 은둔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 (ㄴ) 좁은 의미의 정신질환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 (ㄷ) 사회적 은둔의 일반적 특징으로 개인의 세부적인 성격과 심리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2) 지속적으로 심한 사회적 은둔을 해의 연구에서는 주로 히키코모리(hikkikomori)(Dong, Li & Baker, 2022; Li, & Wong, 2015; Kato et al., 2012; Kato, Kanba & Teo, 2019),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은둔형 외톨이(김도희, 2024; 김혜원, 2022;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로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히키코모리는 ‘몰러나다(hiku)’와 ‘은둔하다(komoru)’를 합친 복합 동사의 과거형으로 1990년대 후반 일본 정신과 의사 Saito가 ‘히키코모리-끝없는 사춘기’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명사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Kato, Kanba & Teo, 2019).

& Coplan, 2016에서 재인용). Gazelle(2010)은 특히 또래 관계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은둔하는 경우를 일컬어 ‘불안으로 인한 고독’이라고 표현한다. 불안으로 인한 고독 행동의 병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영·유아기의 생물학적 행동 억제 기질이 중기, 후기 청소년기의 수줍음과 불안으로 인한 은둔의 중요한 예측인자라고 보고한다(Fox et al., 2023). 더 나아가 연구자들은 초기 생물학적 행동 억제 기질이 청소년기의 불안 장애 특히 사회적 불안 장애를 예측한다고 하였다(Lewis-Morrarty et al., 2015). 일반적으로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또래 이성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자의식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사회불안 장애 진단의 비율도 증가한다(Lewis, 2019). 이러한 유형의 장애는 개인이 익숙하지 않은 타인을 만나거나 타인에 의해 평가 또는 지속적인 관찰을 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강한 두려움 또는 불안으로 특징지어 진다(Locatelli et al., 2022). 일부 청소년은 비사교적(또는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다)이라고 묘사되며 종종 혼자 놀기를 선호한다(Coplan et al., 2014). 사회적으로 은둔하는 행동은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까지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은둔의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다고 보고된다(Rubin et al.,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또래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교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고독 행동은 그 이후 청소년기의 사회-감정적 어려움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내포 한다(Coplan, Ooi & Hipson, 2021). 그러나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에 지각된 비사교성이 발달 과정에서 증대한 부정적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Bowker, Rubin & Coplan, 2016). 요약컨대 사회적으로 회피적인 청소년은 고독을 희망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피하려고 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 7) 청소년 고립·은둔을 설명하는 모델 또는 이론들

다음에서는 청소년 고립·은둔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 또는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sup>13)</sup>

정상적인 사회관계와 사회기술의 발달을 위해 또래 상호작용과 또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연구의 이론적

---

13) 본 챕터는 Bowker, Rubin & Coplan(2016)의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기틀을 제공하였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예를 들어 Piaget(1932)는 또래 관계는 청소년이 상충되는 아이디어와 설명을 검토하기 위한 기회를 경험하고, 다양한 관점을 협상하고 논의하고, 또래에 의해 제시된 논의들과 타협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독특한 발달적 맥락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은 타인의 관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능력, 즉,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과 의미 있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고 간주된다.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은 또래와의 직접적인 지도와 서로 간의 관찰을 통해 사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래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은 비규범적인 사회행동은 처벌하거나 무시하는 한편,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유능하다고 느껴지는 행동은 긍정적으로 보상하거나 강화한다(Bowker, Rubin & Coplan, 2016에서 재인용).

### ② 정신의학에서의 대인관계이론(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sup>14)</sup>

Sullivan(1953)은 그의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대인관계이론에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우정과 이후 낭만적 관계에서 수용과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청소년(아마도 사회적 회피와 은둔으로 기인한)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였다(Bowker, Rubin & Coplan, 2016에서 재인용).

### ③ 행동학 이론(Ethological theory)<sup>15)</sup>

Hinde(1987)의 행동학 이론에서는 생물학과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해체하는 능력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적 행동과 조직구조는 생물학적 제약에 의해 제한되며 적응적 진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 행동학 이론의 핵심 개념이다. 이러한 이론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심리학자들은 또래 상호작용과 관계가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사회 정서적, 사회 인지적, 심리적 적응과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 또래와 거의 교류하지 않는 청소년의 발달 과정을 명확하게 예측하는 단일 발달 이론은 없으나 위의 이론들을 통해 또래와 교류하지 않는 청소년이 성장,

14) 본 챗터는 Bowker, Rubin & Coplan(2016)의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15) 본 챗터는 Bowker, Rubin & Coplan(2016)의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학습, 그리고 발달의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은둔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Bowker, Rubin & Coplan, 2016에서 재인용).

#### ④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Hattori(2006)은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을 불안정한 애착의 결과로 설명하였다(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Bowlby(1982)는 초기 생애의 애착 안정성이 개인의 이후 사회적 상호 작용 및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회피적 애착과 양가적 애착을 가진 청소년은 다른 방식으로 은둔한다고 보고된다. 회피적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애착 대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연결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 관계의 상호의존성을 회피한다.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 행동은 회피적인 개인이 반응이 없는 인물과 애착에 관한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회피 전략의 형태로 인식되므로 사회적 상황은 물론 군중, 대중교통, 공공장소까지 사회적 접촉을 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부한다. 반면에 양가형 애착을 가진 청소년은 애착 대상의 일관성 없는 애착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 그들은 애착을 얻고자 시도하고 때때로 얻기도 하지만 애착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애착 연구자들은 양가적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은둔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Kreig와 Dickie(2013)은 분석을 통해 양가적 애착과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였다(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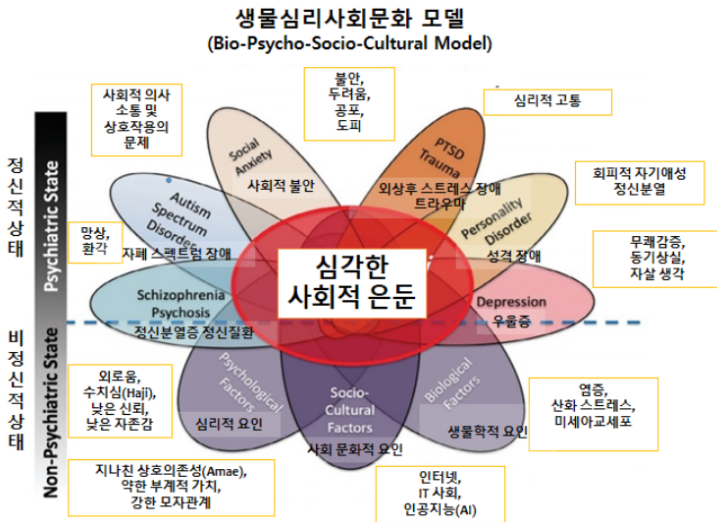
#### ⑤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Erikson's Stages of Psychosocial Development)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은 심리사회적 발달 위기에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친밀감과 고립감의 갈등은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기 단계에서 강조된다고 하나(Erikson, 1950; 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은 대개 10대 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단 증상 또한 일반적으로 15~19세의 청소년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청소년기 단계의 정체성 위기가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심리사회적 위기는 청소년 정체성

형성 문제에 대처할 때 재구성되거나 재통합된다. 과도기를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개인들에게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점진적으로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심리적 유예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Furlong, 2008; 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⑥ 생물심리사회문화 모델(Bio-Psycho-Socio-Cultural Model)

최근 전문가들은 사회적 은둔을 진단하기 위해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의학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은둔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인간 행동에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생물심리사회문화 모델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 은둔은 사회적 상황 또는 판단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회피 전략 즉 특정한 종류의 대처 전략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장애가 아닐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결국 장애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심각한 사회적 은둔을 정신 질환 여부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은둔 현상의 본질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Kato, Kanba & Teo, 2019).



\* 출처: "Kato, T. A., Kanba, S., & Teo, A. R. (2019). Hikikomori: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futu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3(8), p. 430"을 재구성.

그림 11-1. 정신의학에서 심각한 사회적 은둔(히키코모리)에 대한 설명: 생물심리사회문화 모델

## 8) 청소년 고립·은둔 측정을 위한 접근 방법

사회적 은둔과 관련 구성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와 방법론적 접근이 활용되어 왔다.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은둔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측정 방법은 부모나 교사에 의한 평가와 아동에 대한 행동 관찰이다. 그러나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또래에 의한 평가와 자기 보고 평가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청소년이 그들 자신과 타인의 사회적 행동에 대해 가장 잘 보고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 상태와 시간을 보내는 방식 및 이유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Rubin et al., 2006). 아동과 달리 청소년들의 사회 행동은 종종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보고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 ① 또래 평가

또래 보고의 내용에는 청소년 자신이 생각하는 매우 수줍은 또래 구성원이나 그룹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또래 구성원 등을 지명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ubin et al., 2006). 이러한 방법론은 보편적으로 수줍음과 불안을 지닌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을 식별하는데 사용된다(Burgess et al., 2006; Oh et al., 2008). 예를 들어 몇몇 연구자들은 또래 지명 기법을 활용하여 수줍음이 많아 홀로 있거나 비사회적인 학령기 청소년을 성공적으로 식별하였다(Ladd et al., 2011; Liu et al., 2015; Spangler & Gazelle, 2009).

### ② 자기 보고 평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기 보고 측정 방법(self-report measure)이 사회적 은둔의 다양한 원인과 동기와 관련된 고독 친밀 선호 경향성과 같은 관련 구성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13; Wang et al., 2013). 고독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은 며칠 동안의 기간 동안 자신의 사회적 활동과 혼자 보낸 시간 등에 대해 일기를 쓰도록 요청 받기도 한다(Larson, 1997; Bowker, Rubin & Coplan, 2016에서 재인용). 또 다른 연구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혼자 있거나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고독에 대한 선호, 평가,

태도를 순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험적 샘플링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Van Roekel et al., 2015).

## 9) 청소년 고립·은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① 생리학적 특성

왜 어떠한 청소년은 다른 청소년보다 보다 은둔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사회적 은둔에는 생리학적 기질 특성이 작용한다는 상당한 증거가 연구 결과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영유아기의 행동 억제적 특성이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기의 사회적인 소극성과 사회적 불안행동을 예측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hronis-Tuscano et al., 2009; Kato, Kanba & Teo, 2019; Perez-Edgar et al., 2010). 이러한 관련성은 특히 특별한 생리적 특성을 드러내는 극도로 소극적인 아동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영유아기 행동 억제적 특성에 있어 초기, 중기 아동기의 사회적 소극성과 사회적 불안적 고독과 그 이후 청소년기의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르티솔(cortisol)의 높은 수치, 더 낮은 심박수 변동성, 오른쪽 전두엽 뇌파(EEG)의 비대칭, 높은 자율신경 반응성, 높은 놀람 반응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Degnan & Fox, 2007; Fox et al., 2001; Henderson et al., 2004; McManis et al., 2002; Bowker, Rubin & Coplan, 2016에서 재인용). 유아기의 행동 억제 특성과 청소년기의 사회적 불안 사이의 관련성은 주의력 모니터링 강화에 의해 완화된다고도 보고된다(McDermott et al., 2013). 사회적으로 매우 억제하고 경계심이 강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반응성이 더 높거나 더 쉽게 흥분하는 생리학적 특징(편도체와 피질, 시상하부, 교감신경계, 편도체, 중추회색체로의 투사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 억제, 은둔, 사회적 불안에 있어 유전적 소양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한다(Hariri et al., 2002).

### ② 부모

생리학과 유전학 이외에도 부모-자녀 관계의 다양한 측면 즉 ‘애착관계의 질’, ‘자녀의 욕구에 대한 부모의 신념’, ‘회피적, 부정적, 방임적 양육 신념과 양육 실천’ 등이 사회적 은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wker, Rubin & Coplan, 2016).

애착과 관련하여 영유아기 행동 억제적 특성과 아동기의 사회적 소극성은 불안정한 애착에 의해 예측된다고 보고된다(Booth-LaForce & Oxford, 2008). 또한 은둔 아동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잉보호적 양육 신념으로 인해 아동 자녀에 대한 부적절할 정도의 용인(warm), 회피성, 무감각성을 가진 양육 유형을 갖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Li & Wong, 2015; McShane & Hastings, 2009). 부모의 과잉보호는 자녀의 자율성과 외부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심리사회적 발달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Li & Wong, 2015). 연구자들은 초기 청소년기의 은둔 경향성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낮은 자율성 부여와 높은 강제성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Hastings, Kahle & Nuselovici, 2014). 또한 Kato 등(2019)은 일본 특유의 수치심을 의미하는 하지(haji)와 지나친 의존인 아마에(Amae)가 일본 사회의 은둔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sup>16)</sup> 중요한 점은 청소년 자녀의 수줍음과 사회적 은둔 행동은 양육방식(과잉통제하거나 회피적이거나)과 청소년 개인의 생리학적 특성(미주신경 긴장도와 같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될 수 있다는 점이다(Hastings, Kahle & Nuselovici, 2014). 따라서 은둔 행동 경향성은 청소년의 생리학적 특성과 환경 모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영유아기 사회적 불안 지수와 사회적 은둔 행동 그리고 불안정한 애착이 청소년기의 사회적 불안 징후를 예측한다는 보고가 있다(Lewis-Morrarty et al., 2015).

### ③ 가족

부모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가족 요인이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to 등(2012)은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이 은둔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으며 핵가족(Lee et al., 2013), 가족 구성원(Kondo et al.,

16) Kato 등(2019)은 일본인은 사회적 집단과 구조를 구성함에 있어 간접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향성에서 하지(shame의 뜻)로 표현되는 가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인에게 있어 수치심을 느끼는 환경에서 스스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식되었다. Kato 등(2019)은 이러한 유형의 의식 구조가 높은 자살률과 더불어 은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정신분석학자 T.Do이 제안한 아마에(overdependence의 뜻,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과잉의존) 또한 일본 사회에서 은둔의 빈번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구사회가 청소년의 의존성을 극복하거나 교정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데 반해 일본 사회에서 아마에와 관련된 과잉의존적 행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사는 은둔형 청소년은 부모가 자녀를 오랜 기간 집에 머무르도록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에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된다.

2013), 역기능적 가족 역학(Chan & Lo, 2014)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또한 자녀가 합법적인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돈, 음식, 거처를 제공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을 과도하게 떠맡는 가족도 자녀에게 '기생적 성향'을 키워 사회적 은둔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다(Li & Wong, 2015). 출생순서 또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는데 은둔 청소년 중 상당수가 장남인 것으로 나타났다(Teo, 2010; 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이는 중산층 또는 노동자 계층에 관계 없이 아시아에서 부모가 장남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된다(Furlong, 2008).

#### ④ 또래로부터의 거부, 배제, 피해(victimization)

사회적 은둔은 초기 청소년기(10~14세)에 경험한 또래로부터의 거부, 적극적 비호(dislike)와 관련되어 있다는 상당수의 연구가 존재한다(Dill et al., 2004). 은둔하는 청소년은 그들의 수줍고 소심한 행동이 또래 집단에 의해 가치 있게 생각되지 않는 비전형적 특성이라고 간주 되어 또래로부터 배척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은둔과 또래 거부 사이의 관련성은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기 초기가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집단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Ladd, 2006).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적 은둔이 또래 수용도 감소, 또래 배제 증가, 신체적 피해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한다(Gazelle & Rudolph, 2004; Rubin et al., 2006). 이러한 연구의 상당수는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 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자발적 고독이 보다 용인되는 청소년기 중기, 후기로 갈수록 또래 거부나 또래 배제로 인한 어려움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Bowker, Rubin & Coplan, 2016).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수줍음과 불안도가 높아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으나 능동적으로 비사회적이거나 스스로 사회 회피적인 청소년이 부정적 또래 경험을 더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Coplan et al., 2013).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⑤ 우정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연구들은 많은 사회적으로 은둔 상태인 청소년들이 복잡한 사회 구조 맥락에서 어려움을 경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1:1 대인관계나 친구들과

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제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초창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은둔하고 있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상호적이고 안정적인 절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Rubin et al., 2006). Rubin 등(2006)은 수줍고-은둔성향이 있는 청소년의 60%가 적어도 한명 이상의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비율은 사교적인 청소년의 비율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또한 Ladd 등(2011)은 비사교적인 (unsociable) 은둔 청소년이 수줍은(shy) 은둔 청소년에 비해 상호적이고 안정적인 친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ubin 등(2006)은 수줍고 피해를 경험한 은둔 청소년은 비슷하게 피해를 경험한 또래와 우정을 쌓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나이, 인종이나 민족성, 행동 성향(공격적이나 비행적인 행동 등)이 비슷한 또래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들과 우정을 쌓는다는 많은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Rubin, Bukowski & Bowker, 2015). 하지만 수줍은 은둔 청소년과 그들과 유사한 친구와의 우정이 항상 최고의 우정을 만드는 것은 아닌데 종종 수줍은 은둔 청소년과 그들의 친구들은 상호 간의 우정을 친밀한 교제와 도움이 부족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Rubin et al., 2006). 수줍은 은둔 청소년의 또래친구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두 개의 연구에서 은둔 청소년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적이며 또래들과 공동으로 하는 활동에 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감정표현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chneider, 2009). 이러한 행동 방식과 상호작용 방식은 청소년기에 양질의 우정을 쌓는 데 필요한 친밀한 관계 형성과 상호 교환 관계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많은 수줍은 은둔 청소년과 그들의 친구 간에는 같은 피해자라는 동병상련(misery-loves-company)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데 이들이 공유하는 불행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비사교적인 은둔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들이 피해와 배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친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그들의 피해와 배제 경험은 수줍은 은둔 청소년 친구관계에 비해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Ladd et al., 2011).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회피적 청소년의 우정 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에게 질 높고 지속적인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타인을 회피하고 타인으로부터 은둔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은

친밀한 교제와 도움과 안내와 같은 중요한 관계 형성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회피적인 청소년 또한 우정 영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예측가능하다(Rubin, Bukowski & Bowker, 2015).

## ⑥ 학교

많은 동아시아 국가는 정부가 승인한 전국적인 학교 커리큘럼과 단일한 가치관을 가진 엄격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비판적이거나 창의적인 사고 대신 암기식 학습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결석하면 다시 돌아가기 어려워 학교 생활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어 무단 결석 및 자퇴를 하게 될 수 있다(Uchida, 2010). 또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발달이 지연되거나 감정적으로 분리된 학생에 대한 욕설, 놀림, 사회적 고립, 또래 거부와 같은 괴롭힘이 많은 연구에서 흔히 보고된다(Kondo et al., 2013). 일본의 경우 교사나 부모가 괴롭힘을 학생들이 또래 집단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행동 수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괴롭힘에 관용적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괴롭힘 경험은 청소년이 또래들에 대해 극심한 분노와 불신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의 너무 높은 학문적 기대와 치열한 경쟁 또한 청소년들이 실패했을 때 자신감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학업에 대한 높은 압박감과 학업 성취 달성 실패는 사회적 은둔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Furlong, 2008).

## ⑦ 사회

과거 아시아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은퇴하거나 사망할 때 까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었다(Furlong, 2008). 그러나 전통적인 기회가 줄어들면서 학문적 성공이 더 이상 좋은 직업 전망이나 고용을 보장해 줄 수 없게 되었으며(Suwa & Suzuki, 2013)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고용 시장은 사회적 하향 이동을 초래하게 되었다(Furlong, 2008). 이로 인해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비구직 후기 청소년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사회적으로 은둔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Furlong, 2008).

## ⑧ 자기인식과 내면화된 어려움

사회적으로 은둔하고 있는 청소년의 상당수가 그들의 사회적 기술과 또래 관계에 대해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경험적 연구들은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과 외로움, 우울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불안감, 사회 불안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간에 종단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한다(Bowker & Raja 2011; Wang et al., 2013). 최근 연구에서 수줍은 은둔 청소년들이 종종 부정적 또래 사건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수동적이거나 회피적인 대처 전략을 쓰고 있음이 밝혀졌다(Kingsbury et al., 2013). 자기 비난과 회피적 대처는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의 내면화된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arnefski et al., 2005). 또한 거부당할 것 같다는 느낌은 초기 청소년기의 사회적 은둔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다(London et al., 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많은 사회적으로 은둔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정서적, 행동적 어려움과 부정적 사회 인지적 기능이 자기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Rubin, Bukowski & Bowker, 2015). 최근 연구는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제당한 경험을 한 수줍은 은둔 청소년이 어려움을 내면화할 위험성이 가장 높으며 시간이 지나도 은둔을 지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Oh et al., 2008). 비슷한 경험을 한 청소년 집단에 속해 있는 것 또한 수줍은 은둔 청소년의 피해의식과 우울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owker & Etkin, 2014). 또래 친구의 부재, 우정의 불안정성, 은둔 친구를 가진 것 등의 또래 변인은 은둔의 지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다(Oh et al., 2008). 수줍은 은둔 청소년의 부정적 사회 인지적 편견(스스로를 자책하는 경향 등)은 좋은 우정을 나누는 또래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생각할 때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타난다(Burgess et al., 2006). 또한 Bowker와 Spencer(2010)는 같은 학교의 다른 학년의 또래들과의 우정 관계가 수줍은 은둔 청소년들의 청소년기 초기 또래로부터의 희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거부, 배제, 친구 없음과 같은 문제적 또래 관계 경험은 수줍은 은둔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반대로 또래 집단 내 어려움이 없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 것은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 집단으로부터 가치있게 여겨지지 않는 공격적 행동이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하는 수줍은 은둔 청소년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azelle, 2010; Bowker, Rubin & Coplan, 2016에서 재인용).

## ⑨ 성별

청소년기에 사회적 은둔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은 성별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Doey et al., 2014).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은둔의 발생 빈도와 관련해서는 연구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Findlay 등(2009)은 ‘초기나 중기 아동기’에 사회적 은둔이나 관련된 구성 요소의 발생률이나 발생빈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나 ‘후기 아동기 혹은 초기 청소년기’에는 소녀들이 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줍음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차이가 아동기 후기의 보고 편향 때문에 나타났을지 모른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즉,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수줍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더 높기 때문에 수줍음을 더 많이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osacki, 2008). 수줍음은 남성의 사회적 확인과 지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에게 보다 사회적으로 덜 용인된다는 것이다. 남자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해 더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스스로의 수줍음과 은둔성향을 덜 보고하고 문제 자체를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자 청소년들은 타인의 수줍은 행동을 보고하거나 알아차릴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초기 청소년기에 동성 또래가 보고한 수줍은 은둔 특성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ubin & Barstead, 2014). 사회적 은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에서 성별 차이의 증거는 어떻게 타인이 남자 청소년 또는 여자 청소년의 그러한 행동에 반응하는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자 아동의 수줍고 내성적인 은둔적 행동은 부모로부터 보상 받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는데 반해 남자 아동의 동일한 행동은 억압되고 더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Rubin & Barstead, 2014).

마찬가지로 이른 혹은 중기 아동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은둔과 수줍음과 사회적 무관심은 여자 아동보다 남자 아동의 경우 또래 배제 및 거부와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Coplan, Arbeau & Armer., 2008; Rubin & Barstead., 2014; Rubin, Coplan & Bowker, 2009).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에 대한 타인의 반응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 후반과 청소년기에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이 여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보다 외로움, 불안, 낮은 자존감과 같은 사회정서적 어려움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나타난다(Bowker, Rubin & Coplan, 2016; Dong, Li & Baker, 2022). Dong 등(2022)은

여성보다 남성이 심각한 사회적 은둔을 경험하는 경우가 3배 이상 많았다고 보고한다. 몇몇 장기적 종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수줍고 은둔성향이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늦게 결혼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반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Kerr et al. 1996; Bowker, Rubin & Coplan, 2016에서 재인용). 그러나 성별 태도의 변화로 인해 최근 장기 종단 연구에서는 은둔성향이 있는 남자와 여자 모두 유사한 직업적, 낭만적 관계가 지연된다고 보고되고 있다(Asendorpf, Denissen & van Aken, 2008).

## ⑩ 문화

심각한 사회적 은둔인 히키코모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본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반해, 사회적 은둔에 대한 장기적 종단연구나 이론에 대한 검증은 미국, 캐나다, 서유럽과 같은 서구 문화권에서 주로 검증되고 있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적 은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가비교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은 동아시아는 물론 서구 사회에서도 유사한 위험을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은둔하는 청소년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배제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고 심리적 부적응을 더 많이 경험한다(Yang et al., 2015). 중국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비교한 Chen 등(2011)은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서 수줍은 사회적 은둔 행동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 ⑪ IT 기반 비대면 간접 의사소통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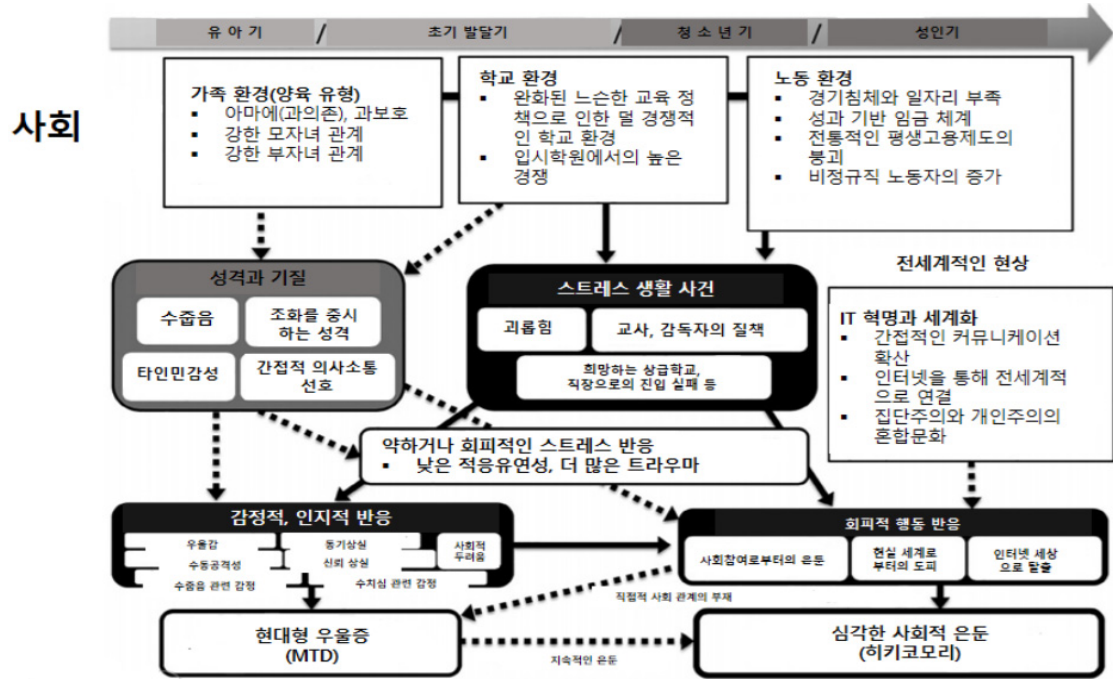
Kato 등(2019), Dong 등(2022)은 현대화, 세계화, 인터넷의 확산 등 IT 기반 비대면 간접 의사소통의 국제적 확산이 청소년의 놀이 방식을 ‘대면-직접적인 것’에서 ‘비대면-간접적인 것’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특성이 현대 청소년의 행동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983년에 일본 닌텐도가 가정용 게임기인 ‘패미컴(Famicom)’을 출시한 이후로 청소년들의 놀이 방식이 야외에서 실내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청소년이 직접 타인과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소셜 미디어와 문자 메시지가 대면 활동을 대체하면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Twenge(2017)는 이것이 청소년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불안, 우울,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괴롭힘(bullying)' 또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Fujikawa, Ando & Nishida, 2018). 연구자들은 의사소통 능력과 신뢰 관계가 비대면적 간접적 의사소통인 게임이나 플레이 등을 통해 확립되고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ato, Kanba & Teo, 2019).

## ⑫ 코로나19 팬데믹 등 재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많은 사람이 집에 머물게 됨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 사회적 봉쇄, 재정 불황 등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적 은둔 상태를 유발하고 악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Gavin과 Brosnan(2022)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해 대규모 온라인 국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 남성일수록, 봉쇄 기간이 길수록, 외출 빈도가 적을수록 사회적 은둔이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봉쇄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남녀 모두 사회적 은둔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으나 봉쇄로 인한 게임 시간 증가는 여성의 사회적 은둔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소셜 미디어 사용의 이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Dong, Li & Baker, 2022에서 재인용).

Kato 등(2019)은 이러한 다양한 변인들을 종합하여 심각한 사회적 은둔 발생에 관한 가설 모델을 [그림 II-2]와 같이 제시하였다.



\* 출처: "Kato, T. A., Kanba, S., & Teo, A. R. (2019). Hikikomori: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futu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3(8), p. 435"를 재구성

그림 II-2. 심각한 사회적 은둔 발생에 관한 가설 모델

## 10) 보호요인

연구자들은 사회적 은둔 청소년의 적응과 회복을 위해 보호 요인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호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Rubin, Coplan & Bowker, 2009).

### ① 감정조절훈련

위험과 회복력에 대한 최근 이론과 연구에서는 감정조절력과 표현력 등이 은둔 청소년의 적응을 향상시키고 적응 과정에서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한다. Bowker 등(2008)은 또래 집단에서 슬픔, 불안, 두려움 등 부정적 내면화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또래의 거부와 피해를 덜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감정표현력이 강한 청소년들은 더 많은 피해를 입고 더 많이 소외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집단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 감정조절훈련을 하는 것이 소외나 은둔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ubin, Coplan & Bowker, 2009).

### ② 개인의 재능이나 특별한 기술

또래나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재능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 경험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Findly와 Coplan(2008)은 조직적인 스포츠 참여가 수줍음 많고 위축된 청소년에게 독특한 보호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학업성취도나 과외활동 및 동아리 참여 여부가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과 청소년의 자신과 외부 세계에 대한 사고방식과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ubin, Coplan & Bowker, 2009).

### ③ 긍정적 학교 기반 요인

사회적 은둔 청소년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긍정적 학교 기반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Gazell(2006)은 따뜻하고 지지적인 교실과 같은 학교 기반 요인이 수줍고 경계심 강한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Rubin, Coplan & Bowker, 2009에서 재인용). 연구자들은 전환 경험과 같은 학교 교육의 추가적인 특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여러번 교급을 전환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환이 낯선 또래를 만나는 데 따른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나(Barber & Olseon, 2004) 동시에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이전의 부정적인 또래 평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호적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eidman & French, 2004; Rubin, Coplan & Bowker, 2009에서 재인용).

#### ④ 긍정적 부모 기반 요인

연구자들은 또한 자녀의 필요 사항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면서도 자녀의 독립성을 장려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신경 써 주는 등 또래간의 상호 작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부모 기반 요인을 통해 유아기의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고 사회적 은둔 경향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발달 단계상에서 은둔을 경험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잠재적인 보호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ubin, Coplan & Bowker, 2009).

#### ⑤ 조기 개입 및 예방

Rubin, Coplan와 Bowker(2009)는 사회적 은둔 청소년을 위한 조기 개입 및 예방을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과 관련된 예측가능한 위험을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은 ‘사회 기술 훈련(social skill training)’으로 이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포함하며 코칭, 모델링, 사회문제해결 훈련의 구성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 일부 사회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은둔 청소년의 사회 기술 향상에 있어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공을 나타내었다(Bienert & Schneider, 1995; Jupp & Griffiths, 1990; Sheridan et al., 1990; Rubin, Coplan & Bowker, 2009에

서 재인용). 그러나 다른 사회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와 치료 효과를 보였으며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일반화되지 못하였다.

조기 개입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더 긴 추적 기간과 신중한 설계를 갖춘 대규모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수줍고 내성적인 청소년의 특별한 요구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또래 짝짓기나 촉진 놀이와 같은 다른 형태의 또래 매개 상호작용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개입 과정에서 부모를 참여시키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모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수줍고 내성적인 어린 아동의 사회 불안을 감소시키고(Rapee et al., 2005), 학령기 불안 아동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Spence et al., 2000; Rubin, Coplan & Bowker, 2009에서 재인용). 학교 기반 프로그램은 교통비와 같은 치료 장벽을 줄이고 더 광범위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학교를 기반으로 할 경우 참여자 중도 탈락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Barrett, Lock & Farrell, 2005).

### 11) 고립·은둔 청소년의 삶

Li와 Wong(2015)은 사회적 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향성을 크게 (㉠) 비사회적이며 집에 머무르는 삶, (㉡) 비사회적이지만 외출하는 삶, (㉢) 선택적으로 사회적인 삶으로 나누어 각각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 ① 비사회적이며 집에 머무는 은둔 청소년의 삶

일부 청소년은 집에서 혼자 활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만 한다(Lee et al., 2013). 이러한 청소년은 학교나 직장과 같은 사회적 환경을 떠난 후에는 신체적으로 단절된다. 일부는 자신의 침실에 틀어 박혀 외부 세계와 더욱 거리를 두기도 한다(Teo, 2010). 그들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을 하며, 책이나 만화를 읽는다(Sakamoto et al., 2005). 때로는 낮과 밤이 바뀌어 하루 종일 자고 밤새 깨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목욕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의사소통과 사회화 측면에서 포괄적인 무관심을 키우게 된다(Teo, 2010). 연구자들은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은 어린 시절 친구가 거의 없고 또래 및 부모와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Lee et al., 2013)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참여가 더욱 감소한다고 보고한다(Ito, 2012; 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 ② 비사회적이나 외출하는 은둔 청소년의 삶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의 27%만이 자신의 생활 공간을 떠나지 않으며 나머지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혼자 외출한다고 보고된다(Li & Wong, 2015). 예를 들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나가는 경우 동급생이나 이웃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에 외출한다(Wong, 2012).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은둔 상태를 숨기기 위해 학교나 직장에 가는 것처럼 낮에도 정기적으로 외출하여 실제로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거나 기차를 타며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Furlong, 2008). 일부는 기분을 환기시키기 위해 또는 주말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외출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Heinz & Thomas, 2014).

## ③ 선택적으로 사회적인 은둔 청소년의 삶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 중 일부는 디지털 수단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일이나 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며(Suwa & Suzuki, 2013), 부모 및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등(Wong, 2012) 사회적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들은 장기간 집에 머물더라도 사회화 능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 중 일부는 자신의 사회적 은둔 경험을 표현하거나 가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시간제 일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Suwa et al., 2013; 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더욱이 인터넷은 집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편리한 채널을 제공한다. 그들은 가상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친밀감을 발전시키기 위해 익명으로 낯선 사람과 온라인 채팅을 하기도 한다(Chan & Lo, 2014). 이러한 가상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은 포래의 지원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긍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Heinz & Thomas, 2014).

## 12) 청소년기 고립·은둔의 변화궤적 및 단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기 고립·은둔의 변화궤적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나 Bongers 등(2003), Dennissen 등(2008), Barzeva 등(2019)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ngers 등(2003) 등은 부모가 보고한 자녀의 사회적 은둔이 4세에서 18세 사이에 약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Dennissen 등(2008)은 부모가 보고한 수줍음이 4세에서 23세 사이에 약간 감소한다고 하였다. 두 연구 모두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는 살펴보았으나 사회적 은둔의 잠재적 곡선 관계의 유무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Barzeva 등(2019)은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변화 궤적과 전이 과정에서의 영향 변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다고 지적하며 네덜란드 인구 기반 코호트 조사에 참여한 1,91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6세부터 25세까지 4차에 걸친 평가를 기반으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사회적 은둔의 궤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은둔 경향은 16세부터 19세까지는 감소하고 19세에서 22세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2세에서 25세까지는 다시 증가하는 'U자형 경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크게 3/4가량은 저안정형 집단, 12% 내외는 고→감소형 집단, 16% 내외는 저→곡선형 집단으로 고→감소형 집단의 사회 부적응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그들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은둔이 성인기로의 고유한 전환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하였다(Barzeva, Meeus & Oldehinkel, 2019에서 재인용).

또한 임형문 등(2020)은 Saito(2013)의 연구 등을 토대로 은둔형 외톨이의 형성과 회복과정을 크게 (ㄱ) 전조 단계, (ㄴ) 갈등 단계, (ㄷ) 은둔 단계, (ㄹ) 회복 단계로 살펴보고 있다. (ㄱ) '전조 단계'는 가족이나 사회와 의사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신체 증상, 문제 행동, 정신증적 증상, 기타 증상을 나타내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청소년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자신 안에 매몰되며 정서적 단절 상황에서 가족과 사회의 일방적인 압력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최소한의 접점마저 사라지게 된다. (ㄴ) '갈등 단계'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은둔하기 시작하여 일정 시간(대략 1개월)이 흐른 후 가족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족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은둔하기 시작한 가족 구성원의 활동을 독려하고자 하나 가족 또한 의사소통을 어려워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려 하지만 종종 실패하게 된다. (ㄷ) '은둔 단계'는 은둔이 고착되는 시기로 은둔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장기간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을 중단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사회가 적극적으로 은둔하는 개인과 그 가족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사회는 주로 공적 개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찾아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개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점점 또한 어려워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㉔ ‘회복 단계’는 은둔형 외톨이가 외부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를 보이는 단계로 가족은 물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로 회복이 가능한 시기이다(임형문 등, 2020에서 재인용). 노가빈 등(2021)의 연구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의 삶의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 보고 있다. 최초 은둔생활 시작점인 ‘**은둔생활 입성기**’에서는 은둔생활을 휴식의 형태로 여기면서 사회적 관계를 멀리하고 안락함을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은둔생활이 점차 만성화되면서 자신의 통제감을 상실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은둔생활 중반기**’를 거치게 된다. 이후에는 은둔생활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은둔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사자는 심각한 정서적 괴로움 속에 좌절과 희망을 크게 느끼게 된다(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 2022에서 재인용). 은둔생활의 단계적 구분에 따른 변화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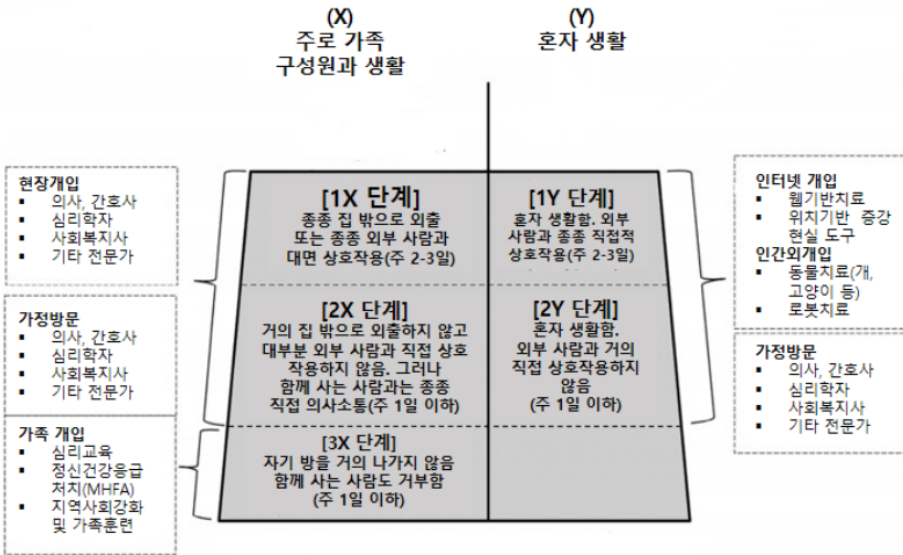
구분	은둔생활 입성기	은둔생활 중반기	은둔생활 후반기
특징	사회적 활동-관계 자발적 철회 휴식의 형태	은둔생활의 만성화	은둔생활 철회를 위한 저항감 상승 은둔 탈피를 위한 구조 요청
정서변화	안락함	통제감 상실, 두려움	심각한 정서적 괴로움 좌절, 절망감 증폭
행동변화	관계 단절, 칩거	가족에게 폭력 주변환경 방치	적극 신속 구조요청

\* 출처: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2022).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성남: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 p. 17”에서 재인용 후 재구성

그림 11-3. 은둔생활의 단계적 구분에 따른 변화

### 13) 다면적 접근

Kato 등(2019)은 히키코모리 진단 척도를 제시하면서 기간과 외출빈도를 단계별로 세분화한 바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주로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X 영역)와 혼자 사는 경우(Y 영역)를 새로운 단계로 추가하여 총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신체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에 기반한 다차원적 치료적 접근을 [그림 II-4]와 같이 제시하였다.



\* 출처: "Kato, T. A., Kanba, S., & Teo, A. R. (2019). Hikikomori: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futu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3(8), p. 432"을 재구성

그림 II-4. 히키코모리의 신체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에 기반한 다차원적 치료적 접근

위에서 제시된 치료적 접근을 토대로 다면적 접근의 방법과 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다면적 접근의 방법

##### ① 가족 지원

초기에 사회적 은둔을 경험한 청소년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 개입이 중요하다. 사회적 은둔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그러한 감정적 상황과 그러한 상황에 있는 개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가족들은 아무런 개입이나 도움 요청 없이 수년을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다. 많은 부모들은 ‘나는 내 이웃에게 내 자녀가 은둔 상태이거나 관련된 정신 질환을 가진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과 같은 사회적 오명(social stigma) 때문에 어떠한 전문적 도움도 받기를 거부한다. 정신보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부모들은 종종 자녀들이 낮설고 두려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일부 사회적 은둔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 대한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양갈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사회적 은둔이 증가하는 이유로 이러한 부모의 경향성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적 은둔에 대해 보다 조기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Kato, Kanba & Teo, 2019).

## ② 가정 방문

Kato 등(2019)은 한국의 사례를 들어 일본과 서구사회에서 사회적 은둔에 개입하는데 가정 방문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가정방문은 사회적 은둔 지원의 초기 단계에서 일정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방문은 부모에 대한 상담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가정방문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아직 드물다고 지적된다. 한국에서 사회적 은둔과 같은 행동 특성을 가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이 이루어진다고 Kato 등(2019)은 지적한다. 사회복지사에 의한 가정방문 프로그램과 적절한 시범 개입과 직접적인 심리치료가 다음 단계로의 처치에 대한 접근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Lee et al., 2013). 그러나 Wong 등(2014)은 사회적 은둔 청소년에 대한 가정 방문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 방문에서 많은 청소년이 대화를 거부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Lee et al., 2013) 좀 더 혁신적인 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Li & Wong, 2015).

### ③ 다차원적 사정 및 치료적 전략

사회적 은둔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에 앞서 다차원적 사정이 중요하다. Kato 등(2019)은 생물심리사회 모델에 기반하여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의 발현 시기, 사회적 고립의 계기(triggerring)가 된 생활 사건, 사회적 은둔의 심각성(은둔 기간, 방이나 집 밖으로 나가는 빈도, 가족 구성원과 또래와의 접촉 등) 등이 평가된다. 그들이 새롭게 발전시킨 새로운 히키코모리 진단 체계를 토대로 사회적 은둔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의 시간을 보다 단축하기 위해 HQ-25라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개발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질문지는 모두 응답하는데 2-3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사회적 은둔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은둔 지원 시설에서 쉽고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문가는 성격 파악, 애착, 인터넷 중독 경향성 등을 함께 검사할 수 있다(Tateno et al., 2018).

### ④ 동물 또는 로봇을 활용한 치료

동물 또는 로봇을 활용한 치료는 최근 일본과 다양한 국가에서 활용되는 보다 진보된 형태의 치료적 접근의 예이다. 일본과 홍콩의 경우 인구의 약 1.9%가 사회적 은둔으로 보고되고 있으며(Wong, Li & Chan, 2015) 사회적 은둔은 점차 더 큰 사회적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와 직업 치료가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은둔 지원방안이 개발되고 있다. 그 예로 사회적 은둔을 경험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직접 대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동물 치료 프로그램이 이러한 꺼림을 감소시키기 위한 디딤돌로 소개되고 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참여하러 오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한정된 집과 방을 벗어나도록 하는 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Wong et al., 2017). 더 나아가 소니사에서 1999년 발매한 강아지 형태의 애완로봇인 아이보처럼 강아지 모양의 로봇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로봇은 인간으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가져온다고 보고된다(Karepesi et al., 2006; Kato, Kanba & Teo, 2019에서 재인용). 이러한 로봇은 특히 자폐증과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어 왔다(Kumazaki, Warren & Swanson, 2018). Kato 등(2019)은 이러한 로봇이 특히 혼자 생활하는 사회적 은둔인의 외로움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감정적 수준에서 대화가 가능한 애완동물형 로봇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로봇이 사회적 은둔자의 외로움을 경험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교성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연구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 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개입

2016년에 발매된 위치 정보와 증강 현실을 활용하는 온라인 게임 포켓몬 고는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증강 현실은 반영하는 이미지에 소리와 그래픽을 부가하고 현실 세계를 증강하는 기술로 사회적 은둔자의 지원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에서 몇 년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혼자 살던 사회적 은둔자가 포켓몬고를 찾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Tateno et al., 2016). 아쉽게도 몇 달 뒤 그는 게임에 몰려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 되었지만 연구자들은 그러한 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은둔 지원 접근이 적어도 어떠한 상황의 초기 단계 동안은 효과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으며 산학 협력을 통한 이러한 도구 개발을 통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은둔하는 사람이 스스로 치료 방법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흥미롭게도 국제 연구는 많은 사회적 은둔자가 그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방안으로 약물 치료보다 심리 치료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eo, Fetters & Stufflebam, 2015). 연구자들은 사회적 은둔자들이 웹 카메라와 비슷한 기술들을 활용한 온라인 처치를 선호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직접적인 면대면 처치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 ⑥ 정신분석 및 정신역동적 심리치료

일반적으로 사회적 은둔을 경험한 개인에게 정신역동적 심리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Saito, 2010). 심각한 사회적 은둔을 경험한 사람을 일컫는 히키코모리라는 개념은 원래 T. Saito, K. Saito, and N. Kondo와 같은 일본의 정신분석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발달되었다. 현재에도 일본의 많은 사회적 은둔 전문가들은 정신분석학을 전공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정신병리학자이다. 그들은 정신역동적 개인, 집단 접근이 특히 사회적 은둔을 경험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와 외부 세계에서 미래의 학교, 직장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제까지

연구자들은 심각한 사회적 은둔을 병리적 현상과 행동으로 묘사해왔지만 사회적 은둔을 단지 부정적 측면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정신분석학자 W.D. Fairbairn은 인간을 단지 두 가지 성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는 '사물에 대한 흥미'이고 또 하나는 '사물에 대한 거부'이다(Fairbairn, 1952; Kato, Kanba & Teo, 2019에서 재인용). 그러한 맥락에서 심각한 사회적 은둔은 사물에 대한 거부의 극단적 표현일 수 있다. Fairbairn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내재적으로 은둔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인터넷, 휴대 전화 그리고 또 다른 모바일 기기의 극단적 발전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던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거의 안전하게 홀로일 수 있는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사적 세계는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마도 우리는 개인과 공공 영역사이의 경계가 없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은둔'은 극단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심각한 사회적 은둔의 행동은 현대 사회에서 숨을 공간을 잃어버린 개인의 무의식적이지만 절박한 행동일 수 있다. 우리는 심각한 사회적 은둔으로 고통을 받는 개인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이 온전히 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의 획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적 정신치료에서 특히 '비대면 소파(non-face-to-face couch)' 방법이 '참여를 원하거나(wanting to engage)' 혹은 '떠나기를 원하는(wanting to leave-out)' 극단적인 양가적 감정은 치료 과정에서 종종 환자와 치료자에 의해 고요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유된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잠시 시간을 가짐으로써 '홀로 있고자 하는 능력'이 옹호되게 되며 이것이 개인의 방어적 신체적 은둔을 경감시킨다고 보고한다(Watanabe 2011; Kato, Kanba & Teo, 2019에서 재인용).

### ⑦ 생물학적 개입<sup>17)</sup>

심각한 사회적 은둔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개입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지만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사회적 은둔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항염증제 및 항산화제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Kato & Watanabe, 2018). 미세아교세포 억제 효과를 가진 항생제인 미노사이클린이 강한 사회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의사결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7) 본 장은 Kato, Kanba & Teo(2019)의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여 작성함.

(Watanabe, Kato & Tsuboi, 2013). 따라서 미세아교세포 활성화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들이 심각한 사회적 은둔의 해결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연구자는 예측하며 향후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임상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Kato, Kanba & Teo, 2019).

## (2) 다면적 접근의 주체

### ① 의료 전문가(임상의)

의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에게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Tateno et al., 2012). 일본에서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 중 78%는 자신의 사회적 은둔 상태에 대해 걱정하거나 짜증을 낸 경험이 있었으며 50% 이상은 생애 중 정신 질환, 특히 기분 장애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Koyoma et al., 2010).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은 성격 장애, 심각한 형태의 사회 불안 장애 및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어 있다(Wong, 2012).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이 분노가 폭발하는 경험을 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은둔 청소년의 약 18%가 부모에게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 전문가들은 감정 회복, 증상 완화 및 재활과 같은 의료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은둔 청소년을 치료하고 있다(Hattori, 2006; Ogino, 2004; 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 ② 비의료 전문가(사회복지사, 교육자 등)

사회복지사나 교육자와 같은 비임상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Wong, 2012) 청소년 문제를 병리화 하는 것을 거부한다(Chan & Lo, 2014). 해외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은둔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현대 사회의 청소년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Li & Wong, 2015). 이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비의료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협력과 독립성을 향상시키고(Furlong, 2008) 지구력, 인내심 등을 배양하며,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능력과 자존감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Wong, 2009) 사회적 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Li & Wong, 2015). 그들에게 있어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을 돕는 일반적 목표는 그들을 방에서 끌어내어(Teo, 2010) 학교와 노동 시장으로 복귀시키고 주류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시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다(Ogiono, 2004; Borovoy, 2008; Li & Wong, 2015에서 재인용).

#### 14) DSM-5-TR과 청소년 고립·은둔

학자들은 흔히 ‘히키코모리’로 표현되는 심각한 사회적 은둔이 많은 국가에서 숨겨진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은둔의 전세계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질병분류(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이하 ICD) 또는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이하 APA)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 체계에 ‘히키코모리’ 등으로 표현되는 심각한 사회적 은둔에 대한 진단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Bowker, Rubin & Coplan, 2016; Kato, Kanba & Teo, 2019). 이들은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은둔을 DSM-5의 ‘긴장증(catatonia)’과 유사하게 하위 분류 및 지정 코드를 추가하여 진단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역학 조사가 수행되어 한다고 하였다(Kato, Kanba & Teo, 2019). 그 결과 DSM-5-TR<sup>18)</sup>에 심각한 사회적 은둔을 의미하는 ‘히키코모리(Hikikomori)’가 문화와 정신과적 진단(Culture and Psychiatric Diagnosis) 섹션에 ‘문화 관련 증후군(culture-bound syndrome)’으로 포함되었다(Dong, Li & Baker, 2022). 이는 그 자체로 정식 정신과 진단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사회적 은둔 현상이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인정된 것이라 하겠다. DSM-5-TR은 히키코모리를 ‘특히 청소년기’의 전세계에 걸친 정신 건강 이슈라고 강조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DSM-5에 나타난 ‘히키코모리’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

18) DSM-5-TR은 DSM-5의 개정판(Text Revision)이다. 개정판에는 새로운 진단(장기적 슬픔 장애)이 추가되었으며 70개 이상의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이 수정되었고, 자살 행동 및 자살적 자해에 대한 국제질병분류(ICD) 제10차 개정에 따른 증상 코드가 추가되었다. 또한 광범위한 문헌 검토를 토대로 대부분의 장애에 대한 설명이 업데이트 되었다. 또한 DSM-5-TR에는 인종차별과 차별이 정신질환의 진단 및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포괄적으로 검토되었다. 이 매뉴얼은 임상가와 연구자들이 정신 질환을 정의하고 분류하고 진단, 처치, 연구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https://www.psychiatry.org/psychiatrists/practice/dsm>).

표 II-3. DSM-5-TR에 언급된 '히키코모리'

구분	설명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키코모리(일본어의 뒤로 물러나다는 뜻인 'hiku'와 스스로를 숨기다는 뜻인 'moru'의 과거형)</li> <li>▪ 일본에서 관찰된 장기간의 심각한 사회적 은둔(social withdrawal) 증후군으로타 인과의 대면 상호작용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음</li> <li>▪ 히키코모리의 전형적인 모습은 부모님 집에서 자신의 방을 나서지 않고 대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청소년 또는 초기 성인</li> <li>▪ 이러한 행동은 초기에는 <b>자아동질적<sup>19)</sup>(ego-syntonic)</b>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을 경험하게 됨</li> <li>▪ 종종 과도한 <b>인터넷 사용과 가상에서의 사회적 교류</b>와 관련되어 있음</li> <li>▪ 또 다른 특성으로는 학교나 직장에 다닐 <b>의향이 없거나 관심이 없다는 점</b></li> <li>▪ 2010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지침에 따르면 '히키코모리' 진단을 위해서는 <b>6개월</b> 동안 사회적 은둔이 지속되어야 함</li> <li>▪ 히키코모리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사회적 은둔은 DSM-5 상의 정신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b>'2차성 히키코모리'</b>와 정신질환 없이 나타나는 <b>'1차성 히키코모리'</b>로 나뉨</li> </ul>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의 관련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회적 위축은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프랑스, 인도, 이란, 이탈리아, 오만, 한국, 스페인, 대만, 태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나타남</li> <li>▪ 일본, 인도, 한국, 미국에서의 히키코모리 유형에서 개인은 <b>높은 수준의 외로움, 제한된 사회적 관계망, 중간 정도의 기능 장애</b>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li> </ul>
DSM-5-TR에서 관련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불안 장애, 주요 우울 장애, 범불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분열성 인격 장애, 회피성 인격 장애, 조현병 또는 기타 정신병적 장애 등과 관련되어 있음</li> <li>▪ <b>인터넷 게임 장애</b>와 관련될 수 있으며 <b>청소년</b>의 경우 <b>등교 거부</b>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li> </ul>

\* 출처: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2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5-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Wahington D.C, p. 876"을 재구성

DSM-5에서 사회적 은둔(social withdrawal)은 불안 또는 두려움이나 고독에 대한 선호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 또는 억제하는 행동으로 고려된다.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또한 DSM-5에서 정신장애로 직접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정신과 신체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루지고 있다. 장기화된 사회적 고립은

19) 자아동질적(ego-syntonic)은 '자신의 행동과 사고가 자신의 자아(ego)와 일치하고 그로 인해 자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성격장애 진단 기준 중 하나로 스스로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특징을 말한다. 이로 인해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정신의학신문 2022년 8월 10일자, <https://www.psychiatricnews.net>, 프로이드 정신분석 교육원, <https://dreamfreud.com/>).

우울, 불안, 신체적 건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된다. 요약컨대 DSM-5는 다른 정신 장애와의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은둔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징후와 행동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Amendola, 2024).

국제질병분류(ICD)에서도 사회적 고립 또는 사회적 은둔을 구체적인 진단 분류로 포함하지는 않으며 대신에 이러한 현상을 다양한 정신 장애와 일반적 심리사회 요인과 연관시켜 다루고 있다(Hamasaki et al., 2022; Pozza et al., 2019).

## 15) 선행연구들의 제언

### 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

Bowker 등(2016)은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에 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실증 연구가 생리학적, 유전학적, 특정 유형의 양육방식(예: 과잉보호적 양육) 등이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거부나 배제와 같은 문제적 또래 관계 경험 또한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동시에 결과이며 사회적 은둔으로 인한 ‘비용(costs)’은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에게 더 클 수 있다고 보고한다. 서구권과 비서구권의 연구들은 사회적 은둔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들은 청소년기 사회적 은둔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관계 유형과 관계의 질, 맥락(직장, 인터넷 등) 그리고 그 결과(정체성 형성, 진로에 대한 희망, 약물 사용)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② 어울림 공간 또는 안전 지대의 필요성

또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은둔 청소년은 방과후 클럽이나 일하는 공간 또는 또 다른 형태의 ‘어울림 공간’에서 비슷한 또래와 친구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의식을 회복하고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다. 일부 연구(Baker & Oswald 2010)에서는 인터넷과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이 사회적으로 은둔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부터 “안전지대(safe space)”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한다.

### ③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속단에 유의

그러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인터넷 활동 참여나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같은 유형의 매체는 은둔한 청소년의 은둔 경향성은 물론 심리적 어려움을 강화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연구(Nelson et al. 2016) 또한 보고되고 있어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영향을 긍정 또는 부정 중 한 방향으로 속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부모의 관리감독과 같은 특정 양육 행동이 또래 관계 및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물론 연구자들은 특정 요인들이 발달 단계와 문화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기 초기, 청소년기 중기, 청소년기 후기,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이러한 관계 및 맥락적 요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Bowker, Rubin & Coplan, 2016).

또한 Kato 등(2019)은 기술 혁명으로 인해 직접적인 대면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미래는 사회적 고립·은둔이 되기가 더 쉬운 사회가 될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고립·은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④ 다양한 개입 유형의 효과에 대한 평가 필요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개입이 있지만(Teo et al., 2015) 다양한 유형의 개입이 모든 사회적으로 은둔한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은둔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개입 방법의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Li & Wong, 2015).

### 16) 고립·은둔의 법적 근거: 관련 조례 현황

고립·은둔의 법적 근거<sup>20)</sup>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관련 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 2024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36개 지역에서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서울 7곳, 인천 6곳 이외에 경기, 대구, 세종, 광주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조례가 청소년이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청년의 연령대는 모두 같지 않다. 고흥군과 태백시의 경우 조례상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가장 넓게 포괄하고 있으며 나주시, 고흥군,

---

20) 2장의 2절은 최홍일 전문연구원이 작성하였다.

고창군, 여수시 역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다른 지역에 비해 넓게 청년 연령을 지정하고 있다. 안산의 경우는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여 가장 낮은 연령대를 포함한다.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인정하여 조례에 포함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고립의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립의 개념에는 대상자의 연령(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거주지역, 고립의 원인, 고립 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사회적 고립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지역)하는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연령)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원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기간)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와 같다.

각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고립청년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무,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의 수립, 고립청년의 발굴과 지원, 고립청년 발생의 예방,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 등 각 조례가 보장하는 지원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그 밖에도 사회적 고립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외로움”에 대한 예방과 개입에 대한 조례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외로움을 대상으로 하는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가 있다. 본 조례에서는 외로움을 “정서적 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외됨을 느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슬프고 불행한 감정”으로 정의하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조례에서는 그 대상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9세~24세로 하는데, 고립과 외로움 관련 조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조례이다.

표 II-4. 지자체별 고립 관련 조례 현황 예시

조례명	시행일	고립개념	연령구분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1.12.30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4.04.11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3.03.0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2.10.11.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3.11.15.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이하 “기본조례”라 한다)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의 사유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3.07.01.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19세 이상 39세 이하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23.09.27.	“고립·은둔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외출 없이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2024년 5월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 은둔 관련 조례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표II-5]와 같다. 전체 52개 지역에서 은둔 관련 지자체 조례를 마련하고 있어, 고립 관련 조례에 비해 많은 지역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서울 12개, 대전 6개, 대구 및 광주 각각 5개 지역 등 지자체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의 경우, 청년 고립 조례와 달리 대상자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조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본 조례 해당 연령을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의 경우 고립과 은둔, 청소년과 청년을 모두 하나의 조례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은둔과 고립 관련 조례들 중 가장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각 조례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을 살펴보면 원인과 기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조례에서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 기간과 거주지에 있어서 고립 청년 관련 조례에서는 구체적 기간을 제시한 반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광주광역시 조례는 다음과 같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조례에서는 “일정 기간”과 “한정된 공간” 등의 용어 사용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있어 그 해석에 있어 많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각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지자체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의 내용과 주기, 위원회 설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재원 조달에 대한 사항 등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표 II-5. 지자체별 은둔 관련 조례 현황 예시

조례명	시행일	은둔형 외톨이 개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2.01.06.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2.10.17.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3.09.20.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4.04.08.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07.01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1.07.14.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3.10.11.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한다. *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1.09.30.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24.04.0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4.02.19.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 17) 관련 실태조사 고찰: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본 연구는 선행연구<sup>21)</sup>에서 고립·은둔형 ‘청소년’과 고립·은둔형 ‘청년’이 주된 생활 경험과 고립·은둔에 대한 생각, 고립·은둔을 시작하고 끝내는 계기 등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청소년기에 시작된 고립·은둔이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상당한 만큼(서정아, 조아미, 2023) 연속선 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가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들어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최근에 조사한 바 있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이 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대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학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문항을 「2023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조사 문항의 기초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2023년 5월부터 11월(조사기간 2023년 7월~8월)까지 전국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이하 해당 조사)(보건복지부, 2023)와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9세~24세의 비교·분석 및 추가 필요 사항 도출을 위하여 해당 조사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해당 조사는 전국 19~39세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 누구나’를 대상으로 1차 조사(스크리닝) 후 2차 조사(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링크(URL, QR코드)를 통한 자기응답식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스크리닝)에서 ① 고립도 측정, ② 시작(시기, 기간, 계기 등), ③ 양상(활동, 식생활, 사회적관계 등), ④ 자각인식, 회복의지, 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전 스크리닝 질문을 통해 조사대상을 은둔군, 고립군, 고립위험군, 비위험군으로 식별한 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한 청년에 한해 은둔군에게는 은둔청년용 조사표 링크를 고립군과 고립위험군에는 고립청년용 조사표 링크를, 1일 후 휴대폰 문자로 송부하여 2차 조사(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해당 조사의 고립·은둔 스크리닝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21) 본 절은 서정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표 II-6.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1차 스크리닝 기준

구분	내용	조사대상 여부	본조사
은둔	(SQ3=①~④) and (SQ3-1=⑤~⑥이 아닌 경우) <sup>22)</sup>	조사 대상	① 은둔 청년용 조사 링크 발송
고립	고립 고위험군 SQ4의 합이 60~100점		② 고립 청년용 조사 링크 발송
	고립 위험군 SQ4의 합이 44~59점		
고립 비위험군	SQ4의 합이 43점 이하	비해당	

\* 출처: 보건복지부(2023). 청년의 고립·은둔 실태조사(1차 조사) 설문지(미발간), 세종: 보건복지부. p. 5.

조사결과 1차 조사(스크리닝)에서 21,360명이 응답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은둔군 7,496명, 고립군 5,539명, 고립위험군 3,428명, 비위험군 8,325명으로 스크리닝되어 2차 조사(본조사)를 위해 은둔군에게는 은둔청년용 조사표 링크, 고립군과 고립위험군에는 고립청년용 조사표 링크가 발송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은둔청년군 5,161명, 고립청년군 1,489명, 고립위험청년군 2,224명 총 8,874명이 응답을 완료하였다. 은둔청년군 중 1,129명, 고립청년군 중 391명, 고립위험청년군 중 383명 총 1,903명이 공식 도움을 희망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조사과정에서 조사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카드뉴스 배포, 지자체·유관기관 등 협조 요청, 민간 지원기관 및 청년당사자·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세부 홍보기관 및 홍보 내용은 표와 같다.

22) 은둔 청년의 스크리닝 기준과 관련하여 왜 '①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②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중 1개에 해당하는 동시에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가 '⑤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⑥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가 아닌 경우로 본 것인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둔과 관련한 정의에서 '정신질환'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김혜원, 2022) 그것이 장애 또는 몸이 불편한 경우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은둔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것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를 은둔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있어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가 은둔으로 판정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청년 전문가들은 ④번 문항이 은둔에 관한 문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데 반해 청소년 전문가들은 ④번 문항이 은둔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고립의 특성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 또한 이러한 논란과 맥을 함께 한다.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아직 문항 내용과 스크리닝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만이 공개되었을 뿐, 전체 자료는 아직 미공개인 상태인 바 필요시 해당 조사와의 연령별 비교를 위해 조사 문항과 스크리닝 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식력 있는 척도의 부재로 최근 들어 새롭게 시작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인 본 연구에서는 청년 문항과 스크리닝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더라도, 본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후 다양한 통계적 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항은 없는지 검토하고 제안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보다 적합한 조사문항으로 좀 더 대폭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여성 비율(72.3%)이 남성의 약 2.6배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 또는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오랫동안 만나온 현장전문가들이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성비와 관련하여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국민일보 2020년 12월 7일자; 서정아·조아미, 2023; 프레시안 2025년 6월 2일자)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은, 큰 용기를 내서 설문조사에 응했을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크리닝만을 위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또 다른 별도의 2차 조사(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고립·은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남자 청년들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1차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는지, 표집 과정에서 여성 고립·은둔형 청년들에게 보다 익숙하거나 남성 고립·은둔형 청년에게 보다 꺼려지도록 조사설계가 된 부분은 없는지, 작은 좌절이나 실망의 경험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형 청년들에게 추첨이라는 방식을 통해 조사답례품을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이 또다른 실패나 배제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과정 전반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연구설계 상의 한계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본 고립·은둔형 청소년 연구 조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와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생애주기별 차별성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가령 동일 문항을 똑같이 그대로 질문하는 경우일지라도 서로 다른 개인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시기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사 참여가 참여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또한 세심하게 고려하여 연구과정과 연구내용을 설정한 후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NYPI-202405- HR-고유-014-01)를 거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 홍보한 대상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추가 발굴하여 조사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의 홍보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7.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홍보 대상 및 내용

구분	세부 대상	내용	
민간 지원기관 및 온라인 커뮤니티	지원기관	청년이음센터, 청년재단, 사단법인 씨즈, 사단법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생명의전화중합사회복지관, 안무서운회사, 지열청소년연구재단, (사)파이나다운청년들, 꾸미루미, 사람들세우는사람들 더유스	포스터 배포 및 협조 요청
	기타 기관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도서관(한국도서관협회)	포스터 배포 및 협조 요청
	네이버, 다음 카페	히키코모리와 다투사이,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Haven:안식처, 은둔형외톨이 가족모임, 시선공포 황시공포 사랑하기, The Hoper, 히키코모리 탈출	포스터 배포 및 협조 요청
정부부처	9개 부처 (청년 담당 부서)	부처 보유 소통채널 및 지자체·유관기관·산하기관 홈페이지 등 활용 협조 요청,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활용 실태조사 홍보 요청 아래 사항에 대한 부처별 협조 요청 (행안부) 각 지자체, 보건소 등 협조 요청,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 홍보, (국조실) 온라인청년센터, 지역 청년센터, 청년재단 등 홍보 협조, (교육부) 대학교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자립지원과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		
유관 기관	청년부서	지자체 홈페이지 및 관내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포스터·배너 게시 요청, 설문 대상자에 대한 참여 독려 공지 지역 청년 위원회 등에 홍보	
	복지담당부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조사내용 안내, 설문 대상자에 참여 독려 공지, 홍보물 출력 후 대상자 안내(방문 활용)	
	자립준비청년, 자살예방 관련 부서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협조요청	
유관기관 단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관협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협회,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기관, 협회 홈페이지 게시 요청 산하 관리 기관(자살예방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온라인 청년센터 등) 홍보 협조	
	자립지원전담기관,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센터, 청년재단, 지역청년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2023.12.13.),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278&act=view](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278&act=view), pp. 3-4, 2024.2.1. 인출

## 2.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체계

### 1) 정부부처

여성가족부<sup>23)</sup>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회복과 사회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그림 II-5.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3.6)

23) 본 절은 강경균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여성가족부의 고립·은둔 발굴 및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고립·은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원스톱 지원과 고립·은둔 청소년을 포용하는 사회여건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선제적 발굴과 진단-상담-치유-학습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회진입을 위한 자립지원 및 재진단 및 관리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인식 개선 등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3.6.일자).

여성가족부의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통해 개인별 진단과 함께 가정 방문 및 전문상담 그리고 청소년 소모임, 멘토링 등 회복·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위기가 발생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심리클리닉’과 연계해 고위기 특화 전문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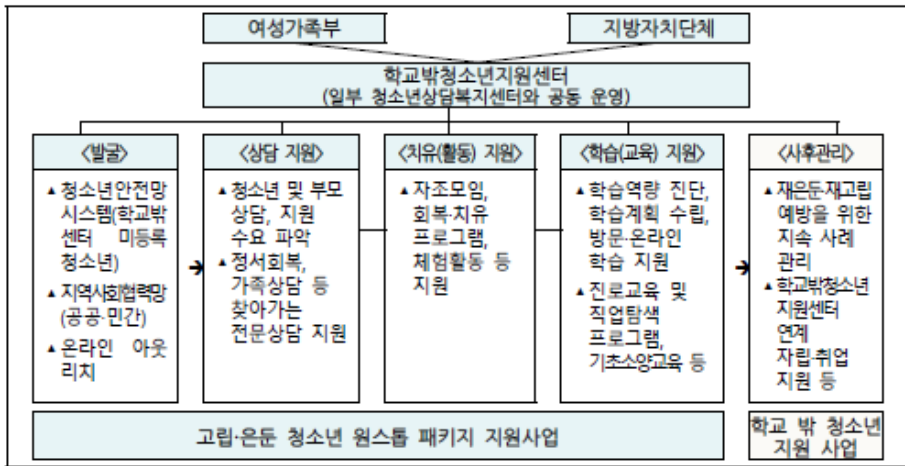


그림 II-6. 여성가족부 고립·은둔청소년지원체계(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3.6)

아울러 고립·은둔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자조모임, 부모상담, 자녀 이해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꿈드림 온(ON)’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며, 지속적 사례 관리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자립·취업을 지원하는 등 학습 및 진로 활동을 위하여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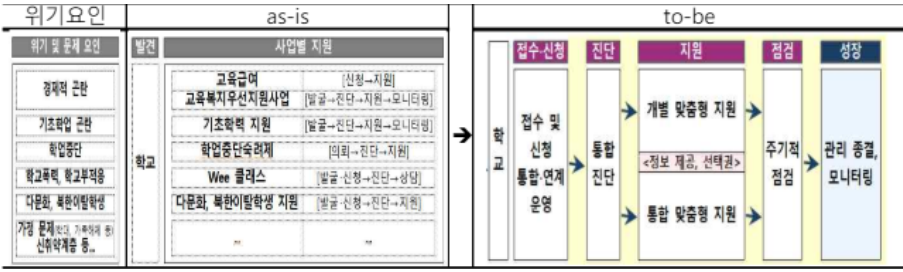


그림 11-7.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원 체계(관계부처 합동 2023.12.13)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내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이 고립·은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Wee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 지원 강화(예방), 초·중학생에서 학업중단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학교-학교밖청소년센터로 정보 연계, 여가부-교육부 공동 ‘학교밖 지원 안내서 제작’을 통해 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신고 유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12.13일자).

< 정책총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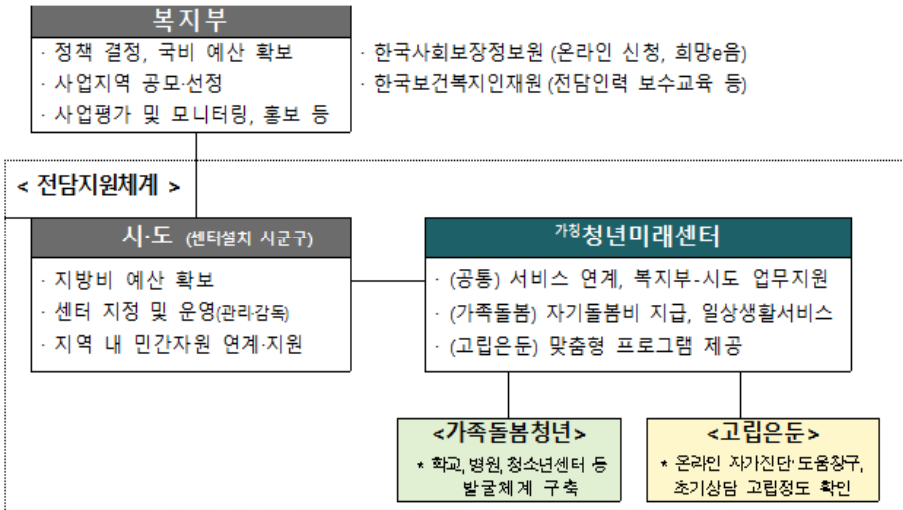


그림 11-8. 보건복지부 新취약청년지원추진체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2)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고립·은둔 관련 新취약청년을 대상으로 新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4개 광역시도에서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온라인 자기진단 창구 구축과 복지사업 간 통합 발굴을 토대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전달체계 및 지원은 지자체에 민간 사업수행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칭)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의 상시 근무 공간을 두어 운영한다. 청년미래센터(가칭)는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발굴 연계, 복지부-지자체 업무지원 등 실제 사업을 수행하며 특히 고립·은둔청년에게 온라인 자기진단을 통해 초기 상담 및 고립정도를 확인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2.20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서적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케어 프로그램에서 고립·은둔 성향이 강한 청년을 발굴하여 문화·인문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부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지역 내 대학 및 대학일자리센터와 협업하여 구직 단념 및 직장 부적응 위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제 대응을 위하여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청년성장프로젝트, 온보딩(On-boarding)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의욕고취를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구직 단념 예방을 목적으로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 청년카페(가칭) 10개소를 통해 자조모임 및 청년정책연계를 통해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온보딩(On-boarding)프로그램은 청년의 직장적응을 목적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 초기 조직 내 성장 방법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 2) 고립·은둔 청소년 운영 및 모임 현황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소통과 연결을 위하여 다양한 모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다음카페에서는 2000년도 초부터 은둔형외톨이 청(소)년 및 보호자 관련된 모임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활동을 하지 않거나 네이버카페로 이동하여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활동으로는 네이버카페에 100명 이상 회원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모임은 The Hoper(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은둔형외톨이가족모임,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딜라이트모임, 소심이, 이미아름다운 당신(이하 이아당) 등이

있다. 이러한 온라인 모임은 소통과 만남의 장 마련을 위해 개설한 것이 특징이며, 권역별 소통방, 은둔형 청(소)년 소통방, 가족교류방 등을 통해 서로의 고민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모임에서는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하여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기관을 연결하고 있었으며, 주요 기관으로는 (재)청년재단, (사)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사)PIE 나다운청년들, (사)씨즈, 은둔형 청년 지원 기관 외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하자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는 기관 및 대안학교 등과 함께 은둔 고립 청소년을 위해 심리정서지원, 활동지원, 교육서비스, 연구/교육사업, 지역사회협력지원을 하고 있다(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2024).

표 II-8. 고립·은둔 청소년 운영 및 지원 기관 현황

운영	운영명	내용	출처
포털 사이트 카페	The Hoper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자유로운 글, 그랑혼짓말, 질문&고민, 정신건강정보, 취미여가활동, 일기 등	<a href="https://cafe.naver.com/244454">https://cafe.naver.com/244454</a>
	은둔형외톨이가족모임	권역별소통방, 당사자방, 부모방, 가족교류방	<a href="https://cafe.naver.com/youcandogout">https://cafe.naver.com/youcandogout</a>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Korea Hikikomori)	권역별소통방, 자녀상담신청, 부모수다방, 독서모임, 자조모임	<a href="https://cafe.naver.com/koreahikikomori">https://cafe.naver.com/koreahikikomori</a>
	달라이트(Delight)모임 (히키코모리 은둔형외톨이자립지원)	자조모임, 대화모임, 독서모임	<a href="https://cafe.naver.com/delightforu">https://cafe.naver.com/delightforu</a>
	소심이	취업 및 성격 고민, 일상 공유	<a href="https://cafe.naver.com/sosimer">https://cafe.naver.com/sosimer</a>
	이미아름다운 당신(이아당)	Daum cafe(9522명)에서 네이버로 이동(2023년 9월), 모임 및 상담, 이아당 심리상담센터 운영(유료)	<a href="https://blog.naver.com/okokcenter">https://blog.naver.com/okokcenter</a>
기관 및 단체	(재) 청년재단	청년의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을 진행	<a href="https://kyf.or.kr/main.do">https://kyf.or.kr/main.do</a>
	(사)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이 건강하게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a href="https://www.the-recoverycenter.org/history">https://www.the-recoverycenter.org/history</a>
	공감인	'속마음프로젝트'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a href="https://www.gonggamin.org/about">https://www.gonggamin.org/about</a>
	(사)PIE나다운청년들	사회 고립되고 소외된 청년들을 세우고 돕는 프로그램 운영	<a href="https://www.pie-edu.com/">https://www.pie-edu.com/</a>
	(사)씨즈(seed:s)	은둔과 고립 청년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두더지 땅굴 및 청년 주도의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운영	<a href="https://www.theseeds.asia/">https://www.theseeds.asia/</a>

운영	운영명	내용	출처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심리정서지원(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 마음치유의 길), 활동지원(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퀘렌시아), 교육서비스(인디학교, 소보사, 외플, 더유스, 꿈터학교), 연구/교육사업(G'L 학교밖 청소년 연구재단), 지역사회협력지원(세화종합사회복지관)	<a href="https://hsakorea.modoo.at/?link=d44r3ww9">https://hsakorea.modoo.at/?link=d44r3ww9</a>

이 중,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는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11-9.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대상	기간	내용
리커버리 프로그램	리커버리센터 크루	연간 상시	기지개모임, 쿠키런치, 미술치료, 글쓰기, 심리상담, 자립워크숍 등
리커버리 야구단	리커버리센터 크루	2월~ 11월	정기 야구 훈련, 전문가코칭레슨 등
개별 회복 로드맵	리커버리센터 크루	1~3년	개별 맞춤형 회복 로드맵 제공
고립·은둔청년 부모 교육	고립·은둔청년을 둔 부모님	년 6회	특강을 통해 건강한 자기 이해에 기반해 관계 회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 출처: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https://the-recoverycenter.org>, 2024년 5월 22일 인출후 재구성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는 고립 위기에 놓인 청년의 자립을 돕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가지고, 고립 청년 대상 상시 프로그램, 장기간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3) 지자체 사업 운영 현황

여러 지자체에서도 ‘고립·은둔 청소년’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지원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는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제정되어 있다.

표 II-10. 지자체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치법규 대상 지원 내용 분석

사도	경기도	경상북도
시행(지원)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li> <li>•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예방방안</li> <li>•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업의 개발·운영</li> <li>• 은둔형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li> <li>• 재원 조달 방안</li> <li>•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및 연구</li> <li>• 조기개입 및 긴급구조</li> <li>• 대면/비대면 상담 및 교육</li> <li>•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자조모임지원</li> <li>• 청소년복지지원법 14조에 따른 특별지원</li> </ul>	
실태조사	은둔형 청소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원협력체계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교육감, 시장·군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함.</li> <li>• 이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상</li> <li>• 실비지원(교통비 등)</li> </ul>	• 지원 대상이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제7796호, 2023.10.11.)’에서 2024년 5월 13일 인출하여 재구성함.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제5006호, 2024. 2.19.)’ 2024년 5월 13일 인출하여 재구성함.

경기도 및 경상북도의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조례의 목적은 지자체 내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적응·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자치법규의 내용으로 시행(지원)계획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원협력체제의 구축 등이 제시되어 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경상북도의 경우 조례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원 대상이 은둔형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포상 및 실비지원(교통비 지급 등)이 제시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2024년 10월 ‘외로움 없는 서울’을 통해 고립·은둔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생애주기별 처방에 있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하여 ‘서울청년기지가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기지가센터는 고립·은둔 청년 발굴부터 사회복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진단하고, 유형에 따라 일상 회복, 관계망형성, 직무역량 강화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기반 지원체계(11개 복지관 및 16개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서울 전역에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년의 맞춤형 회복을 위한 계획을 지원하고,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자기 주도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서울특별시,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2527?tr\\_code=snews](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2527?tr_code=snews), 2024. 10. 23. 인출; 서울특별시,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2224>, 2024.10.22. 인출)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2022년에 공포된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 10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로서 ‘은둔형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정책목표로 은둔형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책 실현을 위하여 은둔형외톨이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은둔형 외톨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은둔형외톨이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은둔형 외톨이 회복력 강화 기반 구축, 은둔형외톨이 수용성 확대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https://gitory.kr>, 2024. 5. 2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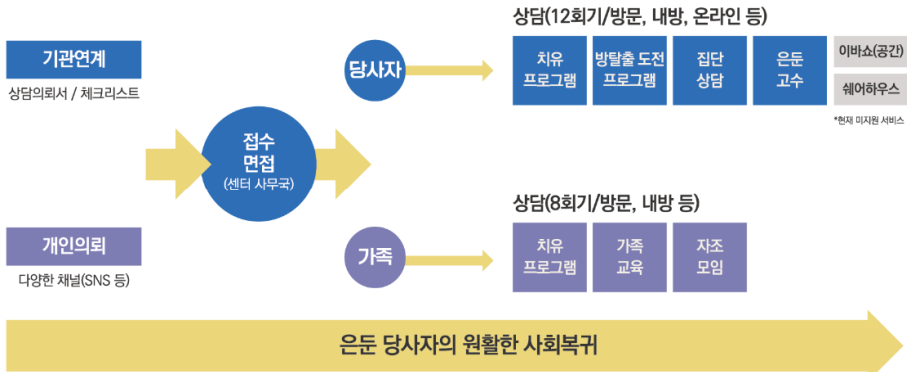


그림 II-9.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의 서비스 지원체계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의 서비스 지원체계는 은둔 당사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관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하여 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청년 및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은둔형 청년 및 가족 대상 상담 및 교육, 단계별 치유프로그램, 집단상담 및 대화모임, 모임 등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 3. 외국의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체계

#### 1) 일본 사례(24)25)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은둔형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말이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논의와 대책 마련의 시작 시기에 관해서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3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히키코모

24) 본 절은 김이성 일본 아오모리 대학교 교수가 작성하였다.

25) 본 장에서는 고립·은둔 관련 외국 사례 중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함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일본,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은 다양한 연구에서 고립, 은둔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국가로 자주 언급된 국가이며, 영국은 고립·은둔에 관한 대규모 패널연구를 십여년 전에 실시하는 등, 유럽 국가 중 고립·은둔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비교적 심도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이다. 특히 영국은 최근 전세계 최초로 '고독부'를 신설하여 고립·은둔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외로움'을 국가적 의제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 국가 선정은 전문가 3인의 자문을 토대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26) 『히키코모리의 30년을 돌아보다』(이시자와 외, 2023)라는 책이 2023년 발간돼, 1980년 등교거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히키코모리 관련 논의와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본 책은 2022년에 개최된 심포지

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왔으므로 관련 정책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는 한편, 8050문제처럼 히키코모리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나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0년 들어서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에 히키코모리 지원이 포함되었고,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고독·고립대책장관이 임명되는 등 히키코모리를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久保浩明, 2023, p.39).

본고에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관련된 논의와 대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현재 히키코모리가 얼마나 있으며, 관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현황, 그리고 실제 히키코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실제 실천 사례와 일본 히키코모리 정책의 한계와 과제를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은둔형외톨이 대신 일본어인 히키코모리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의미 전달이 명확하고, 2010년 옥스퍼드 사전에 HIKIKOMORI가 등록돼 국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 (1) 일본의 은둔·고립형 정책 전개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대책 전개는 전조단계, 사회문제화 단계, 초기 대응 단계, 양적 심화단계, 질적 심화 및 포괄적 대응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미 1970년대부터 히키코모리와 유사한, 내지는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의 주요 원인으로 등교거부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 1970년대에 시작된 등교거부 등 학교 부적응이 히키코모리 전조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이어 실제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젊은이들의 히키코모리 상태가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중학생의 등교거부와 사춘기의 정신적 히키코모리가 늘어나, 무기력하고 활력 없는 비사회적 행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佐藤隆也, 2018, p.28).

---

음 원고와 대화를 정리하여 2023년에 출판되었으며,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토 다마키 등이 저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후 히키코모리가 일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1990년 『청소년백서』에서 처음으로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사회적 히키코모리』(齋藤環, 1998년)라는 책이 90년대 후반에 발간되어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때 히키코모리 가족들이 연합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인 일본 신문사인 아사히신문사에서는 1997년 「히키코모루(은둔하는) 젊은이들」이라는 연재를 게재했었는데(石川良子 외, 2023, p.17) 이 시기에 그만큼 히키코모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히키코모리 문제를 인식하고 초기 대응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10대·20대를 중심으로 한 「히키코모리」를 둘러싼 지역 보건 활동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먼저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젊은이 자립학원창출 추진사업」이라든지, 「지역 젊은이 서포터 스테이션 설치」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히키코모리를 지원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都道府県·政令指定都市)에 정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히키코모리를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사업이었다.

2010년대부터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히키코모리의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sup>27)</sup>』 작성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히키코모리 지원에 있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이 문서에서는 히키코모리가 질병이라는 인식을 강조한다든지,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술이 미비한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石川良子 외, 2023, p.15). 2013년부터는 후생노동성이 히키코모리 서포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원 방법을 다양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5년과 2018년에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관련 주요 동향과 대책은 다음의 표와 같다.

---

27)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1. 서론', '2. 히키코모리 정의·출현율 관련요인', '3. 히키코모리 평가', '4.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 '5. 앞으로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표 II-11. 히키코모리 주요 동향과 대책

시기	주요 동향과 대책
1970년대 이전	1960년 일본아동정신의학회(현일본아동청소년의학회)설립 「학교 공포증」, 「등교거부」 관련 연구를 시작. 중학생의 등교거부가 증가 1965년 국립고쿠후다이 병원 아동정신과 내에 원내학급 설립
1980년대	1985년 동경 슈레(일본의 첫 프리스쿨 <sup>28)</sup> ) 개설
1990년대	1990년 내각부 『청소년백서』에서 「젊은층의 비사회적 문제 행동 요인의 하나로 '히키코모리'가 게재」 1991년 「히키코모리·등교거부 아동 복지대책모델 사업」 시작(멘탈 프렌드) 1998년 「사회적 히키코모리」(사이토 다마키 저) 발간→이후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일반화 1999년 KHJ전국 히키코모리 가족 연합회 발족
2000년대	2001년 『10대·20대를 중심으로 한 「히키코모리」를 둘러싼 지역 보건 활동 가이드라인(집정판)」 책정 2003년 『가이드라인(최종판)』 발표 내각부 「청소년육성시책 요강(大綱)」 발표 「젊은이 자립·도전 플랜」 2004년 니트가 유행어 대상에 노미네이트 2005년 「젊은이 자립학원창출 추진사업」→2009년 폐지 2006년 「지역 젊은이 서포터 스테이션 설치」 2009년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都道府県 政令指定都市)에 정비 개시
2010년대 이후	2010년 어린이 젊은이 육성 지원 추진법 시행 내각부 「젊은이의 의식에 관한 조사(실태조사) 추계 69.6만 명으로 발표(15세~39세) 후생성 『히키코모리의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2015년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 시행(生活困窮者自立支援法施行) 2016년 내각부 실태조사에서 추계 54.1만 명으로 발표(15세~39세) 2018년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 개정→기본이념규정의 수정 후생성 「히키코모리 서포터 사업」개시 내각부 실태조사에서 추계 61.3만 명으로 발표(40세~64세) 2020년 후생성 시정촌 플랫폼 설치 요청(지역복지과장에 통지) 2021년 후생성 「중층적 지원체제 정비사업」 개시(2020년의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2021년 시행) 2022년 후생성 히키코모리지원추진사업 확대→히키코모리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시정촌으로 확대 2023년 내각부 어린이 젊은이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결과 추계 146만명으로 발표(50명에 한 명)

\* 출처: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について(厚生労働省 : <https://www.mhlw.go.jp/content/12602000/001099862.pdf>)

28) 프리 스쿨이란 일반적으로 등교거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활동, 교육상담,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는 민간시설. 2015년 현재 전국 474개의 프리 스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홈페이지).

## (2) 일본 히키코모리 현황

다음으로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히키코모리 현황으로는 히키코모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실제 히키코모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히키코모리가 되는 배경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厚生労働省(2007, p.6)에서는 히키코모리는 다양한 원인의 결과로 사회적 참가(취학, 취업, 집 밖에서 교류 등)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대체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외출은 포함하지 않음)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정의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해 실제 조사에서도 6개월 이상 외출하지 않은 사람이 히키코모리로 진단되고 있다.

대표적인 히키코모리 조사 결과들을 통해 그 수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5년과 2018년에 내각부에서 조사한 「생활 상황에 관한 조사」 대상과 결과이다. 내각부에서는 2015년에는 15~39세를 대상으로 2018년에는 40세~64세 각각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전자의 경우 1.57%, 후자의 경우 1.47%가 히키코모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12. 히키코모리 조사 주요 결과(2015, 2018년)

조사대상	유효응답	실수	출현율	추계수	협의의 히키코모리		광의의 히키코모리	
					실수	추계	실수	추계
15~39세	3,115명	49명	1.57%	54.1만 명	16명	17.6만 명	36명	36.5만 명
40~64세	3,248	47명	1.45%	61.3만 명	28명	36.5만 명	19명	24.8만 명

\* 출처: 若者の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内閣府, 2015), 生活状況に関する調査(内閣府, 2018)(厚生労働省, 2023에서 재인용)

위의 설문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한 5,000명에게 “평소 얼마나 외출합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선택지를 주고 그 응답 비율을 해석한 결과이다. 선택지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자기 방에서 거의 안 나간다.”, “2. 자기 방에서 나가지만, 집에서 안 나간다.”, “3. 근처의 편의점 등에는 나간다.”, “4. 취미를 위해 볼 일이 있을 때만 나간다.” 이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되었다는 응답자를 광의의 히키코모리군(群)으로 정의하였으며, 1~3번을 선택했을 경우 협의의 히키코모리, 4를 선택했을 경우 준히키코모리로 해석하였다(内閣府).

그 다음 조사 결과는 내각부에서 2022년 조사하여 2023년에 발표한 자료이다. “어린 이·젊은이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조사”의 결과이다. 조사기간은 2022년11월10일~25일 까지였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대상 및 응답자는 10~39세(2022년 현재) 남녀의 8,555명(20,000명 중)이 응답하였으며(유효회수율 42.8%), 40~69세(2022년 현재) 남녀 5,214명(10,000명)이 응답(유효회수율 52.8%)하였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13. 광의의 히키코모리 비율과 남녀비율

유효 응답 중 광의의 히키코모리			광의의 히키코모리 중 남녀비율		
	해당자	비율		남	여
15~39세	144명	2.05%	15세~39세	53.30%	45.10%
40~64세 (40~69세 전체)	86명 (155명)	2.02% (2.97%)	40세~64세 (40세~69세전체)	47.7% (59.4%)	52.3% (40.6%)

\* 출처: こども・若者の意識と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内閣府)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について(厚生労働省, 2023에서 재인용)

참고로 위의 응답자 중에서 15~39세의 18.10%가, 그리고 40~64세의 19.8%가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줄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외출 빈도가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표와 같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퇴직이 외출을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14.9%와 42.2%)였으며, 15~39세의 경우 인간관계(14.0%), 질병(10.5%), 중학교 때 등교거부(9.6%) 순으로 외출을 힘들게 한 이유로 나타났다. 40~69세의 경우 질병(14.8%), 인간관계(6.7%), 돌봄이나 간호 담당(5.2%)이 그 이유로 나타났다.

표 II-14. 외출 빈도가 줄어든 이유

광의의 히키코모리 중에서 외출 빈도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			
15세~39세		40세~69세	
퇴직	14.9%	퇴직	42.2%
인간관계	14.0%	코로나유행	17%
코로나유행	12.3%	질병	14.8%
질병	10.5%	인간관계	6.7%

광의의 히키코모리 중에서 외출 빈도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			
15세~39세		40세~69세	
중학교 때 등교거부	9.6%	돌봄, 간호를 담당	5.2%
임신	7.0%	취업 실패	1.5%
그 외	9.6%	그 외	9.6%

\* 출처: こども・若者の意識と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内閣府)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について(厚生労働省, 2023에서 재인용)

히키코모리가 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를 살펴보자. 히키코모리가 되는 이유는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해서는 학창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 히키코모리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히키코모리라는 개념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분명히 하기가 쉽지 않지만, 등교거부나 왕따와 같은 “부정적인 학교 경험”, 성적의 저하나 수험/취업의 실패, 교우 관계에서 배신이나 실패 등 “일종의 좌절”이 공통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한부모 가정의 경우도 히키코모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村澤和多里, 2017, p.65).

한편 사회적 환경도 개인의 활동을 저해하여 은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보다 포괄적으로는 심리적 측면, 생물학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히키코모리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川北稔, 2021). 특히 일본 특유의 사회 분위기가 히키코모리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오랜 기간 히키코모리를 취재한 Zielenziger는 『히키코모리의 나라-왜 일본은 “잃어버린 세대를 낳았나”』(2007)에서 그 원인을 사회구조로 진단하고, 특히 ‘빌려온 민주주의’, ‘독립하지 않는 개인’, ‘지나친 노동 시간 중의 빈곤한 생활’, ‘브랜드 숭배’, ‘정보 기술혁신에 뒤처진 일본형 조직문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그 배경으로 일본의 집단적 보수주의가 지적되기도 하였다(藤本文朗, 2020, p.31). 보수적인 환경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실제 한국도 일본과 더불어 히키코모리가 현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히키코모리 중에는 남자들이 많으며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한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齋藤環 외, 2020, p.7).

한편 젊은 노숙자처럼 사회적 배제나 사회적 고립이 히키코모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개인의 자질이나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나 가족의 사정에 의해 본인 의도와 상관없는 복합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지 소외되는 젊은이가 존재하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이바쇼<sup>29)</sup>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성인이 되어도 동거하는 문화가 있는 국가에서 히키코모리 문제가, 성인이 됐을 경우 동거하지 않는 선진국에서는 젊은 노숙자 문제<sup>30)</sup>가 현저해지고 있다고 한다(齋藤環 외, 2020, p.8).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히키코모리가 되는 원인이나 메커니즘은 매우 다양하며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진 않으며,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정신전문의원인 Kato(2019)는 생물학-심리-사회문화 모델로 히키코모리의 복잡한 상태를 설명하면서도 약 70%의 히키코모리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3) 일본의 히키코모리 정책: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정책

일본의 히키코모리 정책은 주로 후생노동성에 의해 계획, 시행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자료(厚生労働省, 2023)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히키코모리 정책의 기본 기조는 ‘지역의 시정촌에 상담 창구의 설치와 지원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 이를 도도부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먼저 국가, 정부 차원의 정책을 살펴보면 히키코모리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와 인재양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명으로 보면, ‘사회전체 기운 형성’, ‘지원의 질 향상’, ‘지원자 케어(보호)’로 나누어진다. 사회 전체 기운 형성은 히키코모리에 관한 지역사회를 향한 광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히키코모리 지원 심포지엄 개최, 히키코모리 지원정보 포털 사이트 운용이 있다. 또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재 육성연수 사업의 경우 지역의 히키코모리 지원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연수, 중견자 연수로 나누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원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하였다. 이 정책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지원하고 있는 담당자가 마주하

29) 이바쇼(居場所)란 히키코모리와 같이 개인이 쉴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을 안심하고 만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프리스페이스라는 영어로 표기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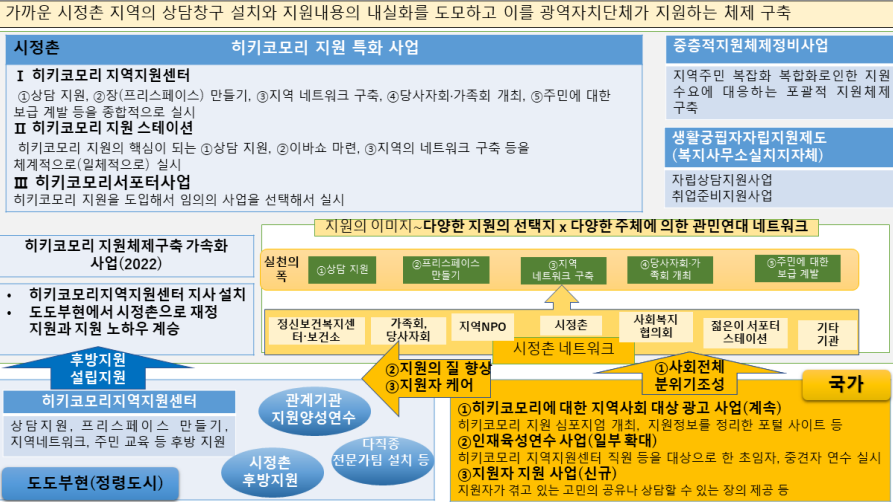
30) 영국의 경우 25세 이하 노숙자가 8만3천명, 미국의 경우는 180만명의 젊은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있는 고민을 함께하거나 그들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장의 제공 등을 통해 담당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도도부현에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히키코모리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후방지원’, ‘설립지원’이라고 하며, 각 도도부현의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의 직원양성 연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가한 팀 설치 등 체계적인 히키코모리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도도부현의 히키코모리지원센터는 2023년 현재 9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도부현의 히키코모리 정책은 다양한데, 종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와 도도부현의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토대로 시정촌에서는 실제 히키코모리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하게 된다. 시정촌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 ‘히키코모리지원스테이션’, ‘히키코모리 서포터 사업’이 있다. 지역의 히키코모리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상담지원, 이바쇼 만들기, 가족회, 당사자회 개최, 주민 대상 인식 개선 등이 있으며, 이는 관할 지역에서 실제 히키코모리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업들이다. 히키코모리 스테이션에서도 히키코모리 지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지원, 이바쇼 만들기, 지역의 네트워크만들기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히키코모리서포터 사업은 각 지역에서 특히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실천하게 된다. 한편, 후생노동성의 히키코모리 정책 외에도 최근 ‘생활궁핍자지원체제’ 나 ‘중층적지원체제정비 사업’을 통해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히키코모리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히키코모리 정책의 전체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의 전체 프레임, 이미지



\* 출처: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について(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content/12602000/001099862.pdf>)

그림 II-10. 일본의 히키코모리 정책의 전체 구조

후생노동성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히키코모리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서 제시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표 II-15. 히키코모리 지원 로드맵

히키코모리 지원 로드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히키코모리 지원체제를 위해 2009년부터 도도부현·시정촌에 「히키코모리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18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에도 「히키코모리 서포터 사업」을 통해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도 상담창구의 조기 설치와 지원 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①센터 설치 주체를 시정촌으로 확대, ②기초지자체의 새로운 사업으로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상담지원, 이바소만들기·네트워크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히키코모리지원스테이션」을 창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도부현의 기초지자체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①시정촌과 연계한 센터의 부속센터 설치와 ② 소규모 시정촌 등의 체제정비를 가속화할 수 있게 지원하여, 도도부현의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준화를 도모하면서, 시정촌 지원체제 정비를 촉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3년부터는 기초지자체에서 히키코모리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히키코모리 지원을 추진하면서 연수의 확대와 지원자 지원을 시작</li> </ul>

\* 출처: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について(厚生労働省(2023): <https://www.mhlw.go.jp/content/12602000/001099862.pdf>)

후생노동성이 지향하고 있는 히키코모리 정책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담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우선 양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인재 양성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원자 케어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도부현과 기초지자체의 실천 사업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I-16. 실시주체별, 지원 범주별 실천 사업(◎ 필수 ○ 임의)

주체	사업명	지원범주				당사자, 가족 지원			주민 홍보, 민간과 연대		현황 파악	지원체제충실		지원자 양성	지자체 지원
		상담	이바소	연락 협의회	당사자 / 가족회	주민 대상 강연	서포터 양성	민간과 연대	실태 조사	전문직 배치	다 직종팀	관계 기관 직원 연수	관내 후방 지원		
도도부현	센터	◎	◎	◎	◎	◎	○	○	○	○	○	◎	◎		
	부속 센터	◎	◎	○	○	○	○	○	○	○	-	-	○		
중핵도시 시정촌	센터	◎	◎	◎	◎	◎	○	○	○	○	○	○	-		
	스테이션	◎	◎	◎	○	○	○	○	○	-	-	-	-		
	서포터 사업	○	○	○	○	○	○	○	○	-	-	-	-		

\* 출처: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について(厚生労働省(2023): <https://www.mhlw.go.jp/content/12602000/001099862.pdf>)

지역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 지역복지과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①히키코모리 상담창구의 명료화와 정보 발신, ②지원대상자의 실태나 요구 파악, ③관계 기관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정촌 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 결과 ①번에 대해서는 1,429개 지자체(82.1%)가 완료하였으며, ②에 대해서는 979개 지자체(54.8%)가 실태나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③지역 플랫폼은 1,205개 지자체(69.2%)가 2023년까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厚生労働省, 2023, p.33~34).

그럼 실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는 도도부현, 지정도시, 시정촌이 실시 주체가 될 수 있다. 물론 지역의 시민단체 등에 위탁도 가능하다. 센터 사업은 기본적으로 필수 사업과 임의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필수 사업으로는 상담지원사업, 이바쇼만들기 사업, 당사자회, 가족회 개최, 주민 대상

강연회, 연수회 개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요한 업무는 상담이며, 이를 위해 히키코모리 지원 코디네이터<sup>31)</sup> 2명 이상 배치가 원칙이다. 이들의 역할은 히키코모리 당사자나 가족으로부터의 전화 대응, 센터 방문을 통한 상담에 대응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하여 조기에 다른 기관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사자를 연결시켜주는 단체로는 관련 시민단체나 가족회 같은 민간단체, 학교나 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기관, 복지사무소나 정신보건복지 센터 등의 복지·행정관련 기관, 지역 젊은이 서포터 스테이션, 하로워크(ハローワーク: 공공직업안정소)와 같은 취업 관련 기관,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등이 있다. 이와 별개로 임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서포터 파견', '민간단체와 연계 사업', '실태파악조사 사업', '다직종전문 팀 설치'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센터 설치는 200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8년에는 47개 모든 도도부현·지정도시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2022년부터는 시정촌으로 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 (4) 일본의 히키코모리 정책: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외의 정부부처의 정책

히키코모리 지원은 주무 부처인 후생노동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가 참가하여 다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횡단회의(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関係府省横断会議)」와 「경제 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0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2)」에서 히키코모리 대응이 반영된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횡단회의」(이하 부처 횡단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부처 횡단 회의는 2021년 후생노동성에서 관련 정부부처에서 히키코모리 정책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요청을 보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정부부처의 국장들이 참가하는 모임이 성사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지자체가 히키코모리 지원을 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 등 관민(官民)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획과 연대를 위한 환경정비에 대해 논의도 시작되었다.

---

31)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표 II-17.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횡단회의 구성과 경과

부처 횡단회의 구성	개최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생노동성장관정무관</li> <li>• 내각관방 고독·고립 대책 정책실장</li> <li>• 내각부 정책총괄관</li> <li>• 소비자청 차장</li> <li>• 문부과학성 초·중·고등교육국장</li> <li>• 농림수산업성 농림진흥국장</li> <li>• 경제산업성 상무서비스심익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회(2021년6월)히키코모리지원에 관한 각부처의 정책에 관하여</li> <li>• 제2회(2021년7월)히키코모리지원에 관한 선진적인 정책에 관하여 (시가 현과 오카야마 현)</li> <li>• 제3회(2021년8월)히키코모리지원에 관한 선진적인 정책에 관하여 (고치현과 오사카부)</li> <li>• 제4회(2021년8월)히키코모리지원에 관한 정부관계부처 횡단회의 총정리</li> </ul>

\* 출처: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について(厚生労働省(2023): <https://www.mhlw.go.jp/content/12602000/001099862.pdf>)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정부부처가 참가하여 히키코모리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필요성을 강조한 공문에서 히키코모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개인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 정부부처의 지방 조직과 같은 행정기관, 민간단체, 민간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와 협동이 필요하며, 그 결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内閣府 외 2021<sup>32)</sup>) 첫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히키코모리와 연관된 정책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가 부처의 히키코모리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해 내각부(内閣府)에서는 고립고독 문제와(孤独·孤立の問題)와 히키코모리 관련 조사시책(ひきこもり関係の調査・施策)을, 그리고 소비자청(消費者庁)에서는 히키코모리 당사자를 둘러싼 소비자피해 문제(ひきこもり当事者(孤独·孤立した消費者)を巡る消費者被害)를,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등교거부 문제에 관한 지원 사례(不登校児童生徒に対する支援推進事業)를, (농림수산업성)農林水産省에서는 농업과 복지 연대(農福連携)사업 사례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서는 미래 교실 실증 사업(「未来の教室」実証事業)과 온라인을 활용한 다시 배우기 지원(オンラインを活用した学び直し支援)사례를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厚生労働省, 2021).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서 히키코모리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32) ひきこもり支援における関係機関の連携の促進について(依頼)

한편 일본 내각부에서는 2022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2022(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2)’를 발표하였는데, 이 방침에서 특히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개혁의 중요성과 그러기 위한 포괄적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독·고립대책」과 「취업빙하기세대 지원」에서 히키코모리 대책이 강조 되었다. 「고독·고립대책」 그 자체가 히키코모리와 연관된 사업이지만, 내용 중에 명시적으로 ‘히키코모리 지원을 위한 지원책 충실’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취업빙하기세대 지원’과 관련하여 취업빙하기 세대들에 대한 기존의 정책 효과를 검정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면서 상담, 훈련에서 취업과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를 향한 개혁이라는 경제 정책에서도 히키코모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히키코모리 문제가 얼마나 포괄적이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5) 히키코모리 사례: 동경도(東京都)와 동경도 에도가와구(江戸川区)

다음으로 실제 정부의 히키코모리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도도부현 사례로 동경도의 사례를 살펴본다. 동경도가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히키코모리지원 가이드북(ひきこもり支援ガイドブック)’(東京都, 2023) 등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동경도에서도 히키코모리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의료, 간호, 소득, 취업 등 다양한 문제와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2019년부터 동경도청의 복지보건국이 주무부서가 되어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응해오고 있다. 히키코모리 대책은 다양한 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2019년 ‘동경도 히키코모리 지원협의회(東京都ひきこもりに係る支援協議会)’를 설치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빈틈없는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협의회의 추후 방향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상담·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현황 등 조사<sup>33)</sup>’를 실시하여 2022년에 공개하였다(東京都, 2021).

그 결과를 토대로 동경도는 히키코모리 지원 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33) 주요 결과로 히키코모리 당사자는 19세 이하가 14.7%, 20대가 29.1%, 그 외는 30대 이상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히키코모리가 된 계기로는 ‘학교·대학 등에서 따돌림 등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됐다.

표 II-18. 동경도 히키코모리 지원 방향과 특징

지원협의회 주요 방향	주요 내용과 특징
1. 도민과 관계자 대상 홍보·효과적인 정보 제공	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와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메시지 발신. 전자의 경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념인 편견과 차별을 반대하며 당사자와 가족의 고립을 방지하자는 정보이며, 후자는 히키코모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
2.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상황을 고려한 섬세한 지원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소중하며,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확대가 중요, 당사자가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의 중요성, 히키코모리 가족 지원의 중요성, 히키코모리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접근이 필요
3. 빈틈없는 지원체제 정비	히키코모리 당사자의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며 당연하고 있는 고민도 갖가지이므로, 한 영역이나 지자체만의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관계자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

\* 출처: 東京都ひきこもり支援ガイドブック(東京都, 2023, p.7-9)에서 요약

동경도에서는 히키코모리 주요 정책 방향은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인식 개선, 당사자의 상황을 배려한 지원,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지원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19. 동경도 히키코모리 방향과 실제 사례

동경도 히키코모리 지원 방향 제언	실제 실천 사례
1. 히키코모리 이해 촉진을 위한 도민과 관계자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회/강연회의 정기 개최</li> <li>•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li> </ul>
2. 상담창구의 명료화와 당사자, 가족 대상 효과적인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자체에서 상담 창구를 소개하는 팸플릿 등의 작성</li> <li>• 지원 우수사례를 정리한 사례집 작성</li> <li>• 당사자와 이전 당사자가 참가한 홍보, 계몽활동</li> <li>• 적절한 지원 스킬이나 도덕을 가진 지원 기관에 대한 안내</li> </ul>
3. 가까운 지역의 상담체제 충실과 적절한 지원 기관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바쇼(연령별, 여성이나 성소수자별 모임, 온라인을 활용한 모임)</li> </ul>
4. 다양한 사회참가의 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이용이나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는 등 당사자 상황을 고려한 사회 참가</li> <li>• 봉사활동이나 단시간 일할 수 있는 업무 등 부담이 적은 취업 체험 장</li> </ul>
5. 지원자와 당사자 가족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종, 역할을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 검토</li> <li>•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 촉진을 목적으로하는 지원자,</li> </ul>

동경도 히키코모리 지원 방향 제언	실제 실천 사례
6. 당사자 가족을 배려한 상담원·담당자의 지원 스킬 향상	<p>주민 대상 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도 히키코모리 서포트 네트워크 다직종전문 팀 대상 상담(의료, 심리, 법률, 복지)</li> </ul>
7. 지역에서의 연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청 부서, 지원기관, 가족회 등이 참가하는 연락협의회 설치, 운영</li> <li>• 보건 의료, 복지, 취업, 교육 등 각 기관관계자가 참가하는 사례 검토나 그룹활동 실시</li> <li>• 동경도 히키코모리네트워크, 구시정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실시.</li> </ul>

\* 출처: 東京都ひきこもり支援ガイドブック(東京都, 2023, p.10~16)에서 요약

다음으로 실제 동경도의 히키코모리 정책이 관할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소개하기 위해 동경도 기초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단체 사례로 동경도의 에도가와 구 사례를 살펴본다. 동경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 실제 관할구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구시정촌의 지원 사례집区市町村における支援の実例(동경도, 2023)’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에도가와구는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 지역 주민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당사자와 그 가족을 배려한 지원을 활성화 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의 일환으로 히키코모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본 조례의 기본 이념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히키코모리 상태의 시민이 지역의 일원으로서 그의 삶의 방식 및 가치관이 존중받으며 자기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사람 등이 고민이나 불안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립되는 일이 없이, 지역 주민 및 지원단체와 상담하여 그 상황에 필요한 서포터 혹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에도가와 구에서는 ‘히키코모리 상담지원’, ‘가족회’, ‘당사자회’, ‘온라인 이바쇼’, ‘과자 모임 에움길’<sup>34)</sup>을 시행하고 있다. 히키코모리 상담지원의 경우 당사자나 가족이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후 첫 상담에서는 최대한 곤란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은 상담창구나 온라인 혹은 근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자택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후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34) 에움길은 지름길의 반대말로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길을 의미

관계 기관과 연계하면서 서포터를 지속하게 된다. 이바쇼 이용, 취업 준비 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립 후에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

한편 가족들의 모임인 '에도가와구 지역가족회'는, 히키코모리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는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는 평소 얘기할 수 없었던 마음이나 고민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강사를 초청하여 히키코모리 상태에 대해 이해하면서 대응 방법이나 이용가능한 제도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당사자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히키코모리 당사자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룹활동 등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히키코모리 상담지원 담당자에 의한 자기 분석이나 마음 관리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온라인 이바쇼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은둔 생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단계적으로 사회로 나아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과 실세 대면 모임장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인 온라인 이바쇼를 마련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인터넷상의 메타버스(가상공간)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분신)를 통해 다른 참가자들과 채팅 기능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자택에 있으면서 회의장에 있는 감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다.

과자가게 이바쇼 에움길(駄菓子屋居場所 よりみち屋)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히키코모리 당사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과 단시간 취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류 공간이고 보드 게임 같은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며, 취미와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 (6) 히키코모리 사례: 효고현(兵庫県) 사례

다음으로 지방의 도도부현의 히키코모리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도도부현 사례로 효고현(兵庫県) 사례를 살펴본다. 동경과 다르게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히키코모리지원시책에 대하여(ひきこもり支援施策について)'(厚生労働省, 2023에서 재인용)를 참고로 정리하였다.

효고현에서는 2014년 남녀청소년과가 담당하는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효고 히키코

모리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정세를 반영하여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에는 장애복지과(정신보건복지센터)가 담당하는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효고현 히키코모리 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현 내의 히키코모리 시책의 총괄은 장애복지과가 담당하고 있다. 장애복지과, 정신보건복지센터, 남녀청소년과가 각각 다른 경위에서 히키코모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수의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당사자의 상황이나 필요를 배려한 지원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효고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시책과 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다.

표 II-20. 효고현 히키코모리 주요 시책과 담당 부서

구분	시책	담당부서
히키코모리지역 지원센터	효고현 히키코모리 종합지원센터	장애복지과(정신보건복지센터)
	효고히키코모리 상담 지원센터	남녀청소년과
연수·인재육성	시정(市町) 직원 대상 히키코모리 지원 합동연구회	장애복지과
	사춘기 관련 문제 연구회	정신보건복지센터
지원	간병 지원 전문 담당자 연수	장애복지과
	아웃리치 지원 담당자 배정	복지부지역복지과
연대 강화	관계기관의 기술 지원	정신보건복지센터
	효고 젊은이 케어 네트워크 추진회의	남녀청소년과
아바쇼 설치	지역 자점 주최의 지원 기관 연락 회의	남녀청소년과
	이바쇼의 설치	정신보건복지센터 효고현히키코모리종합지원센터
가족 지원	전자 매체에 의한 이바쇼 설치	장애복지과
	가정교실의 개최, 가족회 지원	정신보건복지과
정보제공	효고 히키코모리 정보 포털 사이트	장애복지과
	홈페이지 개설, 홍보책자 작성, 관계기관의 홍보책자 등에 정보 제공, 조언	정신보건복지센터

\* 출처: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について(厚生労働省, 2023, p.64: <https://www.mhlw.go.jp/content/12602000/001099862.pdf>)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효고 현에서는 다양한 관계자가 함께 히키코모리 정책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 (7) 히키코모리 정책의 성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히키코모리 관련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여,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체계화되고 있는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적극적으로 히키코모리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10년, 2015년, 2018년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히키코모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내용이나 방법도 체계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 정부의 요청으로 지자체에서도 히키코모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현재, 978개 지자체(54.8%)에서 독자적인 히키코모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厚生労働省, 2023, p.34).

또한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 점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도부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히키코모리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과 정책이 명확해지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각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는 현재 98개소가 설치 되었다(厚生労働省, 2023년3월 현재). 그리고 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02,412건이던 상담건수가 2021년에는 120,6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실제 상담을 받은 인원은 24,324명인 것으로 조사 됐다(厚生労働省, 2023)

이와 함께 다양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시작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통합적, 중층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응하면서 분명해지고 있는 점은 원인이 복잡하고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다각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통합적이고 중층적인 대응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 내에서 복수의 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거나, 후생노동성뿐만 아니라 문부성, 경제산업성 등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022년 현재 293개 지자체에서 중층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거나 연내 시작할 것으로 조사되었다(厚生労働省, 2023, p.56)

대표적인 연대, 협력 사업이 「히키코모리지원에 관한 관계 정부기관협의회」였으며, 이를 요청하는 공문의 아래 내용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히키코모리 대책의)도도부현이나 시정촌(특별구를 포함)보건복지 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 내의 다른 관계 부서, 타 지자체 관계 부서, 각 정부부처의 지방 조직의 행정기관에 더해서, 민간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의 지역 사회자원이, 관민의 틀을 넘어 넓게 연대, 협동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기관의 연대, 협동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内閣府 외, 2021).

그리고 지원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히키코모리 당사자 지원이 우선이었지만, 현재는 가족 지원뿐 아니라 지원자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히키코모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도와주는 담당자/지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장기적인 히키코모리 지원으로 담당자/지원자가 타격을 입거나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원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한 점도 변화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 (8) 히키코모리 대응을 위한 과제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정책이 체계화되고 있고 일정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해결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대해 관련 문헌을 토대로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히키코모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村澤和多里(2017, p.6)히키코모리라는 현상은 정신보건에 관련된 현상이면서도 등교거부나 따돌림과 같은 교육, 사회 문제와 관련되며, 한편 니트와 같은 젊은층의 사회문제와도 관련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이는 문제해결의 복잡함을 시사하며 기존과 다른 영역을 횡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며 히키코모리 지원을 어렵게 하는 과제라고 진단하였다. 林 恭子(2022)도 히키코모리 100명이면 100가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도 등교거부, 질병, 장애, 취업, 육아 등 다양해지고 있는 점이 문제이며, 특정 창구나 특정 단체만의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직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 것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藤本文朗(2020)는 ‘어린이 젊은이 육성법<sup>35)</sup>’(2010), ‘생활궁핍자지원

35) 어린이 젊은이 육성법은 일본국 헌법 및 아동권리조약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 법으로 인해 히키코모리 현황 조사 실시 등 히키코모리 대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대상이 39세까지만 점. 본 법으로 젊은이 서포터 스테이션 사업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주 목적이 취업인 점이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법<sup>36)</sup>(2014), ‘사회복지법개정<sup>37)</sup>(2020) 등에서 히키코모리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며 이는 히키코모리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았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히키코모리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히키코모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히키코모리는 당사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며, 본인도 언젠가 건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으며, 일하고 싶고, 활동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히키코모리는 은둔하는 동안도 고민하고 사고하고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히키코모리는 현상이나 상태이며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나치게 문제로 파악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厚生労働省, 2023, p.5).

한편 히키코모리 지원센터 등 체제를 갖춰가고 있지만 지원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장에서는 지원자가 임의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이 적지 않은 것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원센터나 상담창구가 양적으로만 증가할 경우 지원 미스매치나 지원자가 기대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지원을 기피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久保浩明, 2023, p.43). 林 恭子(2022)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행정, 취업지원 서비스를 경험자 약90%가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히키코모리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과제로 진단되고 있다. 이는 8050 문제로 진단되고 있으며 50대의 히키코모리 자식을 80대 부모가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80대면 연금으로 생활하는 무직이 대부분이므로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렵게 된다. 80대가 히키코모리를 돌보기 위해 본인은 필요한 간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KHJ全国ひきこもり家族会連合会, 2022, p.22). 그리고 이는 은둔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은둔이 장기화되면 사회로 나가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6) 이 법률에는 당초 ‘히키코모리’ 언급이 없었지만, 2019년6월 후생노동성의 지역복지과장의 공문에서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자립지원기관의 대응에 포함되게 되었다. 히키코모리 인구 증가가 그 배경으로 알려져있다.

37) 이 개정법에는 ‘히키코모리’라고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역 복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일체적이면서 중층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의 내용에 “지역 사회에서 고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자와 그 외에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 및 세대를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조언 등의 편의를 포괄적이면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이라는 문구가 히키코모리 지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2) 영국 사례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sup>38)</sup>과 은둔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양상과 접근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로 알려진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외로움(loneliness)’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이하 ONS)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16~24세 연령대가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외로움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ONS], 2018a). 이는 청소년기가 단순히 성장의 시기가 아니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특히 취약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했다. 그리고 같은 해 ‘연결된 사회: 외로움 해결을 위한 전략(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을 발표하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도 시작했다(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DCMS], 2018).

주목할 만한 점은 2021년 6월, 영국의 외로움 담당 장관과 일본의 고독·고립 대책 담당 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로움 해결이 중요한 국제적 과제”라는 데 동의하며, 양국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의제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DCMS, 2021b). 이는 외로움과 고립·은둔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에 대한 접근 사례를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은 청소년의 정의가 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6~24세를 청년(young people)으로 정의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정의(9~24세)에 가장 근접하지만, 외로움 연구와 정책에서는 보다 폭넓은 연령대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11-30세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부터 청년기 초기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Achterbergh et al., 2020).

이러한 청소년 외로움은 단순한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외로움은 성인기의 정신 건강 문제, 심장 질환, 그리고 조기 사망률 증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atthews et al., 2017).

---

38) 본 절은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가 작성하였다.

또한 외로움이 학업 성취도 저하,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감소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Goodfellow et al., 2023).

여기에서는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대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외로움의 정의, 측정 방법, 실태,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청소년 외로움 대응 정책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청소년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우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1)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 정의와 연구

### ① 외로움의 정의 및 측정

영국은 청소년 외로움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적 접근을 외로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측정 방법부터 확립하였다. 영국 통계청(ONS)은 외로움을 “우리가 가진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주관적이고 원치 않는 동반자 관계의 부족이나 상실 감정”(ONS, 2018b, p.4)으로 정의한다. 이는 Perlman과 Peplau(1981)가 제안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며, 조 콕스(Jo Cox) 위원회와 영국 정부의 외로움 전략에서도 채택된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는 외로움이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solitude)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혼자 있는 상태는 객관적인 물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접촉 수, 혼자 있는 시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수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Jefferson et al., 2023). 반면,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부재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의미한다(Achterbergh et al., 2020). 외로움은 이들과 달리 주관적인 경험으로, 개인이 가진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물리적으로 혼자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더라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ONS, 2018e).

외로움의 측정에 있어 영국 통계청은 공식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2018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외로움 해소 전략(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의 일환으로, ONS가 외로움 측정을 위한 국가 지표를 개발하라는 요청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DCMS, 2018). ONS는 정부 부처 간 외로움 해결 팀 및 외로움 측정과 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외로움 기술 자문 그룹(TAG)과 협력하여 외로움 측정을 위한 권장 사항을 개발했다(ONS, 2018b).

ONS는 성인(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측정’ 방식과 UCLA 외로움 척도의 3항목 버전을 사용하는 ‘간접 측정’ 방식을 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0~15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이 질문들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권장된 측정 도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II-21. 영국의 성인용 및 아동용 외로움 측정 도구

대상	측정 방식	질문	응답 범주
성인용 (16세 이상)	직접 측정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자주 또는 항상”, “가끔”, “때때로”, “거의 없음”, “전혀 없음”
	간접 측정 (UCLA 척도 3항목 버전)	1. 얼마나 자주 함께할 수 있는 관계(partnership)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2. 얼마나 자주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3.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다고 느끼십니까?	“거의 없음 또는 전혀 없음”, “가끔”, “자주”
아동용 (10~15세)	직접 측정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나요?	“자주 또는 항상”, “가끔”, “때때로”, “거의 없음”, “전혀 없음”
	간접 측정 (수정된 UCLA 척도)	1. 얼마나 자주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나요? 2. 얼마나 자주 소외감을 느끼나요? 3. 얼마나 자주 혼자라고 느끼나요?	“거의 없음 또는 전혀 없음”, “가끔”, “자주”

\* 척도: ONS(2018e, p. 5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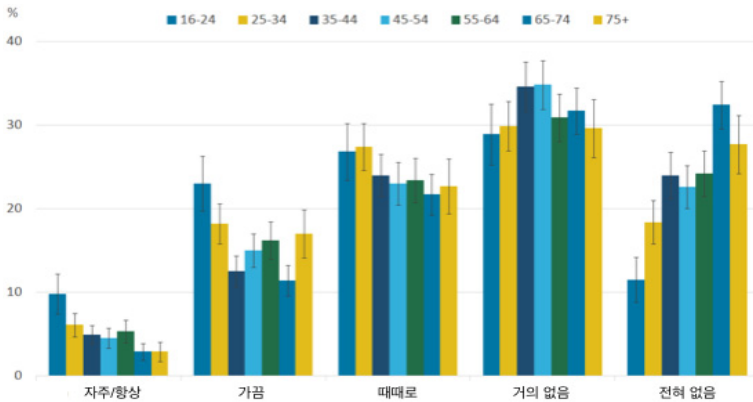
10~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정된 질문은 아동들의 이해도와 응답 능력을 고려하여 구분되어 개발되었다. ONS는 아동협회(The Children’s Society)와 협력하여 이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질문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특히 “함께 할 수 있는 관계(partnership)”와 “고립”이라는 단어가 아동들에게 어렵거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되었다(ONS, 2018e). 한편, 9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기 보고식 측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ONS의 기술 자문 그룹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략 10세부터 아동들이 일반적으

로 이러한 유형의 주관적인 설문 조사 질문을 이해하고 의미 있게 응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ONS, 2018e).

이러한 측정 방식의 채택은 청소년 외로움에 대한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질문과 간접적인 질문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직접적인 응답을 꺼리는 경우에도 외로움을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ONS, 2018e).

## ② 청소년 외로움 실태 및 특성

영국의 외로움 실태는 전 연령대에 걸쳐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통계청(ONS)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5%가 “자주 또는 항상” 외롭다고 응답했으며, 약 16%가 “가끔” 외롭다고 응답했다(ONS, 2018d). 그러나 이러한 외로움 경험은 연령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청소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6-24세 연령대는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외로움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의 약 10%가 “자주 또는 항상” 외롭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ONS, 2018a). 더욱이, 이 연령대의 약 40%가 “가끔” 외롭다고 응답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연령대별 외로움 빈도는 [그림 II-7]과 같다.



\* 출처: ONS 2018a: p. 5)

그림 II-11. 연령대별 보고된 외로움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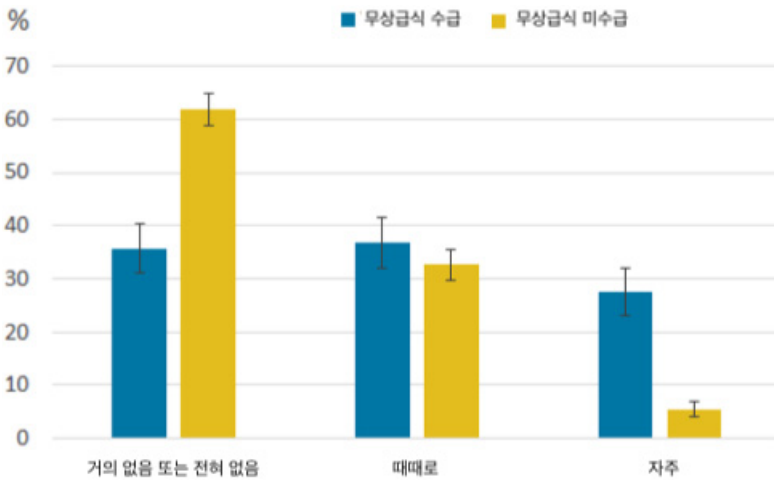
청소년기의 외로움 취약성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학교 환경에서의 압박감이 크게 작용한다.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중요한 전환점인 GCSE(16세)와 A-level(18세) 시험은 청소년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ONS의 보고서에 따르면, 16세와 18세에 외로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러한 중요한 시험 시기와 일치한다(ONS, 2018a).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활동 시간을 줄이고, 또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학업 성취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자존감 저하와 사회적 비교를 촉진하여 외로움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는 정신건강 문제가 처음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영국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Bor et al., 2014), 이는 외로움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 건강 문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외로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청소년 외로움의 특성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무상 급식을 받는 아동의 27.5%가 “자주” 외롭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은 아동은 5.5%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ONS, 2018c). 이는 빈곤과 외로움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무상 급식 수령은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또래와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무상 급식 수령 자체가 일종의 낙인이 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배제 경험이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가족과의 질적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이 또한 외로움에 기여할 수 있다.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외로움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도시에 사는 청소년의 19.5%가 “자주” 외롭다고 응답한 반면, 농촌 지역 청소년은 약 5%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ONS, 2018c). 이러한 차이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도시 지역은 더 익명성이 높고 이웃 간의 유대관계가 약한 경향이 있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강한 공동체 의식과 이웃 간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경우, 교통과 접근성 문제가

청소년의 사회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제한된 대중교통은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ONS, 2018a), 동시에 지역사회의 강한 유대관계가 이를 상쇄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도시 청소년들보다 낮은 외로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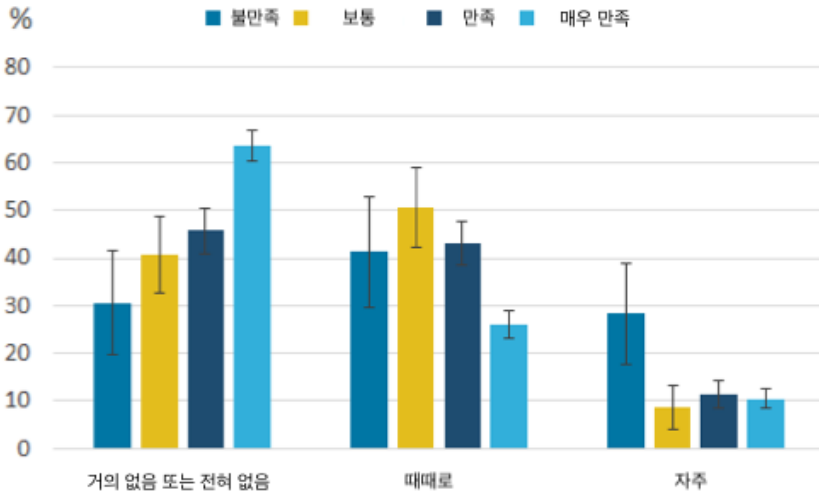


\* 출처: ONS(2018a, p. 8)

그림 II-12. 무상 급식 수급 여부에 따른 아동들의 보고된 외로움 빈도

건강 상태도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더 높은 외로움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ONS, 2018d).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 문제로 인해 또래와의 사회활동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동성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친구들과의 외출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특수 교육 필요(Special Educational Needs: SEN)를 가진 청소년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불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

통합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이들의 높은 외로움 수준에 반영되고 있다.



\* 출처: ONS(2018a, p. 10)

그림 II-13. 주관적 건강만족도에 따른 아동들의 보고된 외로움 빈도

### ③ 외로움의 원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영국에서는 청소년 외로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종단적 패널 연구, 반복적인 대규모 설문조사, 질적 연구, 그리고 메타 합성(meta-synthesis) 연구 등이 있다. 패널 연구로는 ‘새천년 코호트 연구(Millennium Cohort Study)’와 ‘환경 위험 종단 쌍둥이 연구(Environmental Risk Longitudinal Twin Study)’가 있다. ‘새천년 코호트 연구’는 2000~2001년에 태어난 약 1만 9천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 연구로, 참가자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최근 몇 년간 외로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로움 경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 위험 종단 쌍둥이 연구’는 영국의 쌍둥이 2,232 명을 대상으로 5세부터 18세까지의 발달을 추적한 연구이다(Matthews et al., 2019). 이 연구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외로움 경험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

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Matthews 등(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8세 때의 외로움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의 영향을 받지만,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설문조사로는 ‘지역사회 생활 조사(Community Life Survey: CLS)’와 ‘좋은 아동기 지수 조사(the Good Childhood Index Survey)’가 있다. ‘지역사회 생활 조사’는 영국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16세 이상 성인 대상의 조사로, 2016~17년부터 외로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과 성인의 외로움 경험을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ONS(2018d)의 보고서에 따르면, 16~24세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아동기 지수 조사’는 아동협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로, 청소년의 웰빙과 외로움 경험을 조사한다. 이 조사는 청소년들의 주관적 웰빙과 외로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동협회(The Children’s Society, 2023)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 방법은 청소년 외로움의 주관적 경험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ONS(2018a)는 청소년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로움의 개인적 경험과 그 맥락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외로움을 인식하고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많은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닌 ‘진정한 연결감의 부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메타 합성 연구는 여러 질적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더 넓은 맥락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Achterbergh 등(2020)은 우울증을 가진 젊은이들의 외로움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을 메타 합성 분석했다. 이 연구는 외로움과 우울증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밝혀냈는데, 외로움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울증으로 인해 외로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 외로움의 주요 원인과 영향이 드러났다. 외로움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격 특성, 정신 건강 상태, 사회적 기술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정신 건강 상태는 청소년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나타났다. ONS(2018d)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Achterbergh 등(2020)의 연구는 이러한 관계가 양방향적일 수 있음을 제시했는데, 외로

움이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정신 건강 문제가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Matthews 등(2019)의 연구는 18세 때의 외로움이 우울증, 불안, 자해 행동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냈다.

Jefferson 등(2023)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 특성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회복력이 외로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기술의 부족도 외로움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Qualter 등(2015)의 연구는 낮은 자존감이 외로움의 또 다른 중요한 개인적 요인임을 강조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타인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외로움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 관계의 질, 또래 관계의 부재 또는 불만족,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가족 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외로움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ONS(2018a)의 보고서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가 청소년의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래 관계의 중요성도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었다. ONS(2018c)의 보고서는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 외로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Goodfellow 등(2023)의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을 더 자세히 분석했는데, 특히 또래 집단에서의 소외와 괴롭힘 경험이 청소년 외로움과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괴롭힘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다. 또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의 질과 양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믿을 수 있는 친구의 수가 적거나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했다. Tagomori 등(2022)의 연구는 특히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의 외로움 경험에 주목했는데, 이들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또래들과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외로움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학교 전환, 이사, 부모의 이혼 등 생활환경의 변화가 주요하게 언급된다. 특히 학교 환경은 청소년의 주된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외로움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ONS(2018a)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전환기,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는 청소년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또래 집단, 학업 요구의 변화 등이 이 시기의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Jefferson 등(2023)의 연구는 특히 학교 전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Jefferson 등(2023)의 연구는 학교 환경의 특성이 청소년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했다. 예를 들어, 경쟁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학교 분위기는 청소년들 사이의 연대감을 약화시키고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협력적이고 지지적인 학교 환경은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Hey 등(2023)의 연구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도 조사했는데, 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이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도시 환경의 익명성과 사회적 단절이 청소년 외로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Goodfellow 등(2023)의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영향도 강조했다는데, 소셜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이 일부 청소년들의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이 실제 대면 관계를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청소년 외로움이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더 광범위한 영향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영향으로는 정신 건강 문제, 신체 건강 문제, 수면 문제, 전반적인 웰빙 저하 등이 있다. Matthews 등(2017)의 연구는 외로움이 수면의 질 저하와 불면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Goodfellow 등(2022)의 연구는 외로움이 청소년의 개인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자세히 조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정서적 안녕감과 강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더 많이 보고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는 외로움이 청소년의 신체 활동 수준과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외로운 청소년들이 운동을 덜 하고 불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학업 성취와 미래의 고용 전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다. ONS (2018a)의 보고서는 외로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더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성인기의 실업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Jefferson 등(2023)의 연구는 외로움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자세히 설명했는데,

외로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Tagomori 등(2022)의 연구는 외로움이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기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케어스 패밀리(The Cares Family, 2023a)와 같은 외로움 문제를 주도하는 단체들은 청소년 외로움이 더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외로움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의료비용 증가 등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외로움의 만연은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사회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British Red Cross(2023)의 보고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영향을 더욱 자세히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외로움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로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덜 참여하고,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청소년 외로움이 장기적으로 국가의 보건 및 복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외로움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와 신체 건강 문제가 증가하면,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가 의료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기의 외로움이 성인기까지 지속될 경우, 이는 개인의 생산성과 경제 활동 참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에 대한 대응

### ① 조 콕스(Jo Cox) 위원회와 정부의 외로움 전략 수립과 추진

2015년 웨스트요크셔(West Yorkshire)의 배틀리앤스펜(Batley and Spen) 선거구에서 노동당 의원으로 선출된 조 콕스는 영국 사회에 숨겨진 외로움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대학 시절 경험한 깊은 외로움과 선거구에서 목격한 외로움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반응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 콕스는 외로움이 모든 연령대와 사회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며, 그 영향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이에 그녀는 영국 사회의 외로움 문제에 새로운 초점과 관심을 가져오고, 실질적인 행동을 장려하고자 했다(DCMS, 2018).

조 콕스는 보수당 의원 시마 케네디(Seema Kennedy)와 함께 초당적인 외로움 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러한 초당적 접근을 통해 외로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계를 허무는 접근이 이루어졌다. 조 콕스의 비전은 위원회가 1년 동안 운영되며 자선단체, 기업 및 정부와 협력하여 외로움 위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정책 대응을 촉진하였다. 이 위원회는 13개의 자선단체와 기업들로 구성된 더 넓은 연합체가 주도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 통찰력, 그리고 외로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일부 지역 사회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별되었다(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2017).

2016년 조 콕스의 비극적인 사망<sup>39)</sup> 이후, 이 작업은 시마 케네디 의원과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의원에 의해 계속되어, 조 콕스 외로움 위원회는 13개 조직이 모여 생애 주기 전반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외로움의 규모를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외로움이 건강, 웰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DCMS, 2018). 조 콕스 위원회는 결국 1년간의 활동 끝에 2017년 말 ‘한 번에 하나의 대화로 외로움 극복하기: 행동 요청(Comba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 A call to action)’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외로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친 행동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권고사항을 포함했다(Jo Cox Commission, 2017).

첫째, 위원회는 국가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영국 전역의 외로움 전략 수립을 요구했으며, 이 문제를 주도할 지명된 장관의 임명을 제안했다. 이는 외로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위원회는 외로움 문제의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 지표의 개발, 주요 국가 연구에 외로움 측정 포함, 그리고 연간 보고서 발간을 제안했

---

39) 조 콕스는 2016년 6월 16일,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자신의 지역구인 웨스트요크셔 배틀리엔 스펀에서 유권자들과 만남을 가진 후 극우 성향의 남성에게 의해 총격과 칼에 찔려 사망했다. 그녀의 죽음은 영국 정치계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 조 콕스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그녀가 시작한 외로움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이는 영국 정부의 외로움 전략 수립으로 이어졌다(Cobain et al., 2016).

다. 이는 외로움 문제의 규모와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위원회는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자극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확산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2018년 1월, 영국 정부는 조 콕스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응답으로 외로움 해결을 위한 첫 단계를 제시했다. 당시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위원회의 많은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같은 해 10월, 정부는 '연결된 사회: 외로움 해결을 위한 전략(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이라는 제목의 포괄적인 전략을 발표했다(DCMS, 2018).

이 전략은 외로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약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DCMS, 2018). 첫째, 정부는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이는 외로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으며,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부는 외로움에 대한 국가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통계청(ONS)에 모든 연령대에 걸친 외로움 측정을 위한 적절한 지표 개발을 요청했다. 이는 외로움 문제의 규모와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셋째, 정부는 국민복권 지역사회 기금(The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 및 협동조합 재단(Co-op Foundation)과 파트너십을 통해 1,150만 파운드 규모(약 190억 원)의 유대관계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넷째, 정부는 외로움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과 증거 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는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낙인을 줄이며, 개인과 지역사회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전략은 외로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 콕스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 외로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들이 포함되었다(DCMS, 2020, 2022). 첫째, 정부는 관계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수준의 관계 교육과 중등학교 수준의 관계 및 성교육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도입하여 2020년 9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교육과정에는 외로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과 외로움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고등 교육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고등 교육 부문 및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고등 교육 전환을 지원하는 부문 주도의 도구와 자원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및 새로운 실무 그룹 설립을 약속했다. 셋째, 특수 교육 요구 및 장애가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국가 견습 서비스와 협력하여 고용주들이 특수 교육 요구나 장애가 있는 청년들에게 직장 실습 및 견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이는 이들의 사회적 통합과 고용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지원 개선을 위해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 범정부 장관 위원회를 설립했다. 또한 모든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개인별 지원을 25세까지 확대하고, 가까이 머물기 (Staying Close) 시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다섯째, 청년 사회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윌(#iwill) 캠페인을 통해 10~20세의 청년들이 의미 있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외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정책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가 외로움 전략에서 제시하는 60가지 약속 중 9가지가 특히 관련성이 높으며 이는 다음 표와 같이 추진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II-22. 영국 정부 외로움 전략 청소년관련 약속(commitment)

번호 및 제목	계획 및 추진 내용
22. 지역사회 공간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와 협동조합 재단의 파트너십으로 180만 파운드(약 30억 원) 할당</li> <li>청소년 외로움 해결을 위한 112개의 단기 프로젝트 지원</li> <li>연결과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 개선을 위한 '연결 공간 기금' 조성</li> <li>기존 커뮤니티 공간 강화 및 새로운 공간 창출 기회 제공</li> </ul>
39. 국가 견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교육 필요나 장애가 있는 청년들에게 직장 실습과 견습 기회 제공 장려</li> <li>학습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견습생 비율 20% 증가 목표 달성</li> </ul>
40. 직장 실습에 대한 모범 사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과적인 직장 경험' 가이드 발간</li> <li>특수교육 필요 및 장애가 있는 학습자 지원을 위한 교육 제공자와 고용주 협력 장려</li> </ul>

40) 보이스카웃과 같이 제복을 입는 청소년 단체를 지침

번호 및 제목	계획 및 추진 내용
43. 관계 교육, 관계 및 성교육, 건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외로움, 긍정적 우정 형성, 정신적 웰빙에 대한 교육 의무화</li> <li>• 2020년 9월부터 잉글랜드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 일부 학교에 유예 기간 제공</li> <li>• 교육 모듈 gov.uk 웹사이트에서 제공</li> </ul>
44. 고등교육 과정 시작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전환 네트워크 설립을 통한 학생 웰빙 위험 해결 접근법 개발</li> <li>• 학생 기숙사 제공업체와 대학들의 네트워크 플랫폼 활용 장려</li> <li>• 온라인 채팅방, WhatsApp 그룹, 앱 등을 통한 신입생 네트워크 형성 지원</li> </ul>
52. 보호종료 청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21년 추가 1,900만 파운드(약 314억 원) 지원 발표</li> <li>• Staying Put, Staying Close 프로그램 확대 및 도입</li> <li>• 범정부 장관급 위원회 설립 및 공공 부문 인턴십 1,000개 확보 목표 설정</li> <li>• COVID-19 기간 동안 노트북과 라우터 우선 배포</li> <li>• 보호종료 청년 지원단체에 15만 파운드(약 2.5억 원) 지원</li> </ul>
53. 제복 청소년 단체 <sup>40)</sup>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복 청소년 기금(Uniformed Youth Fund)에 500만 파운드(약 83억 원) 지원 약속</li> <li>• 취약 지역 청년들의 웰빙, 정신 건강, 생활 기술 개선 목표</li> </ul>
54. #Iwill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사회활동 참여 장려 및 환경적 초점 개발</li> <li>• 1,000개 이상 조직의 지원과 300명의 청년 대사 영입</li> <li>• 전국 청년 사회활동 설문조사 실시, 외로움 관련 질문 포함</li> </ul>
55. 유대관계 구축기금 평가 및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로움 해결을 위한 맞춤형 리소스 개발</li> <li>• 학습 네트워크 및 청년 외로움 해결 리소스 개발</li> <li>• COVID-19 영향을 고려한 최종 학습 보고서 발표</li> </ul>

## ② 민간부문의 정책 제안

2018년 정부의 외로움 전략 발표 이후,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외로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전략이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외로움 문제의 복잡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더 포괄적이고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대해서는 더 표적화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의 전략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그 대표적인 단체로 케어스 패밀리(The Cares Family)와 영국 적십자사(British Red Cross)의 제안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케어스 패밀리는 세대, 배경, 경험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동체와 유대감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익단체 네트워크로, 외로움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이 단체는 이전에 정부의 외로움 전략 수립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가 2018년 케어스 패밀리의 소셜 클럽을 방문하며 정부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케어스 패밀리는 정부 전략의 한계를 파악하고, 더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제안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sup>41)</sup>

케어스 패밀리는 2023년 ‘연결 구축: 선언문(Building Connection: A Manifesto)’을 통해 정부의 현재 전략을 넘어서는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했다(The Cares Family, 2023a).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외로움 및 사회적 연결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이 전략은 3년에 걸쳐 연결 기관에 9천만 파운드(약 1,485억 원)를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의 2018년 전략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와 더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전담 외로움 및 사회적 연결 장관의 임명을 제안했다. 이 장관직은 레벨링 업, 주택 및 지역사회부(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에 배치되어야 하며, 사회적 단절 위기의 긴급성을 반영하고 지역 사회 강화 작업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현재 외로움 담당 장관 역할보다 더 넓은 범위와 권한을 가진 직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연결 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센터는 사회적 연결에 대한 학습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변화 주도자들을 지원하며, 새로운 연구와 도구 생산을 돕고, 연결 기관들이 외로움과 연결에 대한 정부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현재 접근보다 더 체계적이고 중앙집중화된 지원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다.

넷째,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외로움 부과금’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외로움과 연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여, 의미 있는 대면 연결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미디어에 관한 초당적 의원 그룹이 권장한 이익의 0.5% 부과금을 추가로 0.5%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권한 법안 도입을 요구했다. 이 상징적인 법안은 권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하향 및 외향적으로 이동시키고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것이라

---

41) 하지만 케어스 패밀리는 지금년도 2023년 말에 해산되었다(Butler & Dugan, 2023)

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근린 수준의 권한 공유 협약을 만들고, 공간, 서비스, 지출에 대한 지역사회 권리를 확립하며, 지역사회 권한 위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표 11-23. 케어스 패밀리외로움 대응 핵심 정책권고

정책 권고	주요 내용
새로운 외로움 및 사회적 연결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연결 기관에 9천만 파운드 투자</li> <li>• 사회적 연결 촉진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실시</li> </ul>
DLUHC에 전담 외로움 및 사회적 연결 장관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벨링 업, 주택 및 지역사회부(DLUHC)에 전담 장관 임명</li> <li>• 사회적 단절 위기의 긴급성 반영</li> <li>• 지역사회 강화 작업과의 밀접한 연결</li> </ul>
사회적 연결 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연결에 대한 학습 공유</li> <li>• 지역사회 변화 주도자 지원</li> <li>• 새로운 연구와 도구 생산</li> <li>• 연결 기관들의 정부 자금 신청 경로 제공</li> </ul>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부과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로움 부과금' 도입</li> <li>• 의미 있는 대면 연결 프로젝트 자금 마련</li> <li>• 기업 이익의 1% 부과금 확대</li> </ul>
지역사회 권한 법안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력의 지역 주민 이양</li> <li>•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결 강화</li> <li>• 근린 수준의 권한 공유 협약 수립</li> <li>• 공간, 서비스, 지출에 대한 지역사회 권리 확립</li> <li>• 지역사회 권한 위원 설립</li> </ul>

\* 자료: The Cares Family(2023a, p. 8)

영국 적십자사의 정책 제안은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었다. 이는 외로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욱 강화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영국 적십자사는 100개 이상의 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외로움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정부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영국 적십자사는 2023년 '새로운 행동 요구: 외로움 해결과 지역사회 구축(A new call to action: Tackling loneliness and building community)'을 통해 정부의 외로움 전략을 갱신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British Red Cross, 2023). 이 단체는 외로움 문제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외로움과 연결에 대한 국가적 리더십 갱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영국 정부가 총리가 감독하고 범정부적 팀이 지원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외로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최고위 수준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현재의 전략보다 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외로움 해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영국 정부의 외로움에 관한 주요 전략적 목표 달성에 대한 연간 보고, 모든 부처 연례 보고서에 부처의 행동이 외로움 해결과 연결 구축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보 포함, 모든 연령대와 외로움의 위험이 더 큰 그룹들 사이의 외로움 수준과 연결 측정에 대한 국가적 모니터링 및 보고를 포함한다. 이는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모든 부처가 외로움 문제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재건을 요구했다. 이는 지방 당국,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조직, 그리고 기업과 협력하여 외로움에 대한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방 및 통합 당국에 대한 자원과 지원 제공, 사회 기반시설을 재건하고 지역 자산에 대한 지역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모든 지역사회가 특히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양질의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시설과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넷째, 외로움에 대한 부문 간 행동 지원을 제안했다. 이는 특히 더 빈곤한 지역사회와 외로움의 위험이 더 큰 그룹들을 대상으로, 고립을 줄이고 연결을 구축함으로써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자금 지원, 인구 건강 개선 접근법의 일환으로 사회적 건강 결정요인으로서의 외로움 해결에 관한 NHS 기관들의 명확한 목표, 연결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제공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 포함, 장애인, 노인, 장기 질환자가 관계와 연결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돌봄 및 지원 개혁을 포함한다. 이는 다양한 부문과 기관이 협력하여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하는 것이다.

표 II-24. 영국 적십자사 외로움 대응 핵심 정책 권고

권고	주요 내용
국가적 리더십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 외로움 장관 임명</li> <li>• 총리 감독 하의 새로운 국가 전략 수립</li> <li>• 범정부적 팀의 지원 확보</li> </ul>
새로운 국가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li> <li>•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지원</li> <li>• 모든 연령대와 취약 그룹의 외로움 해결</li> <li>• 경험자와 다양한 조직의 참여</li> </ul>
외로움 해결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목표 달성에 대한 연간 보고</li> <li>• 각 부처의 기여도 보고</li> <li>• 국가적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li> </ul>
지역사회 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당국에 자원과 지원 제공</li> <li>• 사회 기반시설 재건 및 지역 자산 통제 강화</li> <li>• 건축 환경 개선 및 교통 기반시설 투자</li> </ul>
서비스 및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자금 지원</li> <li>• NHS의 외로움 해결 역할 강화</li> <li>• 사회적 돌봄 및 지원 개혁</li> <li>• 디지털 접근성 개선</li> </ul>
민간부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li> <li>• 직장 내 외로움 해결 지원</li> <li>• 교육 기관 지침 제공</li> <li>• 기업의 참여 촉진</li> </ul>

\* 자료: British Red Cross(2023)

시민사회 단체들의 제안은 정부의 2018년 전략을 기반으로 하되,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규모에 있어 시민사회 단체들은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케어스 패밀리는 3년에 걸쳐 9천만 파운드(약 1,485억 원)의 투자를 제안했는데, 이는 정부의 유대관계 구축 기금 1,150만 파운드(약 190억 원)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는 외로움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규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

둘째, 법제화 측면에서 케어스 패밀리는 지역사회 권한 법안 도입을 제안하여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의 현재 접근보다 더 강력한 법적 기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의 강화는 외로움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책임성 측면에서 영국 적십자사는 더 강력한 책임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부 부처의 연례 보고서에 외로움 해결 노력을 포함시키고, 국가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제안은 정부의 현재 접근보다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책임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범위 측면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지역사회 구축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외로움 문제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접근이다. 정부의 전략이 주로 외로움 자체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시민사회 단체들은 외로움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더 광범위한 사회적 연결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

다섯째, 리더십 측면에서 영국 적십자사는 총리가 직접 감독하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현재 접근인 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부 관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위급 리더십은 외로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 기술 기업의 역할에 대해 케어스 패밀리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외로움 부과금'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의 현재 전략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제안으로, 기술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의 현재 전략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더 큰 투자, 더 강력한 법적 기반, 더 높은 수준의 정부 관여, 그리고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외로움 문제의 복잡성과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접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이러한 제안은 향후 정부의 외로움 전략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③ 청소년 외로움 관련 주요 정책 프로그램과 평가

영국 정부와 다양한 민간 조직들은 청소년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외로움을 줄이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서비스는 영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인 무상의료체계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활용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민보건서비스 잉글랜드(NHS England)는 사회적 처방에 대한 모범 사례 지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처방 요약 가이드, 일차의료네트워크(PCN) 참조 가이드를 갱신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처방에 대한 모듈이 별도로 개발되어 청소년의 특수한 필요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NHS 잉글랜드는 사회적 처방에 대한 이러닝(e-lear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정신 건강과 복지 권리를 포함한 9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 처방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 NHS 잉글랜드는 특정 그룹을 위한 일련의 팩트시트를 만들어 사회적 처방과 기타 지역 사회 기반 지원을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돌봄제공자부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처방에 대한 도구(toolkit)이 출시되어, 기존 의료 서비스내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처방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특정 사회적 처방 결과 측정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DCMS, 2022).

유대관계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은 청소년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국민복권 지역사회 기금(The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 및 협동조합 재단(Co-op Foundation)과 파트너십을 통해 1,150만 파운드(약 190억 원) 규모의 유대관계 구축 기금을 출범했다. 이 기금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 부문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은 복싱 퓨처스(Boxing Futures)라는 단체는 ‘시스터스 스루 복싱(Sisters Through Boxing)’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피터버러(Peterborough) 지역의 16~25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복싱을 통해 지역 여성들의 건강과 웰빙을 구축하고 외로움 감정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참가자들은 매주 실제 복싱 링에서 복서사이즈 세션을 진행하고, 그룹 채팅을 통해 신체 이미지, 성 건강, 외로움 등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가족과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DCMS, 2020).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Tackling Loneliness Network)는 코로나-19(COVID-19) 기간 동안 정부의 외로움 해결 계획의 일환으로 결성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의 70개 이상의 조직들을 한데 모았으며, 청년들의 외로움 해결을 주요 초점 영역 중 하나로 설정했다. 네트워크의 규모와 다양성은 외로움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접근 방식과 사회 모든 영역의 조직 및 개인들을 참여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청년 외로움 해결을 위한 여러 권장사항과 약속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왓츠앱(WhatsApp)은 외로움의 영향을 받는 청년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정보와 지원 서비스로 안내하는 챗봇 메시징 서비스를 자금 지원하고 개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처방 제안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제공업체들이 지원 웹사이트에 대한 제로 레이팅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 프로그램에 청년 정신 건강 및 웰빙 지원(외로움 포함)을 포함시키는 모범 사례를 식별, 개발 및 공유하고, 청년들과 일하는 조직 및 전문가들을 위한 정신 건강 응급 처치 교육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DCMS, 2021a).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합시다(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은 정부가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낙인을 줄이며, 개인과 지역사회의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22년 1월에는 18~24세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캠페인 단계를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청년들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장려한다. 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종종 우리 자신이 덜 외롭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접근에 기반한 것이다. 캠페인은 영국통신(BT), 틱톡(TikTok), 영국 우체국(Royal Mail) 등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와 활동을 통해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동을 촉진하고 있다(DCMS, 2022).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각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사회적 처방 서비스는 의료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유대관계 구축 기금은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 외로움 해결 네트워크는 다양한

조직들의 협력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캠페인은 전국적인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청소년 외로움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각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필요와 상황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함께 작동하여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국 정부의 청소년 외로움 관련 정책들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일정한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의 캠페인과 전략은 청소년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캠페인은 외로움에 대한 국가적 대화를 촉진하고,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는 외로움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DCMS, 2022). 둘째, 외로움 해결 네트워크의 형성은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이 협력하여 청소년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7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하는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관점과 자원을 결합하여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DCMS, 2021a). 셋째, 정부의 노력으로 청소년 외로움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연구가 증가했다. 국가통계청(ONS)의 외로움 측정 개발, 유대관계 구축 기금의 평가 등을 통해 청소년 외로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이는 더 나은 정책 개발의 기반이 되고 있다(DCMS, 2022). 넷째, 사회적 처방 서비스의 확대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 선택지를 제공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처방 도구 개발은 이들의 특수한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DCMS, 2022). 다섯째, 유대관계 구축 기금을 통한 지역사회 프로젝트 지원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복싱 퓨처스의 '시스터스 스루 복싱'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젝트들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연결의 기회와 안전한 공간을 제공했다(DCMS, 2020).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일정한 한계도 보이고 있다. 첫째,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적하듯이 현재의 투자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더 케어스 패밀리와 영국 적십자사와 같은 단체들은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정책이 문제의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The Cares Family, 2023a; British Red Cross, 2023). 둘째,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되었지만, 영국 적십자사가 제안한 것처럼 총리 수준의

리더십과 모든 부처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접근이 충분히 통합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British Red Cross, 2023). 셋째, 청소년 외로움 정책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아직 부족하다. 정부가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확대하고 있지만,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추적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더 개인화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의 정책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다섯째,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케어스 패밀리가 제안한 소셜 미디어 기업에 대한 ‘외로움 부과금’과 같은 아이디어는 아직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The Cares Family, 2023a).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역할과 권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더 케어스 패밀리가 제안한 지역사회 권한 법안과 같은 아이디어는 지역사회가 외로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The Cares Family, 2023a).

결론적으로, 영국 정부의 청소년 외로움 관련 정책은 인식 제고, 다부문 협력, 증거 기반 구축,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투자 규모, 정책 일관성, 장기적 영향 평가, 개인화된 접근, 디지털 기술의 영향 대응, 지역사회 역할 강화 등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향후 정책 개발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영국 청소년 외로움 관련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 관련 정책의 전달체계와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단체,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다부문적인 접근은 복잡한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원주의적인 영국 정부의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 ① 중앙 및 지방정부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외로움 정책의 주요 책임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이하 DCMS)에 있다. 2018년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정부가 발표한 ‘연결된 사회: 외로움 해결을 위한 전략(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에 따라, DCMS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전반적인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DCMS, 2018). 외로움 담당 장관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외로움 정책을 조정하고, 다른 부처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외로움 관련 내용을 포함 시키거나, 보건사회복지부와 협력하여 사회적 처방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DCMS는 국가통계청(ONS)과 협력하여 외로움에 대한 국가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실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영국의 지방분권 체제 하에서 지방정부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외로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맨체스터 시의회(Manchester City Council)는 ‘우리의 맨체스터 전략(Our Manchester Strategy)’의 일환으로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외로움 정책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전략 전반에 걸쳐 지역 사회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Manchester City Council, 2021). 지방정부는 또한 지역의 비영리 단체, 학교, 청소년 센터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외로움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민간 비영리 단체 및 기업의 역할

비영리 단체들은 청소년 외로움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어스 패밀리(The Cares Family)는 세대 간 연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노인들을 연결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 단체는 런던, 맨체스터, 리버풀 등 여러 도시에서 활동하며, 지역 사회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받는다(The Cares Family, 2023b). 영국 적십자사(British Red Cross)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 연결하기(Connecting Communities)’ 프로그램을 통해 외로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일대일 지원과 그룹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British Red Cross, 2023).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청소년 외로움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 그룹(Co-op Group)은 영국 정부 및 국민복권 지역사회 기금(The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과 협력하여 유대관계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외로움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다(DCMS, 2020). 또한 통신회사인 BT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합시다(Let's Talk Loneliness)' 캠페인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디지털 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DCMS, 2022).

### ③ 부문 간 협력과 모니터링 및 평가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 정책 전달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양한 부문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Tackling Loneliness Network)를 들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정부, 비영리 단체, 민간 기업 등 7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하여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네트워크 참여 조직들은 정기적인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한다(DCMS, 2021a).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외로움 해결을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권고사항과 약속을 제시했다(DCMS, 2021a). 이는 앞서 언급한 왓츠앱(WhatsApp)을 통한 챗봇 메시징 서비스 개발을 비롯하여, 청년 대상 사회적 처방 제안 개발, 지원 웹사이트에 대한 제로 레이팅(zero-rating)<sup>42</sup> 확대, 청년 프로그램에 정신 건강 및 웰빙 지원, 청년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정신 건강 응급 처치 교육, 무료 데이터 접근 제공, 무료 와이파이 스팟을 통한 외로움 지원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원 개선을 위한 자원 제공, 그리고 기존 국가 정신 건강 자원의 청년 맞춤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

42) 제로 레이팅이란 데이터 이용량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데이터를 차감하지 않거나 과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원, 전문가 교육, 접근성 향상, 기존 자원의 효과적 활용 등을 통해 청년 외로움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 정부는 또한 청소년 외로움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DCMS는 매년 외로움 연례 보고서(Loneliness Annual Report)를 발간하여 정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 부처의 외로움 관련 활동, 주요 프로그램의 성과, 외로움 지표의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DCMS, 2022). 또한 국가통계청(ONS)은 정기적으로 외로움에 대한 국가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 통계는 연령별, 지역별 외로움 수준을 보여주며, 정책 입안자들이 개입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유대관계 구축 기금(Building Connections Fund)과 같은 주요 프로그램들은 독립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박애주의 자본(New Philanthropy Capital)과 같은 민간 싱크탱크가 주도하는 독립 평가단은 유대관계 구축 기금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학습 내용을 공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DCMS, 2020).

하지만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 관련 전달체계와 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반면 여전히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고 볼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정부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지역 간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이러한 격차를 반영한 지원체계나 조정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비영리 단체들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케어스 패밀리와의 최근 자금난으로 인한 해산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Butler & Dugan, 2023). 따라서 비영리 단체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달체계에서 청소년들은 주로 서비스의 수혜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정책 개발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서비스들이 온라인으

로 전환되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디지털 연결을 지원하는 더 혁신적인 방안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외로움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영국에서 외로움 정책을 추진하던 보수당 정부가 지난 7월 총선에서 실각하고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만큼 앞으로 외로움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4)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사례

영국에서는 청소년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① 학교 기반 프로그램

관계 교육 커리큘럼(Relationships Education)은 영국 정부가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2020년 9월부터 모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의무화된 이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DCMS, 2020). 이 커리큘럼은 긍정적인 관계의 특성과 중요성, 온라인상에서의 안전한 관계 형성, 정신 건강과 웰빙의 중요성, 그리고 외로움의 인식과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외로움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으로써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경험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DCMS, 2021).

또한, 학교 내 정신 건강 지원 팀 운영은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접근 방식이다. 2021년부터 영국 정부는 학교와 대학에 정신 건강 지원 팀을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이 팀들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역할을 한다(DCMS, 2022). 이들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외로움을 포함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정신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로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

다. 이러한 팀의 운영은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익숙한 환경에서 정신 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외로움 문제에 더 쉽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②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케어스 패밀리(The Cares Family)의 세대 간 연결 프로그램은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과 노인들을 연결하여 세대 간 이해와 유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The Cares Family, 2023b). 이 프로그램은 청년과 노인의 일대일 매칭을 통한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세대 간 기술 공유 워크숍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고, 노인들이 청년들에게 전통 기술을 가르치는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지역 정원 가꾸기나 역사 프로젝트 등의 공동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멘토링과 지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he Cares Family, 2023b).

아이윌(#iwill)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또 다른 주요 프로그램이다. 이 캠페인은 10~20세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사회 활동,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DCMS, 2020). 이 캠페인은 청소년 주도의 사회 변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 사회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및 증거 수집을 수행한다. 이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제공함으로써 외로움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다른 청소년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DCMS, 2021).

### ③ 디지털 기반 서비스

온라인 상담 및 지원 플랫폼은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청소년들이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DCMS, 2020). 이러한 플랫폼들은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포럼 지원 포럼을 운영한다. 또한

자가 도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대면 서비스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외로움을 경험할 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또래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DCMS, 2022).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은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원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 정부와 다양한 단체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외로움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DCMS, 2021). 이러한 캠페인들은 청소년 인플루언서와의 협력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참여형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외로움 경험 공유를 위한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지원 서비스로의 직접 연결을 제공하는 광고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외로움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격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상호 지원을 촉진한다(DCMS, 2022).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외로움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학교 기반 프로그램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사회적 연결을 제공하며, 디지털 기반 서비스는 접근성과 즉시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청소년 외로움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 대응 사례는 청소년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외로움은 고립·은둔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외로움에 대한 대응은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더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국의 사례는 청소년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 대응 사례는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영국 정부는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국가 차원의 외로움 해결 전략을 수립했다. 이는 외로움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 고립·은둔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여기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 대응 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로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측정 방법을 확립했다. 영국 통계청(ONS)은 외로움을 “우리가 가진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주관적이고 원치 않는 동반자 관계의 부족이나 상실 감정”으로 정의했다. 또한 직접적 측정과 간접적 측정을 결합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청소년 고립·은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와 측정 방법의 확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고립·은둔의 정도와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외로움 담당 장관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교육, 보건,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로움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관계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학교 내 정신 건강 지원 팀을 운영하는 등 학교 기반의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보건사회복지부는 사회적 처방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러한 범정부적 접근은 청소년 고립·은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데, 가령 교육, 복지, 고용,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정부는 유대관계 구축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외로움 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또한 외로움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부, 비영리 단체,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촉진했다. 이를 통해 케이스 패밀리의 세대 간 연결 프로그램, #iwill 캠페인 등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행되었다. 청소년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사회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은둔 청소년들을 사회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접근을 강화했다. 온라인 상담 및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청소년 고립·은둔 문제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중요하다. 특히 은둔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초기 단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과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했다. 정부는 매년 외로움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고립·은둔 문제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청소년 외로움 대응 정책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투자 규모의 불충분성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현재의 투자 규모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책 일관성 부족이다. 셋째,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정책 참여가 제한적이다. 넷째,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 다섯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청소년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 제3장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도구 작성

- 1. 기존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 내용 및 문항 검토
- 2. 전문가 자문 주요 내용 및  
설문지 구성



## 1. 기존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 내용 및 문항 검토<sup>43)</sup>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조사 및 육구조사 내용 구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요 기관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중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이 포함된 연구에 한해 세부 사항을 검토하였다.

청소년위원회의 2005년 연구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2024년 연구를 제외하고는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경우는 없었지만, 광주광역시(2020), 청년재단(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 서울특별시(2022) 등의 조사 대상 중 일부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연구의 정의, 측정 방법, 조사항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고립·은둔의 정의와 관련하여 세부 정의와 측정 방법, 세부 조사항목은 모두 차이가 있었으나 고립은 ‘한 개인의 관계망적 측면’에서 은둔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칩거’의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었으며 기간과 관련하여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광주광역시, 2020; 청년재단, 2020; 청소년위원회, 2005), 기간을 한정하지 않는 경우(유민상, 신동훈, 2021;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서울특별시, 2022) 등 다양하게 나타나 대부분의 은둔은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립의 경우 이견이 있으나 은둔과 동일한 6개월로 기준을 둔 경우와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고립의 경우 다양한 관계망에 관한 응답의 합산을 통해 측정하고 있었으며 은둔의 경우 은둔 관련 행동에서 정신질환 등 비해당 요인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주로 측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본 장은 서정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표 III-1.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관 차원의 고립·은둔 실태조사 세부사항<sup>44)</sup>

기관명(연도)	연구명	조사방법	실태조사				
			대상	청소년수	세부 내용	비고	
1) 청소년위원회 (2005) <sup>45)</sup>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태조사</li> <li>사례조사</li> <li>일대일 면접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의 일반 고등학생(고1, 고2) 1,500명 (유효 응답 1,46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61명</li> </ul>	<b>정의</b> ○ 은둔형 외톨이란 첫째,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b>3개월 이상</b> 집안에 머물러 있고, 둘째, 진학 취업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친구가 한 명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넷째, 자신의 은둔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섯째,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IQ 50-55)가 있을 경우는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질환 뿐 아니라 경계선 청소년도 정의에서 제외함</li> </ul>	
					<b>특징</b> ○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등교나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경험(물건구매를 위해 상점에 가는 일과 같은 간단한 외출은 제외)</li> <li>▪ (나) 친구가 없거나 한 명 밖에 없음</li> <li>▪ (다) 학교나 일을 그만둔 적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나), (다) 모두 해당하면 고위험군</li> <li>• (가), (나)에 해당하면 위험군</li> <li>• (가)에 해당하면 잠재군</li> </ul>
					<b>조사항목</b> 46) ○ 활용 도구: 자체 개발 설문지와 K-YSR(청소년 문제행동 척도) ○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등교하거나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고 싶던 경험: 유무, 시기, 이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li> </ul>		

44) 본 표는 최홍일 전문연구원이 작성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기관명(연도)	연구명	조사방법	실태조사				
			대상	청소년수	세부 내용	비고	
					<p>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심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가정생활 문제,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걱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학교에 등교하거나 특정한 사회 활동을 위해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던 경험: 유무, 시기, 기간, 가장 최근 경험, 느낌,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여부, 노력 유형, 필요한 도움, 폭력이나 욕설 유무 및 대상, 반드시 해야 될 일, 학교에 가고 싶었는지</li> <li>• 정서·행동 문제(위축, 불안, 공격성, 우울, 비행 등)</li> </ul>		
2) 광주광역시 <sup>47)</sup>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2020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li> <li>• 심층면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 총 1,095명<sup>48)</sup>(이 중 당사자 유효 응답 237부, 가족 112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명 (전체의 9.8%)</li> </ul>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은둔형 외톨이</li> <li>• 다음과 같은 생활을 <b>3개월</b> 이상 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자신의 방에서만 지내고 있으며, 방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음</li> <li>-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집 밖으로는 거의 나가지 않음</li> <li>-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가끔 근처 편의점 등에 외출함</li> <li>-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지만 취미활동을 할 때만 외출함</li> </ul> </li> <li>• 은둔생활의 계기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인 질병 또는 장애</li> <li>- 임신, 출산, 육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적인 질병 또는 장애, 임신, 출산, 육아로 은둔하는 경우는 제외</li> <li>• 표집 과정에서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진단받은 사람 제외</li> </ul>

기관명(연도)	연구명	조사방법	실태조사			
			대상	청소년수	세부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은둔형 외톨이</li> <li>• 과거에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한지 얼마나 되었는지</li> <li>• 평소 어느 정도 외출을 하는지</li> <li>• 집에서 주로 생활하게 된 이유 3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 도구: 별도 기재 없음</li> <li>○ 조사항목</li> <li>• 은둔형 외톨이 특성: 외출, 은둔기간, 계기, 첫 은둔 시기 등</li> <li>• 은둔형 외톨이의 일상생활: 주요활동, 관계형성, 식사 방식 등</li> <li>• 일상생활의 어려움: 외로움, 친구사귀기, 학습, 취창업활동, 문화여가활동 등</li> <li>• 은둔형 외톨이 생활의 원인 관련 변인: 심리정서적 경험, 사회적 관계 등</li> <li>• 상담 경험 및 활동 욕구: 상담 경험, 상담 평가, 활동 욕구 등</li> <li>• 은둔생활을 벗어난 계기: 과거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li> <li>•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및 정책 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을 대상으로도 설문</li> </ul>

기관명(연도)	연구명	조사방법	실태조사				
			대상	청소년수	세부 내용	비고	
3) 청년재단 (2020) <sup>50)</sup>	고립청년(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 1대1면담과 동시에 실태조사	• 청년 47명	• 17~19세 2명, 20~29세 38명 (청소년 인원 미상)	<b>정의</b>	○ 고립 청년 • 20대 이상이면서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철수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 실제 조사에는 10대 포함
					<b>측정</b>	○ 은둔형 외톨이 척도(고립 청년 척도) •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다' ~ '부모님과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의 총 28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을 합산하여 산출	
					<b>조사항목</b>	○ 활용 도구: 은둔형 외톨이 척도(고립 청년 척도), 간이정신상태검사( SCL-90), 부모양육태도 검사 ○ 조사항목 • 은둔형 외톨이 척도(고립 청년 척도):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다' 등 28 문항 • 간이정신상태: '머리가 아팠다' 등 90문항(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기타문제) • 부모양육태도: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 등 25 문항(돌봄, 과보호) • 본인의 생각과 느낌: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 방문, 식사 및 수면상태, 방(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	• 실태조사 질문지 작성 후 1대1 소수 인원 면담 및 실태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대규모 실태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척도 구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포함함

기관명(연도)	연구명	조사방법	실태조사			
			대상	청소년수	세부 내용	비고
					경제적 상태, 고립생활 시작 시기와 지속 기간, 주로 집에서만 지내기 시작한 이유, 현재의 나를 가장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 자해나 자살 시도, 타인을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공격한 경험, 주로 혼자 지내는 것으로 인해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 주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는지, 혼자 지내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 과거에 어떤 도움이 있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을지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sup>51)</sup>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문조사</li> <li>심층면접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반 청년 2,000명 내외 (유효 응답 2,04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773명</li> </ul>	<p><b>정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고립</li> <li>•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sup>52)</sup>.</li> <li>○ 사회적 고립 청년</li> <li>• 위의 상태에 있는 청년으로 니트, 은둔형 외톨이<sup>53)</sup> 개념보다 다차원적인 개념임.</li> </ul> <p><b>측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고립</li> <li>• 외부적 고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망: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족, 지인) 수, 교류하는 가족/친구/그 외 사람들 여부 및 빈도</li> <li>- 지원: 사회적지지 혹은 자원의 3가지 차원 통합(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li> <li>- 외출: 평소 외출 형태, 외출이 거의 없었던 기간,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분석 이외에 2차 데이터 분석을 실시함</li> <li>• 설문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진행함.</li> </ul>

기관명(연도)	연구명	조사방법	실태조사			
			대상	청소년수	세부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적 고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 고립감: 외로움</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조사항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 도구: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 경험, OECD 고립 측정 문항(도움, 의지), OECD 주관적 안녕감</li> <li>○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고립: 대면 형태 교류 빈도(가족 등 5문항), 비대면 방식 교류 빈도(가족 등 5문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등 7문항), 외출(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등 8문항),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등 18문항),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낀 기간</li> <li>• 사회적 고립의 원인: 아동·청소년기 경험(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등 6문항), 성인기 경험(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둔 경험 등 5문항)</li> <li>• 사회적 고립의 현황: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li> <li>• 사회적 고립의 결과 : 삶의 영역들에 대한 만족(생활수준 등 11문항), 정서적 측면에서 지난</li> </ul> </li> </ul>	

기관명(연도)	연구명	조사방법	실태조사				
			대상	청소년수	세부 내용	비고	
					<p>1주간 느낌(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등 11문항), 신체적 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망 서비스 및 정책: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서비스, 상담사를 만나는 방법 선호</li> </ul>		
5) 서울특별시 (2022) <sup>54)</sup>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태조사</li> <li>심층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5,000명 대상 (유효 응답 5,513명)</li> <li>이 중 고립·은둔 청소년 486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676명 (전체의 12.3%)</li> <li>고립·은둔 청소년 66명 (전체의 13.6%)</li> </ul>	정의	<p>○ 은둔 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자로,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li> <li>②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li> <li>③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li> <li>④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li> </ul> </li> <li>위의 외출이 거의 없는 은둔 생활이 <b>최소 6개월</b> 이상 유지되어 왔음.</li> <li>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li> </ol> <p>○ 고립 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로,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함</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립과 은둔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립 내에 은둔이 포함되어 있으며 은둔을 고립의 유형 중 하나로 전제함.</li> <li>고립 관련 선행 연구에서 고립의 범위 및 기준을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개인이 지닌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의 수준을 통해 고립을</li> </ul>

기관명(연도)	연구명	조사방법	실태조사			
			대상	청소년수	세부 내용	비고
					<p>(1) 정서적 고립: 아래 4가지의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p> <p>①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p> <p>②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p> <p>③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p> <p>④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p> <p>(2) 물리적 고립: 아래의 가족·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p> <p>①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p> <p>②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교류(업무 상 교류는 제외)</p> <p>2) 위의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왔음</p>	<p>측정하는 점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과 은둔의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은둔 청소년으로 분류함<sup>5)</sup></li> </ul>
					<p><b>측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은둔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여부, 지난 4주간 취업 활동 여부, 지난 4주간 취업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경제활동 및 학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생활비 부담 방식, 주관적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 평소 외출 정도,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을 한 기간, 과거에 외출하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은둔 청년 여부 확정</li> <li>• 단, 측정을 토대로</li> </ul>

기관명(연도)	연구명	조사방법	실태조사			
			대상	청소년수	세부 내용	비고
					<p>않는 생활(은둔)을 한 경험, 외출하지 않는 생활(은둔)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지난 2주간 교류한 사람, 지난 2주간 타인과 교류한 횟수, 정서적 고립정도, 물리적 고립정도,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기간, 과거에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경험,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고립-은둔을 하게 된 계기, 온라인(비대면) 교류 여부, 온라인(비대면) 교류 종류, 외로움 척도, 성인기 이전 부정적 경험 여부, 성인기 이후 부정적 경험 여부 등</p>	어떻게 고립-은둔으로 판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미상
				<p><b>조사항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 도구: 미상</li> <li>○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선정 질문: 성별, 연령, 거주지역, 출생지, 가구원 수, 가족 형태</li> <li>• 고립-은둔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근로 상태/취업 의향, 미취업 사유/기간, 생활비 출처,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li> <li>- 평상시 외출 정도, 은둔 기간, 과거 은둔 경험, 최초 은둔 시작 시기, 일상적 교류 빈도, 정서적/물리적 고립 정도, 고립 기간, 과거 고립 경험, 최초 고립 시작 시기, 고립-은둔 계기</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항목 중 연령, 지난주 일(Work) 여부, 외출 정도, 정서적 고립여부, 물리적 고립여부, 외로움 정도,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 정신과 약물복용 여부, 우울점수를 변수로 활용하여</li> </ul>	

기관명(연도)	연구명	조사방법	실태조사			
			대상	청소년수	세부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대화 여부/방식, 외로움 정도, 아동청소년기 경험, 성인기 후 경험</li> <li>• 생활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생활 패턴, 수면 및 활동 패턴, 집에서 하는 활동, PC/모바일 활동, 평소 식생활, 자기관리 및 청결 상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우울 정도</li> </ul> </li> <li>• 지원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벗어나려 했던 경험/방법, 가장 필요한 도움, 지원 제공 장소/방식/기간</li> <li>- 서울시 지원사업 인지도/인지 경로,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 여부, 서울시 지원사업 만족도/불만족이유, 서울시 지원사업 참여 의향/불참 이유</li> </ul> </li> </ul>	<p>군집분석을 실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은둔형 고립군', '좌절형 고립군', '관계단절형 고립군', '의존형 고립군'으로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함</p>

- 45)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 46) 조사항목은 주요항목을 위주로 제시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제시하지 않았다.
- 47) 고립·은둔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Ito, 2017; Kubo et al., 2020; Saito, 2013) 다양한 실태조사에서 고립·은둔 당사자는 물론 고립·은둔 가족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임형문 외, 2020)..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 당사자 스스로가 보고하는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바 검토의 범위 또한 청소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추후 고립·은둔 당사자는 물론 그들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내용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 48) 조사부수 총 1,095명 중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가족이 각각 몇 명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은둔형 외톨이 연령대별로 10대는 10명(4.2%), 20대는 116명(48.9%)이나 20대 중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 수는 몇 명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 49) 설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본문 내용과 2차 연구 내용으로 유추하여 기재하였다.
- 50) 양정선, 김지민(2024)은 은둔형 청소년 관련 주요 연구로 "이상인, 오미애, 김문길, 전진아(2020). 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 연구: 서울특별시

- \* 출처: 1)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모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서울: 청소년위원회.  
 2) 임형문, 김석웅, 박순영, 이세라, 최상희, 김영지, 이찬민, 장경철(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2020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3) 청년재단(2020).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청년재단, 파이교육그룹.  
 4) 유민상, 신동훈(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주) 피엠아이(2022). 서울시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PMI.

청년수당 참여자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를 들고 있으나 ‘미취업’, ‘청년수당 참여자’에 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사의 결과를 고립 은둔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 조사 대상자 중 9세~24세 청소년 수는 전체 조사 대상의 7.8%으로 1,587명이다(이상인 외, 2020).

- 51) 고립 은둔을 주된 주제로 하는 조사는 아니나 2017년에 실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도 은둔형 외톨이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사에서는 평소 외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현재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해당 조사의 조사표는 중·고등학생(만 15세~18세)용, 청년(만 19~39세)용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는데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설문은 청년용 설문지에만 포함되어 있다(김도형, 박승규, 2021에서 재인용).
- 52) 유민상, 신동훈(2021)은 사회적 고립을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과 내부적 고립(internal isolation)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외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내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내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한 바 있다. 외부적 고립은 타인과의 사회적 연락(social contac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개인 간 정서적 교류(emotional relationship)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하며 내부적 고립은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이나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 53) 사회적 고립 청년은 고용, 훈련, 진학을 하지 않은 니트(NETTs) 개념, 일정 기간 동안 외부로 나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개념과 유사하지만 차별성이 존재한다. 니트(NETTs)는 지위 중심적 개념으로 고용되거나, 훈련 중이거나, 진학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 훈련, 진학 중에도 개인의 네트워크가 빈약하거나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행동 중심 개념으로 일정기간 밖에 나가지 않는 행동(외출)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출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 54) 2022년에는 성남시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강남대학교사회학협력단, 2022). 그러나 조사대상이 모두 20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이며 데이터 정제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유효 응답자 수가 51명으로 비교적 소수이고 이 중 10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이 파악되어 있다고 확정하기 어려워 세부사항 파악 대상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55) 이 외에도 고립 은둔 청년의 조작적 정의 중 1개~2개 정도 해당하지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청년, 예를 들어 (ㄱ)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단기간 경제활동을 한 경우, (ㄴ) 고립이나 은둔상태가 6개월이 안되나 장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등 반복하고 있는 경우, (ㄷ) 정서적으로 가족에게 의존은 하고 있고 한두명의 친구는 있으나 그 관계가 미미한 경우, (ㄹ)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경우 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우울감, 외로움, 일상생활 패턴, 고립 은둔 수준 등을 확인하여 추가로 고립 은둔 여부를 임의 판단하였다(주 피엠아이, 2022).

## 2. 전문가 자문 주요 내용 및 설문지 구성

고립·은둔에 대한 정의, 측정 방법, 조사항목의 척도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고립에 관한 척도는 사회적 관계망의 합으로, 은둔에 관한 척도는 공간에서의 외출에 관한 사항으로 수립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앞서 서술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된 국가 차원의 고립·은둔 실태조사인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척도를 바탕으로 청소년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학계 전문가 5명, 현장 전문가 2명, 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자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연령이 9세에서 24세로 광범위한 만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9~12세, 13~18세, 19~24세로 구분하여 3종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연령 대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동일한 문항을 질문하되, 해당 연령에 전혀 해당되지 않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순화하여 표현하여 응답하는 청소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은둔의 정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기간을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의 경우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견이 나타났으나 1차적으로 기존 청년 실태조사의 틀을 준용하고 필요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이 가능하도록 질문에 기간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 분석 결과 ‘기타’ 의견으로 많이 제시된 의견은 문항에 선택지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문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은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은둔’은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에 다니지만 아무와도 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은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 ‘부등교’가 고립·은둔의 중요한 전조 증세라고 지적하는 점을 고려하여 은둔에 관한 스크리닝 척도에 일주일에 학교에 가는 일수를 구분하여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맥락이 파악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4일 이상 학교에 나가는 경우는 은둔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응답과정에서 파악 가능하도록 고려하였다.

다섯째, 기존 연구의 표현이나 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과 청소년에게 맞는 문항과

표현으로 최대한 재구성하는 것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으며 청년 전문가의 경우 전자를 청소년 전문가의 경우 후자를 강조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의 20년만의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인 만큼 20년 전의 선행연구를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최근에 실시된 유사한 대상의 실태조사를 준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를 보여 가능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실태조사의 틀과 내용을 최대한 따르되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을 통해 추후 연구의 수정보완 방안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동일한 문항을 서로 다른 연령대에 질문하다보니 용어를 크게 변경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인 전문가 자문위원은 해당 설문지가 초등학생에게 어려울 것이라고 초등교육학 전공 교수인 전문가 자문위원은 설문지 작성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견을 나타냈다. 이에 설문지를 연령대별로 대폭 삭제하거나 용어를 좀더 쉽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설문지 초안에 대한 청소년 파일럿 조사에서 청소년 당사자가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여 교급간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확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곱째, 은둔의 정의와 관련하여 '취미를 위해 외출하는 것'이 은둔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또한 청년 전문가들은 은둔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청소년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취미를 위해 외출할 정도면 은둔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뉘었으나 선행연구 검토에서 '취미를 위해 외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이를 은둔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 원안대로 취미를 위해 외출하는 것도 은둔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실제 고립·은둔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관련 전문가의 실제 현장에 기반한 수정·보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설문지 문항을 최종확정하여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항목들, 즉 앞에서 기술한 은둔과 고립의 기간에 관한 문항, 정책 및 서비스 이용 경험 등 필요한 문항을 추가하고 청소년이 응답하기에 불편하거나 조사의 실익보다 위해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들, 예를 들면 '자살 시도'와 같은 문항을 행정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를 토대로 최종 삭제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년 설문지와 고립·은둔 청소년 설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문항 비교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사전 조사) 응답자 선정	태어난 해	○	○	○	○	출생월 추가
	연령	○	○	○	○	-
	삶의 만족도	○	○	○	○	-
	은둔 선정 문항	○	○	○	○	선택지 추가
	현재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	○	○	○	○	선택지 추가
	일상생활에서 만난 사람 수	○	○	○	○	문구 수정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난 횟수	○	○	○	○	문구 수정
	교류감소	○	○	○	○	문구 수정
	소외	○	○	○	○	문구 수정
	일을 할 수 없음	○	○	○	○	-
	진로나 미래 막막함	○	○	○	○	-
	직장이 없어 위축	○	○	○	○	문구 수정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유무	○	○	○	○	-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은 나를 이해	○	○	○	○	-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서 필요한 사람	○	○	○	○	-
	고민이나 힘든 일 있을 때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도움	○	○	○	○	-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소외감	○	○	○	○	문구 수정
	친구나 가까운 지인 유무	○	○	○	○	-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 대화 횟수	○	○	○	○	-
	무언가 하고 싶을 때 같이 할 친한 사람	○	○	○	○	문구 수정
	친구나 가까운 지인은 나를 이해	○	○	○	○	-
	나는 친구나 가까운 지인에게 필요한 사람	○	○	○	○	문구 수정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지인	○	○	○	○	-
	친구나 지인들과 함께 할 때 소외감	○	○	○	○	문구 수정
	현재 경제활동 상태	○	○	○	○	문구 수정
	일하는 곳에서 서툴거나 실수를 해도 이해	○	○	○	○	문구 수정
	일하는 곳에 나에게 일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 있음	○	○	○	○	문구 수정
	나는 일하는 곳에서 필요한 사람	○	○	○	○	문구 수정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	○	○	○	○	문구 수정
	개인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상담 할 수 있는 곳 있음	○	○	○	○	문구 수정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정책이 있음	○	○	○	○	문구 수정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정책 있음	○	○	○	○	문구 수정
기타	조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	○	○	○	문구 수정, 선택지 추가
	가족 돌봄 경험	-	○	○	○	서정아, 조아미(20 23) 참고하여 연구진 신규 구성
	금융 취약 경험	-	○	○	○	
	경계선 지능 경험	-	○	○	○	
	정신질환 진단 경험	-	○	○	○	
	복지시설 생활 경험	-	○	○	○	
	장기입원 경험	-	○	○	○	연구진 신규 구성
	기타 어려움 경험	-	○	○	○	
장래희망, 바람	-	○	○	○	연구진 신규 구성	
(본조사) (고립) 삶 경험	자신이 현재 고립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	○	○	○	연구진 신규 구성
	언제 처음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는지	○	○	○	○	문구 수정
	고립 이유	○	○	○	○	문구 수정
	자신이 고립하게 된 이유(자유기재)	-	○	○	○	연구진 신규 구성
	현재 고립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자유기재)	-	○	○	○	연구진 신규 구성
	고립 생활을 한 기간	○	○	○	○	문구 수정
	이번이 처음 고립된 것인지	○	○	○	○	-
	과거에 은둔한 경험	○	○	○	○	-
	고립된 동안 주로 하는 활동	○	○	○	○	선택지 추가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식사생활	○	○	○	○	-
	식사를 주로 어떻게 하는지	○	○	○	○	-
	옷을 갈아입음	○	○	○	○	-
	목욕/샤워를 함	○	○	○	○	-
	세수/양치를 함	○	○	○	○	-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 정돈함	○	○	○	○	-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	○	○	○	○	-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	○	○	○	○	-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	○	○	○	○	-
	하루 평균 수면시간	○	○	○	○	-
	자신의 신체건강	○	○	○	○	-
	자신의 정신건강	○	○	○	○	-
	외로움	○	○	○	○	-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움	○	○	○	○	-
	아는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불안함	○	○	○	○	--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됨	○	○	○	○	-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	○	○	○	-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가 있음	○	○	○	○	-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	-	-	-	삭제
	자살 시도 경험	○				삭제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	○	○	-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	○	○	문구 수정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	○	○	○	문구 수정
	가족관계	○	○	○	○	질문방식 변경
	아버지와의 관계	○	○	○	○	질문방식 변경
	어머니와의 관계	○	○	○	○	질문방식 변경
	형제자매와의 관계	○	○	○	○	질문방식 변경
	배우자와의 관계	○				삭제
	그 외 가족과의 관계	○	○	○	○	질문방식 변경
인식 및 욕구	가족들이 고립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지	○	○	○	○	선택지 추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	○	○	-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	○	○	○	-
	현재 고립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는지	○	○	○	○	-
	현재 고립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주로 어떤 시도를 했는지	○	○	○	○	선택지 추가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고립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지만 다시 고립 생활로 돌아온 주된 이유	○	○	○	○	-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받은 경험	○	○	○	○	선택지 추가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 받은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	○	○	○	○	선택지 추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도움 받았는지(자유기재)		○	○	○	신규 추가
	눈치 보지 않고 들려서 머물 수 있는 공간	○	○	○	○	-
	일상생활 회복 지원	○	○	○	○	-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	○	○	○	-
	같이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	○	○	○	-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	○	○	○	-
	또래, 멘토 등에 의한 상담·지지	○	○	○	○	-
	교육·학습 지원	○	○	○	○	-
	취업(정보)·일 경험 지원	○	○	○	○	-
	공동생활(규칙적인 생활 등)	○	○	○	○	-
	경제적 지원	○	○	○	○	-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부모(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	○	○	○	신규 추가
	정부에서 고립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	○	○	○	-
일반적 특성	성별	○	○	○	○	-
	현재 살고 있는 곳	○	○	○	○	-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	-	○	○	○	신규 추가
	현재 다니는 학교	-	○	○	○	신규 추가
	최종학력	○	○	○	○	문구 수정
	혼인상태	○				삭제
	장애여부	○	○	○	○	-
	정신과 진단이나 투약 여부	○	○	○	○	문구 수정
	처음 정신의학과에서 진단이나 약을 처방 받은 때	-	○	○	○	신규 추가
	살고 있는 주택	○	○	○	○	선택지 추가
	주택의 소유형태	○	-	-	-	삭제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지	○	○	○	○	선택지 추가
	지난주에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	○	○	○	○	-
	경제적 문제 해결	○				삭제
	귀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	○	○	○	문구 수정
	귀하의 사회경제적 수준	○				삭제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청소년수련관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수련원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유스호스텔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동반자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쉼터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국립청소년인터넷드 림마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시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도움 필요 여부	○	○	○	○	문구 수정
	관련 정보를 드리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	문구 수정
(본조사) (은둔)	자신이 현재 은둔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	○	○	○	연구진 신규 구성
삶 경험	은둔하고 싶었던 생각이 처음 들었던 때	○	○	○	○	선택지 수정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언제 처음으로 은둔 하기 시작했는지	○	○	○	○	문구 수정
	은둔 이유	○	○	○	○	문구 수정
	자신이 은둔 하게 된 이유(자유기재)	-	○	○	○	연구진 신규 구성
	현재 은둔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자유기재)	-	○	○	○	연구진 신규 구성
	은둔 생활을 한 기간	○	○	○	○	문구 수정
	이번이 처음 은둔된 것인지	○	○	○	○	-
	과거에 은둔한 경험	○	○	○	○	-
	은둔된 동안 주로 하는 활동	○	○	○	○	선택지 추가
	식사생활	○	○	○	○	-
	식사를 주로 어떻게 하는지	○	○	○	○	-
	옷을 갈아입음	○	○	○	○	-
	목욕/샤워를 함	○	○	○	○	-
	세수/양치를 함	○	○	○	○	-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 정도함	○	○	○	○	-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	○	○	○	○	-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	○	○	○	○	-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	○	○	○	○	-
	하루 평균 수면시간	○	○	○	○	-
	자신의 신체건강	○	○	○	○	-
	자신의 정신건강	○	○	○	○	-
	외로움	○	○	○	○	-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움	○	○	○	○	-
	아는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불안함	○	○	○	○	-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됨	○	○	○	○	-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	○	○	○	-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가 있음	○	○	○	○	-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	○	-	-	-	삭제
	자살 시도 경험	○				삭제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	○	○	-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	○	○	문구 수정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	○	○	○	문구 수정
	가족관계	○	○	○	○	질문방식 변경
	아버지와의 관계	○	○	○	○	질문방식 변경
	어머니와의 관계	○	○	○	○	질문방식 변경
	형제자매와의 관계	○	○	○	○	질문방식 변경
	배우자와의 관계	○				삭제
	그 외 가족과의 관계	○	○	○	○	질문방식 변경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인식 및 욕구	가족들이 은둔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은지	○	○	○	○	선택지 추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	○	○	-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	○	○	○	-
	현재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는지	○	○	○	○	-
	현재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주로 어떤 시도를 했는지	○	○	○	○	선택지 추가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지만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온 주된 이유	○	○	○	○	-
	은둔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받은 경험	○	○	○	○	선택지 추가
	은둔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 받은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	○	○	○	○	선택지 추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도움 받았는지(자유기재)		○	○	○	신규 추가
	눈치 보지 않고 들려서 머물 수 있는 공간	○	○	○	○	-
	일상생활 회복 지원	○	○	○	○	-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	○	○	○	-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같이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	○	○	○	-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	○	○	○	-
	또래, 멘토 등에 의한 상담·지지	○	○	○	○	-
	교육·학습 지원	○	○	○	○	-
	취업(정보)·일 경험 지원	○	○	○	○	-
	공동생활(규칙적인 생활 등)	○	○	○	○	-
	경제적 지원	○	○	○	○	
	부모(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	○	○	○	신규 추가
	정부에서 은둔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	○	○	○	-
일반적 특성	성별	○	○	○	○	-
	현재 살고 있는 곳	○	○	○	○	-
	학교에 다니는지 여부	-	○	○	○	신규 추가
	현재 다니는 학교	-	○	○	○	신규 추가
	최종학력	○	○	○	○	문구 수정
	혼인상태	○				삭제
	장애여부	○	○	○	○	-
	정신과 진단이나 투약 여부	○	○	○	○	문구 수정
	처음 정신의학과에서 진단이나 약을 처방 받은 때	-	○	○	○	신규 추가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살고 있는 주택	○	○	○	○	선택지 추가
	주택의 소유형태	○	-	-	-	삭제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지	○	○	○	○	선택지 추가
	지난주에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	○	○	○	○	-
	경제적 문제 해결	○				삭제
	귀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	○	○	○	문구 수정
	귀하의 사회경제적 수준	○				삭제
	청소년수련관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수련원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유스호텔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동반자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쉼터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조사영역	조사항목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수정보완 사항
		19세~39세	9세~12세	13세~18세	19세~24세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	○	신규 추가
	시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도움 필요 여부	○	○	○	○	문구 수정
	관련 정보를 드리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	문구 수정



## 제4장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2. 조사 영역 및 내용의 구성
- 3. 주요 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1) 조사 대상 및 기간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욕구 파악을 위해 전국의 9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는 모두 소속기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과제관리번호는 NYPI-202405-HR-고유-014-01, **승인번호는 202404-HR-고유-010**이다.<sup>56)</sup> 실태조사 기간은 당초 2024년 6월 11일부터 2024년 7월 31일로 계획되었으나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한 조사 완료 시간의 지연과 조사 기간 중 포함된 초·중·고·대학교 방학 기간으로 조사대상자 발굴 및 조사 참여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 일선 학교 현장의 긴급한 요청을 토대로 유관 부처 및 시·도 교육청 등과의 조사 기간 연장에 관한 논의 및 협의를 거쳐 기간을 1차 2024년 8월 14일, 2차 2024년 8월 31일로 연장 실시하였다.<sup>57)</sup> 관련하여 2024년 10월 11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과제 수행 중 상황 발생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4년 11월 12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상황발생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sup>58)</sup>

56) 심의 방식은 서면심의, 심의 종류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에 관한 신속심의이며 심의일은 2024년 5월 24일(금)부터 2024년 5월 29일(수)까지이다. 심의대상은 '연구계획 심의 신청서', '연구계획서', '설문조사 질문지 및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조사설명문', '조사참여 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생명윤리교육이수증', '서면동의 면제 신청서'이며, 승인된 조사기간은 IRB 승인일(2024년 6월 4일)로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승인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이다.

57) 그 결과 당초 예정된 기간에 1,000명 안팎에 이르던 조사 완료자 수가 2배 가량인 2,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면접조사 기간 또한 당초 IRB 승인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면접 거절 및 당일 면접 일정 취소 등의 상황이 다수 발생하여 대상자 선정 및 선정, 면접 실시에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로 변경 실시하였다.

58) 이 과정에서 추가 소명, 재발방지 계획 제출, 관련 교육 추가 이수 등을 실시한 바 있다.

## 2) 조사 방법

실태조사는 URL과 QR 코드와 같은 온라인 링크를 통한 자기응답식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사전조사 참여를 위한 URL과 QR 코드는 아래 그림과 같다.

사전조사 접속 URL	사전조사 접속 QR코드
<a href="http://nypi-mogef.kr/survey.asp">http://nypi-mogef.kr/survey.asp</a>	

그림 IV-1.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조사 접속 URL 및 QR 코드

조사는 전국의 9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온라인 조사(이하 사전조사)와 사전조사 결과 고립 또는 은둔 청소년으로 판별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온라인 조사(이하 본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를 위해 컴퓨터와 모바일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조사 대상자가 URL 또는 QR 코드를 통해 직접 접속하여 응답 입력하도록 하는 비대면 온라인 조사 방식을 활용 하였다.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본조사 참여링크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청소년에 한해 본조사 참여 링크를 2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 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끝나는 대로 파기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실시간 응답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응답 현황 확인 기능을 구축 활용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준 청소년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명에게 태블릿 PC를 발송하였다. 본조사의 경우 성실하게 응답해 준 청소년 전원에게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2명에게 태블릿 PC를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태블릿 PC를 받은 청소년 3명 중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 1명에게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도 함께 받았다.

## 2. 조사 영역 및 내용의 구성

1차 온라인 조사(이하 사전조사)와 사전조사 결과 고립 또는 은둔 청소년으로 판별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온라인 조사(이하 본조사)는 연령대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V-1.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조사지 구성

사전조사	본조사	
	은둔 청소년	고립 청소년
■ 9세~12세용	■ 9세~12세용	■ 9세~12세용
■ 13세~18세용	■ 13세~18세용	■ 13세~18세용
■ 19세~24세용	■ 19세~24세용	■ 19세~24세용

9세~24세 청소년 연령대별로 경험에 차이가 있으며 문항 내용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도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사전조사 설문지 1종과 본조사 설문지 2종(고립 청소년용, 은둔 청소년용) 총 3종의 설문지를 각각 9세~12세용, 13세~18세용, 19세~24세용으로 구성하되 연령대별 비교를 위해 가능한 동일한 문항을 모든 연령대에 질문하고 선택지 내용 또는 용어만 해당 연령대에 맞게 소폭 변경 제시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질문에 대한 선택지가 서로 다를 경우 비교를 위해 앞번호의 선택지는 가능한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고 연령대별로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은 뒷번호의 선택지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은 Windows용 SPSS 통계 패키지 Ver.22.0을 활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일원분산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3. 주요 조사 결과

본 조사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고립·은둔 대상자를 선별하고, 선별된 고립·은둔 청소년 중 본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에게 본조사 링크를 배포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규모를 살펴보면 사전조사에 총 88,077명이 접속하여 24,70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총 19,160명이 응답 완료하였다. 응답

완료자 중 은둔 16.0%, 고립 고위험군 4.2%, 고립 위험군 8.3%, 고립 비위험군 71.4%로 나타났다. 이를 대상으로 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은둔청소년 1,110명, 고립청소년 1,029명으로 총 2,139명의 대상자가 본조사를 완료했다.<sup>59)</sup>

표 IV-2. 조사규모

(단위: 명)

구분	링크 접속건	사전조사		본조사(은둔)			본조사(고립)			본조사(고립·은둔)		
		조사 참여자	응답 완료자	조사 대상자	조사 참여자	응답 완료자	조사 대상자	조사 참여자	응답 완료자	조사 대상자	조사 참여자	응답 완료자
9세~12세	88,077	4,416	3,482	258	59	37	210	80	59	468	139	96
13세~18세		16,372	12,748	1,555	604	472	1246	619	494	2801	1223	966
19세~24세		3,914	2,930	859	669	601	661	536	476	1520	1205	1077
전체		24,702	19,160	2,672	1,332	1,110	2,117	1,235	1,029	4,789	2,567	2,139

### 1) 고립·은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고립·은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중 거주지역,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함께 사는 사람, 삶의 만족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알게 된 경로(외부정보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거주지역

본조사 응답 완료자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조사 참여자의 거주지역은 2024년 8월 기준 9세~24세 시도별 청소년 인구 규모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대표성 있는 표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시도별 인구비율 및 조사참여 고립·은둔 청소년 비율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인구비율 <sup>1)</sup>	17.2	5.9	4.6	5.8	3.2	3.1	2.2	1.0	28.1	2.8	3.1	4.2	3.4	3.3	4.5	6.3	1.4	100.0
조사참여 고립·은둔 청소년 비율 (본조사 기준)	16.2	7.4	5.3	5.5	4.1	3.9	2.4	0.9	24.8	4.2	3.8	4.1	4.2	2.7	3.8	4.9	1.8	100.0

1) <https://jumin.mois.go.kr>

59) 본 장은 서정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고 최홍일 전문연구원이 수정·보완하였다.

## ② 성별

남자 29.9%, 여자 70.1%로 여성 비율이 남성의 약 2.3배(청년 조사 2.6배)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은 남성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청년 실태조사와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모두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자발적 설문 조사 형태의 조사에 보다 적극적임을 알 수 있으며 추후 은둔 정도가 보다 높은 남자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4. 성별

(단위: 명, %, n=2,139)

구분	구분		
	은둔	고립	고립·은둔 총계
남	367	272	639
	33.1	26.4	29.9
여	743	757	1,500
	66.9	73.6	70.1
총계	1,110	1,029	2,139
	100.0	100.0	100.0

## ③ 연령

응답완료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9세~12세가 4.5%, 13~18세가 45.2%, 19~24세가 50.4%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IV-5. 연령

(단위: 명, %, n=2,139)

구분	구분		총계
	은둔	고립	
9-12세	37	59	96
	3.3	5.7	4.5
13-18세	472	494	966
	42.5	48.0	45.2
19-24세	601	476	1,077
	54.1	46.3	50.4
총계	1,110	1,029	2,139
	100.0	100.0	100.0

#### ④ 학력

현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전체의 57.6%였으며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42.4%였다. 연령대별로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9세~12세의 10.0%가 학교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경우가 각각 40.0%를 차지하였다. 13~18세는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경우가 59.9%로 가장 많았으며 19~24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가 28.1%로 가장 많았다.

표 IV-6. 현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단위: 명, %, n=1,233)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초등학교	54	1	0	55
	62.8	0.2	0.0	4.5
중학교	32	239	9	280
	37.2	37.2	1.8	22.7
고등학교	0	359	9	368
	0.0	55.9	1.8	29.8
(전문)대학교	0	43	458	501
	0.0	6.7	90.7	40.6
대학원(석사, 박사)	0	0	29	29
	0.0	0.0	5.7	2.4
총계	86	642	505	1,233
	100.0	100.0	100.0	100.0

표 IV-7.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단위: 명, %, n=906)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학교에 한번도 다닌 적이 없다	10.0	1.2	0.0	0.6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40.0	3.7	0.2	1.9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않았다	10.0	0.6	0.7	0.8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40.0	17.9	2.3	8.3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다	0.0	7.7	2.8	4.5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0.0	59.9	20.1	34.1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교에 가지 않았다	0.0	5.2	28.1	19.6
(전문)대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0.0	3.7	14.7	10.6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박사)에 가지 않았다	0.0	0.0	27.4	17.3
대학원을 다니다 그만두었다	0.0	0.0	1.7	1.1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0.0	0.0	1.9	1.2
총계	10	324	572	906
	100.0	100.0	100.0	100.0

#### ⑤ 경제수준

본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높은 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16.3%였으며 중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42.4%, 낮은 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41.4%를 차지하였다.

표 IV-8. 경제수준

(단위: 명, %, n=2,139)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상	20.8	18.6	13.8	16.3
중	52.1	45.8	38.4	42.4
하	27.1	35.7	47.8	41.4
총계	N=96	N=966	N=1,077	N=2,139
	100.0	100.0	100.0	100.0

## ⑥ 함께 사는 사람

현재 함께 사는 사람을 살펴보면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과 생활하는 경우가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성 친구(0.3%),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0.3%), 동성 친구(0.3%), 시설의 선생님(0.5%), 위탁 가정의 보호자(0.1%)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 ⑦ 삶의 만족도

조사 참여 모든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사전조사 기준)는 6.61점이며 고립·은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4.76점, 비해당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7.35점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9세~12세는 고립·은둔 청소년 5.90점(비해당 7.84점), 13세~18세는 고립·은둔 청소년 4.85점(비해당 7.26점), 19세~24세는 고립·은둔 청소년 4.14점(비해당 6.93점)으로 나타났다.

표 IV-9. 삶의 만족도

(단위: 점, (m=0, M=10), n=19,160)

구분	고립·은둔				비해당				총계			
	연령대				연령대				연령대			
	9-12세	13-18세	19-24세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총계
평균	5.90	4.85	4.14	4.76	7.84	7.26	6.93	7.35	7.50	6.65	5.39	6.61
사례 수	609	3,255	1,620	5,484	2,873	9,493	1,310	13,676	3,482	12,748	2,930	19,160

## ⑧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알게 된 경로(외부정보 인지 경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알게 된 경로(외부정보 인지 경로)는 학교 선생님이 알려 주셔서 가장 많았으며(41.7%), 다음으로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을 통해(13.7%), 온라인 홍보물을 보고(12.8%), 신문, 인터넷 뉴스 등 언론 기사를 보고(12.6%), 종이,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보고(7.0%), 센터 등 기관의 소개(5.4%), 가족이나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을 통해(2.9%), 기타(4.0%) 순이었다. 온라인 홍보물의 경우 X(구 트위터)인스타그램 > 유튜브 > 학교 홈페이지 > 네이버 > 1388홈페이지 > 카카오톡 순이었으며 종이, 포스터 등 오프라인의 경우 학교(대학교 포함) > 위클래스 > 청소년문화의집 > 지역 아동센터 > 꿈드림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경우 부모님 > 친구 > 형제·자매 > 선생님 > 지인 > 친척 순으로 나타났으며 센터 등 기관 소개의 경우 꿈드림 > 지역아동센터 > 학교 > 청소년수련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담임선생님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알게 된 경로

(단위: %, N=19,160)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신문, 인터넷 뉴스 등 언론 기사를 보고	4.8	10.7	29.8	12.6
온라인 홍보물을 보고	4.8	8.5	41.2	12.8
종이,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보고	6.2	7.6	4.9	7.0
가족이나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을 통해	3.6	2.2	4.9	2.9
센터 등 기관의 소개	4.9	4.3	10.9	5.4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61.7	43.8	8.4	41.7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을 통해	9.8	17.9	0.0	13.7
기타	4.2	4.9	0.0	4.0
총계	100.0	100.0	100.0	100.0

## 2) 고립·은둔 시작시기 및 이유

### ① 시작 연령 및 이유

고립·은둔 시작시기는 16세 이상~18세 이하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9세 이상~24세 이하 27.7%, 9세 이상~12세 이하 12.0%, 9세 미만 5.0% 순으로 나타났다. 3/4 가량인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고립·은둔 이유(복수응답)는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65.5%에 달하였으며 다음으로 공부·학업관련 어려움(48.1%), 진로·직업관련 어려움(36.8%), 가족관련 어려움(34.3%), 특별한 이유는 없음(25.1%), 가정폭력, 학교폭력, 따돌림, 괴롭힘(24.7%), 게임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18.9%), 건강상의 어려움(16.4%), 기타(10.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 고립·은둔 시작 연령과 이유

(단위: %, N=2,139)

고립·은둔 시작연령	구분	9세 미만	9세 이상~12세 이하	13세 이상~15세 이하	16세 이상~18세 이하	19세 이상~24세 이하
		연령대				총계
시작연령		5.0	12.0	25.6	29.7	27.7
고립·은둔 시작 이유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가족관련 어려움	32.3	33.7	34.9		34.3
	공부/학업관련 어려움	49.0	51.7	44.8		48.1
	진로/직업관련 어려움	26.0	26.4	47.2		36.8
	가정폭력, 학교폭력, 따돌림, 괴롭힘	21.9	22.9	26.6		24.7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	61.5	67.0	64.6		65.5
	건강상의 어려움	12.5	16.0	17.0		16.4
	게임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18.8	22.0	16.2		18.9
	특별한 이유는 없음	31.3	27.8	22.0		25.1
기타	12.5	12.0	8.4		10.2	

② 고립·은둔 기간

이제까지 고립·은둔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2년 이상~3년 미만이 1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 이상~2년 미만(16.7%), 6개월 이상~1년 미만(16.6%) 등이었으며 3년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15.4%를 차지하였다. 연령대가 증가될수록 고립·은둔 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2. 고립·은둔 기간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1개월 미만	24.0	14.1	5.8	10.4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12.5	11.9	8.3	10.1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6.7	13.3	13.8	13.7
6개월 이상~ 1년 미만	18.8	16.9	16.2	16.6
1년 이상~2년 미만	11.5	15.1	18.7	16.7
2년 이상~3년 미만	12.5	14.4	19.9	17.1
3년 이상	4.2	14.4	17.3	15.4
총계	100.0	100.0	100.0	100.0

### ③ 재고립·은둔 경험

이번이 처음 은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39.7%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40%에 가까운 청소년이 일상생활 복귀 후 재고립·은둔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3. 재고립·은둔 경험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그렇다	58.3	63.4	57.7	60.3
아니다	41.7	36.6	42.3	39.7
총계	100.0	100.0	100.0	100.0

### ④ 재고립·은둔 이유

재고립·은둔 이유로는 힘들고 지쳐서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립·은둔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20.9%,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17.4%,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는데 효과가 없어서 12.6%, 기타 9.6%, 의논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9.0%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립된 생활에서 안정감, 편안함을 느낌', '노력이나 의지 부족', '시험 불합격, 자신감 부족, 두려움' 등이 있었다.

표 IV-14. 재고립·은둔 이유

(단위: %, N=1,193)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는 데 효과가 없었음	10.0	13.9	11.7	12.6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음	40.0	32.2	29.0	30.7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 없었음	12.5	13.9	20.2	17.7
의논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음	17.5	9.0	8.4	9.0
고립·은둔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10.0	20.1	22.1	20.9
기타	10.0	10.9	8.6	9.6
총계	100.0	100.0	100.0	100.0

### 3) 삶 실태 및 사회적 관계

#### ① 고립·은둔한 동안 주로 한 활동

고립·은둔한 동안 주로 한 활동(복수응답)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시청이 가장 많았으며(59.5%), SNS, 커뮤니티 등 활동(48.0%), PC/모바일 게임(45.1%), 잠(41.7%),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음(누워있기 등)(33.2%), 운동 등 취미활동(16.2%), TV 시청(16.7%), 공부(11.9%), 돈을 벌기 위한 다양한 활동(블로그, 투자, 일하기, 일자리 찾기 등)(9.7%), 관심 분야 정보 검색(7.3%),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5. 고립·은둔한 동안 주로 한 활동

(단위: %)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TV 시청	36.5	14.9	16.6	16.7
PC/모바일 게임	56.3	46.3	43.0	45.1
SNS, 커뮤니티 등 활동	32.3	47.6	49.8	48.0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시청	60.4	56.9	61.7	59.5
돈을 벌기 위한 다양한 활동 (블로그, 투자, 일하기, 일자리 찾기 등)	6.3	5.5	13.8	9.7
운동 등 취미활동	15.6	19.6	13.2	16.2
잠	21.9	42.9	42.3	41.7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음(누워있기 등)	28.1	33.5	33.3	33.2
공부	12.5	14.5	9.6	11.9
관심 분야 정보 검색	7.3	6.9	7.6	7.3
기타	6.3	3.7	3.5	3.7

#### ② 돈을 벌기 위한 활동

지난 주에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했나는 질문에 대해 26.3%가 일을 하였다(프리랜서, 배달, 알바 등 포함)고 응답하였으며 73.7%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는 9세~12세는 4.2%, 13세~18세는 15.0%, 19세~24세는 38.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IV-16. 경제생활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예	4.2	15.0	38.3	26.3
아니요	95.8	85.0	61.7	73.7
총계	100.0	100.0	100.0	100.0

③ 일상생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경우는 1/4가량인 25.5%정도 였으며 아무 때나 먹거나(43.8%) 불쾌할 때까지 먹거나(10.2%), 배가 고파도 잘 먹지 않는(14.6%) 등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가진 경우가 68.6%로 상당하였으며,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인 21.8%를 제외하고는 직접 차려 먹거나(31.8%), 배달시키거나(17.5%), 가족이 식사를 차려 놓은 것(20.0%)을 먹는 등 혼자 먹는 경우가 거의 70%에 달하였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56.7%였다.

표 IV-17. 식사생활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규칙적인 식사	39.6	27.6	22.4	25.5
시간에 상관 없이 배고플 때 먹는다	42.7	41.7	45.8	43.8
배가 불러도 불쾌할 때까지 먹는다	4.2	9.4	11.4	10.2
배가 고파도 잘 먹지 않는다	10.4	15.6	14.1	14.6
기타	3.1	5.6	6.3	5.8
총계	100.0	100.0	100.0	100.0

표 IV-18. 식사준비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직접 또는 배달시켜서 또는 가족이 식사를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	46.9	61.8	78	69.3
가족과 함께 먹는다	45.8	28.0	14.1	21.8
기타	7.3	10.2	7.9	8.9
총계	100.0	100.0	100.0	100.0

표 IV-19. 밤낮 바뀐 생활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그렇지 않다	63.5	46.3	38.9	43.3
그렇다	36.4	53.7	61.1	56.7
총계	100.0	100.0	100.0	100.0

#### ④ 자기관리

1주일에 한번 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12.9%, 일주일이상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경우가 7.8%였으며, 1주일에 한번 목욕/샤워를 하는 경우가 12.4%, 일주일이상 목욕/샤워를 하지 않는 경우가 5.9%, 일주일에 한 번 세수/양치를 하는 경우가 6.6%, 일주일 이상 세수/양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4.3%, 일주일에 한번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는 경우가 22.3% 일주일 이상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 정돈하지 않는 경우가 46.0%에 달하였다.

표 IV-20. 옷 갈아입기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한 달에 한 번	1.0	2.5	2.8	2.6
2~3주에 한 번	4.2	3.1	7.2	5.2
일주일에 한 번	7.3	11.9	14.2	12.9
2~3일에 한 번	26.0	31.7	38.5	34.9
매일	61.5	50.8	37.2	44.5
총계	100.0	100.0	100.0	100.0

표 IV-21. 목욕·샤워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한 달에 한 번	2.1	2.1	1.8	1.9
2~3주에 한 번	5.2	3.8	4.1	4.0
일주일에 한 번	10.4	10.1	14.7	12.4
2~3일에 한 번	27.1	31.7	38.0	34.6
매일	55.2	52.3	41.5	47.0
총계	100.0	100.0	100.0	100.0

표 IV-22. 세수·양치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한 달에 한 번	1.0	1.2	1.3	1.3
2~3주에 한 번	5.2	3.5	2.4	3.0
일주일에 한 번	9.4	5.7	7.1	6.6
2~3일에 한 번	11.5	11.7	18.0	14.9
매일	72.9	77.8	71.1	74.2
총계	100.0	100.0	100.0	100.0

표 IV-23. 방정리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한 달에 한 번	28.1	30.3	24.3	27.2
2~3주에 한 번	25.0	17.2	19.7	18.8
일주일에 한 번	16.7	20.3	24.7	22.3
2~3일에 한 번	14.6	16.3	18.4	17.3
매일	15.6	15.9	12.9	14.4
총계	100.0	100.0	100.0	100.0

#### 4) 건강, 심리정서, 사회관계

##### ① 건강상태

스스로 자신의 신체건강을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8.9%,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3.2%였으며 자신의 정신건강을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0.6%,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1.0%였다. 연령대별로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안 좋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좋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IV-24. 신체 건강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안 좋음	29.2	48.7	50.7	48.9
보통	45.8	34.7	40.2	38.0
좋음	25.0	16.6	9.1	13.2
총계	100.0	100.0	100.0	100.0

표 IV-25. 정신 건강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안 좋음	41.7	60.1	62.5	60.6
보통	39.6	26.4	29.2	28.4
좋음	18.8	13.5	8.1	11.0
총계	100.1.0	100.0	99.8.0	100.0

##### ② 심리정서적 어려움

지난 7일간 외로움을 자주 또는 항상 느낀 경우는 52.7%, 사람 만나는 것이 자주 또는 항상 두려운 경우는 50.2%, 아는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자주 또는 항상 불안한 경우는 50.0%,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주 또는 항상 걱정되는 경우는 68.8%,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자주 또는 항상 느끼는 경우는 63.1%, 절망적인 기분이 자주 또는 항상 드는 경우는 59.5%로 나타났다.

표 IV-26. 심리정서적 어려움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9-12세	13-18세	19-24세
(1) 외로움	(자주 또는 항상) 그렇다	50.0	55.9	50.2
(2)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움	(자주 또는 항상) 그렇다	37.5	49.0	52.4
(3) 아는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불안함	(자주 또는 항상) 그렇다	36.5	49.3	52.0
(4)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됨	(자주 또는 항상) 그렇다	62.5	70.5	67.8
(5)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자주 또는 항상) 그렇다	52.1	59.0	67.7
(6)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가 있음	(자주 또는 항상) 그렇다	52.1	59.4	60.2

③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경우가 62.5%로 2/3가량을 차지하였으며 19.4%는 없었다고, 18.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7.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있었음	49.0	65.7	60.7	62.5
없었음	19.8	16.9	21.6	19.4
잘 모르겠음	31.3	17.4	17.6	18.1
총계	100.0	100.0	100.0	100.0

③ 사회적 관계의 양

지난 2주 동안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과 대화 등을 나눈 경험이 없는 경우는 고립·은둔 청소년은 8.3%로 비해당군의 1.9%에 비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 대화 등을 나눈 경험이 없는 경우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은 5.6%로 비해당군의 0.8%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28.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과 대화

(단위: %, N=18,322)

구분	고립·은둔	비해당	총계
0번	8.3	1.9	3.6
1~2번	22.6	7.1	11.1
3~5번	29.6	19.2	21.9
6~10번	16.2	20.9	19.7
11번 이상	23.2	50.9	43.7
총계	100.0	100.0	100.0

표 IV-29.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 대화

(단위: %, N=18,433)

구분	고립·은둔	비해당	총계
0번	5.6	0.8	2.1
1~2번	18.8	2.7	6.9
3~5번	28.6	10.3	15.1
6~10번	15.8	17.4	17.0
11번 이상	31.2	68.8	59.0
총계	100.0	100.0	100.0

#### ④ 고립·은둔 상황인식

현상황에 대한 본인과 가족의 인식을 살펴보면 가족은 청소년의 고립·은둔생활에 대해 고립·은둔생활을 하는지 모르거나(29.6%), 고립·은둔생활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27.2%) 관심이 없는 경우(9.4%) 등 인식도가 낮은 경우가 66.2%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립·은둔생활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27.3%) 또는 고립·은둔생활과 관련하여 갈등이 심각한 경우(6.5%) 등 고립·은둔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33.8%로 1/3을 차지하였다. 청소년 스스로는 고립·은둔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17.8%), 고립·은둔하고 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23.7%),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8.5%) 등 고립·은둔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약 50.0%로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50%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34.3%),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15.8%) 하는 등 자신의 고립·은둔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가족에 비해 청소년 스스로가 고립·은둔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30. 가족의 고립·은둔 상황인식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내가 고립·은둔생활을 하는지 모름	46.9	34.6	23.7	29.6
나의 고립·은둔생활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27.1	26.2	28.0	27.2
나의 고립·은둔생활을 문제라고 생각함	20.8	22.6	32.2	27.3
나의 고립·은둔생활과 관련하여 갈등이 심각함	3.1	6.6	6.6	6.5
나의 고립·은둔생활을 알지만 별 관심이 없음	2.1	10.0	9.5	9.4
총계	100.0	100.0	100.0	100.0

표 IV-31. 본인의 고립·은둔 상황인식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고립·은둔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30.2	23.2	11.9	17.8
고립·은둔하고 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26.0	25.3	22.0	23.7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29.2	30.1	38.4	34.3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4.2	10.9	21.3	15.8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음	10.4	10.6	6.4	8.5
총계	100.0	100.0	100.0	100.0

## 5) 탈고립·은둔 의지 및 복지서비스 욕구

### ① 탈고립·은둔 생각·시도

71.7%가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5.8%가 현재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비율과 현재 고립·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32. 탈고립·은둔 생각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그렇다	65.6	68.3	75.3	71.7
아니다	34.4	31.7	24.7	28.3
총계	100.0	100.0	100.0	100.0

표 IV-33. 탈고립·은둔 시도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있다	41.7	50.5	61.7	55.8
없다	58.3	49.5	38.3	44.2
총계	100.0	100.0	100.0	100.0

② 탈고립·은둔 노력

현재 고립·은둔을 벗어나기 위해 주로 한 시도(복수응답)로는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음(52.6%)과 취미활동을 했음(50.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터넷에 검색함(35.6%), 심리상담을 받음(34.1%),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음(30.3%),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17.9%), 관련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음(12.5%), 기타(11.4%),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9.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운동하기, 산책하기, 아르바이트 찾거나 아르바이트 하기, 친구를 만들거나 만나기, 최대한 밖으로 나가기(모임 참석, PC방 오락실 전시회 등 밖에서 할 수 있는 여가활동 등),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려고 노력함, 반려동물 입양 등이 있었다.

표 IV-34. 탈고립·은둔 노력

(단위: %, N=1,193)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음	27.5	45.3	59.5	52.6
취미활동을 했음	47.5	53.3	48.9	50.6
심리상담을 받음	15.0	36.9	33.2	34.1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음	12.5	29.5	32.0	30.3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	15.0	10.5	8.7	9.6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27.5	20.3	15.5	17.9
관련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음	7.5	15.0	11.0	12.5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터넷에 검색함	32.5	36.5	35.2	35.6
기타	12.5	13.7	9.6	11.4

### ③ 탈고립·은둔 도움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고립·은둔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주된 이유는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아서가 50.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몰라서(20.2%), 기타(13.5%), 비용이 부담되어서(8.0%), 도움받을 만한 지원 기관이 없어서(6.3%), 지원 기관이 멀리 있어서(1.3%) 순으로 나타나 고립·은둔 청소년이 고립·은둔에 대한 도움을 받기 원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도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는 고립·은둔 상태에 문제의식이 없어서, 고립·은둔 상태라고 생각들지 않아서, 기관에서 받는 도움이 부담스러워서(일이 커지고 낙인이 두렵고 주위에 보는 눈이 많아서), 내 의지가 부족해서(의욕이 없어서, 움직이기 싫어서), 도움받아 해결될 부분이 아니어서, 도움받을 때 나의 처지를 공개하는 것이 싫어서, 도움을 요청하기 무섭거나 어려워서, 예전에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탈락한 경험이 있어서, 믿음이 안가서, 별거 아닌 것으로 유난 떠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싫어서,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거나 시간이 더 필요해서 등이 있었다.

표 IV-35. 탈고립·은둔 도움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N=930)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56.3	52.5	48.2	50.6
도움받을 만한 지원 기관이 없어서	10.4	6.4	5.8	6.3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몰라서	18.8	17.0	23.5	20.2
지원 기관이 멀리 있어서	0.0	1.4	1.3	1.3
비용이 부담되어서	2.1	5.5	11.0	8.0
기타	12.5	17.2	10.1	13.5
총계	100.0	100.0	100.0	100.0

#### ④ 필요한 도움

필요한 도움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79.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77.7%),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77.4%), 진로활동 지원(75.1%), 일상생활 회복 지원(70.0%), 교육·학습 지원(66.1%),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64.1%), 부모(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58.6%), 같이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58.2%), 공동생활(규칙적인 생활 등)(49.7%), 또래, 멘토 등에 의한 상담·지지(4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6. 필요한 도움

(단위: %,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1)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72.9	80.3	79.3	79.5
(2) 일상생활 회복 지원	56.2	64.5	76.3	70.0
(3)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63.6	75.9	80.2	77.4
(4) 같이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51.0	54.2	62.6	58.2
(5)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50.0	60.3	68.6	64.1
(6) 또래, 멘토 등에 의한 상담·지지	51.1	40.3	48.1	44.7
(7) 교육·학습 지원	49.0	63.1	70.4	66.1
(8) 진로활동 지원	52.1	72.1	79.9	75.1
(9) 공동생활(규칙적인 생활 등)	42.7	48.6	51.4	49.7
(10) 경제적 지원	54.2	73.8	83.2	77.7
(11) 부모(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57.3	57.5	59.6	58.6

#### 6) 기타 사항

##### ① 현재 자신의 상태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평일은 매일 외출하는 경우는 전체의 58.3%였으며 나머지는 청소년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2.1%,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는 4.0%, 보통은 집에 있지만 가까운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5.7%,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4.9%,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11.0%,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6.7%,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일주일에 1-2일 외출한다 2.2%,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5.1%로 나타났다.

표 IV-37. 현재 자신의 상태

(단위: %, N=19,160)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0.9	2.0	3.7	2.1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2.6	3.8	6.4	4.0
보통은 집에 있지만, 가까운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3.9	4.5	13.2	5.7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2.5	4.4	10.0	4.9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7.6	11.5	12.9	11.0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5.4	7.2	5.8	6.7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일주일에 1~2일 외출한다	1.8	1.4	6.1	2.2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3.5	3.7	13.3	5.1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71.6	61.5	28.6	58.3
총계	3,482	12,748	2,930	19,160
	100.0	100.0	100.0	100.0

② 스스로 생각하는 현재 상태가 된 주된 이유

현재 상태가 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가 28.8%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원하는 일(진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 어려워서 16.0%, 초·중·고등학교를 그만두어서(7.2%), 상급(중고등대)학교에 가지 못해서 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8. 현재 상태가 된 주된 이유

(단위: %, N=3,203)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초·중·고등학교를 그만두어서	2.0	10.6	2.5	7.2
원하는 상급(중·고등·대)학교에 가지 못해서	1.7	5.3	8.6	5.9
원하는 일(진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 어려워서	8.6	8.8	32.4	16.0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26.0	29.2	28.9	28.8
병이 있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2.3	2.8	5.1	3.5
아기가 생겨서(리틀맘, 리틀대디, 고딩엄빠)	0.0	0.5	0.9	0.6
이사나 전학을 가게 되어서	4.6	1.4	1.8	1.9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1.1	2.4	3.2	2.5
코로나19로 인해	7.7	4.5	1.1	3.8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0.3	0.4	0.3	0.4
기타	45.7	33.9	15.1	29.4
총계	350	1,878	975	3,203
	100.0	100.0	100.0	100.0

### ③ 현재 어려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가족을 주로 돌보느라 학업, 아르바이트, 진로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약간, 대체로, 매우 그러한)은 전체의 13.9%, 부모가 내 이름을 가져다 쓰고 경제적 부담을 지워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9.8%,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라서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청소년은 전체의 11.8%,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5.9%,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청소년쉼터·자립지원시설·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9.1%,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9.3%, 기타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0.4%로 나타났다.

표 IV-39. 현재의 어려움

(단위: %, N=19,160)

구분	연령대			총계
	9-12세	13-18세	19-24세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가족을 주로 돌보느라 학업, 아르바이트, 진로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경험	15.7	11.0	25.1	13.9
부모가 내 이름을 가져다 쓰고 경제적 부담을 지워 어려웠던 경험	10.6	6.1	25.2	9.8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라서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던 경험	18.2	8.8	16.7	11.8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	7.8	14.0	33.9	15.9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청소년쉼터·자립지원시설·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한 경험	8.9	7.8	14.3	9.1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아팠던 경험	10.3	8.2	12.9	9.3
기타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경험	19.6	16.9	36.7	20.4

### ④ 청소년관련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경험

고립·은둔 청소년의 청소년관련 시설 프로그램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21.7%), 청소년문화의집(12.4%), 청소년수련원(15.1%), 유스호스텔(7.8%), 청소년상담

복지센터(23.0%), 청소년동반자(2.7%), 청소년쉼터(8.1%), 청소년자립지원관(3.4%), 청소년회복지원시설(1.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6.4%),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1.9%),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디딤센터) 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5.2%)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고립·은둔 청소년이 청소년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청소년 현장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기관의 청소년 이용만족도(min=1, Max=4)를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2.93점, 청소년문화의집 3.00점, 청소년수련원 2.67점, 유스호스텔 2.67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6점, 청소년동반자 2.77점, 청소년쉼터 2.80점, 청소년자립지원관 2.99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46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08점,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2.53점),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디딤센터) 2.37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2점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40. 청소년관련 시설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점, N=2,139)

구분	연령대			총계	이용 만족도
	9-12세	13-18세	19-24세		
청소년수련관	17.7	23.6	20.4	21.7	2.93
청소년문화의집	18.8	13.9	10.5	12.4	3.00
청소년수련원	12.5	16.1	14.3	15.1	2.67
유스호스텔	6.3	5.3	10.1	7.8	2.6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4	27.0	20.6	23.0	2.86
청소년동반자	0.0	3.1	2.5	2.7	2.77
청소년쉼터	6.3	8.0	8.4	8.1	2.80
청소년자립지원관	2.1	1.8	5.0	3.4	2.9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1	1.9	1.9	1.9	2.4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1	22.6	12.1	16.4	3.08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3.1	2.0	1.7	1.9	2.53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1.0	2.2	1.8	1.9	2.3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9.4	5.8	4.4	5.2	3.02
기타	9.4	5.7	4.1	5.0	2.97



## ○ — 제5장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 분석

- 1. 연구 개요
- 2.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에 대한 범주화
- 3.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 과정



## 1. 연구 개요<sup>60)</sup>

본 절에서는 질적연구를 통해 원인, 과정, 결과 파악과 이를 토대로 한 고립·은둔 후 사회복귀를 위한 개입 가능 지점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V-1. 질적 연구의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면접 목적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을 탐색하고 고립·은둔과정과 맥락을 도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로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함.
면접참여자 선정과정	청소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심층면접 참여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연락처를 남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대, 거주 지역, 은둔을 벗어나기 위한 복귀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면접 대상	청소년 20명
면접 일시	2024년 8월 ~9월
면접 내용	고립·은둔 청소년의 주요 원인,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재 상태, 청소년이 고립·은둔으로부터 사회로의 복귀 및 회복
면접 방식	일대일 심층 면담
면접 시간	1시간 내외
면접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면접자의 동의 후 기록 및 녹취 후 전사
자료 분석 방법	질적 분석(근거이론, 사례 연구, 내러티브)

### 1) 면접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본 연구가 심층 면접을 통하여 청소년의 고립·은둔의 원인 파악과 함께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 은둔·고립 상태에 있거나 사회로 건강하

60) 본 장은 강경균 선임연구위원과 충남대학교 허창수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다.

게 복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9~24세의 청소년 20명을 선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면접 참여자는 청소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중 심층 면접 참여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연락처를 남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특히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로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조사 설문 중 ‘현재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경험’,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시설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이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거나 건강하게 사회 복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20명을 선정하였다. 심층 면접에 앞서 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연구를 실시하였다(승인번호 202404-HR-고유-010). 심층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은 다음과 같다.

표 V-2. 면접 참여자 정보

참여자	지역	성별	면담일시	면담시간
1	광주	여	2024. 08. 09	66분
2	서울	남	2024. 08. 26	51분
3	대전	여	2024. 08. 27	75분
4	서울	여	2024. 09. 03	51분
5	서울	여	2024. 09. 03	50분
6	서울	남	2024. 09. 04	41분
7	경기	여	2024. 09. 04	43분
8	충북	여	2024. 09. 05	41분
9	충북	여	2024. 09. 05	48분
10	세종	여	2024. 09. 06	44분
11	충북	여	2024. 09. 07	51분
12	인천	여	2024. 09. 10	45분
13	서울	여	2024. 09. 10	45분
14	강원도	남	2024. 09. 12	50분
15	대전	남	2024. 09. 13	63분
16	부산	여	2024. 09. 25	47분
17	대구	여	2024. 09. 26	48분
18	부산	여	2024. 09. 26	42분
19	대구	여	2024. 09. 27	44분
20	충남	여	2024. 09. 30	57분

면접 참여자를 선정한 후에는 면접 참여자에게 유선을 통하여 연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면접 장소를 정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심층 면접 전 면접 참여자에게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한 후 면접 내용을 녹취 하고, 면접 후에는 면접에 대한 답례를 전달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의 특성은 모두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성별, 나이, 지역 모두 다양하다. 각각의 청소년이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본인의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 하고 있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각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존감이 없거나 소심한 성격이며, 고립·은둔에 들어서게 되는 이유가 가정, 학교, 친구,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 다양하였으며, 현재의 삶 또한 자립, 가족과의 생활, 취직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

## 2) 면접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접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험 과정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의 주요 원인, 고립·은둔 청소년의 현재 상태, 청소년이 고립·은둔으로부터 사회로의 복귀 및 회복하게 된 과정 등의 반 구조화된 질문지로 구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표와 같다.

표 V-3.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 분석을 위한 면접 질문 내용

영역	질문 내용
고립·은둔의 주요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은둔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li> <li>• 어떻게 고립·은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li> <li>• 어떠한 경험이 자신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왔습니까?</li> </ul>
청소년의 고립·은둔의 맥락 및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은둔 시 하루 생활을 어떻게 보냈습니까?</li> <li>• 고립·은둔 시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li> <li>• 고립·은둔 시 고립·은둔의 상태 및 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했습니까?</li> <li>• 고립·은둔 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li> <li>• 고립·은둔 시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li> </ul>
청소년이 고립·은둔으로부터 사회로의 복귀 및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은둔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습니까?</li> <li>• 고립·은둔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가진 계기가 무엇입니까?</li> <li>• 고립·은둔 생활 중 학교나 가족 혹은 사회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li> <li>•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li> </ul>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의 수집은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시간은 약 40~70분 내외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반구조화된 심층 면접 질문지를 토대로 연구진과 일대일 대면 면접을 실시하며 녹음기를 활용하여 녹취로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위하여 전사(transcription)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방법론 관점에서 세 가지 방법론을 결합하는 브리콜라주(bricolage) 방식(Kincheloe, 2001)을 활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고립·은둔으로부터 사회로 복귀 및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의 특성, 사례의 특성, 고립·은둔의 현상의 이해, 과정을 위한 원인 관계의 이해 등의 자료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은 가능한 많은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각 사례 간 비교를 통해 현상이론을 생산하며, 원인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의 전통적 방법론이다. 최근에는 현장이론과 원인 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황적 또는 구성적으로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도 고립·은둔 청소년의 원인과 과정을 도출하고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20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자료의 주제를 도출하고 과정을 도출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연구 대상을 상황적이고 구성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근거이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둘째, 사례 연구(case study)는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는 연구 방법이다. 질적 연구에서 사례는 공간과 시간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Yin, 2018). 본 연구에서 각 사례는 한 사람의 삶이라는 공간과 시간으로 분명히 구분되므로, 사례 연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도 사례 연구에서 추구하는 비교분석을 주로 활용 하였다. 셋째, 이야기(narrative) 방법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 방법론은 상황, 사건, 현상, 일화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이야기 형식으로 재현하는 방법론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는 주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거이론, 사례 연구, 이야기 방법론을 결합한 브리콜라주 방식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에 대한 분석은 고립·은둔과 전후 삶 세 영역으로 구분했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해석했다. 자료 재현은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하였다. 즉 연구자가 면담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재현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 주제와

대상의 보호를 위한 윤리적인 관점에서 노출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직접 인용은 최소한으로 활용했다. 둘째, 면담 시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상황, 현상, 사건, 일화 등에 대해 시간적 흐름이나 논리 또는 합리적으로 참여자가 언급하기보다 생각나는 대로 경험의 작은 파편과 조각들로 흩어져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시간의 연계성이 어긋나는 진술이 존재하였다. 이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 조각들은 직접 인용을 위해 연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만하게 편집된 상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직접 인용의 취지와 타당성 면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직접 인용으로 각 답변을 연결하여 활용하기보다는 면담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셋째, 면담 내용은 작은 조각들이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개입하여 이야기 형태의 완성된 문장으로 재현하였다. 자료의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할 때 직접 인용 시에는 좌우 들여쓰기를 했지만, 연구자가 면담 내용을 재구성한 경우는 본문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이야기들이 가진 특성이 있어 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과 단어가 가진 감정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구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이야기의 시제는 1인칭으로 했다. 즉 모든 사례는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나'로 표현했다. 그 이유는 대상을 비교하기보다 종합하여 교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용문과 이야기 방식을 활용해 재구성한 문장들은 각 사례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지만, 주어를 모두 '나'로 하여 각 사례들이 교차되어 집단 '나'를 하나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하는 고립·은둔의 상황은 특정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 총체적, 교차적, 우연적이며 필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와 체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 제공하는 각종 이야기는 고립·은둔으로 가는 과정과 그 안에서의 삶, 그리고 그로부터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이해하는 예시적인 성격을 가진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 기술과 분석은 비교 분석을 하는 다중 사례의 성격보다는 전체를 하나의 사례로 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일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술 차원에서 고립·은둔 경험을 하나의 과정으로 제공했다.

본 연구에서 기술에 있어 첫째, 고립·은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 이전의 과정을 사례별로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고립·은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담 참여자가 판단하는 각종 상황, 현상, 사건, 일화 등을 중심으로 나열 형태로 제공한다. 둘째, 고립·은둔

상태에서의 일상생활을 기술한다. 사실 고립·은둔 상태에서는 매우 단조로운 일상생활을 한다. 예컨대 잠을 자고, 휴대폰을 하고, 게임을 하는 등 특별히 논의할 것이 많지는 않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고립·은둔 상태에서의 단조롭지만 의미 있게 수집된 자료를 기술하려고 한다. 셋째, 고립·은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 과정에 있다고 해도 연구 참여자들은 여전히 고립·은둔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계를 넓혔거나, 언제든지 고립·은둔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고립·은둔 상태를 다른 개념이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등 그 경계가 모호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계가 모호할지라도 수집된 자료를 통해 하나의 고립·은둔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과정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 2.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에 대한 범주화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고립·은둔 상태와 고립·은둔 전·후의 과정에 대하여 크게 ‘고립·은둔으로 들어서는 길’, ‘단조로운 고립·은둔 생활’,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V-4.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범주화

범주	하위범주	주제
고립·은둔으로 들어서는 길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도 없는 소심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존감이 부족한 '나'</li> <li>• 소심한 성격</li> <li>• 우울한 '나'</li> </ul>
	관계 형성에 미숙한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를 경험함</li> <li>• 괴롭힘이 지속됨</li> <li>• 갈등으로 이어지는 교우 관계</li> </ul>
	고립·은둔으로 이어진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은둔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학교 제도</li> <li>• 확대된 '나'의 소문</li> <li>•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짐</li> </ul>
	불안정한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폭력을 방관함</li> <li>• 가족이 불안정함</li> <li>• 대처방식이 미숙한 부모</li> </ul>
고립·은둔 일상 생활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을 통한 취미 활동</li> <li>• 온라인을 통한 소통</li> </ul>

범주	하위범주	주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기 계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에게 맞는 활동을 함</li> <li>•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기 계발</li> </ul>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로가 되는 반려동물</li> <li>• 반려동물을 돌보며 함께함</li> </ul>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	지원 기관 참여 기회를 갖는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복지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에 활동함</li> <li>• 지역 기관의 안내로 활동을 함</li> <li>• 취업 관련 지원에 참여함</li> </ul>
	도움을 통해 상담을 선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과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음</li> <li>• 숨통이 트이는 상담</li> <li>• 나를 돌아보는 상담</li> </ul>
	자립을 위해 준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함</li> <li>• 자립을 계획함</li> </ul>
	가정 환경의 변화를 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함</li> <li>• 가정의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li> </ul>

고립·은둔으로 들어서는 길의 하위범주로는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도 없는 소심한 '나', 관계 형성에 미숙한 '나', 고립·은둔으로 이어진 학교 생활,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제시되었으며, 고립·은둔 일상 생활의 하위범주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활동,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기 계발 활동,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함이 도출되었다.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의 경우, 지원 기관 참여 기회를 갖는 '나', 도움을 통해 상담을 선택함, 자립을 위해 준비함, 가정 환경의 변화를 추구함이 하위범주로 제시되었다. 각각의 주제로부터 범주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 과정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3.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 과정

특정 상황에서 어느 청소년은 고립·은둔을 선택하고, 다른 청소년은 마주해서 극복하며 각자 살아온 과정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한다. 그래서 고립·은둔은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청소년이 경험한 과정이 가진 특성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어느 청소년에게는 삶의 다양성에 대한 경험이고, 다른 청소년에게는 고립·은둔으로 가는 길이 된다. 유사한 경험과 과정이라고 해도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 고립·은둔으로 가는 길의 특성은 원인 관계로만 이해할 수 없다. 삶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참여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지만, 그 정보들의 타당성은 다소 모호한 경우가 많다. 조각난 이야기들이고 경험에 대한 기억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기억이란 ‘라쇼몽 효과’처럼 항상 왜곡되어 있다. 다양한 질적 연구 기법으로 검증이 가능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야기가 형성되는 사례들만을 각 절에 제시했다. 이야기가 형성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진술의 전후 맥락을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절 제목이 제시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일부 사례를 제시했지만, 사례를 읽다 보면 모든 경우가 각각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이고 교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경험한 삶의 과정이 가진 특성이다. 고립·은둔으로 가는 길의 특성은 복잡하고 교차적이다.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 가. 고립·은둔으로 가는 길

### 1)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도 없는 소심한 ‘나’

‘나’는 고립·은둔 상태가 되는 과정에 가정 등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스스로가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도 없다. 소심한 성격에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학업뿐 아니라 항상 초긴장을 하며 생활한다. 소심한 성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점점 우울해지기도 하였으며,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삶의 반경을 좁혀 간다.

#### (1) 자존감이 부족한 ‘나’

나는 자존감이 부족한 개인 성향이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혼하고 할머니도 함께 사는데, 서로 간의 친밀감이 부족하다. 삶이 힘겨워 마음과 몸이 모두 지쳐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병원에 다녔다. 실제적인 고립·은둔의 삶은 중학교부터이다. 중학교 입학 당시, 초등학교 때 친구<sup>61)</sup>들과 다른 반으로 떨어지고, 코로

61) 친구라는 단어의 사용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은 주제가 고립·은둔이기 때문이다. 친구는 사전적 의미처럼 ‘가까이 오래 사귄 사람’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들의 동료들, 동기들, 주변에 있는 모든 청소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변 대상인들을 각각 구분하여 표현하기 어려워 모두 친구로 사용했다.

나19도 겹치다 보니 친구들을 찾아 다른 반에 가기 어려워 학교에 잘 안 가게 됐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 나가니 교사들이 용기를 주려 했다.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관심이 오히려 나에게서는 부담이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어졌다. 가끔 학교에 갈 정도로 지내면서 친구들과도 가끔 놀러 가는 시간도 있었다.

사실 학교에 안 간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내 본인 때문인 것 같다. 친구도 두루두루 있었고, 왕따를 당한 것도 아닌데 학교에 안 갔다. 자존감이 부족하여 새롭게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고 잘 하지 않았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어려서부터 ‘예쁘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켜지만 자존감이 낮고, 내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에 예민하고, 자신감이 없으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며 매사에 걱정이 많았다.

## (2) 소심한 성격

학교가 마냥 싫었던 것은 아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운동장에 누워 있던 것은 좋았다. 어쨌든 지금 다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돌아가도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학교 가는 게 정말 싫다. 지금은 말을 잘하지만, 학교 다닐 때는 말도 잘 못했다. 친구들이 지금 보면 달라졌다고 많이들 하는데, 학교 다닐 당시에는 스트레스나 부담이 많았던 것 같다. 학교에 안 가도 되니 비교적 마음이 편해졌다. 다른 일은 없었고, 성격이 소심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겹쳐 방에만 있게 됐다. 별다른 일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 잘 다녔다. 고립·은둔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약간 겁친 것 같아요. 저는 환경도 약간, 코로나 때문에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애초에 소심하니까 다른 활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몸도 좀 그거, 고3 때 입시 스트레스가 터져서 몸도 좀 안 좋았거든요. 세 가지가 겹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소심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잘 못 걸고, 조용히 지낸 편이었다. 친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으며, 밖에 나가기도 했었다. 대학에 오면서 점차로 안 좋아졌고, 영어 학원에 다닌 것 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코로나가 겹치고, 친구들과 사귄 기회도 없었다. 부모는 나에게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밖에 나가 동료들에게 말도 걸고, 친해졌으면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부모에게도 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졌다. 부모님도 알고 계시지만 걱정만 할 뿐이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아마도 이전에도 밖에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는 것 같다. 친구들이 부르면 나가고, 혼자 있는 것이 항상 편했다. 심지어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밌지 않았다. 물론 가끔 나가면 재미있던 적도 있었지만, 항상 나가고 싶은 그런 재미는 아니었다. 채팅도 꺼려서 안 했다. 친구를 사귀지 못하니까 혼자 있는 것이 편했던 것 같다. 예민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말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다. 내성적이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다. 유치원 때, 아주 어려서부터 늘 소심한 아이라는 말이 나에게 붙어 다녔다. 대학교 내내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렸는데, 고등학교 때도 학교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엄마의 강요로 학교는 마칠 수 있었다. 자퇴를 계속 말했지만, 할 수 없었다. 나는 특별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지속해서 쌓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그냥 어렸을 때, 친해지려고 계속 말을 걸었는데, 결국 저를 약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느낌...그것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거의 친구가 없고 혼자 있었거든요. 계속 학교에서도 한마디 안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혼자는 늘 외로웠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다. 편하다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사귀지 못하는 것으로 합리화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 정체성으로 쌓여온 경우라서 병원을 간 적도 없었다.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친구로 생각하고 불편함이나 후유증이 없었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것이 편하긴 한데, 이전 아닌 것 같다는 후유증이랄까, 불편함이 생겼다.

### (3) 우울한 '나'

개인적인 성향이 크게 작동했다. 소심하다 보니 학교생활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중학교 때는 많이 울었다. 뭔가 우울했다.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제가 과거 시절, 지난 시절이긴 한데 학교생활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울고 혼자서 반 친구들이랑 사소한 걸로 다투서 상처받아가지고 학교 못 다니겠다 하고 우울증 걸린 것처럼 계속 울고 울고, 학교에서도 울고 수업에 집중 못하고 막,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학교 다녔어요. 우울증처럼 진짜.”

내가 중학교 때는 엄마가 주말에만 왔다. 언니와 동생이 있는데 나와는 성향이 달랐다. 부모가 직장에 있고, 특히 엄마는 평일에 없으니 내가 의지할 곳이 없었다. 학교는 나갔는데 성적이 안 좋았다. 지금 성적을 보면 많이 부끄럽다.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 친구도 있었지만 형식적이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욕하고 멀리해서 가깝게 지낼 수 없었다. 그래도 한 명쯤은 진실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되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조금 다독이고 응원한다고 해서 선물도 막 챙겨주고 편지도 써주고 같이 공부하러 가자,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하자 이렇게 표현해 주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다.

막 되게 수업시간에 집중 못하고 배 땡, 막 배가 아프고 막 졸리고 약간 컨디션도 안 좋고 친구들이, 손 내밀어 주는 친구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팀별 과제나 조별 과제 있을 때도 혼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이 없어서 몰래 정해 주는, 남는 애들끼리 정해줬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때 고립감을 느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인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고, 공부도 잘 안 됐다. 고립감을 느꼈다.

“친구들이랑, 공부만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친구가 없고 약간 조금 소외된 것 같아요. 고립된 것 같아요. 약간 혼자 모든 걸 하는 기분? 뭔가 요새는 소통과 공감의 시대인데 혼자서 다 책임지고 하니까 너무 외롭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좀 스트레스도 받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어머니의 권유로 상담을 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 공부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신경 써야 하고,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아팠다. 배도 아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욱 그랬다.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친구들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회피한 것 같다. 괜찮아 질 거라고 합리화했다.

## 2) 관계 형성에 미숙한 ‘나’

‘나’는 나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관계 형성에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환경의 요인들도 분명 있다. 관계 형성이 미숙하다는 의미는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따'의 경험이 있다. 둘째, 괴롭힘이 진학을 넘어 지속된다. 셋째, 교우 관계가 미숙하여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서로 간에 분명한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복합적이고 교차적이다.

#### (1) '따'를 경험함

학교에서 '따'를 경험하다. 왕따, 은따, 괴롭힘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지만, 친구들과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분명하게 발생한다. 물론 전조들도 있다. 예컨대, 고립·은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의 시작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왕따를 경험했는데, 당시 주동했던 친구가 중학교 3학년 같은 반에 배정되었다. 그 친구는 반장, 나는 부반장이 된 상황에서 서로 얽혀 있었으며 해야 할 일이 많았다. 2학기가 되자 은따처럼 반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이 느껴졌다. 학교에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친구들의 괴롭힘이 점차 성장하면서는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다. 대체로 한 순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가 진행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따'를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2) 괴롭힘이 지속됨

괴롭힘이 학교 진학을 넘어 지속한다. 예컨대, 나에게 대한 괴롭힘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지속되었다. 부모와 교사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다. 학교 가기만 권유했다. 상담실에 의존했다. 어느 시기에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고립·은둔의 시작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히던 친구와 고등학교에서 만나게 됐다. 교사가 1학년 때는 다른 반으로 배정을 해주었다. 2학년 때는 같은 반에 배정됐다. 1학년 때 지내던 친구들과는 떨어졌다. 1학년 때는 괴롭혔던 친구를 복도에서 마주치기도 했지만 피할 수 있었다. 2학년 같은 반에 배정되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꺼내서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이 서로 겹쳐 만남이 불편해졌다. 관계가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서로 간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나 스스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자퇴를 하게 됐다. 스스로 괴로웠었다. 그러다 학교에 안 가고 집에 혼자 남아 있게 되니 오히려 편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할 때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엄마는 졸업장은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내가 자퇴를 원했었다.

### (3) 갈등으로 이어지는 교우관계

학교 생활이 힘든 경우는 교우 관계에서 주로 나타난다. 셋째, 교우 관계가 미숙하다. 예컨대, 나는 교우관계가 미숙하여 왕따가 지속되니 자책을 하게 됐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외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나를 괴롭혔고 왕따 원인이라고까지 생각했다. 뒤틀려 있었다. 22살 초까지는 모든 것이 얼굴 탓이라고 생각했다.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로 성격이 왜곡됐다. 예컨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우울증이 신체이형장애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얼굴이 이제 비정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장애가 있다...거울 막 비춰지는 것만으로 이제 보인다 하면 계속 거울만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심할 때는 거식증, 폭식증 같은 경험도 했는데, 외모 스트레스로 먹고 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고, 그 와중에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거울 보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전에는 다음과 같은 경험도 있었다.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막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아 그 학교를 너무 가기 싫어 가지고 그 어느날에 그냥 계단에 앉아서 핸드폰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니까 이제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그냥. 저기 옥상 계단 딱 밑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뭐 혼자 울면서 이제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고.”

나는 고등학교 입학 초기에는 교우 관계가 매우 좋았다. 밝고 긍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했다. 학급 실장이기도 했고 관심 대상인 동료들도 챙기기도 했다.

“그 부모님이 학교 와서 우리 담임쌤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하시고 되게 좀 그래도 진짜 학교생활 재밌게 했어요. 왜 저희 어머니도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막 엄마 학교 오면은 갑자기 한 스무 명씩 막 달려와 엄마한테 막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어, 좀 학교 특성상 애들이”

그러다 보니 친구들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온갖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예컨대 갈등 관계인 친구들 사이에 놓이게 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오해도 생기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싸움까지 이어지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다. 이제는 내 모든 행동들이 친구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내가 갈등의 원인인 것처럼 모든 불만은 나에게로 향했다. 그러다 장염이 발생했다. 그 또한 친구들의 오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다. 처음에는 병명을 찾지 못하고 반복하다 보니 그 또한 친구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학교라는 장소가 그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후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렇게 학교에서 고립되어 1년 넘게 생활을 했다. 학교는 가는 등 마는 등 했다. 나 스스로 자책을 해보기도 했다. 교우 간의 관계 형성 미숙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앞의 '나'들도 마찬가지로 갈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립, 은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상황은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숙한 이유에서 온다. 친구와 관계가 미숙했고 이후 여러 가지 서로 갈등이 있었다. 이후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교우 관계가 미숙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고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고립·은둔으로 접어든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

### 3) 고립·은둔으로 이어진 학교생활

고립·은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에는 각종 장치들이 있다. 위(Wee)클래스, 학업숙려제 등을 통해 고립·은둔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준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담임교사도 있고 상담교사도 있어 나의 고충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러한 도움을 긍정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고립·은둔으로 빠져드는 '나'와 같은 친구들에게는 예외적이었다. 학업숙려제, 학교폭력위원회, 교사의 태도는 나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 (1) 고립·은둔으로 가는 길목에서의 학교 제도

학업숙려제는 결국 '고립·은둔으로 가는 길' 위에 거치는 과정이 아닌가 의문이다. 예컨대, 진학과 학교의 적응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와 교사가 이를 인지하게 되고 논의 중에 학업숙려제를 선택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고립·은둔으로 들어간다. 중학교 3학년 때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지만 학업숙려제를 활용해 가정학습을 했다. 학업숙려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상담도 받아야 했다. 학업숙려제 참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도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고, 약 반년 동안 히키코모리처럼 방에만 있었던 것 같다. 당시에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게 망설여지고 두려웠는데, 사는 곳 근처에 미술교실이 있었고 또래가 있어 잠깐 참여하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학업숙려제를 활용하고 있을 때 친구들은 나의 고립·은둔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한번은 밴드 공연 관련 일이 있었다. 내가 직접 만든 밴드부가 있었고, 전단지도 돌려 모집하고 다른 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다. 베이스를 쳤는데 공연을 위해 내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신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친구들은 학업숙려제라도 나와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는데 아마도 친구들은 내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결국 학업숙려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지만 고립·은둔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험하는 제도인 것 같다. 나와 유사한 친구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 확대된 '나'의 소문

학교폭력위원회는 고립·은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컨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 아버지 권유로 학교에 요청을 했던 것 같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 중학교 친구들이 상당히 적었다. 입학 후 4일 정도 지난 후 나에게 좋지 않은 분위기가 흘렀고, 이미 중학교 때부터 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반 친구들은 나에게 대한 인식이 이미 퍼져 나가 나와 상대를 꺼려하게 됐다.

## (3)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 고립·은둔으로 가는 길 위에서 어떤 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고립·은둔에 빠지는 친구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실망이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은파가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교사로부터 황당한 소리도 들었다. 이를테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게 왜 생각났었나면은, 선생님이 다 무시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그렇게 보냈는데, 3학년 때 들어서 그때 학년 담임선생님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학기 말에, 3학년 학기 말에. 어, 니가 이런 상황인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단 냅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걸 아는데 왜 냅두는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엄청 억울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에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나를 먼저 질책했다. 학교의 대처는 더욱 나를 실망스럽게 했다. 예를 들어,

“일단 제가 초등학교 때도 왕따를 당했고, 중학교 때도 잘 다니다가 좀 일들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가 있었거든요?...아이가 피해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저는 그때...중학생 학폭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 청렴 학교라고 해서 애들 다 같은 컴퓨터실 들어가서 설문조사 했거든요. 말이 돼요? 피해자가 어떻게 그 애들 다 보는데 어떻게 옆에서 사유를 적어요. 학교폭력 당했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니까 나는 어디가 피해를 얘기할 수 없었고. (중략) 이랬기 때문에 진짜 학교폭력은 무조건 대응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대응. 그게 다방면이 되어야 돼요.”

#### 4) 불안한 가정환경

각자의 잘못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환경이 불안정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빈부 격차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숙하거나, 처음 경험하는 가정 상황이 낯설기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모가 되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미숙한 점은 있다. 나의 가정환경은 특히 불안정하고, 부모 또한 미숙하다. 가진 것이 없어 가정이 불안정한 것은 물론, 부모가 가진 각종 상징적 자산의 빈곤이 나에게 유산처럼 상속되는 것 같다. 환경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도, 나를 다루는 부모의 미숙함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 (1) 가정폭력을 방관함

가정폭력을 방관하면서 나는 고립과 은둔에 들어선다. 예를 들어, ①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 성인이 되어 집을 나와 연락을 끊었다. 정서, 언어, 신체적으로 너무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전학을 갔고, 적응이 힘들었다. 아빠는 주거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가끔 집에 와도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엄마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 간섭하고, 나에게서는 공부에 매진하도록 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내 방에만 있었다. 엄마와 거실에 있기에는 불편했고, 계속 감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동생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했지만,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았다. 동생과의 차이를 보면, 동생은 엄마가 혼낼 때 먼저 잘못했다고 하며 울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엄마가 힘들게 할 때, 친척들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너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 아빠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아빠는 처음엔 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아빠를 엄청 좋아했어요. 엄마가 혼낼 때 아빠가 오면은 그래도 아빠한테 좀 화를 돌리니까 좀 살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서. 어릴 때는 좋아했고 아빠가 오는 거를 엄청 기다렸는데. 그냥 지나면 지날수록 아빠는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냥 듣고만 있고. 뭐 저한테 혼내도 그냥 보고만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 가지고. 그냥 거의 엄마가 저를 힘들게 했던 주범이었으니까. 아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엄마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당시 나는 우리 엄마가 유별나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무섭고 이상하다고 해서,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친척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이해하라는 답변을 했다. ② 고등학교 때까지 가정폭력이 계속되었다. 초등학교부터 엄마는 알코올 중독 상태에 접어들었다. 학교 Wee클래스에서도 가족 문제로 힘든 것을 알렸다. 가족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다. 친척들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방관했다. 너무 우울해 있던 고등학교 때, 이모의 도움으로 신고했다. 엄마는 경찰 신고 이후치료를 받도록 명령을 받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지속되지 않아, 할머니와 이모가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혼했지만, 가정폭력의 시작은 아버지였다.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 엄마보다 아빠와 더 많이 연락을 하고 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은 계속하고 있다. 아빠도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했고, 폭력을 알고 있었지만 이혼했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접근 금지도 있었다.

## (2) 가족이 불안정함

가정환경이 매우 불안정하다 보니 나는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① 나는 스스로 고립·은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생활이 무섭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느낀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 것은 코로나19 때부터였다. 물론 중간에 자격증 취득처럼 뭘가를 해보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고립과 은둔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 내 고립과 은둔은 가족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관계가 복잡한데, 아빠와 함께 살기도 하고 엄마의 새 가족과도 관계가 있다. 아빠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엄마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락이 끊겼다. 중학교 때는 큰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살았다. 그 시기의 생활은 나에게 항상 너무 힘들었다. 기숙사 생활도 해봤지만, 주말에는 집에 와야 했다. 오빠와 함께 살 때였는데, 오빠가 일하는 시간은 내가 자는

시간이었다. 주거를 위한 경제적 부분은 오빠가 담당했지만, 내 개인적인 식사비용이나 용돈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토바이로 배달할 때였다. 큰아버지와 살다가 폭력 때문에 분리되었다. 우리는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오빠가 모아둔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것도 부족해 보증금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다가 오빠는 시내로 나와 살겠다고 선언했고, 나에게 시골에 방을 구해줄 테니 이제 각자 혼자 살아가자고 제안했다. ② 아빠는 없고 엄마, 언니와 사는데 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삶이 힘들어서 엄마도 우울증이 걸린 적이 있었다. 가정은 엉망이었다. 나와 언니는 엄마가 힘든가 보다 하고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다. 집은 쓰레기 더미로 쌓여갔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시켰다. 가족 모두 셋이 함께 병원 정신과에 가게 됐다. 나는 정신과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저랑 언니를. 엄마랑 다같이 가족끼리 정신과를 갔는데 저는 이제 우울증이랑 그 분노조절 장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따를 막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성격이 원래는 소심하고 그런데 이제 언니가 그러다 보니까 언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뭐 선배들이나 오빠들한테도 막 뭐라고 하면 ‘우리 언니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하면서 막 되게 막 그랬던 말이에요? 근데도 막상 집에 오면은 그 학교에서 당했던 그런 것들이 다 막 터지는, 그래서 언니를 때렸어요. 그리고 막 접시같은 거 던지고 집 앞에 막 놀이터에서 막 소리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약을 좀 먹기도 했다. 사춘기도 성장하다 보니 스스로 억눌린 감정들이 나오곤 했던 것 같다. 그 시기가 초등학교 4~5학년 때쯤으로 기억한다. 초등학교 때 내내 약을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닌 것 같아 약을 끊었다.

### 3) 대처하는 방식이 미숙한 부모

내가 고립·은둔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부모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갈등도 생기고 안일한 태도를 갖기도 하는 것 같다. 예컨대 ① 당황한 부모는 나를 혼내기 시작했다.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 싸우게 되니 회피하는 마음이 커져 내 방에만 있게 되었다. 아버지가 상당히 화를 내셨다. 나중에는 반쯤 포기하셨지만 상당히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어머니는 반대로 방관적이었다. 부모도 자식의 고립·은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속했는데 많이 우울했고 힘들었던 삶이었다. ② 고립·은둔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당황한다. 부모가 특히 그 대상이다. 내 부모는 친구 관계 미숙으로 갖게 된 우울증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5학년 때 그래서 친구를 더 이상 못 사귀겠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서. 어머니께 그 친구랑 소외당하고 그럴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당시에 되게 바쁘시고 아팠던 전적도 계셔가지고. 그때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큰 병을 겪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저한테 니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아닌 거고, (하면서)<sup>62</sup> 저를 막 때리셨거든요. 제가 막 소외당해서 왔을 때, 어머니한테 말씀을 지금 드리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할말이 없다.”

③ 엄마가 나에게 한 말을 통해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속상해서 한 말과 행동들이었는데 어려서 나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후에는,

“제가 생각이 되게 많아서 그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렇게 그 사후에 부정적으로 지내고. 제가 그 당시에 어머니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내가 우울하고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섭고 아이들이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왕따 같은 걸 당하는 거 같다. 은따였는데. 왕따 같은 걸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니가 짘따 같이 구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그러지마라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다녀야지 니가 왜 그러고 다니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다...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별말씀 없으시더라. 막 이렇게 제 말씀은 안 들으시고 심지어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지 말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머리도 지지분하게 하고 모든 것이 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아마도 반 친구들은 내가 음침한 모습이니 같이 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학급 전체가 나를 왕따 시켰다. 초등학교때 내가 전체로부터 ‘왕따구나’를 인식하고 아빠에게 말한 적도 있다.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도와주지를 않는구나. 제가 말씀을, 한 번 때리셨거든요? 차라리. 니가 나약하니까 그런 거다. 아버지께도 말씀드렸는데 엄마를 괴롭히지 말라고 저를 때리셨거든요. 그게 되게 제가 늦둥이라가지고 때리는 게 당연한 그런 분들이셔서. 그게 훈육인 분들이셔서. 지금은 때리지 않지만 그때 그러셨거든요?”

이후로도 부모와는 갈등이 지속됐다. 결국 서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일까지 생겼다. 상담을 받게 됐다.

62) 직접 인용문 내 ( ) 사용은 가독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부한 내용이다. 일부 내용을 축약한 내용을 담기도 했다.

## 나. 단조로운 고립·은둔 생활

고립·은둔 생활이라고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예컨대, 첫째, 스스로 고립·은둔 시기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지를 작성을 하면서 고립·은둔을 인지하기도 했다. 둘째, 고립·은둔은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 중 특정 시기를 구분하여 고립·은둔이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불분명하다. 셋째, 고립·은둔을 위한 특정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립·은둔을 반복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념적인 고립·은둔 상태에서 당시의 삶보다는 스스로 판단하여 고립·은둔의 일상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고립·은둔 생활은 대부분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였으며 휴대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활동, 자기개발을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 1)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활동

고립·은둔 시기에 대부분 먹고 자는 일을 반복한다. 대체로 밤낮이 바뀐 생활을 반복한다. 잠을 잘 때는 정신과 약에 취해 있어 계속 잘 때도 있다. 폭식으로 체중이 늘어날 때도 있었다.

“침대에서 거의 안 일어났어요. 방문 잠그고 그리고 방문 항상 잠귀놔어요. 엄마 들어오지 말라고. 정말 그랬었는데 그러고 어느 정도였냐면 매트리스가 그냥 제가 계속 누워있는 자리에만 그냥 바래질 정도로.”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핸드폰을 한다. 때로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기도 한다.

#### (1) 온라인을 통한 취미 활동

깨어 있을 때는 휴대폰과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 주로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본다. 그 예컨대, 집에서 게임하고 지냈다.

“중학교 때 그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보고 그 애들이 좀 그 저한테 와서 스타 잘한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친구가 생기고 그랬던 거 같아요...한 1학년 때는 잠깐 스타 하다,

스타크래프트를 좀 했었는데 하다가 아 그냥 그 하다가 그냥 게임을 접었어요...2학년쯤에 또 다른 게임을 또 이게 빠진 거예요. 그때, 그때는 또 FPS쪽에 빠져가지고. 그 스팀 아세요? 스팀?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배틀 그라운드나 그런 거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저는 배그는 아니고 그 카운터스트라이크라고 FPS게임이 있는데 그 총 게임 있어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거 엄청 했다가 밤새도록 했다가 할머니한테 혼난 적도 있고 막. 그때는”

유튜브를 주로 많이 보는데,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에서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각종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근데 핸드폰이 생기고 그냥 안 돌아, 누워서 게임만 하다가...자극적이고 막 계속 움직이고 막 뇌 굴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하루종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그런 것들이 뭐 이제 영상으로 쇼츠 짧게 영상 같은 걸로 올라오고 막 그래요...막 계속 자극을 찾으려고? 그런 거 보고 글 같은 거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도 영상처럼 하고 말투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상대를 영상처럼 대하게 됐다. 마치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게 된 것이다.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없을 때는 혼자 또는 유사한 동료와 밖을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생긴 이후에는 주로 휴대폰에 얽매어 하루를 보냈다.

## (2) 온라인을 통한 소통 활동

친구나 부모와는 소통이 어렵고 할 말이 없어 주로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다. 대면으로 만나기에는 부담스러워 온라인상으로 주로 소통했다.

“온라인상 소통을 하기도 하는데 디스코드 같은, 게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하면서 통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공감을 잘해주고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그거에 엄청 빠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도 한 적이 있다.

“그냥 핸드폰 하거나 컴퓨터 하는데 그. 그 저는 그 SNS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뭐 어디 막 그 일기장 일기쓰듯이 막 어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뭐 그런 데다 막 올리잖아요. 이것저것 하는 거. 저 저거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남들한테 관심받고 그러는 거 좀 좋아해 가지고... 근데 제가 뭐 인스타 이런 거는 뭐 안 하고. 커뮤니티 있잖아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

데 막 글 쓰고 막 댓글도 달리면 기분 좋고 그런 게 있어 갖고...그래서 막 커뮤니티 막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제가 취미가 은근 취미가 있는데 제가 아이돌 좋아하거든요. 걸그룹 같은 거 좋아하고 심지어 막 오프도, 그니까 막 그거 보러 가고 막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고, 댓글이 써지면 기분도 좋아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 2)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기 계발 활동

고립·은둔 중이라고 해도 집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기도 한다.

### (1) 나에게 맞는 활동을 함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익숙한 활동을 하게 된다. ① 고등학교부터 산에 다녔다. 현재는 매주 아버지와 함께 산을 돌아다니고 있다. 한부모 가정이라 아버지와 둘이 산다. 하루에 갔다 오기도 하고, 1박 2일로 계획하기도 한다. 산을 다니는 일은 일종의 숨구멍 같은 것이고, 아버지를 따라 취미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 삶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에 가는 것도 내 의지였다.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여서 할 수 없었다. 혼자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아버지가 산을 많이 좋아하셔서 함께 가자는 제안을 했다. 그 이후로 아버지가 장비며 필요한 것을 알려주셨고, 장소도 안내해 주셨다. 나에게 맞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산행을 하지만 고립·은둔 생활은 지속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고립·은둔이다. 끝내려는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나 스스로는 고립·은둔이라고 생각하지만, 친구들도 소수 있고 연락은 뜸하지만 한다. 마트도 필요 시 왔다 갔다 한다. 꿈드림 프로그램에도 가끔 참여한다. 나 같은 조건의 고립·은둔 생활은 익숙하고 불편한 것이 비교적 없기 때문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노래를 듣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다.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구입해 읽는다. 그래서 집에는 소설책이 조금 있다.

## (2)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자기 계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자기 계발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고립·은둔 상태에 들어간 이후 1년 동안 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좀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괜찮았는데. 점점 하면서도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을 땐가? 뭐 다른 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좀 많은 스펙이나 포토폴리오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농땡이를 피워도 되나?라는 생각에 좀 잠겨가지고.”

가죽공예를 시작해 보기도 하고, 십자수도 해보았다. 이러한 활동은 처음에는 심리적 안정을 주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낭비 같다는 느낌과 함께 죄책감도 느끼게 되었다.

## 3)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함

방 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루 종일 보내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가기 싫은데 운동시키려고 밖에 나가 산책을 하기도 한다.

### (1) 위로가 되는 반려동물

지금은 00 강아지를 키운다. ‘음식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00 으로 이름을 지었다. 보호소에서 데려온 00과 산책하면서 내가 위로를 많이 받는다. 동물에게서 위로를 받는 편이다.

“강아지 없을 때는 우울증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강아지가 이제, 너무 외로워가지고 없을 때는, 근데 있으니까 산책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야 용기도 좀 생기고 강아지가 있으니까...하루에 원래 두 번씩 가요. 원래는 아버지가 해주시는데 하루에 한 번은 나가요..”

강아지로부터 위로가 많이 되었으며, 밖에 나가기 두려운데 산책을 시켜야 해서 밖에 나갈 용기도 생기고, 하루에 한 번은 산책을 하게 되었다. 1년 전부터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다. 큰 위로가 되고 있다. 부모는 싫어하시지만 내가 키울 것을 제안했고 싸워서라도 데려올 생각이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왔다.

## (2) 반려동물을 돌보며 함께함

아빠, 오빠와 함께 살 때 주택에서 길고양이를 돌보기도 했다.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그 고양이가 나를 기다렸다. 집에서는 자거나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곤 했다. 또는 음악을 듣기도 했다. 처음에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을 어머니가 싫어했지만, 동생이 거들어 주었고 동생의 생일이 가까워서 선물로 고양이를 데려왔다. 집에서 고양이는 가장 우선순위였고, 어머니도 위안을 삼는 것 같다. 그 당시 작은 수첩에 내 감정이나 느낌을 적곤 했는데, 한심하거나 어두침침한 문장들이 자주 나왔다.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느낌 같은 것을 느꼈다.

### 다.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는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중요한 의미는, 고립·은둔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청소년은 없다는 것이다.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실제로 탈출하려는 시도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시점에서는 ‘고립·은둔으로 가는 길’에 제시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한다. 이는 고립·은둔의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삶에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자 이증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립·은둔을 겪더라도, 그것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고립·은둔에 빠지더라도 벗어나려는 경우는 삶과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립·은둔이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고립·은둔에 빠지고 자퇴를 하기도 했지만, ‘나’의 삶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다. 앞으로의 진로와 진학을 위하여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고립·은둔 후 자퇴한 뒤에는 다양한 체험을 시도했다. 미술, 피아노, 기타, 운동 등 여러 활동을 하며 진로에 대해 고민했고, 검정고시를 본 뒤에는 대학 진학을 위해 고려하고 있으며,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하고자 한다.

#### 1) 지원 기관 참여 기회를 갖는 ‘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긴 하지만, 꿈드림, 구청, 시청, 복지센터, 자활센터

등 학교 외에도 지원 기관이 많다. 이러한 기관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추천을 받더라도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이러한 기관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예들이 있다.

### (1) 학교박지원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함

고립과 은둔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계기는 학교박지원센터인 꿈드림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과 검정고시 준비를 하면서부터이다. 꿈드림 같은 프로그램은 진작 알았지만, 갈 용기가 없었다. 용기보다는 가고 싶지 않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다. 현실로 돌아가기도 싫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립·은둔 상태에서 겪었던 감정들이 사라진 건 아니다. ① 고립과 은둔이 계속되던 중, 구청에서 나를 꿈드림에 의뢰했다. 꿈드림에 오면서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결국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꿈드림은 구청과 상의 끝에 오게 된 곳이다. 검정고시 지원을 제안받았고,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지만 상담을 몇 주 받다 보니 상담사와 친해지면서 도움이 되는 걸 알게 되었다.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나만 신경 쓰라고 조언해줬다. 그 덕에 검정고시 준비도 할 수 있었고, 현재 하고 싶은 것도 생겼다. 얼마 전에 본 검정고시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시 볼 계획이다. 그동안 꿈드림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생각이다. 아침에 나오는 게 귀찮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흥미가 생기고, 기대도 하게 된다. 이곳에 다니는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② 지금도 고립과 은둔은 이어지고 있지만, 중학교 자퇴 이후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고, 힘들 때마다 꺼내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시절 문화의집 관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었다.

“이제 제가 이 청소년지도사를 꿈꾸니까 그냥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분이 근데 되게 현실적이에요. 제가 현실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이제 이상적으로 막 아 이렇게 이렇게 축제 한 번 열어보죠 이래도? 아 이거 있는 건 안 되는데 이건 될 거 같애. 같이 좀 무조건 아 잘했어가 아니라 그분은...”

③ 일상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그 센터장을 만나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당시 나는 히키코모리처럼 집에만 있었다. 고립·은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데,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가진 것도 없는 거지처럼 알바도 못 하고 있던 상황에서 아침, 점심 모두 거르고 지내던 시기였다.

“밥을. 밥도 잘 안 먹었어요. 먹고 싶긴 한데 돈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 막 어디 뭐 그 당시에는 뭐 일을 뭐 어디. 제가 편의점 알바를 그때 하긴 좀 그랬거든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때 편의점 알바 경험도 없었고 뭐 당장 일을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 상당히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데 꿈드림 센터장 덕분에 생활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침에 주로 잤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점점이 없다 보니 특별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학교도 안 다니니 더욱 그렇다. 꿈드림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다. 내가 충격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다. 어쨌든 또래가 없다. 지금은 센터장이 바뀌었지만, 꿈키움 수당을 받아야 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밥도 주니까 지속해서 가고 있다. 내가 센터를 다닌 것은 센터장의 영향이 크다. 그 외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직업훈련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 (2) 지역 기관의 안내로 활동을 함

지역의 기관을 통해 상담도 받고 일자리도 소개받았으며, 이전보다 사회성도 좋아졌다. 예컨대 ① 초등학교 때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복지관이라고. 저 초등학교 때 이제 어. 네. 저 막 한창 왕따 당했을 때. 센 그 복지관이 집에서 가까웠어요. 엄청 가깝진 않았고 좀 걸었어야 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거기 선생님이라든 얘기하고 제가 요리를 또 좋아했어가지고. 막 베이킹 하는 거,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하게 해주고. 그때도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다녔는데. 이런 거 막 선생님들 프로그램 같은 거 잡아가지고 해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막 과자 같은 거 한 봉다리씩 주시고. 라면이나 밥. 이런 것도 한 봉덩이씩 주시고...그러니까 어. 그거 말고도 다른 분들한테 뭐 라면을 받거나 뭐 중요한 걸 받거나 뭐 다 감사한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그냥 바로 얼마 안 걸어서 편하게. 솔직히 초등학교 시간에 혼자 찾아갈 수 있는 경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도 초등학교이었던 내가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잘해주시고 내가 편안했기 때문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당시의 도움이 기억에 남는다. 처음에는,

“초반에는 어어 맨 처음이 이게 맞나 싶긴 한데. 동사무소에서 저희 동, 저희집에 한 번 오셨는데 집이 쓰레기장이니까. 주변 복지관에 도움을 좀 청해보자 해서. 그래서 동사무소랑

이제 복지관이랑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을 한 번 싹 청소를 해주셨어요. 그 뒤로 이제 좀 어떻게든 엄마가 청소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복지관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복지관에서 집에 방문해서 심리상담을 하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면서 말이다. ② 성인이 되어서는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구청의 안내로 자활센터를 다니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몇 달간 교육을 받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사람들과의 대화가 부담스러워 그만두었다. 그래도 자활센터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고,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매일 아침 자활센터에 나가 교육을 받으며, 일자리도 소개받았지만 결국 그만두고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후 다시 꿈드림을 통해 등록이 되었다. ③ 고립과 은둔 초기에는 복지센터에서 집으로 방문하기도 했지만, 복지센터를 다니면서 프로그램 참여보다는 학교에서 벗어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상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예전보다 사회성이 좋아졌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아마도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집에서 3시간 거리에 있었지만 다닐 만했고, 몇 개월이 지나 번아웃이 왔다. 복지센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사건 때문에 가게 됐고, 이후 자퇴하고 돈을 벌어보고 싶어 다녔다. 인턴십에서 양말을 만들고 물건을 팔며 활동한 것이 도움이 됐다. 집에 있는 것보다 활동하고 경제적 수입이 생기면서 상태가 조금 나아졌고, 우울할 틈이 없어지며 생활도 좋아졌다. 복지센터에서의 인턴십이 좋았기에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드림이나 일본어 같은 취미 활동도 하고 싶다. 집안 사정이 나아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곤 한다. ④ 지금 딱히 계획은 없지만, 스펙을 쌓아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현재 센터에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4차례 정도 한다. 참석은 자유지만 꼭 참석하고 싶다. 여기서 친해진 사람도 생겼고, 말이 통하는 것 같다. 따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센터에서만큼은 말동무가 되고 있다. 내가 수동적인 사람이라 센터에서는 나도 모르게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그냥 편해서 그랬던 것 같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은 약간 말을 걸면 잘 받아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깔고 가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분들은 거기 센터 말고 다른 데는 약간 좀 말 걸면 잘 답 안 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초반에 그래도 좀 용기를 냈거든요. 몇 명한테 계속 말 걸어갔었는데 그때 다 잘 받아줘가지고 그 경험으로 쌓은 것 같아요.”

물론 나처럼 고립과 은둔을 경험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건 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귀는 성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편안함을 준다. 지금 진행 중인 면담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대일 대화도 가능하다.

### (3) 취업 관련 정책 지원에 참여함

고립과 은둔을 경험하면서 취업 관련 정책을 찾아보게 됐고, 참여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다. ① 국민취업제와 연계된 도전사업에 참여했다. 고립과 은둔 청년을 교육하고 밖으로 이끌어내는 목적의 프로그램이었다. 이후에도 취업제도나 청년성장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고, 20시간 이상 참여하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엑셀과 영상 편집을 들었고, 현재도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상담을 받았고, 아직 매주 진행 중이다. 상담 기간이 끝나면 수료증을 받을 예정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②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진로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했다. 시청의 도움을 받아 상담에 참여하고, 직업 역량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제가 내년에 그, 가거든요. 제가 자퇴하고 나서 요리를 계속 했거든요. 요리하다가, 너무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고1 때부터 해서 성인 되고 나서 그냥 하고 한 몇 개월 정도 더 하다가 이제는 다른 걸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도자기 공예를 또 알게 됐거든요. 또 그 학교 막 거기에서 약간 직업역량 프로그램이라고 또 그런 거 해가지고 배우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서 가가지고 배우고 하니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모르는 그런 기술들이 또 많으니까 또 가면은 더 좀 자세히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게 된 거죠.”

③ 00학교라는 곳을 찾아가게 됐다. 2년 가까이 집에만 있다보니 고등학교 3학년 학령기가 됐다. 다른 친구들은 취업을 할텐데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 나아가야 할 생각이 조금씩 생겼다. 멈춰있을 수만 없었다. 담임 교사의 소개가 생각나서 스스로 찾아봤다.

“선생님이 처음에, 담임 선생님이 소개를 해줬는데 제가 연계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00학교 제가 찾아가지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도 연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검정고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미용학교 다니면서 검정고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00학교를 1년 간 다녔다. 친구가 생겨 같이 다녔다. 학교 다닐 때 먼저 자퇴했고 이야기를 몇 번 나누는 친구가 생각나서 연락했다.

“거의 비슷한, 개도 근데 개가 저보다 먼저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인데 개한테 말을 해서 개도 미용에 관심이 있었다고 초반에 들어가지고 같이 배우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서 같이 다녔어요.”

00학교 교사가 권하기도 했지만, 검정고시를 본 것은 고졸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00학교는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와는 달랐다. 담임, 교장, 미용, 행정 담당 교사 모두 옆에서 북돋아주고 잘 챙겨줬다. 00학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기숙사도 있었다. 학교처럼 왕놀이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패거리 문화도 당연히 있었다. 친구들과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머리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미용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견뎠다. 미용학교를 마치고 자격증도 땀으며 상도 받았다. 취업할 생각도 했지만, 면접에서 겪을 일을 생각하니 갈 수가 없었다.

## 2) 도움을 통해 상담을 선택함

상담은 가장 먼저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다. 특히 학교의 위(Wee) 클래스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기억은 많지 않다. 학교 외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을 시작한다.

### (1) 상담과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음

학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센터에서 활동도 해봤는데, 둘을 병행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① 상담을 하면서 적응시키기 더 쉽지 않을까 생각했다. 일단 활동을 하면 집에서 느끼는 우울감이 확실히 줄어들고, 말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센터 활동에 자주 나오게 된 것은 아무래도 말할 사람이 있어서다. ② 상담은 아마도 그런 나에게 탈출구 같은 것이 아니었나 싶다. 당시 핑계를 삼아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교사가 소개해준 상담사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집에 와서 내가 고립·은둔 상태에 있으니 데리고 나가 산책도 같이 해주며 많이 이해하려 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했지만, 상담 중에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을 부모님이 꺼려 그만두게 했다. 지금도 상담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상담사가 그림다. ③ 나는 학교에서는 담임, 보건, Wee 클래스 교사가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고. 시설 상담에서는 다양한 지원과 활동들을 알려주었다.

“워크숍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고 공감해주는 느낌이었는 데, 시설풋담이나 병원 상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결 방안도 제시해주시고 또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하는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그때 의료비 때문에 약값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의료비 지원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시에서 주최하는 그런 취미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알려주셨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또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행동을 종합적으로 알려주었다.

## (2) 숨통이 트이는 상담

상담을 하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① 하루 무단결석, 하루 조퇴, 하루 위(Wee) 센터... 이런 식으로 반복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뭐 촉각 이런 거. 심리상담 다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웬만한 라포형성 같은 것도 다 알고. 그냥 의사선생님 질문하는 것도 그냥 다 들었던 거고. 그냥.”

항상 대답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술술 이야기를 했다. 그래도 상담을 찾아 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다. ② 인터넷을 통해 화상으로 상담을 받았고, 줌으로 심리상담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달 정도 받았다. 가족 간의 화목 이전에 유료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다. 비용이 부담되어 그만두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말할 곳이 없었는데, 상담을 통해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것 같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울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경험을 떠올려보면, 상담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다.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센터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시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초등학교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상담이 필요했던 것 같다.

## (3) 나를 돌아보는 상담

고등학교 때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복지센터를 같이 다녔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 어머니가 알아보고 알려줬다. 당시 담당했던 상담사가 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줬다.

“저는 일단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겪은 부당한 일들에 있어서 저는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어요. 그니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저에 대한 탐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 내가 어떤 패턴일 때 예를 들면 갈등이 생기는지, 내가 어떤 패턴 안에서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막 미치겠는데 계속 꼬집어내서 그 연습을 계속했거든요. 네. 나를 보는 연습? 그니까 자기 객관화라고 하죠...저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그 상담할 때 적었던 게 이제 이만큼 있어요. 노트가...진짜 저는 저를 넘어서고 싶더라고요. 진짜.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답답한 거죠.”

상담 받을 받는 동안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어떠한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느낌과 상황을 적었다. 이러한 생각을 나를 돌아보고 나를 넘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 3) 자립을 위해 준비하는 ‘나’

고립·은둔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스스로 독립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다. 고립·은둔의 ‘나’들은 실제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정서, 감정, 느낌은 그대로 남아있다. 언제든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컨대, 나는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지금 대학 생활도 사실 힘들다. 사람들 때문인데, 내가 아무래도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서툰 것 같다. 이를테면,

“다가오지만 친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엄청 소중하고 막 편애 많이 해주려고 하고. 제가 조금 무리해서라도...그 상대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제가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인 게. 저도 그냥 적당히 좀...그런 애매한 사이가 안 돼요...저도 모르게 마음을 주는 거죠...뭐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는 많은데.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제 욕심인가? 아니면 결핍인가? 그냥 어렸을 때 못 받았던 그런 우정 같은 것들에 너무 지금 다 채우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끊임없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소극적이라도 고민하고 있다.

## (1) 진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함

언젠가는 혼자 살아가야 하고, 고립·은둔 성향과 함께 살아야 한다. 진로를 고민하지만 아직도 고립·은둔의 삶을 살고 있다. 사실 지금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해서 벗어나기 위한 활동으로서 알바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졸업해서 취업을 하고 싶다.

“하고, 열심히 잘 해가지고? 간호사 딱 자격증 따고? 취업해가지고 엄마 첫 월급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이죠.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내, 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힘들고. 기뻐요 사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 사실 엄마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알바도 하고 있는데, 학교 성적을 올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만두려고 한다. 알바 가게에서 너무 일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퇴직금으로 공부에 집중하려고 한다. 내 삶을 살아갈 고민은 진로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고립·은둔을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사회학과 계열로,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때부터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관련 책들 말이다. 어렸을 때 집에 갇혀있던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엄마가 도서관에 데리고 다니면서 책을 빌려와 집에서 읽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돌아온 백구라는 책이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이야기인데, 장애인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② 지금은 수능을 접수하고 준비 중이다. 관련된 지원은 모두 부모님께 받고 있다. 주로 학업 관련 지원이다. 한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00과에 합격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등록하지 않았다. 00학과로 다시 입학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버지가 권한 학과다. 아빠의 직업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최근에 주변에서 PT를 받았는데, 지도자가 체대를 권하기도 했다. 이것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두 분이 상의해서 내 진로를 결정하는 편이다. ③ 지금은 부모님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진 않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저희 학과는? 청소년 지도사가 안 나와요. 하위급 보육교사 3년, 4년 한 다음에. 제가 애들을 키워볼 줄 알아야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보육교사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를 한 이십대 초반? 삼십대 후반?”

④ 고등학교 이후로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진로로 정하고 싶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잘 지냈던 친구들과도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연락이 끊기게 됐다. 사회적 관계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고립으로 이어진 것 같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소질이 조금 있었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다. 어릴 때 미술학원을 잠시 다닌 적도 있다. 인물, 캐릭터, 풍경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커서 제조업 회사에 다니면서도 미술학원을 잠시 다녀왔다. 지금 사는 곳에는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가 없는 것 같다. 웹툰을 배우고 싶은데 전문가가 없다. 나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해 노력이 소극적이다. 공모전에 나가 입상한 적도 있는데, 대학 입학 제의도 받았다. 하지만 집에서 취업이 잘 안 되는 곳이라며 반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쨌든 진로를 고민하면서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⑤ 고립·은둔 상태에 있으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훨씬 나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지금은 00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인강을 듣고 학원을 다니며 준비하고 있다. 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자격증반에서 실습도 조금 해봤는데, 재밌고 흥미가 생겼다. 국비 지원이 되는 학원도 있지만, 내가 다니는 곳은 지원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구청에서 응시료, 자격증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고, 월세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 자립을 계획함

여러 이유가 있지만, 원인을 제거하며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고립·은둔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한다. 예컨대, ① 가정의 불안정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하며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간혹 연락하기도 하고, 자퇴한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 만나면 산책을 주로 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시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센터를 알아보고, 19살 때 이사 후 그 센터를 이용했다. 그때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2023년까지 센터를 이용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외에 일을 한 적은 없었지만, 최근 햄버거 가게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 학교 밖 센터에서 자립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인턴십도 했고, 수당을 받은 적도 있다. 내년에는 대학에 입학하고 싶다. 올해도 대학에 입학해 상담심리학과를 다녔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재수를 하기로 했다. 심리학을 계속 배우고 싶다. 요즘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가끔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 아무리 노력해도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지금은 자기 개발 과정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수당을 받아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활하며 내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학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② 자립을 생각하며 밖으로 나가 일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던 중 스스로 해볼까 해서 여러 군데 도전했지만, 처음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꽤 어려웠다. 다른 아르바이트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유일한 돈벌이가 됐다. 주 20시간, 야간에 10시간씩 두 번 일한다. 처음엔 노가다도 해봤는데, 텃세도 심하고 내게 맞지 않는 일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서 스스로도 힘들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예요. 편의점 그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일. 대신에 이거는 또 그건 힘 사람 대면하고 그러는 거 힘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계산만 해주는 거는 또 부담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뭘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되가지고. 그래서 계속 편의점 어디 그만두게 되면 뭐 또 다른 데 알아보고 알아보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이게 지금 1년 정도 하니까 좀 피폐하거든요...이제 밤에 잠 안 자고 하는 거니까.”

생체 리듬이 엉망이 돼서 더 이상하기 힘들었다. 다른 진로를 찾아보려 한다.

### 3) 가정 환경의 변화를 추구함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안정한 가정환경은 그 상황을 겪는 사람에게 고립·은둔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하면서 이를 깨닫고, 가정의 불편한 조건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며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 (1) 가정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함

가족의 화목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은 아버지를 제외하고 셋이 살고 있다. 내가 가족에서 막내이다 보니 애교를 부리는 편이라 집안이 전보다 화목해졌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형편이 좋지 않아 각자 도생하고 있다. 고립·은둔 기간 동안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가족의 화목이었다.

“보통 은둔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안되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다들 이유는 되게 광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좀 제가 지내는 집이 화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의 화목은 옛날과 비교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코로나 시기부터 화목한 상태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 (2) 가정의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

불안정한 가정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부모와 소통을 통해 내면에서 발생한 고립·은둔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모의 권유와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중학교 시절에는 고립·은둔의 시기가 있었고, 학업 지원을 통해 졸업했다. 고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안학교도 고려했지만, 부모의 강력한 권유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중학교 당시 친구들과 멀어지기 위해 집을 이사하기도 했다. 입학하면 다른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 같다. 부모의 의지가 강했지만 나 또한 그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던 것 같다. 중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해보고 싶은 것이 많았다. 혼자만의 의지로 고립·은둔에서 벗어나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위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② 지금은 오빠가 병원에 있고 해서 나한테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냥 음 이제는, 제가 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 있었고 또 그러가지고 좀 뭔가 음, 뭔가 저한테 뭔가 그렇게까지 집중을 못해 준 것 같기도 하고, 저조차도 뭔가 신경 안 써준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진짜 저한테 집중하고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도 해서 좀 그런 것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가정이 가진 불안함을 제거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이상의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험 과정을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과 과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고립·은둔 청소년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립·은둔 상태에 진입한다.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성격, 또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 미숙으로 인한 갈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 그리고 학교 구성원으로부터의 신뢰 상실이나 불안정한 가정환경 등의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작용한다.

둘째, 고립·은둔 청소년의 상태는 시간과 공간 경계가 모호한 특성을 보인다. 연구 참여 청소년들은 고립·은둔의 시작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설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기도 했다. 또한 고립·은둔은 특정 시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을 가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들의 일상상은 주로 수면과 식사가 중심이지만,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 활동, 취미활동, 자기계발 활동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고립·은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청소년들은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진로와 진학을 위해 학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퇴 후 다양한 체험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고, 검정고시 후 대학 진학을 고려하며,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위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고립·은둔의 경계를 점차 확장해나간다.

넷째,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단순한 처방과 회복의 관점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 관리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립·은둔은 선형적 과정이 아니라 잠재되었다가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재발하는 순환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연령이나 학교급에 따른 분절적 지원이 아닌, 개인별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는 상담과 활동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상담을 통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담과 함께 진로 탐색 및 취미 활동 등 실질적인 체험 기회가 병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이러한 상태는 완전히 치유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사회 참여와 활동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자립 준비 활동을 통해 삶의 경계를 확장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 — 제6장 정책 제언

— 1. 정책개요

— 2. 정책과제



### 1. 정책개요<sup>63)</sup>

본 연구는 최근 고립·은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적 지원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의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과 진행 과정을 통하여 정책 도출 과정을 거쳤다. 먼저 국내의 고립·은둔 청소년 정책 및 제도 분석과 국외의 일본, 영국의 지원 정책과 사례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첫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립·은둔 청소년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면담을 하여 고립·은둔의 원인, 과정, 결과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관방문을 통하여 현장 전문가 자문과 정책실무협의회 등 전문가 회의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및 다양하고 실천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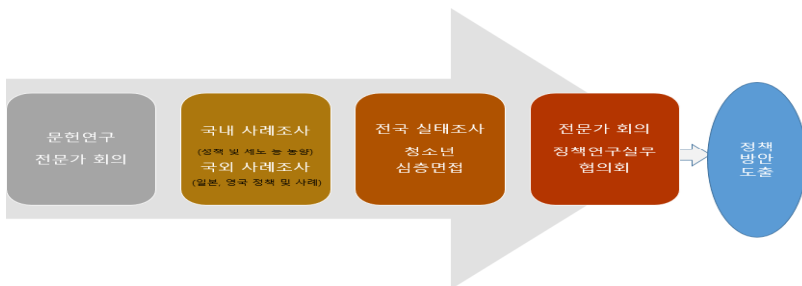


그림 V-1.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 도출 과정

63) 본 장은 서정아 선임연구위원과 강경균 선임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함.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먼저 국내의 법과 제도 및 청소년 대상의 정부부처의 고립·은둔 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고 있다. 국외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도 고립, 은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뿐 아니라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고립·은둔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전 생애주기에 따른 ‘외로움’에 주목하여 ‘고독부’라는 부처를 별도 마련하였으며 최근 일본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고독부’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고립·은둔, 좀 더 포괄적 개념에서 외로움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는 고립·은둔청소년(9세~24세) 대상의 실태 파악을 위한 전국규모의 첫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웹조사를 통해 자기응답식으로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선별하였으며, 초고위험군, 사회적 관계의 양, 삶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으며, 2차 조사(2,139명 응답)에서는 고립·은둔의 이유,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재고립·은둔 경험, 회복의지, 필요한 도움 등을 파악하였다. 한편, 전국적 실태조사와 함께, 청소년의 고립·은둔 경험을 탐색하고 고립·은둔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복귀로의 지원방안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하여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고립·은둔 상태와 고립·은둔 전·후의 과정에 대하여 크게 ‘고립·은둔으로 들어서는 길’, ‘단조로운 고립·은둔 생활’,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립·은둔으로 들어서는 길의 하위범주로는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도 없는 소심한 ‘나’, 관계 형성에 미숙한 ‘나’, 고립·은둔으로 이어진 학교 생활,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제시되었으며, 고립·은둔 일상 생활의 하위범주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온라인 활동,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기 계발 활동,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함이 도출되었음.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의 경우, 지원 기관 참여 기회를 갖는 ‘나’, 도움을 통해 상담을 선택함, 자립을 위해 준비함, 가정 환경의 변화를 추구함이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와 기존 연구들의 정책제언과 정부부처의 대책을 총괄적으로 검토(보건복지부, 2024; 유민상, 신동훈, 2021; 유민상,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 2023; 여성가족부, 2024)하여 제언을 도출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은 5개의 정책 영역과 13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영역	추진과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령 마련</li> <li>② 고립·은둔 청소년 자치법규 마련</li> </ul>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생애주기에 따른 고립·은둔을 다루는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조직 마련</li> <li>② 학교현장을 통한 발굴의 확대와 단계별 연계와 협력</li> <li>③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li> </ul>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전문적 프로그램 및 평가 도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의 단계적·전문적 프로그램 개발</li> <li>② 국가차원의 공신력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척도 개발 및 보급</li> </ul>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li> <li>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li> <li>③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li> </ul>
고립·은둔 청소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립·은둔 청소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필요</li> <li>② 고립·은둔 이외 복합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서비스 제공</li> <li>③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li> </ul>

그림 V-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 2. 정책과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을 위한 추진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1)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령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위기아동·청년법)에 제시(제20846호, 시행 2027. 3. 26.)되어 있다.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의 위기아동·청년을 정의하고 제2조에서 고립·은둔 아동·청년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대상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과 34세 이하 청년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더 강화하고 촘촘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초·중등 교육 관련법에 대하여 개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③항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와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에 나타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에 한해 “4.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원 내용 또한 동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또는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비용, 취업을 위한 훈련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지원기간이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한번 연장 가능)로 한정되어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이나 채무상속 위험 청소년 등 다른 사각지대 유형 청소년에 비해 고립·은둔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관계 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소득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비용이나 정서적 건강 향상을 위한 서비스 이용 비용, 사회관계기술 훈련비용 등을 지원받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가능한 안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1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업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 3조제5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령기에 고립·은둔 또는 고립·은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바 보다 효과적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청소년 관계법 이외에도 초·중등 교육 관련법에서도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발굴 및 지원, 관련 기관 연계 협력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원센터의 연계)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또는 프로그램 안내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잠재군으로 예측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립·은둔 학생'의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학교에서 예방적 차원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안)

---

### (1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방안

#### 제2조(정의)

7항.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부족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고립 청소년)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 청소년)을 말한다.

#### 제17조(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원만한 일상 생활을 돕기 위하여 활동, 상담, 보호,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 학교 및 지역사회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적응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보호·지원·전인적 성장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안) 청소년기본법 개정 방안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은둔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경계선지능 청소년, 금융취약 청소년 등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고 균형있게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3안)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

#### 제28조의2(고립·은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고립·은둔 학생(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부족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고립 청소년)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학생을 말한다)에 대한 예방,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또래 관계 및 학교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학교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2) 고립·은둔 청소년 자치법규 마련

고립·은둔 청소년의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살펴본 위기가동청년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구성요소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고립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청소년 대상 고립·은둔 자치 법규를 제정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대한 목적

**제2조(정의)**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용어의 정의

**제3조(지자체장의 책무)** 관련 시책 수립 및 토대 구축

**제4조(지원 계획 수립)**

1.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3.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예방방안
4.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재원 조달 방안

**제5조(실태조사)**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경비 지원

**제6조(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고립·은둔 청소년 추진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고립·은둔 청소년 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제8조(협력체계 구축)** 고립·은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 및 협약 체결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하면, 목적, 정의, 지자체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치법규 제정을 통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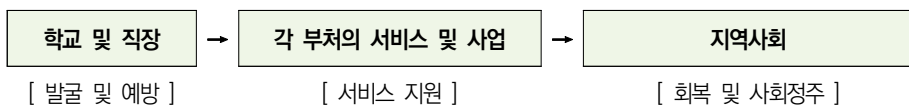
## 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 (1) 전생애주기에 따른 고립·은둔을 다루는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조직 마련

전생애주기에 따른 ‘외로움’을 중요한 국가의 사회 어젠다로 보고 있는 영국의 사례는 물론, 일본의 사례에서도 고립·은둔을 전부처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을 권고함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고립·은둔은 고립·은둔을 경험하거나 고립·은둔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의 일정 생애주기를 다루는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전 사회적, 전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예측, 지원,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중요한 사회문제를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합동으로 해결하는 “관계부처 합동”의 노력이 고립·은둔 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가 전생애주기에 따른 고립·은둔 문제에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주축이 되어 각 부처의 역할과 기능, 협력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립·은둔이 한 생애주기에만 한정된 현상은 아니므로 전생애, 전사회를 통괄하는 모든 부처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학교 현장을 통한 발굴의 확대와 단계별 연계와 협력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이 학령기에 처음 고립·은둔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만큼,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 청년기에 청소년미래센터 등 청년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은 늦은 감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물론 다양한 사각지대 청소년의 징후의 99%는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 현장에서 처음 나타나는 만큼 초·중·고 혹은 대학교 등 일선 학교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 및 예방의 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 서비스 사업, 지역사회는 각각 독립적인 맥락이 아니라 서로의 빈곳을 채워줄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되어야 한다. 고립·은둔은 세 맥락이 협력되지 않고 어딘가에

빈 공간이 생길 때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질적 면담 결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지원을 다양화하면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와 지역사회를 통한 지원이 중요하지만, 학교로부터 시작하는 고립·은둔이 상당히 많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교사들이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나 연계할만한 기관이 없어 이들 청소년을 발굴하고 예측해도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서 일하는 한 교육복지사는 교육 현장에서 발굴된 고립·은둔 가능 청소년을 청소년에게 적합하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서비스에 연계하고 싶으나 해당 서비스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지나치게 오랜 대기시간이 있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직접 대면하고 이들을 지원해 본 경험 또는 관심이 없어 학교 현장에서 발굴된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아울러 또한 질적 분석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고립·은둔에 대해 지속적인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위클래스나 위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 고립·은둔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 청소년이 해당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꺼릴 수 있으며, 교육 특유의 훈육적 특성이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담' 또한 오랫동안 위센터, 위클래스, 또는 교사의 상담을 경험한 청소년이 꺼리는 경향이 받아 고립·은둔 청소년이 부담없이 갈 수 있는 공간에서 부담없이 마음을 열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연계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참여하는 시간을 교과목 이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면 보다 원활한 연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관련하여 교육관련 부처와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부처간의 원활한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계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교육복지사 자격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학교 현장에 보다 활발하게 진출하여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제안해 볼 수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예방과 발굴 기능) 학교 및 직장 → (서비스 지원) 각 부처의 서비스 및 사업 → (회복 및 사회 정주) 지역사회 간의 역할 분담과 연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소년시설, 민간 고립·은둔 지원 기관, 학교, 지역주민센터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의 곳곳에 정책과 지원이 존재한다. 청소년들이 고립·은둔

에 들어서기 전에 청소년들이 이에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각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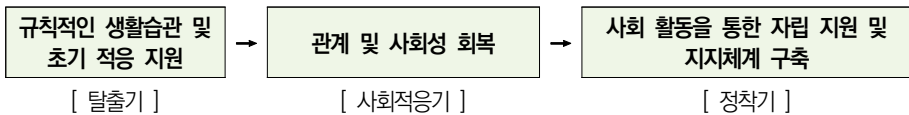
### (3)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

실태조사를 예로 들 경우 국가 차원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관심 있는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태조사의 중복 또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고립·은둔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 서비스, 실태가 부족하다. 실태조사는 단적인 한 면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해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정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항에는 법이나 조례의 제정, 실태조사의 주체와 대상, 기간, 예산활용시 예산부담의 배분, 이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차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 예산 지원, 전달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달기구 설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정적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는 학교와 복지기관 및 의료 기관을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 간의 고립·은둔 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각각의 역할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의 예방에서 회복 및 자립 지원까지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전달체계를 예로 들면 중요한 전달체계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 관련하여 해당 전달체계가 관할하는 현장 기관(가족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및 다양한 국립 시설 등)이 어떠한 역할을 분담할지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협의를 토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 현장기관, 지역사회의 전방위적인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전문적 프로그램 및 평가 도구 개발

#### (1)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의 단계적·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관계’이나 처음 이러한 사회관계를 형성하여 고립·은둔으로부터 약간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사회로 정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 방이나 밀폐된 공간을 벗어났더라도 지속적으로 사회 속에서 역할하는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립·은둔 과정을 통해 경험한 상처, 소외, 사회적 위축을 해결하고 사회관계기술을 함양하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다시 고립·은둔으로 퇴행하지 않는 정도의 위험 수준 정도만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에서 고립·청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푸른고래 리키버리 센터”가 그 사례이다. 센터는 수년간 고립·은둔 청소년을 만난 경험을 토대로 고립·은둔 청소년의 고립·은둔 탈출기->사회적응기->정착기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표적화된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표적화된 프로그램은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만으로는 개발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실패경험,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장 전문가, 심리 및 관계기술에 관한 전문가, 관련 이론가,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각 연령에 맞는 표적화된 단계적,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적용, 수정보완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에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특징은 “고립·은둔청소년이 좋아하는 공간구성”, “고립·은둔 청소년이 좋아하는 활동 구성”, “고립·은둔 청소년 단계별 차별적 접근”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활용되었던 상담, 물적 지원 뿐 아니라 요리, 함께 먹으며 사회관계 스킬 익히기, 야외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통합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은 빠르면 1-2년, 길게는 3-4년이 걸려

사회 속에서 정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보다 긴 호흡으로 서비스, 정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고립·은둔 청소년 예측 및 판별을 위한 국가차원의 공신력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척도 개발 및 보급; 이를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의 정례화

본 연구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고립, 은둔 판별 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을 고립군과 은둔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척도가 부재한 관계로 최선의 척도를 선택하여 활용하였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쳤지만,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은둔군의 비율이 고립군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나 청년 척도를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사실로 일부 확인되었다. 그 예로 청년 실태조사에서는 “취미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를 일본의 예를 토대로 “은둔”으로 판별하여 측정하고 있는데 청년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본데 반해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은 해당 문항은 “은둔”으로 보는 것보다는 “고립”으로 판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국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한 첫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공신력 있는 척도를 활용하는 것은 최적의 선택이었겠으나 장기적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을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상태에 부합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계획, 제공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부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척도문항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척도가 고립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점수에 따라, 은둔의 경우 외출에 관한 현재의 자신의 상황에 따라 두 개의 트랙으로 측정하다보니 사회적 관계의 점수가 높음에도 은둔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나타나 기존 연구가 은둔과 고립이 개별의 개념이 아닌 연속 또는 포괄적 관계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고립과 은둔에 관한 일원화된 판별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립·은둔 청소년을 판별하는 척도가 2023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해 개발된 바 있으나 이는 청소년 스스로의 행동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응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담사 등 지도자가 ‘관찰’을 통해 고립·은둔의 징후를 토대로 판별하는 만큼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생각과 행동

을 스스로 돌아보고 고립 또는 은둔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확보

##### (1)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굴, 연계, 지원에 대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 현장 교육, 실습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민, 관, 학 협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소년의 지원은 단기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을 위하여 장·단기적 및 생애주기에 다른 단계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 (2)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전문인력이 장기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과 함께, 처우 개선, 경력 개발,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양성과 함께 지역차원에서 전담기구설치와 함께 고립·은둔 청소년을 밀착해서 촘촘하게 관리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이직률이 높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경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와 전문가양성기관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3)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적 취약 및 복합적인 생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단순한 처방과 회복의 관점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 관리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립·은둔은 선형적 과정이 아니라 잠재되었다가 나타나고, 사라졌다가 재발하는 순환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연령이나 학교급에 따른 분절적 지원이 아닌, 개인별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에서부터 사회적응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 5) 고립·은둔 청소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1) 고립·은둔 청소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필요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도시에 사는 청소년이 농촌에 사는 청소년보다 더 많은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연구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의 고립·은둔 비율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태조사나 상담에 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여자 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문가는 남자 청소년의 고립·은둔 비율이 높음에도 여자 청소년에 비해 '대인관계'나 '대화' 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서툰 남자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적으며 이로 인해 남자 청소년의 고립·은둔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홍보함에 있어 이러한 청소년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특성이 더 강한 여자 청소년이 상담을 위주로 한 고립·은둔 청소년 서비스를 더 편하게 느낀다면 고립·은둔 남자 청소년의 경우 활동이나 관심있는 주제(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을 매개로 발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사는 청소년이 오히려 더 한적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의 청소년보다 고립·은둔과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농촌 사회가 가지는 특성(따뜻한, 정, 유대관계)을 도시 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 외에도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상담은 상담의 목적 외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러한 상담프로그램과 함께 이루어지

는 다양한 활동은 고립·은둔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삶의 목적을 갖게 해준다.

청소년이 상담과 함께 고립·은둔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회의 참여와 활동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위로가 되었으며, 점점 삶의 경계를 확장할 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상담과 함께 차별화된 접근과 취미 활동, 진로 및 진학 활동, 자립 및 독립을 위한 취업 역량 개발 활동 등에 대하여 정부기관에서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소년에게 이러한 상태는 완전히 치유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사회 참여와 활동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제한된 삶을 살고 있지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자립 준비 활동을 통해 삶의 경계를 확장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2) 고립·은둔 이외 복합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상당수가 경계선지능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돌봄 등의 부담을 가진 결과로 은둔 고립이 나타나는 등 고립·은둔 청소년의 문제가 고립·은둔에만 한정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질적면담 결과, 고립·은둔 청소년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립·은둔 상태에 진입한다. 소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성격, 또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 미숙으로 인한 갈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 그리고 학교 구성원으로부터의 신뢰 상실이나 불안정한 가정환경 등의 환경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작용한다.

은둔의 정의와 관련하여 ‘정신질환’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한 은둔’을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지만, 고립·은둔이 정신질환이나 경계선지능 등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 많음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최근 일본 등에서는 정신질환 등을 배제하지 말고 고립·은둔의 모든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정신질환은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나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고등학교 이후 시기에 현저하게 나타남을 고려해 볼 때 그 이전 시기에서는 별도로 정밀한 검사를 받지 않는 한은 정신질환 등과의 중복 특성을 구별하기 어렵고, 복지적 측면에서 모든 정신질환을 가진 고립·은둔 청소년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정작 심층적인 서비스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고립·은둔과 중복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복합적 문제에 대한 고려도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어렵고 복잡할 것인바, 복합적 문제를 가진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선 지원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이나 횟수보다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지속해서 지원하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고립과 은둔의 개념도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어느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그에 따라 상담, 치료, 복지 등 적합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립·은둔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정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여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하여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고립·은둔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 맞추어 예방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곳에서 촘촘하게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별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면 고립·은둔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3)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

기존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의 경우 고립·은둔 청소년을 만나는 과정에서 1-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부모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다는 반응을 다수 나타내었다. 종국적으로는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으나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또는 화상회의 도구 등 비교적 부담이 덜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이나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또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메타버스 등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아바타 등으로 상호 대면하여 타인에 대한 대면으로 인한 두려움을 경감시키거나 지속적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사회관계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상처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보다 편하게 서비스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이러한 공간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방 안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립·은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 한 군데에서 관련된 자조모임이나 포털의 카페, 관련된 기관, 프로그램, 도움을 위한 전화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가칭) 은둔이 통합 정보망” 등의 인터넷 상의 정보, 놀이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홍보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손쉽게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고립·은둔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국내자료〉

- 관계부처 합동 (2023).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2023.12.13.). 세종: 관계부처 합동.
- 김도형, 박승규(2021). 전라남도 은둔형 청·장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도희 (202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4권 제4호. 197-223.
- 김미경 (2021).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경험에 대한 해석현상학적 분석. 광운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희 (2023). 청소년기 은둔형외톨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돌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9(10), 1-32.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박주홍, 손지현, 서두산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복지개발원.
-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PMI.
- 서정아, 조아미 (2023). 신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 (2022).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성남: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
- 안예린, 권나현, 김다경, 이애리 (2024).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연결성 증진을 위한 치유형 AI 위치 서비스 :〈EGO〉.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대전.

- 유민상,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202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수시과제 연구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선 (2015).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히끼꼬모리와 2차 분리-개별화. 연세상담코칭연구, 4, 105-127.
- 이상욱, 김재희, 박일연, 이선미 (2022). 제2차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 이상인, 오미애, 김문길, 전진아(2020). 2020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실태 분석 연구: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이영식 (2020). 코로나 시대의 은둔형 외톨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9-100.
- 이진아 (2022). 성인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탐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형문, 김석용, 박순영, 이세라, 최상희, 김영지, 이찬미, 장경철(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2020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 피एम아이(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PMI.
- 청년재단(2020).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청년재단, 파이교육그룹.
- 최연실, 배희분. (2017). 부모모니터링이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10), 279-307.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서울: 청소년위원회.

####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2.20.).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 고립 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4.3.6.).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회복 돕는 원스톱 지원 실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11.24.). 청소년 ‘극단선택’ 막는다… 자살·자해 예방 최우선  
과제로.

### 〈사이트〉

광주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https://gitory.kr/>에서 2024년 5월 22일에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민일보(2020.12.7.). 10년 이상 장기은둔이 30%… 한국도 ‘8050리스크’ 머지않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168273>에서 2024년 2월 1일 인출.  
보건복지부(2023.12.13.),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278&act=view](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278&act=view)  
에서 2024년 2월 1일 인출.  
서울특별시 뉴스(내 손안에 서울)(20214.10.25.),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국내 첫  
종합대책,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2527?tr\\_code=snews](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2527?tr_code=snews)에  
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  
서울특별시 뉴스(내 손안에 서울)(2024.9.12.), 고립·은둔청년 세상 밖으로! 전국 최초  
전담센터 개관,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2224>.에서 2024년 10  
월 22일 인출.  
서울특별시 뉴스(내 손에 서울)(2023.4.23.), ‘고립·은둔청년 찾아 사회복귀 돕는다! 원스  
톱 지원’.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700>에서 2024년 5월 22  
일 인출.  
중앙일보(2024.10.4.). 하루 38명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10대 자살률은 역대 최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91171?sid=101>에서 2024  
년 10월 23일 인출.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https://hsakorea.modoo.at> 에서 2024년 2월 15일 인출.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https://the-recoverycenter.org/  
busiinfoboard/?q=YToy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JtzojQ6InBhZ2U02k6Mjt9&bmode=view&idx=11707838&t=board](https://the-recoverycenter.org/busiinfoboard/?q=YToy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JtzojQ6InBhZ2U02k6Mjt9&bmode=view&idx=11707838&t=board)에서 2024년  
5월 22일 인출.

프레스리안(2025.6.2). “은둔형 외톨이는 왜 남자가 더 많을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6642>에서 2024년 2월 1일 인출.

厚生労働省(2023).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について” <<https://www.mhlw.go.jp/content/12602000/001099862.pdf>>. 2024년 4월 22일 인출.

厚生労働省(2021). 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各府省の取組について, 第1回・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関係府省横断会議 <<https://www.mhlw.go.jp/content/10906000/000798914.pdf>> 2024년 5월 22일 인출.

厚生労働省(2023). 「ひきこもり地域支援センター」の設置状況リスト(47都道府県+20指定都市+18市区町村)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0515493.pdf>> 2024년 8월 22일 인출.

内閣府など(2021). ひきこもり支援における関係機関の連携の促進について(依頼)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nc/mext\\_00039.html](https://www.mext.go.jp/b_menu/hakusho/nc/mext_00039.html)> 2024년 5월 12일 인출.

内閣府(2022).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2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2/summary\\_ja.pdf](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2/summary_ja.pdf)> 2024년 8월 30일 인출.

林恭子(2022). ひきこもりの理解と支援—当事者の視点から—令和4年度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人材養成研修 <<https://www.mhlw.go.jp/content/12000000/001092832.pdf>> 2024년 7월 22일 인출.

特定非営利活動法人KHJ全国ひきこもり家族会連合会(2022). ひきこもりの理解促進と支援力向上のための研修会研修抄録・報告書 <<https://www.khj-h.com/wp/wp-content/uploads/2022/04/>> 2024년 6월 22일 인출.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 2024년 7월 25일 인출.

## 〈법령〉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0846호, 시행 2027. 3. 26.)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제7796호, 2023.10.11.)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시행 제5617호, 2024.4.3.)

경상북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제5006호, 2024.2.19.)

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제1478호, 2023.7.1.)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시행 제5282호, 2020.7.1.)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시행 제1919호, 2021.12.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시행 제1692호, 2023.9.20.)  
 대전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시행 제2100호, 2024.4.8.)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시행 제6427호, 2021.7.4.)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시행 제4004호, 2023.9.27.)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제5813호, 2022.10.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제1586호, 2022.1.6.)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제8250호, 2021.12.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제1587호, 2024.4.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제2520호, 2020.10.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제2283호, 2023.11.15.)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제1835호, 2023.3.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시행 제1761호, 2022.10.17.)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시행 제5392호, 2021.9.30.)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862호, 2025. 4. 1.)  
 청소년기본법(법률 제20953호, 2025. 4. 29.)  
 청소년복지지원법(법령 제19761호, 2024.4.25.)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31호, 2006.3.29.)  
 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20421호, 2024.9.2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22호, 2024.9.27.)

### 〈국외자료〉

石川良子·林恭子·齋藤環(2023). 『「ひきこもり」の30年を振り返る』, 岩波書店.  
 川北稔(2021). ひきこもりの実態と社会的背景·要因の理解, 令和3年度生活困窮者自立支援  
 制度人材養成研修.  
 久保浩明(2023). ひきこもりの理解に関する近年の動向— ひきこもり支援の現状と今後の  
 展望, 九州神経精神医学, 第68巻, 第2号, pp. 39-46  
 厚生労働省(2007). 引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厚生労働省.  
 齋藤環(2020). 引きこもりの理解と対応: 齋藤環, 畠中雅子 『ひきこもりのライフプラン—  
 「親亡き後」をどうするか』, 岩波書店.

- 佐藤隆也(2018). ひきこもり支援の変遷と課題. 川崎医療福祉学会誌, Vol. 28, No. 1, pp. 27-36.
- 藤本文朗(2020). 社会的ひきこもり対応基本法をさぐる, 日本の科学者55, 巻11号, pp. 55-29.
- 東京都(2023). ひきこもり支援ガイドブック-当事者・家族に寄り添った支援の充実に向けて. 東京都.
- 東京都(2023). 区市町村における支援の実例-「ひきこもり支援ガイドブック・附属資料」. 東京都.
- 村澤和多里(2017). 「ひきこもり」についての理解と支援の新たななる枠組みをめぐって: 心理社会的な視点からの探求, 北海道大学博士論文.
- Achterbergh, L., Pitman, A., Birken, M., Pearce, E., Sno, H., & Johnson, S. (2020).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among young people with depression: a qualitative meta-synthesis of the literature. *BMC Psychiatry*, 20(1), 415.
- Amendola, S. (2024). Clarifying the position of hikikomori in mental health: Is hikikomori a variant of already-known mental health disord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acific Rim Psychology*, 1-1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text rev.; DSM-5-T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sendorpf, J. B., Denissen, J. J. A., & van Aken, M. A. G. (2008). Inhibited and aggressive preschool children at 23 years of age: Personality and social transitions into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4, 997-1011.
- Baker, L. R., & Oswald, D. L. (2010). Shyness and online social networking servic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 873-889.
- Barber, B. K., & Olsen, J. A. (2004). Assessing the transitions to middle and high schoo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1), 3-30.
- Barrett, P. M., Lock, S., & Farrell, L. J. (2005).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universal preventive intervention for child anxiety.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0(4), 539-555.

- Barzeva, S. A., Meeus, W. H., & Oldehinkel, A. J. (2019).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Measurement issues, normative development, and distinct trajector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7, 865-879.
-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2), 179-192.
- Booth-LaForce, C., & Oxford, M. L.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grades 1 to 6: Prediction from early parenting, attachment, and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4, 1298-1313.
- Bor, W., Dean, A. J., Najman, J., & Hayatbakhsh, R. (2014). Are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problems increasing in the 21st century? A systematic review.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8(7), 606-616.
- Bosacki, S. L. (2008). *Children's emotional lives: Sensitive shadows in the classroom*. Peter Lang.
- Bowker, J. C., & Etkin, R. (2014). Mixed-grade rejec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aggression, anxious-withdrawal,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5, 35-50.
-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201-212.
- Bowker, J. C., & Spencer, S. V. (2010). Friendship and adjustment: A focus on mixed-grade friendship.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 1318-1329.
- Bowker, J. C., Rubin, K. H., & Coplan, R. J. (2016). Social withdrawal. In *Encyclopedia of adolescence* (Vol. 1, pp. 1-14).
- Bowker, J. C., Rubin, K. H., Rose-Krasnor, L., & Booth-LaForce, C. (2007). Social withdrawal, negative emotion, and peer difficulties during late childhood. Manuscript under review.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 British Red Cross. (2023). A new call to action: Tackling loneliness and building community. London: British Red Cross.
- Burgess, K., Wojslawowicz, J. C., Rubin, K. H., Rose-Krasnor, L., & Booth-LaForce, C. L. (2006).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ping styles of shy/withdrawn and aggressive children: Does friendship matter? *Child Development*, 77, 371-383.
- Butler, P., & Dugan, E. (2023). Loneliness charity the Cares Family goes bust, warning others will follow.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3/nov/01/loneliness-charity-the-cares-family-goes-bust-warning-others-will-follow>
- Cacioppo, J. T., & Hawkley, L. C. (2009). Perceived social isolation and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3(10), 447-454.
- 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n.d.). Millennium Cohort Study. UCL Social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20th August 2020<sup>4</sup>, from <https://cls.ucl.ac.uk/cls-studies/millennium-cohort-study/>
- Chan, G. H. Y., & Lo, T. W. (2014). Do friendship and intimacy in virtual communications exist? An investigation of online friendship and intimacy in the context of hidden youth in Hong Kong. *Revista de Cercetare și Interventie Socială*, 47, 117-136.
- Chen, X., Yu, J., & Li, Y. (2011). Social withdrawal and its behavioral correlates in Chinese children: A comparison of urban and rural sampl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12), 1255-1263.
- Chronis-Tuscano, A., Degnan, K. A., Pine, D. S., Perez-Edgar, K., Henderson, H. A., Diaz, Y., Raggi, V. L., & Fox, N. A. (2009). Stable early maternal report of behavioral inhibition predicts lifetime social anxiety disorder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8, 928-935.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Jossey-Bass.
- Cobain, I., Booth, R., & Taylor, M. (2016, November 23). The slow-burning hatred that led Thomas Mair to murder Jo Cox.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6/nov/23/thomas-mair-slow-burning-hatred-led-to-jo-cox-murder>
- Coplan, R. J., Arbeau, K. A., & Armer, M. (2008). Don't fret, be supportive! Maternal characteristics linking child shyness to psycho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359-371.
- Coplan, R. J., Ooi, L. L., & Hipson, W. E. (2021). Solitary activities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Causes, content, and consequences. In *The handbook of solitud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isolation, social withdrawal, and being alone* (pp. 105-116).
- Coplan, R. J., Ooi, L. L., Rose-Krasnor, L., & Nocita, G. (2014). "I want to play alone": Assessment and correlates of self-reported preference for solitary play in young childre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3(3), 229-238.
- Coplan, R. J., Ooi, L. L., Xiao, B., & Rose-Krasnor, L. (2018).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social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A first look at social avoidance. *Social Development*, 27(1), 125-139.
- Coplan, R. J., Rose-Krasnor, L., Weeks, M., Kingsbury, A., Kingsbury, M., &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1), 31-48.
- de Jong Gierveld, J., van Tilburg, T. G., & Dykstra, P. A. (2018). New ways of theorizing and conducting research in the field of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In A. L. Vangelisti & D. Perlman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2nd ed., pp. 391-4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nnissen, J. J. A., Asendorpf, J. B., & van Aken, M. A. G. (2008). Childhood personality predicts long-term trajectories of shyness and aggressiveness in the context of demographic transitions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76(1), 67-99.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1a). *Emerging Together: the Tackling Loneliness Network Action Plan*. London: HM Government.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1b). Joint message from the UK and Japanese Loneliness Minister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joint-message-from-the-uk-and-japanese-loneliness-ministers/joint-message-from-the-uk-and-japanese-ministers-for-loneliness-on-tackling-loneliness>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London: HM Government.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2020). *Loneliness Annual Report: The First Year*. London: HM Government.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2021c). *Loneliness Annual Report January 2021*. London: HM Government.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2022). *Tackling loneliness annual report: the third year*. London: HM Government.
-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T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Retrieved October 1, 2024, from <https://www.psychiatry.org/psychiatrists/practice/dsm>
- Dill, E. J., Vernberg, E. M., Fonagy, P., Twemlow, S. W., & Gamm, B. K. (2004). Negative affect in victimized children: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attitudes toward bully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 159-173.
- Doey, L., Coplan, R. J., & Kingsbury, M. (2014). Bashfulboys and coy girls: A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 childhood shyness. *Sex Roles*, 70, 255-266.
- Dong, B., Li, D., & Baker, G. B. (2022). Hikikomori: A society-bound syndrome

- of severe social withdrawal. *Psychiatry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32(2), 167.
- Dong, M., Wang, D., Jiang, Y., Wu, Z., Chen, R., Zhang, Q., & Ungvari, G. S. (2022). Prevalence of hikikomori in China: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urvey. *Asian Journal of Psychiatry*, 67, 102957.
- ennessen, J. J. A., Asendorpf, J. B., & van Aken, M. A. G. (2008). Childhood personality predicts long-term trajectories of shyness and aggressiveness in the context of demographic transitions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76(1), 67-99.
- Findlay, L. C., Coplan, R. J., & Bowker, A. (2009). Keeping it all inside: Shyness, internalizing coping strategie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 47-54.
- Fox, N. A., Zeytinoglu, S., Valadez, E. A., Buzzell, G. A., Morales, S., & Henderson, H. A. (2023). Annual Research Review: Developmental pathways linking early behavioral inhibition to later anxie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4(4), 537-561.
- Fujikawa, S., Ando, S., Nishida, A., Usami, S., Koike, S., & Sasaki, T. (2018). Disciplinary slapping is associated with bullying involvement regardless of warm parenting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68, 207-216.
- Furlong, A. (2008). The Japanese hikikomori phenomenon: Acute social withdrawal among young people. *The Sociological Review*, 56(2), 309-325.
- Garcia-Campayo, J., Alda, M., Sobradie, N., & Sanz Abos, B. (2007). A case report of hikikomori in Spain. *Medicina Clínica*, 129(8), 318-319.
- Garnefski, N., Kraaij, V., & van Etten, M. (2005). Specificity of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Journal of Adolescence*, 28, 619-631.
- Gavin, J., & Brosnan, M.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hikikomori risk and internet use during COVID-19 restriction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5(3), 189-193.

- Gazelle, H. (2006). Class climate moderates peer relations and emotional adjustment in children with an early history of anxious solitude: A child× environment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42(6), 1179.
- Gazelle, H. (2010). Anxious solitude/withdrawal and anxiety disorders: Conceptualization, co-occurrence, and peer processes leading toward and away from disorder in child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10(127), 67-78.
- Gazelle, H., & Rudolph, K. (2004). Moving toward and away from the world: Social approach and avoidance trajectories in anxious solitary youth. *Child Development*, 75, 829-849.
- Goodfellow, C., Hardoon, D., Inchley, J., Leyland, A. H., Qualter, P., Simpson, S. A., & Long, E. (2022). Loneliness and personal well-being in young peopl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community factors. *Journal of Adolescence*, 94, 554-568.
- Goodfellow, C., Willis, M., Inchley, J., Kharicha, K., Leyland, A. H., Qualter, P., Simpson, S., & Long, E. (2023). Mental health and loneliness in Scottish schools: A multilevel analysis of data from the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tud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2), 608-625.
- Hamasaki, Y., Pionnié-Dax, N., Dorard, G., Tajan, N., & Hikida, T. (2022). Preliminary study of the social withdrawal (hikikomori) spectrum in French adolescent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pathology and related factors compared with Japanese adolescents. *BMC Psychiatry*, 22, Article 485.
- Harding, C. (2018). Hikikomori. *The Lancet Psychiatry*, 5(1), 28-29.
- Hariri, A. R., Mattay, V., Tessitore, A., Kolachana, B., Fera, F., Goldman, D., Egan, M. D., & Weinberger, D. R. (2002). Serotonin transporter genetic variation and the response of the human amygdala. *Science*, 297, 400-403.
- Hastings, P. D., Kahle, S., & Nuselovici, J. M. (2014). How well socially wary preschoolers fare over time depends on their parasympathetic regulation and socialization. *Child Development*, 85, 1586-1600.

- Hattori, Y. (2006). Social Withdrawal in Japanese Youth: A Case Study of Thirty-Five Hikikomori Clients. *Journal of Trauma Practice*, 4(3-4), 181-201.
- Heinze, U. and Thomas, P. (2014) Self and Salvation: Visions of Hikikomori in Japanese Manga. *Journal of the German Institute for Japanese Studies Tokyo*, 26, 151-169.
- Hey, N., Kharicha, K., Hvide, L., Pattison, D. (2023) Project Overview: Loneliness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hat Works Centre for Wellbeing
- Ito, J. (2003). Guideline for response to hikikomori.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Ito, J. (2017). Relation of Hikikomori and Family Function: From the Point of Behavior Theory. *Japanese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7166141>
- Jefferson, C., Nicholls, E., Hopwood, S., & Hillier, L. (2023). Young people'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in the West Midlands. University of Birmingham.
- 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2017). Combat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 A call to action.
- Kato, T. A., & Kanba, S. (2017). Modern-type depression as an "adjustment" disorder in Japan: The intersection of collectivistic society encountering an individualistic performance-based system.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4(11), 1051-1053.
- Kato, T. A., Kanba, S., & Teo, A. R. (2019). Hikikomori: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futu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3(8), 427-440.
- Kato, T. A., Kanba, S., & Teo, A. R. (2020). Defining pathological social withdrawal: Proposed diagnostic criteria for hikikomori. *World Psychiatry*, 19(1), 116-117.
- Kato, T. A., Katsuki, R., Kubo, H., Shimokawa, N., Sato-Kasai, M., Hayakawa, K., Kuwano, N., Umene-Nakano, W., Tateno, M., Setoyama, D., Kang, D.,

- Watabe, M., Sakamoto, S., Teo, A. R., & Kanba, S. (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22-item Tarumi's Modern-Type Depression Trait Scale: Avoidance of Social Roles, Complaint, and Low Self-Esteem (TACS-22).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3(7), 448-457.
- Kato, T. A., Sartorius, N., & Shinfuku, N. (2024). Shifting the paradigm of social withdrawal: A new era of coexisting pathological and non-pathological hikikomori.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37(3), 177-184.
- Kato, T. A., Suzuki, Y., Horie, K., Teo, A. R., & Sakamoto, S. (2023). One month version of Hikikomori Questionnaire-25 (HQ-25M):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7(3).
- Kato, T. A., Tateno, M., Shinfuku, N., Fujisawa, D., Teo, A. R., Sartorius, N., & Kanba, S. (2012). Does the 'hikikomori' syndrome of social withdrawal exist outside Japan? A preliminary international investigat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7, 1061-1075.
- Kincheloe, J. L. (2001). Describing the bricolage: Conceptualizing a new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7(6), 679-692.
- Kingsbury, M., Coplan, R. J., & Rose-Krasnor, L. (2013). Shy but getting by? An examination of the complex links among shyness, coping,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22, 126-145.
- Kondo, N., Sakai, M., Kuroda, Y., Kiyota, Y., Kitabata, Y., & Kurosawa, M. (2013). General condition of hikikomori (prolonged social withdrawal) in Japan: Psychiatric diagnosis and outcome in mental health welfare centr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9(1), 79-86.
- Kubo, H., et al. (2020). Development of a 5-day hikikomori intervention program for family members: A single-arm pilot trial. *Heliyon*, 6(3), e03011.
- Kumazaki, H., Warren, Z., Swanson, A., Yoshikawa, Y., Matsumoto, Y., Yoshikawa, M., & Ishiguro, H. (2018). Can robotic systems promote self-disclosure in adolesc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 pilot study. *Frontiers in Psychiatry*, 9, 36.

- Ladd, G. W. (2006). Peer rejection, aggressive or withdrawn behaviour,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rom age 5 to 12: An examination of four predictive models. *Child Development*, 77, 822-846.
- Ladd, G. W., Kochenderfer-Ladd, B., Eggum, N. D., Kochel, K. P., & McConnell, E. M. (2011). Characterizing and Comparing the Friendships of Anxious Solitary and Unsociable Preadolescents. *Child Dev*, 82(5), 1434-1453.
- Larson, R. W. (1997). The emergence of solitude as a constructive domain of experience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8(1), 80-93.
- Laursen, B., & Hartl, A. C. (2013). Understanding lonelines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changes that increase the risk of perceived social isol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6(6), 1261-1268.
- Lee, Y. S., Lee, J. Y., Choi, T. Y., & Choi, J. T. (2013). Home visitation program for detecting, evaluating and treating socially withdrawn youth in Korea.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7(4), 193-202.
- Lewis, M. (2019). The self-conscious emotions and the role of shame in psychopathology. In *Handbook of Emotional Development*, (pp. 311-350).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Lewis-Morrarty, E., Degnan, K. A., Chronis-Tuscano, A., Pine, D. S., Henderson, H. A., & Fox, N. A. (2015). Infant attachment security and early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interact to predict adolescent social anxiety symptoms. *Child Development*, 86(2), 598-613.
- Li, T. M., & Wong, P. W. (2015). Youth social withdrawal behavior (hikikomori):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9(7), 595-609.
- Liu, J.-H., You, Q.-L., Wei, M.-D., Wang, Q., Luo, Z.-Y., Lin, S., Huang, L., Li, S.-J., Li, X.-W., & Gao, T.-M. (2015). Social Isolation During Adolescence Strengthens Retention of Fear Memories and Facilitates Induction of Late-Phase Long-Term Potentiation. *Molecular Neurobiology*, 52(2), 1421-1429.

- Locatelli, M., Vanelli, I., Fregna, L., Martini, F., Manfredi, E., Pacchioni, F., Bigai, G., Tonet, L., Passani, C., & Colombo, C. (2022). Anxiety-Related Disorders. In *Fundamentals of Psychiatry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pp. 121-179). Springer.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 481-506.
- Long, C. R., and Averill, J. R. (2003). Solitude: An exploration of benefits of being alone. *J. Theory Soc. Behav.* 33, 21-44.
- Matthews, T., Danese, A., Gregory, AM., Caspi, A., Moffitt, TE., & Arseneault, L. (2017). Sleeping with one eye open: loneliness and sleep quality in young adults. *Psychological Medicine*, 47, 2177-2186.
- Matthews, T., Danese, A., Caspi, A., Fisher, H. L., Goldman-Mellor, S., Kopa, A., E Moffitt, T., L Odgers, C., & Arseneault, L. (2019). Lonely young adults in modern Britain: findings from an epidemiological cohort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49(2), 268-277.
- Matthews, T., Danese, A., Gregory, AM., Caspi, A., Moffitt, TE., & Arseneault, L. (2017). Sleeping with one eye open: loneliness and sleep quality in young adults. *Psychological Medicine*, 47, 2177-2186.
- Matthews, T., Danese, A., Wertz, J., Ambler, A., Kelly, M., Diver, A., Caspi, A., Moffitt, T. E., & Arseneault, L. (2015). Social isolation and mental health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ntry: A longitudinal cohort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4(3), 225-232.
- Matthews, T., Danese, A., Caspi, A., Fisher, H. L., Goldman-Mellor, S., Kopa, A., E Moffitt, T., L Odgers, C., & Arseneault, L. (2019). Lonely young adults in modern Britain: findings from an epidemiological cohort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49(2), 268-277.
- McCormick, C. M., Hodges, T. E., & Simone, J. J. (2015). Peer pressures: Social instability stress in adolescence and social deficits in adulthood in a rodent model.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11, 2-11.

- McDermott, J. M., Troller-Renfree, S., Vanderwert, R., Nelson, C. A., Zeanah, C. H., & Fox, N. A. (2013). Psychosocial deprivation, executive functions, and the emergence of socio-emotional behavior problems. *Frontiers in Human Neuroscience*, 7, 167.
- McShane, K. E., & Hastings, P. D. (2009). The new friends vignettes: Measuri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hat confers risk for anxious adjustment in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 481-49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13). Adult attachment and happines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and consequences of positive emotions. In S. A. David, I. Boniwell, & A. Conley Ayers (Eds.), *The Oxford handbook of happiness* (pp. 834-846). Oxford University Press.
-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20).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 Opportunities for the health care system*.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Nelson, L. J., Coyne, S. M., Howard, E., & Clifford, B. N. (2016). Withdrawing to a virtual world: Associations between subtypes of withdrawal, media use, and maladjustment in emerging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52, 933-942.
- Nicholson, N. R. (2009). Social isolation in older adults: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6), 1342-1352.
- OECD. (2023). *Measuring social connectednes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measuring-social-connectedness-in-oecd-countries\\_f758bd20-en.html](https://www.oecd.org/en/publications/measuring-social-connectedness-in-oecd-countries_f758bd20-en.html), 2024년 10월 1일 인출.
- OECD. (2024). *Measuring social connectedness in OECD countries: A scoping review* (OECD Papers on Well-being and Inequalities No. 28). OECD Publishing.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a). *Children's and young people's experiences of loneliness: 2018*, London: ON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b). *Compendium: National Measurement of Loneliness: 2018*. London: ON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c). *Exploring loneliness in children, Great Britain: 2018*. London: ON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8d). *Loneliness - What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are associated with feeling lonely?* London: ONS.
- Oh, W., Rubin, K. H., Bowker, J. C., Booth-LaForce, C. L., Rose-Krasnor, L., & Laursen, B.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553-566.
- Ohannessian, C. M., Milan, S., & Vannucci, A. (2017). Gender differences in anxiety trajectories from middle 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6, 826-839.
- ONS(2018e). *Measuring loneliness: guidance for use of the national indicators on surveys*. London. p.59-60.
- Pérez-Edgar, K., Bar-Haim, Y., McDermott, JM., Chronis-Tuscano, A., Pine, DS., Fox, NA. Attention biases to threat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early childhood shape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Emotion*, 2010 Jun, 10(3), 349-357.
- Perlman, D., & Peplau, L. A. (1981).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loneliness. *Personal relationships*, 3, 31-56.
- Pozza, A., Coluccia, A., Kato, T., Gaetani, M., & Ferretti, F. (2019). The 'Hikikomori' syndrome: Worldwide prevalence and co-occurring major psychiatric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rotocol. *BMJ Open*, 9(9).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6756420/>
- Qualter, P., Vanhalst, J., Harris, R., Van Roekel, E., Lodder, G., Bangee, M., ... & Verhagen, M. (2015). Loneliness across the life span.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250-264.
- Rapee, R. M., Kennedy, S., Ingram, M., Edwards, S., & Sweeney, L. (2005).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of anxiety disorders in inhibited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3), 488.

- Roza, T. H., Spritzer, D. T., Gadelha, A., & Passos, I. C. (2020). Hikikomori and the COVID-19 pandemic: not leaving behind the socially withdrawn. *Brazilian Journal of Psychiatry*, 43, 114-116.
- Rubin, K. H., & Chronis-Tuscano, A. (2021). Perspectives on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Past, present, and prospect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5(3), 160-167.
- Rubin, K. H., & Lollis, S. P. (2015). Origins and consequences of social withdrawal. In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219-252). Routledge.
- Rubin, K. H., & Barstead, M. G. (2014). Gender differences i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A commentary. *Sex roles*, 70, 274-284.
- Rubin, K. H., Bukowski, W. M., & Bowker, J. C. (2015). Children in peer groups. In R. Lerner (Series Ed.), M. H. Bornstein & T. Leventhal (Vo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e* (Vol. 4, pp. 175-222). Hoboken: Wiley-Blackwell.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5th ed., pp. 619-700). Wiley.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1), 141-171.
- Rubin, K. H., Coplan, R., Chen, X., Bowker, J., & McDonald, K. L. (2010).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In *Developmental Science* (pp. 527-578). Psychology Press.
- Rubin, K. H., Bowker, J., & Gazelle, H. (201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The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 (pp. 131-156). Guilford.
- Rubin, K. H., Wojslawowicz, J. C., Rose-Krasnor, L., Booth-LaForce, C., & Burgess, K. B. (2006). The best friendships of shy/withdrawn children: Prevalence, stabi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139-153.

- Saito, K. (2010). Guideline of hikikomori for their evaluation and support.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Saito, T. (1998). Social withdrawal: A never-ending adolescence. PHP Shinsho.
- Saitō, T. (2013). Hikikomori: Adolescence without end (J. Angles, Tra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Sakamoto, N., Martin, R. G., Kumano, H., Kuboki, T., & Al-Adawi, S. (2005). Hikikomori, is it a Culture-Reactive or Culture-Bound Syndrome? Nidotherapy and a Clinical Vignette from Oma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35(2), 191-198.
- Schneider, B. (2009). An observational study of the interactions of socially withdrawn/anxious early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 799-806.
- Simmons, R. G. (2017). *Moving into adolescence: The impact of pubertal change and school context*. Routledge.
- Spangler, T. L., & Gazelle, H. (2009). Anxious solitude, unsociability, and peer exclusion in middle childhood: A multi-trait multi-method matrix. *Social Development*, 18, 833-856.
- Stavros, B. J. (2015). The philosophy of solitude. *Encephalos*, 52, 14-24.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 Suwa, M., & Suzuki, K. (2013). The phenomenon of “hikikomori” (social withdrawal) and the socio-cultural situation in Japan today. *Journal of Psychopathology*, 19(3), 191-198.
- Tagomori, R., Matsunaga, A., Nagata, S., & Uda, K. (2022). A qualitative study of loneliness among adolesc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6, 154-160.
- Tajan, N. (2021). *Hikikomori in Japan: Beyond the cultural construct*. Palgrave Macmillan.
- Tarumi, S. (2005). The “New” Variant of Depression: The Dysthymic Type. *Japa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34, 687-694. (In Japanese)

- Tateno, M., Park, T. W., Kato, T. A., et al. (2012). Hikikomori as a possible clinical term in psychiatry: A questionnaire survey. *BMC Psychiatry*, 12, 169.
- Tateno, M., Skokauskas, N., Kato, T. A., Teo, A. R., & Guerrero, A. P. S. (2016). New game software (Pokémon Go) may help youth with severe social withdrawal, hikikomori. *Psychiatry Research*, 246, 848-849.
- Tateno, M., Teo, A. R., Shiraishi, M., Tayama, M., Kawanishi, C., & Kato, T. A. (2018). Prevalence rate of Internet addiction among Japanese college students: Two cross-sectional studies and reconsideration of cut-off points of Young's Internet Addiction Test in Japa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2(9), 723-730
- Teo, A. R. (2010). A new form of social withdrawal in Japan: A review of hikikomori.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6, 178-185.
- Teo, A. R., & Gaw, A. C. (2010). Hikikomori, a Japanese culture-bound syndrome of social withdrawal? A proposal for DSM-V.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8(6), 444-449.
- Teo, A. R., Chen, J. I., Kubo, H., Katsuki, R., Sato-Kasai, M., Shimokawa, N., Hayakawa, K., Umene-Nakano, W., Aikens, J. E., Kanba, S., & Kato, T. A.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25-item Hikikomori Questionnaire (HQ-25).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2(10), 780-788.
- Teo, A. R., Fetters, M. D., Stufflebam, K., Tateno, M., Balhara, Y., Choi, T. Y., Kanba, S., Mathews, C. A., & Kato, T. A. (2015). Identification of the hikikomori syndrome of social withdrawal: Psychosocial features and treatment preferences in four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1(1), 64-72.
- The Cares Family. (2023a). *Building Connection: A Manifesto*. London: The Cares Family.
- The Cares Family. (2023b). *Building Connection: Exploring What Works*. London: The Cares Family.
- The Children's Society. (2023). *The Good Childhood Report 2023*. London.

- Tomaka, J., Thompson, S., & Palacios, R. (2006). The relation of social isolation, 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to disease outcome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8(3), 359-384.
- Twenge, J. M. (2017). *iGen: Why today's super-connected kids are growing up less rebellious, more tolerant, less happy—and completely unprepared for adulthood (and what this means for the rest of us)*. Atria Books.
- Uchida, C. (2010). Apathetic and withdrawing students in Japanese universities—With regard to hikikomori and student apathy. *Journal of Medical and Dental Sciences*, 57, 95-108.
- Van Roekel, E., Scholte, R., Engels, R., Goossens, L., & Verhagen, M. (2015). Loneliness in the daily lives of adolescents: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examining the effects of social contex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5, 905-930.
- Wang, J. M., Rubin, K. H., Laursen, B., Booth-LaForce, C., & Rose-Krasnor, L. (2013). Preference-for-solitude and adjustment difficulties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42, 834-842.
- Weinstein, N., Nguyen, T. V., & Hansen, H. (2021). What time alone offers: Narratives of solitude from adolescence to older adulthood. *Frontiers in Psychology*, 12, 714518.
- Wisniewski, P. J., Vitak, J., & Hartikainen, H. (2022). *Privacy in Adolescence. Modern Socio-Technical Perspectives on Privacy*, Springer, 315-336.
- Wong, P. W. C., Li, T. M. H., Chan, M., Law, Y. W., Chau, M., Cheng, C., ... & Yip, P. S. F. (2015). Th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evere social withdrawal (hikikomori) in Hong Kong: A cross-sectional telephone-based surve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1(4), 330-342.
- Wong, P. W. C., Yu, R. W. M., Li, T. M. H., & Lai, S. L. H. (2017). Efficacy of a multicomponent intervention with animal-assisted therapy for socially withdrawn youth in Hong Kong. *Society and Animals*, 27(3), 261-278.

- Wong, V. (2012). Social withdrawal as invisible youth disengagement: Government inaction and NGO responses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2(7/8), 415-430.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January 10). Schizophrenia.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schizophrenia>, 2024년 10월 1일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n.d.).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https://www.who.int/teams/social-determinants-of-health/demographic-change-and-healthy-ageing/social-isolation-and-loneliness>, 2024년 10월 1일 인출.
- Yang F., Chen X., Wang L. (2015). Shyness-sensitivity and social, schoo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urban chinese children: a four-wave longitudinal study. *Child Dev*, 86(6), 1848-1864.
-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Sage Publications.



○ — 부 록



# 부록

## 1. 사전조사 설문지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 조사)」 [9-12세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www.nypi.re.kr>)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누가 응답했는지 알 수 없게 처리한 후 연구 자료로 분석하거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의 어려움을 알리고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돕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이 고립 청소년 또는 은둔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500명)과 태블릿PC(1명)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조사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고립 청소년 또는 은둔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하신 경우에 한해 본조사 설문지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별도의 위험과 부작용은 없지만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중단 이전까지 응답하신 데이터는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 조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를 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주관: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주관:  **여성가족부**

조사기관:  **한국능력개발원**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02-3278-8595)으로 연락주세요.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44-415-2188)에 연락주세요.

<조사 동의표>  
아래 내용을 읽고 각각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함	동의안함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2)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2)

[PROG: 모두 동의했을 경우 조사진행, 동의안함인 1개라도 있는 경우 조사 종료]

## 응답자 선정

1. 자신이 태어난 연도와 월을 적어 주세요

\_\_\_\_\_ 년 \_\_\_\_\_ 월 [prog: 각 월별로 아래 출생년월에 해당하는 연령만 조사 진행, 그 외 조사 비해당]

[비해당시 안내문구]  
죄송합니다.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다시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시점	연령	출생년월	설문유형
2024년 5월	9~12세	2011년 6월~2015년 5월	9-12세용
	13~15세	2008년 6월~2011년 5월	13-18세용
	16~18세	2005년 6월~2008년 5월	
	19~24세	1999년 6월~2005년 5월	19-24세용
	조사종료	1999년 5월 이하, 2015년 6월 이상	
2024년 6월	9~12세	2011년 7월~2015년 6월	9-12세용
	13~15세	2008년 7월~2011년 6월	13-18세용
	16~18세	2005년 7월~2008년 6월	
	19~24세	1999년 7월~2005년 6월	19-24세용
	조사종료	1999년 6월 이하, 2015년 7월 이상	
2024년 7월	9~12세	2011년 8월~2015년 7월	9-12세용
	13~15세	2008년 8월~2011년 7월	13-18세용
	16~18세	2005년 8월~2008년 7월	
	19~24세	1999년 8월~2005년 7월	19-24세용
	조사종료	1999년 7월 이하, 2015년 8월 이상	

☞ 자신의 나이가 00~00세(만나이 기준)인가? 맞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틀린 경우 뒤로가기 버튼을 클릭 후 태어난 연도와 월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 태어난 달이 이번 달인 경우 생일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세요.

[PROG: '다음' 클릭 시 1.1. 연령 자동체크된 후 2번 문항으로 이동, '뒤로가기' 클릭 시 1. 태어난 연도와 월 문항 다시 제시]

1.1. 연령 [자동코딩]

- ① 9세-12세
- ② 13세-15세
- ③ 16세-18세
- ④ 19세-24세

[PROG: 1개의 URL로 접속 후 조사 안내글~1\_1까지는 응답. 1.1 응답에 따라 설문 3종(9-12세/13-18세/19-24세)으로 구분되어 링크 연결 후 2번부터 응답 시작]

2. 요즘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3. 다음 중 주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prog: 은둔청소년 if 3=①~④ & 3-1=⑤]

- 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3-1로 이동
- ②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3-1로 이동
-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가까운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3-1로 이동
-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3-1로 이동
- 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⑥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⑦ 학교 등으로 일주일에 1~2일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⑧ 학교 등으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⑨ 학교 등으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4-1로 이동

3-1.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초등학교를 그만두어서
- ② 중학교에 가지 못해서
- ③ 원하는 일(진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 어려워서
- ④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 ⑤ 병이 있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 ⑥ 이사나 전학을 가게 되서
- ⑦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 ⑧ 코로나19로 인해
- ⑨ 아픈 가족을 내가 돌봐야 해서
- ⑩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3-2. 현재의 상태가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개 선택]

- ① 1개월 미만
- ②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③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④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⑤ 1년 이상~2년 미만
- ⑥ 2년 이상~3년 미만
- ⑦ 3년 이상(구체적으로 \_\_\_\_\_ 년)

4-1. 다음은 전반적인 사회관계나 사회생활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별 1개 선택] [prog: 고립청소년 if 스크리닝 로직 참고]

① (만남 사람의 수) 지난 2주 동안, 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략 ___ 명 만났다 [역코딩]	① 0명	② 1~2명	③ 3~5명	④ 6~10명	⑤ 11명 이상
② (만남 횟수) 지난 2주 동안, 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략 ___ 번 만났다 [역코딩]	① 0번	② 1~2번	③ 3~5번	④ 6~10번	⑤ 11번 이상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 나는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없거나 줄어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앞으로 일(아르바이트, 취업, 창업 포함)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진로나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학교 등 속해 있는 곳이 없어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2. 다음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 1개 선택]

4-2-1.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이상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⑧로 이동
- ② 아니다 → 4-3의 ⑬으로 이동, ⑧~⑫까지 4점 부여

⑧ (대화 횟수) 지난 2주 동안,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과 대화(통화, 카톡, SNS 등)를 대략 ___ 번 하였다 [역코딩]	① 0번	② 1~2번	③ 3~5번	④ 6~10번	⑤ 11번 이상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⑨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은 나를 이해해준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⑩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⑪ 내가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⑫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3. 다음은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 1개 선택]

4-3-1.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⑬으로 이동
- ② 아니다 → 4-4로 이동, ⑬~⑱까지 4점 부여

⑬ (대화 횟수) 지난 2주일간, 나는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과 대화(통화, 카톡, SNS 등)를 대략 <u>  </u> 번 하였다 [역코딩]	① 0번	② 1~2번	③ 3~5번	④ 6~10번	⑤ 11번이상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⑭ 내가 무언가(이야기하기, 놀기, 밥 먹기 등)를 하고 싶을 때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⑮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은 나를 이해해준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⑯ 나는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⑰ 내가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⑱ 나는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단톡, SNS 등)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4-1. 다음 중 자신의 현재 학업 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 4-4-1-1의 ⑲-1번으로 이동
- ② 예전에 학교에 다녔다 → 4-4-1-2의 ⑲-2로 이동
- ③ 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전혀 없다 → 4-5의 ⑳번으로 이동하고 ⑲~㉑까지 '2점' 부여

4-4-1-1. 현재 다니는 학교를 생각하며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9-1. 학교에서는 내가 공부가 서툴거나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는 편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②0-1. 학교에는 나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②1-1. 나는 우리 학급에 필요한 사람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②2-1. 나는 함께 공부하는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 ③번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⑤

4-4-1-2.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를 생각하며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9-2.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내가 공부가 서툴거나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는 편이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②0-2.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나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②1-2. 나는 최근에 다녔던 학급에 필요한 사람이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②2-2. 나는 최근에 다녔던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 ③번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⑤

4-5. 다음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지역사회)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별 1개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②3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②4 돈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나 방법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②5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나 방법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로직

[prog-1] 4 문항의 ①, ②, ⑧, ⑨, ⑩, ⑪, ⑬, ⑭, ⑮, ⑯, ⑰, ⑱, ⑳, ㉑, ㉒, ㉓, ㉔, ㉕ 역코딩 문항임.

[prog-2] 조사대상 선정 로직

구분	내용	조사대상 여부	본조사
은둔	(3=①~④) &(3-1)=⑤)	조사대상	① 은둔 청소년용 조사 링크 발송
고립	4의 합이 60~100점		② 고립 청소년용 조사 링크 발송
고립 위험군	4의 합이 44~59점	비해당	
고립 비위험군	4의 합이 43점 이하		

5. 이번 조사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 ① 신문, 인터넷 뉴스 등을 보고
- ② 온라인 홍보를 보고(어디에서: \_\_\_\_\_)
- ③ 종이,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보고(어디에서: \_\_\_\_\_)
- ④ 가족이나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을 통해(누구: \_\_\_\_\_)
- ⑤ 센터 등 기관의 소개(어디: \_\_\_\_\_)
- ⑥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셔서(어떤 선생님: \_\_\_\_\_)
- ⑦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을 통해
-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6. 다음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억나는 범위에서 각 질문에 대해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느라 학교를 가거나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부모님이 내가 벌거나 모은 돈을 가져다 쓰거나 경제적 부담을 주어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학교 공부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많이 어려워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④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에서 병을 진단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가족 또는 친척과 떨어져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소나 모르는 다른 이들과 생활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 기타 다른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다(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⑤

7. 장래희망이나 바램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은둔, 고립 위험군, 고립 고위험군]

귀하께서는 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에 참여하실 경우 설문을 완료한 응답자 모두에게 온라인 상품권(2,000원권)을, 고립 또는 은둔 청소년 각 1명(총 2명)에게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를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조사 참여링크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 개인의 이름과 문자 받으실 핸드폰 또는 이메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사 참여 링크를 2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가 없는 경우 보유기간이 끝나는대로 파기하겠습니다.

제공처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즈쿠파(주)다우기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조사 링크 발송 및 사전조사 답례품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 이메일 주소	2024년 9월 30일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동의함 \_\_\_\_\_

1.1) 이름 \_\_\_\_\_

※ 중복응답 방지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름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1.2) 핸드폰 연락처 (\_\_\_\_-\_\_\_\_-\_\_\_\_)

1.3) 이메일 연락처 (\_\_\_\_)@(\_\_\_\_)

[PROG: 핸드폰 또는 이메일 중 1개 이상 필수응답, 핸드폰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만 이메일로 링크 발송]

2) 동의하지 않음 \_\_\_\_\_,

[ 1) 동의함 선택 시 제시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본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일 이내에 문자로 본조사 참여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청소년정책 마련을 위해 본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 동의하지 않음 선택 시 제시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립 비위험군]**

귀하의 고립·은둔 상태는 '안전'으로, 본 조사 대상자는 아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온라인 상품권 (2,000원권)과 태블릿PC(1명)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품권은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 문자 받으실 핸드폰 연락처를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즈쿠파(주)다우기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답례품 발송	이름, 핸드폰 연락처	2024년 9월 30일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동의함 \_\_\_\_\_  
 1\_1) 이름 \_\_\_\_\_  
 ※ 중복응답 방지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름을 기재부탁 드리겠습니다.  
 1\_2) 핸드폰 연락처 (\_\_\_\_-\_\_\_\_-\_\_\_\_\_) \_\_\_\_\_  
 2) 동의하지 않음 \_\_\_\_\_

[ 동의여부 관계없이 모두 제시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종료 페이지]**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은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88번으로 전화하 시거나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https://www.cyber1388.kr>)로 접속하시면 청소년상담사 선생님과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 조사)」 [13-18세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www.nypi.re.kr>)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누가 응답했는지 알 수 없게 처리한 후 연구 자료로 분석하거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의 어려움을 알고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돕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이 고립 청소년 또는 은둔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500명)과 태블릿PC(1명)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조사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고립 청소년 또는 은둔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하신 경우에 한해 본조사 설문지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별도의 위험과 부작용은 없지만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중단 이천까지 응답하신 데이터는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 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를 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주관:  여성가족부
-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02-3278-8595)으로 연락 주세요.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44-415-2188)에 연락주세요.

## <조사 동의표>

아래 내용을 읽고 각각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함	동의안함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2)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2)

[PROG: 모두 동의했을 경우 조사진행, 동의안함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조사 종료]

## 응답자 선정

1. 자신이 태어난 연도와 월을 적어 주세요

\_\_\_\_\_ 년 \_\_\_\_\_ 월 [prog: 각 월별로 아래 출생년월에 해당하는 연령만 조사 진행, 그 외 조사 비해당]

[비해당시 안내문구]  
죄송합니다.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다시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시점	연령	출생년월	설문유형
2024년 5월	9~12세	2011년 6월~2015년 5월	9-12세용
	13~15세	2008년 6월~2011년 5월	13-18세용
	16~18세	2005년 6월~2008년 5월	
	19~24세	1999년 6월~2005년 5월	19-24세용
	조사종료	1999년 5월 이하, 2015년 6월 이상	
2024년 6월	9~12세	2011년 7월~2015년 6월	9-12세용
	13~15세	2008년 7월~2011년 6월	13-18세용
	16~18세	2005년 7월~2008년 6월	
	19~24세	1999년 7월~2005년 6월	19-24세용
	조사종료	1999년 6월 이하, 2015년 7월 이상	
2024년 7월	9~12세	2011년 8월~2015년 7월	9-12세용
	13~15세	2008년 8월~2011년 7월	13-18세용
	16~18세	2005년 8월~2008년 7월	
	19~24세	1999년 8월~2005년 7월	19-24세용
	조사종료	1999년 7월 이하, 2015년 8월 이상	

☞ 자신의 나이가 00~00세(만나이 기준)인가요? 맞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틀린 경우 뒤로가기 버튼을 클릭 후 태어난 연도와 월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 태어난 달이 이번 달인 경우 생일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세요.

[PROG: '다음' 클릭 시 1.1. 연령 자동체크된 후 2번 문항으로 이동, '뒤로가기' 클릭 시 1. 태어난 연도와 월 문항 다시 제시]

1.1. 연령 [자동코딩]

- ① 9세-12세
- ② 13세-15세
- ③ 16세-18세
- ④ 19세-24세

[PROG: 1개의 URL로 접속 후 조사 안내글~1\_1까지는 응답. 1\_1 응답에 따라 설문 3종(9-12세/13-18세/19-24세)으로 구분되어 링크 연결 후 2번부터 응답 시작]

2. 요즘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3. 다음 중 주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prog: 은둔청소년 if 3=①~④ & 3-1=⑤, ⑥]

- 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3-1로 이동
- ②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3-1로 이동
-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가까운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3-1로 이동
-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3-1로 이동
- 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⑥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⑦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일주일에 1~2일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⑧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⑨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4-1로 이동

3-1.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초·중·고등학교를 그만두어서
- ② 원하는 상급(중·고등·대)학교에 가지 못해서
- ③ 원하는 일(진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 어려워서
- ④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 ⑤ 병이 있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 ⑥ 아기가 생겨서(리틀맘, 리틀대디, 고딩엄빠)
- ⑦ 이사나 전학을 가게 되어서
- ⑧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 ⑨ 코로나19로 인해
- ⑩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 ⑪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3-2. 현재의 상태가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개 선택]

- ① 1개월 미만
- ②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③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④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⑤ 1년 이상~2년 미만
- ⑥ 2년 이상~3년 미만
- ⑦ 3년 이상(구체적으로 \_\_\_\_\_ 년)

4-1. 다음은 전반적인 사회관계나 사회생활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별 1개 선택] [prog: 고립청소년 if 스크리닝 로직 참고]

① (만남 사람의 수) 지난 2주 동안, 나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략 ___ 명 만났다 [역코딩]	① 0명	① 1~2명	② 3~5명	③ 6~10명	④ 11명 이상
② (만남 횟수) 지난 2주 동안, 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략 ___ 번 만났다 [역코딩]	① 0번	① 1~2번	② 3~5번	③ 6~10번	④ 11번 이상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 나는 사람들과의 교류(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가 없거나 줄어들고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④ 나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로 부터 소외되어 있다	①	①	②	③	④
⑤ 나는 앞으로 일(아르바이트, 취업, 창업 포함)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①	②	③	④
⑥ 나는 진로나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①	①	②	③	④
⑦ 나는 다니는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 소속된 곳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①	①	②	③	④

4-2. 다음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 1개 선택]

4-2-1.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이상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⑧로 이동
- ② 아니다 → 4-3의 ⑬으로 이동, ⑧~⑫까지 4점 부여

⑧ (대화 횟수) 지난 2주 동안,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과 대화(통화, 카톡, SNS 등)를 대략 ___ 번 나누었다 [역코딩]	① 0번	① 1~2번	② 3~5번	③ 6~10번	④ 11번 이상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⑨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은 나를 이해해준다 [역코딩]	①	①	②	③	④
⑩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역코딩]	①	①	②	③	④
⑪ 내가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①	②	③	④
⑫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①	②	③	④

4-3. 다음은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 1개 선택]

4-3-1.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⑬으로 이동
- ② 아니다 → 4-4로 이동, ⑬~⑱까지 4점 부여

⑬ (대화 횟수) 지난 2주일간, 나는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과 대화(통화, 카톡, SNS 등)를 대략 <u>    </u> 번 나누었다 [역코딩]	① 0번	② 1~2번	③ 3~5번	④ 6~10번	⑤ 11번이상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⑭ 내가 무언가(이야기하기, 영화 보기, 밥 먹기 등)를 하고 싶을 때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⑮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은 나를 이해해준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⑯ 나는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⑰ 내가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⑱ 나는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단톡, SNS 등) 소외되는 기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4. 다음은 귀하의 학교 또는 일하는 곳(일터)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별 1개 선택]

4-4-1. 다음 중 자신의 현재 학업 상태와 가장 잘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 4-4-1-1의 ⑲-1번으로 이동
- ② 예전에 학교에 다녔다 → 4-4-1-2의 ⑲-2로 이동
- ③ 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전혀 없다 → 4-4-2로 이동

4-4-1-1. 현재 다니는 학교를 생각하며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⑲-1. 학교에서는 내가 공부하 서툴거나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는 편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⑳-1. 학교에는 나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㉑-1. 나는 우리 학급에 필요한 사람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㉒-1. 나는 함께 공부하는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기분을 느낀다 → ㉓번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⑤

4-4-1-2.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를 생각하며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⑱-2.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내가 공부 가 서툴거나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는 편이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⑳-2.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나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㉑-2. 나는 최근에 다녔던 학급에 필요한 사람이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㉒-2. 나는 최근에 다녔던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기분을 느꼈다 → ㉓번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⑤

4-4-2. 다음 중 자신의 현재 일하는 상태와 가장 잘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 4-4-2-1의 ⑱-3번으로 이동
- ②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없지만, 예전에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다 → 4-4-2-2의 ⑱-4번으로 이동
- ③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 4 5의 ㉓번으로 이동, ⑱~㉒까지 '2점' 부여

4-4-2-1. 현재 일하는 곳이나 아르바이트하는 곳을 생각하며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⑱-3. 일하는 곳에서는 내가 일이 서툴거나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는 편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⑳-3. 일하는 곳에는 나에게 일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㉑-3. 나는 일하는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㉒-3.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㉓번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⑤

4-4-2-2. 가장 최근에 일했던 곳이나 아르바이트 했던 곳을 생각하며 응답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⑱-4.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내가 일이 서툴거나 실수를 해도 이해해 주는 편이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⑳-4. 예전에 일했던 곳에는 나에게 일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㉑-4. 나는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㉒-4. 나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㉓번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⑤

4-5. 다음은 지역사회나 사회적 환경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별 1개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㉓ 개인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역코딩]	①	①	②	③	④
㉔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지원제도가 있다 [역코딩]	①	①	②	③	④
㉕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지원제도가 있다 [역코딩]	①	①	②	③	④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로직

[prog-1] 4 문항의 ①, ②, ⑧, ⑨, ⑩, ⑪,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역코딩 문항임.

[prog-2] 조사대상 선정 로직

구분	내용	조사대상 여부	본조사
은둔	(3=①~④)	조사대상	① 은둔 청소년용 조사 링크 발송
	&(3-1=⑤~⑥)		
고립	고립 고위험군 4의 합이 60~100점	조사대상	② 고립 청소년용 조사 링크 발송
	고립 위험군 4의 합이 44~59점		
고립 비위험군	4의 합이 43점 이하	비해당	

5. 이번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 ① 신문, 인터넷 뉴스 등 언론 기사를 보고
- ② 온라인 홍보물을 보고(어디에서: \_\_\_\_\_)
- ③ 종이,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보고(어디에서: \_\_\_\_\_)
- ④ 가족이나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을 통해(누구: \_\_\_\_\_)
- ⑤ 센터 등 기관의 소개(어디: \_\_\_\_\_)
- ⑥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셔서(어떤 선생님: \_\_\_\_\_)
- ⑦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을 통해
-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6. 다음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가족을 주로 돌보느라 학업, 아르바이트, 진로준비 등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부모가 내 이름을 가져다 쓰고 경제적 부담을 지워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라서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④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 기타 다른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다(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7. 장래희망이나 바램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은둔, 고립 위험군, 고립 고위험군]

귀하께서는 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에 참여하실 경우 설문을 완료한 응답자 모두에게 온라인 상품권(2,000원권)을, 고립 또는 은둔 청소년 각 1명(총 2명)에게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를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조사 참여링크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 개인의 이름과 문자 받으실 핸드폰 또는 이메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사 참여 링크를 2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가 없는 경우 보유기간이 끝나는대로 파기하겠습니다.

제공처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즈쿠파(주)다우기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조사 링크 발송 및 사전조사 답례품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 이메일 주소	2024년 9월 30일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동의함 \_\_\_\_\_

1.1) 이름 \_\_\_\_\_

※ 중복응답 방지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름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1.2) 핸드폰 연락처 (\_\_\_\_-\_\_\_\_-\_\_\_\_)

1.3) 이메일 연락처 (\_\_\_\_)@(\_\_\_\_)

[PROG: 핸드폰 또는 이메일 중 1개 이상 필수응답, 핸드폰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만 이메일로 링크 발송]

2) 동의하지 않음 \_\_\_\_\_,

[ 1) 동의함 선택 시 제시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본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일 이내에 문자로 본조사 참여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청소년정책 마련을 위해 본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 동의하지 않음 선택 시 제시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립 비위험군]**

귀하의 고립·은둔 상태는 '안전'으로, 본 조사 대상자는 아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온라인 상품권  
 (2,000원권)과 태블릿PC(1명)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품권은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 문자 받으실 핸드폰 연락처를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즈쿠파(주)다우기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답례품 발송	이름, 핸드폰 연락처	2024년 9월 30일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동의함 \_\_\_\_\_  
 1\_1) 이름 \_\_\_\_\_  
 ※ 중복응답 방지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름을 기재부탁 드리겠습니다.  
 1\_2) 핸드폰 연락처 (\_\_\_\_-\_\_\_\_-\_\_\_\_\_) \_\_\_\_\_  
 2) 동의하지 않음 \_\_\_\_\_

[ 동의여부 관계없이 모두 제시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종료 페이지]**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은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88번으로 전화하  
 시거나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https://www.cyber1388.kr>)로 접속하시면 청소년상  
 담사 선생님과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 조사)」 [19-24세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www.nypi.re.kr>)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누가 응답했는지 알 수 없게 처리한 후 연구 자료로 분석하거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소년의 어려움을 알고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돕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이 고립 청소년 또는 은둔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500명)과 태블릿PC(1명)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조사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고립 청소년 또는 은둔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하신 경우에 한해 본조사 설문지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별도의 위험과 부작용은 없지만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중단 이천까지 응답하신 데이터는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 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를 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주관:  여성가족부
-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02-3278-8595)으로 연락 주세요.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44-415-2188)에 연락주세요.

## <조사 동의표>

아래 내용을 읽고 각각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함	동의안함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2)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2)

[PROG: 모두 동의했을 경우 조사진행, 동의안함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조사 종료]

## 응답자 선정

1. 자신이 태어난 연도와 월을 적어 주세요

\_\_\_\_\_ 년 \_\_\_\_\_ 월 [prog: 각 월별로 아래 출생년월에 해당하는 연령만 조사 진행, 그 외 조사 비해당]

[비해당시 안내문구]  
 죄송합니다.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다시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시점	연령	출생년월	설문유형
2024년 5월	9~12세	2011년 6월~2015년 5월	9-12세용
	13~15세	2008년 6월~2011년 5월	13-18세용
	16~18세	2005년 6월~2008년 5월	
	19~24세	1999년 6월~2005년 5월	19-24세용
	조사종료	1999년 5월 이하, 2015년 6월 이상	
2024년 6월	9~12세	2011년 7월~2015년 6월	9-12세용
	13~15세	2008년 7월~2011년 6월	13-18세용
	16~18세	2005년 7월~2008년 6월	
	19~24세	1999년 7월~2005년 6월	19-24세용
	조사종료	1999년 6월 이하, 2015년 7월 이상	
2024년 7월	9~12세	2011년 8월~2015년 7월	9-12세용
	13~15세	2008년 8월~2011년 7월	13-18세용
	16~18세	2005년 8월~2008년 7월	
	19~24세	1999년 8월~2005년 7월	19-24세용
	조사종료	1999년 7월 이하, 2015년 8월 이상	

☞ 자신의 나이가 00~00세(만나이 기준)인가? 맞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틀린 경우 뒤로가기 버튼을 클릭 후 태어난 연도와 월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 태어난 달이 이번 달인 경우 생일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세요.

[PROG: '다음' 클릭 시 1.1. 연령 자동체크된 후 2번 문항으로 이동, '뒤로가기' 클릭 시 1. 태어난 연도와 월 문항 다시 제시]

1.1. 연령 [자동코딩]

- ① 9세-12세
- ② 13세-15세
- ③ 16세-18세
- ④ 19세-24세

[PROG: 1개의 URL로 접속 후 조사 안내글~1\_1까지는 응답. 1.1 응답에 따라 설문 3종(9-12세/13-18세/19-24세)으로 구분되어 링크 연결 후 2번부터 응답 시작]

2. 요즘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3. 다음 중 주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개 선택] [prog: 은둔청소년 if 3=①~④ & 3-1=⑤, ⑥]

- 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3-1로 이동
- ②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3-1로 이동
-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가까운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3-1로 이동
-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3-1로 이동
- 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⑥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⑦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일주일에 1~2일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⑧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4-1로 이동
- ⑨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으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4-1로 이동

3-1. 현재의 상태가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초·중·고등학교를 그만두어서
- ②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서
- ③ 원하는 일(진로, 직업, 취업 등)을 하기 어려워서
- ④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 ⑤ 병이 있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서
- ⑥ 갑작스런 임신·출산 때문에
- ⑦ 이사나 전학(편입 등)을 가게 되서
- ⑧ 가정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 ⑨ 코로나19로 인해
- ⑩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 ⑪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3-2. 현재의 상태가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개 선택]

- ① 1개월 미만
- ②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③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④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⑤ 1년 이상~2년 미만
- ⑥ 2년 이상~3년 미만
- ⑦ 3년 이상(구체적으로 \_\_\_\_\_ 년)

4-1. 다음은 전반적인 사회관계나 사회생활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별 1개 선택] [prog: 고립청소년 if 스크리닝 로직 참고]

① (만남 사람의 수) 지난 2주 동안, 나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략 ___ 명 만났다 [역코딩]	① 0명	② 1~2명	③ 3~5명	④ 6~10명	⑤ 11명 이상
② (만남 횟수) 지난 2주 동안, 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략 ___ 번 만났다 [역코딩]	① 0번	② 1~2번	③ 3~5번	④ 6~10번	⑤ 11번 이상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 나는 사람들과의 교류(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가 없거나 줄어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④ 나는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나는 앞으로 일(아르바이트, 취업, 창업 포함)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는 진로나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하다	①	②	③	④	⑤
⑦ 나는 다니는 학교나 일하는 곳(일터) 등 소속된 곳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①	②	③	④	⑤

4-2. 다음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 1개 선택]

4-2-1.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이상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⑧로 이동
- ② 아니다 → 4-3의 ⑬으로 이동, ⑧~⑫까지 4점 부여

⑧ (대화 횟수) 지난 2주 동안,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과 대화(통화, 카톡, SNS 등)를 대략 ___ 번 나누었다 [역코딩]	① 0번	② 1~2번	③ 3~5번	④ 6~10번	⑤ 11번이상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⑨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은 나를 이해해준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⑩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⑪ 내가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⑫ 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3. 다음은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별 1개 선택]

4-3-1.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 ⑬으로 이동
- ② 아니다 → 4-4-1로 이동, ⑬~⑰까지 4점 부여

⑬ (대화 횟수) 지난 2주일간, 나는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과 대화(통화, 카톡, SNS 등)를 대략 <u>    </u> 번 나누었다 [역코딩]	① 0번	② 1~2번	③ 3~5번	④ 6~10번	⑤ 11번이상
---	---------	-----------	-----------	------------	------------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⑭ 내가 무언가(이야기하기, 영화 보기, 밥 먹기 등)를 하고 싶을 때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친한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⑮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은 나를 이해해준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⑯ 나는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⑰ 내가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⑱ 나는 친구나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단톡, SNS 등)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4. 다음은 귀하의 학교 또는 일하는 곳(일터)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별 1개 선택]

4-4-1. 다음 중 자신의 현재 학업 상태와 가장 잘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 → 4-4-1-1의 ⑲-1번으로 이동
- ② 예전에 학교에 다녔다 → 4-4-1-2의 ⑲-2로 이동
- ③ 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전혀 없다 → 4-4-2로 이동

4-4-1-1. 현재 다니는 학교를 생각하며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⑲-1. 학교에서는 내가 공부하 서둘거나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는 편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⑳-1. 학교에는 나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㉑-1. 나는 우리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㉒-1. 나는 함께 공부하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 ㉓번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⑤

4-4-1-2.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를 생각하며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⑱-2.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내가 공부 가 서툴거나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는 편이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⑳-2. 가장 최근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나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㉑-2. 나는 최근에 다녔던 학교에 필요한 사람이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㉒-2. 나는 최근에 다녔던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 ㉓번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⑤

4-4-2. 다음 중 자신의 현재 일하는 상태와 가장 잘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 4-4-2-1의 ⑱-3번으로 이동
- ②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없지만, 예전에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 → 4-4-2-2의 ⑱-4번으로 이동
- ③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 4-5의 ㉓번으로 이동, ⑱~㉒까지 '2점' 부여

4-4-2-1. 현재 일하는 곳이나 아르바이트하는 곳을 생각하며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⑱-3. 일하는 곳에서는 내가 일이 서툴거나 실수를 해도 이해해주는 편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⑳-3. 일하는 곳에는 나에게 일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㉑-3. 나는 일하는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㉒-3.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 ㉓번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⑤

4-4-2-2. 가장 최근에 일했던 곳이나 아르바이트 했던 곳을 생각하며 응답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⑱-4.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내가 일이 서툴거나 실수를 해도 이해해 주는 편이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⑳-4. 예전에 일했던 곳에는 나에게 일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㉑-4. 나는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었다 [역코딩]	①	②	③	④	⑤
㉒-4. 나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 ㉓번으로 이동	①	②	③	④	⑤

4-5. 다음은 지역사회나 사회적 환경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별 1개 선택]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㉓ 개인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역코딩]	①	①	②	③	④
㉔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지원제도가 있다 [역코딩]	①	①	②	③	④
㉕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말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지원제도가 있다 [역코딩]	①	①	②	③	④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로직

[prog-1] 4 문항의 ①, ②, ⑧, ⑨, ⑩, ⑪,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역코딩 문항임.

[prog-2] 조사대상 선정 로직

구분	내용	조사대상 여부	본조사
은둔	(3=①~④)	조사대상	① 은둔 청소년용 조사 링크 발송
	&(3-1)=⑤~⑥)		
고립	고립 고위험군		4의 합이 60~100점
립	고립 위험군	4의 합이 44~59점	
	고립 비위험군	4의 합이 43점 이하	비해당

5. 이번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 ① 신문, 인터넷 뉴스 등 언론 기사를 보고
- ② 온라인 홍보물을 보고(어디에서: \_\_\_\_\_)
- ③ 종이,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보고(어디에서: \_\_\_\_\_)
- ④ 가족이나 가깝게 알고 지내는 사람을 통해(누구: \_\_\_\_\_)
- ⑤ 센터 등 기관의 소개(어디: \_\_\_\_\_)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6. 다음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가족을 주로 돌보느라 학업, 취업, 진로준비 등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② 부모의 빚을 떠안거나 부모가 내 앞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워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③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라서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④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자립지원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⑦ 기타 다른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다(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⑤

7. 장래희망이나 바램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은둔, 고립 위험군, 고립 고위험군]

귀하께서는 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사에 참여하실 경우 설문을 완료한 응답자 모두에게 온라인 상품권(2,000원권)을, 고립 또는 은둔 청소년 각 1명(총 2명)에게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조사 참여링크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 개인의 이름과 문자 받으실 핸드폰 또는 이메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사 참여 링크를 2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가 없는 경우 보유기간이 끝나는데대로 파기하겠습니다.

제공처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즈쿠파(주)다우기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조사 링크 발송 및 사전조사 답례품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 이메일 주소	2024년 9월 30일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동의함 \_\_\_\_\_

1.1) 이름 \_\_\_\_\_

※ 중복응답 방지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름을 기재 부탁드립니다.

1.2) 핸드폰 연락처 (\_\_\_\_-\_\_\_\_-\_\_\_\_)

1.3) 이메일 연락처 (\_\_\_\_)@(\_\_\_\_)

[PROG: 핸드폰 또는 이메일 중 1개 이상 필수응답, 핸드폰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만 이메일로 링크 발송]

2) 동의하지 않음 \_\_\_\_\_,

[ 1) 동의함 선택 시 제시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조사)에 참여해 주시고 본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일 이내에 문자로 본조사 참여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청소년정책 마련을 위해 본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 동의하지 않음 선택 시 제시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립 비위험군]

귀하의 고립·은둔 상태는 '안전'으로, 본 조사 대상자는 아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온라인 상품권  
 (2,000원권)과 태블릿PC(1명)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품권은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 문자 받으실 핸드폰 연락처를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즈쿠파(주)다우기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답례품 발송	이름, 핸드폰 연락처	2024년 9월 30일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동의함 \_\_\_\_\_  
 1\_1) 이름 \_\_\_\_\_  
 ※ 중복응답 방지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름을 기재부탁 드리겠습니다.  
 1\_2) 핸드폰 연락처 (\_\_\_\_-\_\_\_\_-\_\_\_\_)  
 2) 동의하지 않음 \_\_\_\_\_

[ 동의여부 관계없이 모두 제시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사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종료 페이지]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은 언제든지 국번 없이 1388번으로 전화하  
 시거나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https://www.cyber1388.kr>)로 접속하시면 청소년상  
 담사 선생님과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2. 본조사 설문지: 은둔형 청소년

### ① 은둔 청소년용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본조사)」 [9~12세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www.nypi.re.kr>)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조사 결과 **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돕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총 2분께 **태블릿PC**를 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별도의 위험과 부작용은 없지만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중단 이전까지 응답하신 데이터는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동계 조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를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주관:  **여성가족부**

□ 조사기관: **KMAC**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02-3278-8595)으로 연락 주세요.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44-415-2188)에 연락주세요.

**<조사 동의표>**  
아래 내용을 읽고 각각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함	동의안함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2)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2)

이번 조사에서는 사전조사에서 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거나 ②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거나,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응답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 경험

---

※ 다음은 삶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해주세요.

※ 자신이 현재 은둔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예 → 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아래 안내문 추가

※ 만약, 자신이 현재 은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자신이 응답한 “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거나 ②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거나,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는” 상태를 이 질문지에서는 은둔으로 ‘표현’ 한다고 생각하고 응답해 주세요.

1. 은둔하고 싶었던 생각이 처음 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1개 선택]

- ① 9세 미만
- ② 9세 이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연령)

2. 언제 처음으로 은둔하기 시작했나요? [1개 선택]

- ① 9세 미만
- ② 9세 이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연령)

3. 어떤 이유로 은둔하게 되었나요? 가장 중요한 순으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순위별 1개 선택]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가족관련 어려움
- ② 공부/학업관련 어려움
- ③ 진로/직업관련 어려움
- ④ 가정폭력, 학교폭력, 따돌림, 괴롭힘
- ⑤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
- ⑥ 건강상의 어려움
- ⑦ 게임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 ⑧ 특별한 이유는 없음
- ⑨ 기타

3-1. 가능하신 경우, 자신이 은둔하게 된 이유를 아래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침표만 적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 ③ 가족이 식사를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
- ④ 가족과 함께 먹는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8.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문항별 1개 선택]

문항	한 달에 한번	2~3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3일에 한번	매일
(1) 옷을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목욕/샤워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세수/양치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 정돈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잠자는 습관은 주로 어떤가요? [1개 선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자나요? [1개 선택]

- ① 4시간 미만
- ②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③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④ 12시간 이상

11.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신체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요? [1개 선택]

- ① 매우 안 좋음
- ② 안 좋음
- ③ 보통
- ④ 좋음
- ⑤ 매우 좋음

12.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요? [1개 선택]

- ① 매우 안 좋음
- ② 안 좋음
- ③ 보통
- ④ 좋음
- ⑤ 매우 좋음

13. 지난 7일 동안 다음의 감정을 얼마만큼 느꼈나요? [문항별 1개 선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외로움	①	②	③	④
(2)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움	①	②	③	④
(3) 아는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불안함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됨	①	②	③	④
(5)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①	②	③	④
(6)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가 있음	①	②	③	④

14.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③ 잘 모르겠음

15. 나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1개 선택]

문항	가족/ 친척	친구	그 외 (이웃 등)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2) 필요할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3) 실망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16. 나의 가족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항	있는 경우	사이가 아주 좋다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아주 나쁘다	
(1) 아버지	① 있다	(1_1) 나는 아버지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2)로					
(2) 어머니	① 있다	(2_1) 나는 어머니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3)으로					
(3) 형제·자매	① 있다	(3_1) 나는 형제·자매와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4)로					
(4) 그 외 가족 (구체적으로 _____)	① 있다	(4_1) 나는 그 외 가족과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17로					

## 생각과 욕구

※ 다음은 자신과 주변의 생각, 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 또는 적어주세요.

17. 가족들은 여러분의 은둔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1개 선택]

- ① 내가 은둔생활을 하는지 모름
- ② 나의 은둔생활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나의 은둔생활을 문제라고 생각함
- ④ 나의 은둔생활과 관련하여 갈등이 심각함
- ⑤ 나의 은둔생활을 알지만 별 관심이 없음

18.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개 선택]

- ① 은둔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② 은둔하고 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④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 ⑤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음

18-1.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19. 현재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있다 → 19-1로 이동
- ② 없다 → 20으로 이동

19-1. 현재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주로 어떤 시도를 했나요?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음
- ② 취미활동을 했음
- ③ 심리상담을 받음
- ④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음
- 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
- ⑥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 ⑦ 관련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음
- ⑧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터넷에 검색함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19-2.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지만,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온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은둔 생활을 벗어나는 데 효과가 없었음
- ②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③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④ 의논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음
- ⑤ 은둔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 ⑥ 기타(구체적으로: )

20. 은둔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주로 도움을 받았나요? [순위별 1개 선택]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없음 → 20-1로 이동
- ② 지자체·공공서의 도움(시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 20-2로 이동
- ③ 민간단체·기관의 도움(복지재단, 복지관 등) → 20-2로 이동
- ④ 종교기관의 도움 → 20-2로 이동
- 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 20-2로 이동
- ⑥ 인터넷 등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 → 20-2로 이동
- ⑦ 공공단체·공공기관의 도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20-2로 이동
- ⑧ 학교 선생님 또는 교수의 도움 → 20-2로 이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0-2로 이동

20-1. 은둔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받은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개 선택]

- 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 ② 도움받을 만한 지원 기관이 없어서
- ③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몰라서
- ④ 지원 기관이 멀리 있어서
- ⑤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21번으로 이동

20-2. 가능한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침표만 적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1.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도움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요? [문항별 1 개 선택]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①	②	③	④
(2) 일상생활 회복 지원	①	②	③	④
(3)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4) 같이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5)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①	②	③	④
(6) 또래, 멘토 등에 의한 상담·지지	①	②	③	④
(7) 교육·학습 지원	①	②	③	④
(8) 진로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9) 공동생활(규칙적인 생활 등)	①	②	③	④
(10)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11) 부모(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①	②	③	④

22. 이 외에 정부에서 은둔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 일반적 특성

※ 다음은 자신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 또는 적어주세요.

23.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    ② 여

24. 현재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1개 선택] [HQ 엑셀 파일 참고]

시/도	시/군/구
① 서울...⑰ 제주	① ...[prog: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 자동 제시]

25. 현재 여러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학교에 다닌다(휴학 포함) → 25-1번으로 이동
- ②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 25-2번으로 이동

25-1. 여러분이 현재 다니는 학교는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25-2.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1개 선택]

- ① 학교에 한번도 다닌 적이 없다
- ②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않았다
- ③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26.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1개 선택]

- ① 아니오
- ② 예

27.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나요? [1개 선택]

- ① 아니오 -> 28번으로 이동
- ② 예 -> 27-1번으로 이동

27-1. 처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때는 대략 몇 세 때였습니까?

- ① 대략 \_\_\_\_\_ 세
- ② 잘 모름

28.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1개 선택]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고시텔            ⑥ 아동·청소년시설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주세요. \_\_\_\_\_

※ 여성가족부는 올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 포스터 페이지 삽입 → 포스터 본 후 다음 질문으로

33.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 받기 원하시나요? [1개 선택]

- ① 예 → 33-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34번으로 이동

33-1. 관련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 안 함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정책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1년 이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 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앞으로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실시될 경우 다시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의하시면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있을 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연구 관련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2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5. 응답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분들 중 동의해 주신 모든 분께 2,000원권 온라인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총 2분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답례품은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답례품 발송 업무 위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나요?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비즈쿠파((주) 다우기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답례품 발송	핸드폰 연락처	2024.9.30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5-1. 답례품 수령 핸드폰 연락처: (        ) - (        ) - (        )

36. 마지막으로 은둔 청소년과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은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① 은둔 청소년용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본조사)」 [13-18세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www.nypi.re.kr>)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조사 결과 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돕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총 2분께 태블릿PC를 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별도의 위험과 부작용은 없지만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중단 이전까지 응답하신 데이터는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 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를 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주관:  여성가족부
-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02-3278-8595)으로 연락 주세요.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44-415-2188)에 연락주세요.

#### <조사 동의표>

이래 내용을 읽고 각각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함	동의안함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2)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2)

이번 조사에서는 사전조사에서 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거나 ②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거나,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 ③ 가족이 식사를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
- ④ 가족과 함께 먹는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8.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문항별 1개 선택]

문항	한 달에 한번	2~3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3일에 한번	매일
(1) 옷을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목욕/샤워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세수/양치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 정돈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잠자는 습관은 주로 어떤가요? [1개 선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자나요? [1개 선택]

- ① 4시간 미만
- ②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③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④ 12시간 이상

11.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신체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요? [1개 선택]

- ① 매우 안 좋음
- ② 안 좋음
- ③ 보통
- ④ 좋음
- ⑤ 매우 좋음

12.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요?[1개 선택]

- ① 매우 안 좋음
- ② 안 좋음
- ③ 보통
- ④ 좋음
- ⑤ 매우 좋음

13. 지난 7일 동안 다음의 감정을 얼마만큼 느꼈나요? [문항별 1개 선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외로움	①	②	③	④
(2)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움	①	②	③	④
(3) 아는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불안함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됨	①	②	③	④
(5)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①	②	③	④
(6)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가 있음	①	②	③	④

14.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③ 잘 모르겠음

15. 나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1개 선택]

문항	가족/ 친척	친구	그 외 (이웃 등)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2) 필요할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3) 실망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16. 나의 가족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항	있는 경우	사이가 아주 좋다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아주 나쁘다	
(1) 아버지	① 있다	(1_1) 나는 아버지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2)로					
(2) 어머니	① 있다	(2_1) 나는 어머니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3)으로					
(3) 형제·자매	① 있다	(3_1) 나는 형제·자매와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4)로					
(4) 그 외 가족 (구체적으로 _____)	① 있다	(4_1) 나는 그 외 가족과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17로					

## 생각과 욕구

※ 다음은 자신과 주변의 생각, 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 또는 적어주세요.

17. 가족들은 여러분의 은둔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1개 선택]

- ① 내가 은둔생활을 하는지 모름
- ② 나의 은둔생활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나의 은둔생활을 문제라고 생각함
- ④ 나의 은둔생활과 관련하여 갈등이 심각함
- ⑤ 나의 은둔생활을 알지만 별 관심이 없음

18.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개 선택]

- ① 은둔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② 은둔하고 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④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 ⑤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음

18-1.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19. 현재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있다 → 19-1로 이동
- ② 없다 → 20으로 이동

19-1. 현재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주로 어떤 시도를 했나요?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음
- ② 취미활동을 했음
- ③ 심리상담을 받음
- ④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음
- 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
- ⑥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 ⑦ 관련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음
- ⑧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터넷에 검색함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19-2.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지만,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온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은둔 생활을 벗어나는 데 효과가 없었음
- ②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③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④ 의논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음
- ⑤ 은둔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 ⑥ 기타(구체적으로: )

20. 은둔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주로 도움을 받았나요? [순위별 1개 선택]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없음 → 20-1로 이동
  - ② 지자체·공공서의 도움(시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 20-2로 이동
  - ③ 민간단체·기관의 도움(복지재단, 복지관 등) → 20-2로 이동
  - ④ 종교기관의 도움 → 20-2로 이동
  - 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 20-2로 이동
  - ⑥ 인터넷 등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 → 20-2로 이동
  - ⑦ 공공단체·공공기관의 도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20-2로 이동
  - ⑧ 학교 선생님 또는 교수의 도움 → 20-2로 이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0-2로 이동

20-1. 은둔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받은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개 선택]

- 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 ② 도움받을 만한 지원 기관이 없어서
- ③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몰라서
- ④ 지원 기관이 멀리 있어서
- ⑤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1번으로 이동

20-2. 가능한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침표만 적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1.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도움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요? [문항별 1 개 선택]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①	②	③	④
(2) 일상생활 회복 지원	①	②	③	④
(3)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4) 같이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5)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①	②	③	④
(6) 또래, 멘토 등에 의한 상담·지지	①	②	③	④
(7) 교육·학습 지원	①	②	③	④
(8) 진로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9) 공동생활(규칙적인 생활 등)	①	②	③	④
(10)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11) 부모(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①	②	③	④

22. 이 외에 정부에서 은둔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 일반적 특성

※ 다음은 자신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 또는 적어주세요.

23.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    ② 여

24. 현재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1개 선택] [HQ 엑셀 파일 참고]

시/도	시/군/구
① 서울...⑰ 제주	① ...[prog: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 자동 제시]

25. 현재 여러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학교에 다니다(휴학 포함) → 25-1번으로 이동
- ②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 25-2번으로 이동

25-1. 여러분이 현재 다니는 학교는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③ (전문)대학교

25-2.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1개 선택]

- ① 학교에 한번도 다닌 적이 없다
- ②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않았다
- ③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 ④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다
- ③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 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교에 가지 않았다
- ⑤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 ⑦ (전문)대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26.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1개 선택]

- ① 아니오
- ② 예

27.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나요? [1개 선택]

- ① 아니오 → 28번으로 이동
- ② 예 → 27-1번으로 이동

27-1. 처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때는 대략 몇 세 때였습니까?

- ① 대략 \_\_\_\_\_ 세
- ② 잘 모름

28.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1개 선택]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고시텔            ⑥ 아동·청소년시설
- ⑦ 기타(구체적으로:                      )

29. 현재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시나요? 모두 선택해주세요. [모두 선택]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 ⑤ 형제·자매                                  ⑥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이성 친구
- ⑦ 나의 이성 친구 또는 배우자            ⑧ 조부모 이외의 친척(이모, 삼촌 등)
- ⑨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⑩ 동성 친구
- ⑪ 시설의 선생님                              ⑫ 위탁가정의 보호자
- ⑬ 혼자 생활(=1인 가구)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0. 지난주에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했나요? [1개 선택]

- ① 일을 하였다(프리랜서, 배달, 알바 등 포함)
- ② 일을 하지 않았다

31. 자신이 생각하시기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떠한가요? [1개 선택]

- ① 높은 편이다 ② 약간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 편이다

32.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용해보신 경우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문항	경험	이용해보신 경우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1) 청소년수련관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2) 청소년문화의집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3) 청소년수련원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4) 유스호텔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6) 청소년동반자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7) 청소년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8) 청소년자립지원관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1)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2)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디딤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4) 기타 청소년 기관이나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_____) ※ 가장 많이 이용해본 곳 1개만 적어 주세요.	② 아니오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 여성가족부는 올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 포스터 페이지 삽입 → 포스터 본 후 다음 질문으로

33.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 받기 원하시나요? [1개 선택]

- ① 예 → 33-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34번으로 이동

33-1. 관련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 안 함

제공받는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능력협회컨설팅	정책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1년 이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 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앞으로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실시될 경우 다시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의하시면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있을 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연구 관련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2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5. 응답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분들 중 동의해 주신 모든 분께 2,000원권 온라인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총 2분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답례품은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답례품 발송 업무 위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나요?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비즈쿠파((주) 다우기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답례품 발송	핸드폰 연락처	2024.9.30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5-1. 답례품 수령 핸드폰 연락처: (     ) - (     ) - (     )

36. 마지막으로 은둔 청소년과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은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① 은둔 청소년용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본조사)」 [19-24세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www.nypi.re.kr>)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조사 결과 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돕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총 2분께 태블릿PC를 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별도의 위험과 부작용은 없지만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중단 이천까지 응답하신 데이터는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 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를 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주관:  여성가족부
-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02-3278-8595)으로 연락 주세요.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44-415-2188)에 연락주세요.

#### <조사 동의표>

이래 내용을 읽고 각각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함	동의안함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2)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2)

이번 조사에서는 사전조사에서 ①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거나 ②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하거나,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 ③ 가족이 식사를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
- ④ 가족과 함께 먹는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8.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문항별 1개 선택]

문항	한 달에 한번	2~3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3일에 한번	매일
(1) 옷을 갈아입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목욕/샤워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세수/양치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방의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 정돈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잠자는 습관은 주로 어떤가요? [1개 선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잠을 설치는 것 없이 잘 자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자나요? [1개 선택]

- ① 4시간 미만
- ②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③ 8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④ 12시간 이상

11.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신체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요? [1개 선택]

- ① 매우 안 좋음
- ② 안 좋음
- ③ 보통
- ④ 좋음
- ⑤ 매우 좋음

12.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떠한가요?[1개 선택]

- ① 매우 안 좋음
- ② 안 좋음
- ③ 보통
- ④ 좋음
- ⑤ 매우 좋음

13. 지난 7일 동안 다음의 감정을 얼마만큼 느꼈나요? [문항별 1개 선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외로움	①	②	③	④
(2)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움	①	②	③	④
(3) 아는 사람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불안함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됨	①	②	③	④
(5)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	①	②	③	④
(6) 절망적인 기분이 들 때가 있음	①	②	③	④

14.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있었음
- ② 없었음
- ③ 잘 모르겠음

15. 나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1개 선택]

문항	가족/ 친척	친구	그 외 (이웃 등)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2) 필요할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3) 실망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16. 나의 가족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항	있는 경우	사이가 아주 좋다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아주 나쁘다	
(1) 아버지	① 있다	(1_1) 나는 아버지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2)로					
(2) 어머니	① 있다	(2_1) 나는 어머니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3)으로					
(3) 형제·자매	① 있다	(3_1) 나는 형제·자매와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4)로					
(4) 그 외 가족 (구체적으로 _____)	① 있다	(4_1) 나는 그 외 가족과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17로					

## 생각과 욕구

\* 다음은 자신과 주변의 생각, 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 또는 적어주세요.

17. 가족들은 여러분의 은둔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1개 선택]

- ① 내가 은둔생활을 하는지 모름
- ② 나의 은둔생활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나의 은둔생활을 문제라고 생각함
- ④ 나의 은둔생활과 관련하여 갈등이 심각함
- ⑤ 나의 은둔생활을 알지만 별 관심이 없음

18.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개 선택]

- ① 은둔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② 은둔하고 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④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 ⑤ 별로 생각해보는 적이 없음

18-1.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19. 현재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있다 → 19-1로 이동
- ② 없다 → 20으로 이동

19-1. 현재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주로 어떤 시도를 했나요?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음
- ② 취미활동을 했음
- ③ 심리상담을 받음
- ④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음
- 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
- ⑥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 ⑦ 관련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음
- ⑧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터넷에 검색함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19-2. 은둔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지만,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온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은둔 생활을 벗어나는 데 효과가 없었음
- ②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③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④ 의논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음
- ⑤ 은둔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 ⑥ 기타(구체적으로: )

20. 은둔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주로 도움을 받았나요? [순위별 1개 선택]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없음 → 20-1로 이동
  - ② 지자체·관공서의 도움(시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 20-2로 이동
  - ③ 민간단체·기관의 도움(복지재단, 복지관 등) → 20-2로 이동
  - ④ 종교기관의 도움 → 20-2로 이동
  - 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 20-2로 이동
  - ⑥ 인터넷 등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 → 20-2로 이동
  - ⑦ 공공단체·공공기관의 도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20-2로 이동
  - ⑧ 학교 선생님 또는 교수의 도움 → 20-2로 이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0-2로 이동

20-1. 은둔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받은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개 선택]

- 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 ② 도움받을 만한 지원 기관이 없어서
- ③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몰라서
- ④ 지원 기관이 멀리 있어서
- ⑤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1번으로 이동

20-2. 가능한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침표만 적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1. 은둔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도움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요? [문항별 1 개 선택]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①	②	③	④
(2) 일상생활 회복 지원	①	②	③	④
(3)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4) 같이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5)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①	②	③	④
(6) 또래, 멘토 등에 의한 상담·지지	①	②	③	④
(7) 교육·학습 지원	①	②	③	④
(8) 진로활동, 취업(정보)·일 경험 지원	①	②	③	④
(9) 공동생활(규칙적인 생활 등)	①	②	③	④
(10)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11) 부모(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①	②	③	④

22. 이 외에 정부에서 은둔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 일반적 특성

※ 다음은 자신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 또는 적어주세요.

23.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    ② 여

24. 현재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1개 선택] [HQ 엑셀 파일 참고]

시/도	시/군/구
① 서울...⑰ 제주	① ...[prog: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 자동 제시]

25. 현재 여러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학교에 다닌다(휴학 포함) → 25-1번으로 이동
- ②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 25-2번으로 이동

25-1. 여러분이 현재 다니는 학교는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전문)대학교
- ⑤ 대학원(석사, 박사)

25-2.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1개 선택]

- ① 학교에 한번도 다닌 적이 없다
- ②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않았다
- ③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 ④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다
- ⑤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 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교에 가지 않았다
- ⑦ (전문)대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 ⑧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석사, 박사)에 가지 않았다
- ⑨ 대학원을 다니다 그만두었다
- ⑩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6.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1개 선택]

- ① 아니오
- ② 예

27.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나요? [1개 선택]

- ① 아니오 → 28번으로 이동
- ② 예 → 27-1번으로 이동

27-1. 처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때는 대략 몇 살 때였습니까?

- ① 대략 \_\_\_\_\_ 살
- ② 잘 모름

28.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1개 선택]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고시텔            ⑥ 아동·청소년시설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9. 현재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시나요? 모두 선택해주세요. [모두 선택]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형제·자매                          ⑥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이성 친구  
 ⑦ 나의 이성 친구 또는 배우자      ⑧ 조부모 이외의 친척(이모, 삼촌 등)  
 ⑨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⑩ 동성 친구  
 ⑪ 시설의 선생님                      ⑫ 위탁가정의 보호자  
 ⑬ 혼자 생활(=1인 가구)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30. 지난주에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했나요? [1개 선택]

- ① 일을 하였다(프리랜서, 배달, 알바 등 포함)  
 ② 일을 하지 않았다

31. 자신이 생각하시기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떠한가요? [1개 선택]

- ① 높은 편이다 ② 약간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 편이다

32.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용해보신 경우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군항	경험	이용해보신 경우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1) 청소년수련관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2) 청소년문화의집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3) 청소년수련원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4) 유스호스텔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6) 청소년동반자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7) 청소년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8) 청소년자립지원관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1)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2)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디딤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4) 기타 청소년 기관이나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_____) * 가장 많이 이용해본 곳 1개만 적어 주세요.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 여성가족부는 올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 포스터 페이지 삽입 → 포스터 본 후 다음 질문으로

33.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 받기 원하시나요? [1개 선택]

- ① 예 → 33-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34번으로 이동

33-1. 관련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 안 함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능력협회컨설팅	정책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1년 이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 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앞으로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실시될 경우 다시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의하시면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있을 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연구 관련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2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5. 응답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분들 중 동의해 주신 모든 분께 2,000원권 온라인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총 2분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답례품은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답례품 발송 업무 위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나요?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비즈쿠파(주) 다우기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답례품 발송	핸드폰 연락처	2024.9.30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5-1. 답례품 수령 핸드폰 연락처: (        ) - (        ) - (        )

36. 마지막으로 은둔 청소년과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은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3. 본조사 설문지: 고립형 청소년

#### ② 고립 청소년용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본조사)」<sup>[9-12세용]</sup>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www.nypi.re.kr>)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조사 결과 **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돕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총 2분께 **태블릿PC**를 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별도의 위험과 부작용은 없지만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중단 이전까지 응답하신 데이터는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 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를 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주관:  여성가족부

□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02-3278-8595)으로 연락 주세요.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44-415-2188)에 연락주세요.

<조사 동의표>

아래 내용을 읽고 각각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함	동의안함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2)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2)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① 사람을 적게 만나거나 ②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③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고 응답한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 다른 설명이 없는 경우, 응답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 경험

---

※ 다음은 삶에 대한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해주세요.

※ 자신이 현재 고립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예 → 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아래 안내문 추가

※ 만약, 자신이 현재 고립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자신이 응답한 “① 사람을 적게 만나거나 ②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③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는” 정도를 이 질문지에서는 고립으로 ‘표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1. 언제 처음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나요? [1개 선택]

- ① 9세 미만
- ② 9세 이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연령)

2. 어떤 이유로 고립하게 되었나요? 가장 중요한 순으로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순위별 1개 선택]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가족관련 어려움
- ② 공부/학업관련 어려움
- ③ 진부/직업관련 어려움
- ④ 가정폭력, 학교폭력, 따돌림, 괴롭힘
- ⑤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
- ⑥ 건강상의 어려움
- ⑦ 게임 등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 ⑧ 특별한 이유는 없음
- ⑨ 기타

2-1. 가능한한 경우, 자신이 고립하게 된 이유를 아래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침표만 적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2. 현재 고립을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있는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 이제까지 고립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총 얼마나 되나요? [1개 선택]

- ① 1개월 미만
- ②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 ③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④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⑤ 1년 이상~2년 미만
- ⑥ 2년 이상~3년 미만
- ⑦ 3년 이상(구체적으로 \_\_\_\_ 년)

3-1. 이번이 처음 고립된 건가요? [1개 선택]

- ① 그렇다 → 4번으로 이동
- ② 아니다 → 3-2번으로 이동

3-2. 과거에 은둔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1개 선택]

은둔이란 ①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거나 ②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거나 ③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하거나, ④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 생활만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있다
- ② 없다

4. 고립하는 동안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순위별 1개 선택]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TV 시청
- ② PC/모바일 게임
- ③ SNS, 커뮤니티 등 활동
- ④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시청
- ⑤ 돈을 벌기 위한 다양한 활동(블로그, 투자, 일하기, 일자리 찾기 등)
- ⑥ 운동 등 취미활동
- ⑦ 잠
- ⑧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음(누워있기 등)
- ⑨ 공부
- ⑩ 관심 분야 정보 검색
- ⑪ 기타(구체적으로:\_\_\_\_\_)

5. 식사 생활은 주로 어떤가요? [1개 선택]

- ① 하루 1~3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편이다
- ② 시간에 상관없이 배고플 때 먹는 편이다
- ③ 배가 불러도 불쾌할 때까지 먹는 편이다
- ④ 배가 고파도 잘 먹지 않는 편이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

6. 식사를 주로 어떻게 하나요? [1개 선택]

- ① 직접 차려서 혼자 먹는다
- ② 배달시켜서 혼자 먹는다
- ③ 가족이 식사를 차려 놓으면 혼자 먹는다
- ④ 가족과 함께 먹는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



14. 나에게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1개 선택]

문항	가족/ 친척	친구	그 외 (이웃 등)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2) 필요할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3) 실망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15. 나의 가족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항	있는 경우	사이가 아주 좋다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아주 나쁘다	
(1) 아버지	① 있다	(1.1) 나는 아버지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2)로					
(2) 어머니	① 있다	(2.1) 나는 어머니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3)으로					
(3) 형제·자매	① 있다	(3.1) 나는 형제·자매와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4)로					
(4) 그 외 가족 (구체적으로 _____)	① 있다	(4.1) 나는 그 외 가족과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17로					

## 생각과 욕구

※ 다음은 자신과 주변의 생각, 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 또는 적어주세요.

16. 가족들은 여러분의 고립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1개 선택]

- ① 내가 고립생활을 하는지 모름
- ② 나의 고립생활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나의 고립생활을 문제라고 생각함
- ④ 나의 고립생활과 관련하여 갈등이 심각함
- ⑤ 나의 고립생활을 알지만 별 관심이 없음

17.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개 선택]

- ① 고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② 고립하고 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④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 ⑤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음

17-1.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18. 현재 고립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있다 → 18-1로 이동
- ② 없다 → 19로 이동

19-1. 현재 고립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주로 어떤 시도를 했나요?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음
- ② 취미활동을 했음
- ③ 심리상담을 받음
- ④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음
- 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
- ⑥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 ⑦ 관련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음
- ⑧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터넷에 검색함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18-2. 고립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지만, 다시 고립 생활로 돌아온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고립 생활을 벗어나는 데 효과가 없었음
- ②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③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④ 의논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음
- ⑤ 고립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 ⑥ 기타(구체적으로: )

19.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주로 도움을 받았나요? [순위별 1개 선택]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없음 → 19-1로 이동
  - ② 지자체·관공서의 도움(시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 19-2로 이동
  - ③ 민간단체·기관의 도움(복지재단, 복지관 등) → 19-2로 이동
  - ④ 종교기관의 도움 → 19-2로 이동
  - 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 19-2로 이동
  - ⑥ 인터넷 등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 → 19-2로 이동
  - ⑦ 공공단체·공공기관의 도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19-2로 이동

- ⑧ 학교 선생님 또는 교수님의 도움 → 19-2로 이동
-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9-2로 이동

19-1.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받은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항별 1 개 선택]

- 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 ② 도움받을 만한 지원 기관이 없어서
- ③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몰라서
- ④ 지원 기관이 멀리 있어서
- ⑤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0번으로 이동

19-2. 가능하신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침표만 적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0. 고립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도움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요? [문항별 1 개 선택]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①	②	③	④
(2) 일상생활 회복 지원	①	②	③	④
(3)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4) 같이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5)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①	②	③	④
(6) 또래, 멘토 등에 의한 상담·지지	①	②	③	④
(7) 교육·학습 지원	①	②	③	④
(8) 신노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9) 공동생활(규칙적인 생활 등)	①	②	③	④
(10)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11) 부모(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①	②	③	④

21. 이 외에 정부에서 고립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 일반적 특성

※ 다음은 자신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 또는 적어주세요.

22.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    ② 여

23. 현재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1개 선택]

시/도	시/군/구
① 서울...⑰ 제주	① ...[prog: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 자동 제시]

24. 현재 여러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학교에 다닌다(휴학 포함) → 24-1번으로 이동
- ②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 24-2번으로 이동

24-1. 여러분이 현재 다니는 학교는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24-2.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1개 선택]

- ① 학교에 한번도 다닌 적이 없다
- ②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않았다
- ③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25.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1개 선택]

- ① 아니오
- ② 예

26.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나요? [1개 선택]

- ① 아니오 -> 27번으로 이동
- ② 예 -> 26-1번으로 이동

26-1. 처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때는 대략 몇 세 때였습니까?

- ① 대략 \_\_\_\_\_ 세
- ② 잘 모름

27.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1개 선택]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고시텔              ⑥ 아동·청소년시설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주세요.					
------	--	--	--	--	--

※ 여성가족부는 올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 포스터 페이지 삽입 → 포스터 본 후 다음 질문으로

32.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 받기 원하시나요? [1개 선택]

- ① 예 → 32-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요 → 33번으로 이동

32-1. 관련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 안 함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정책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1년 이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 고립 청소년을 대상으로 앞으로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실시될 경우 다시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의하시면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있을 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연구 관련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2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 응답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분들 중 동의해 주신 모든 분께 2,000원권 온라인

인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총 2분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답례품은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답례품 발송 업무 위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나요?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비즈쿠파((주) 다우기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답례품 발송	핸드폰 연락처	2024.9.30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1. 답례품 수령 핸드폰 연락처: (        ) - (        ) - (        )

35. 마지막으로 고립 청소년과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고립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립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② 고립 청소년용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본조사)」<sup>[13-18세용]</sup>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www.nypi.re.kr>)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조사 결과 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돕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총 2분께 태블릿PC를 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별도의 위험과 부작용은 없지만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중단 이전까지 응답하신 데이터는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 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를 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주관:  여성가족부
-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02-3278-8595)으로 연락 주세요.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44-415-2188)에 연락주세요.

#### <조사 동의표>

이래 내용을 읽고 각각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함	동의안함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2)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2)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① 사람을 적게 만나거나 ②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③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고 응답한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문항	가족/ 친척	친구	그 외 (아웃 등)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2) 필요할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3) 실망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15. 나의 가족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항		있는 경우	사이가 아주 좋다	사이가 좋다	사이가 중지도 나쁘지도 않다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아주 나쁘다
(1) 아버지	① 있다	(1_1) 나는 아버지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2)로					
(2) 어머니	① 있다	(2_1) 나는 어머니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3)으로					
(3) 형제·자매	① 있다	(3_1) 나는 형제·자매와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4)로					
(4) 그 외 가족 (구체적으로 _____)	① 있다	(4_1) 나는 그 외 가족과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17로					

## 생각과 욕구

※ 다음은 자신과 주변의 생각, 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 또는 적어주세요.

16. 가족들은 여러분의 고립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1개 선택]

- ① 내가 고립생활을 하는지 모름
- ② 나의 고립생활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나의 고립생활을 문제라고 생각함
- ④ 나의 고립생활과 관련하여 갈등이 심각함
- ⑤ 나의 고립생활을 알지만 별 관심이 없음

17.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개 선택]

- ① 고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② 고립하고 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④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⑤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음

17-1.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18. 현재 고립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있다 → 18-1로 이동
- ② 없다 → 19로 이동

18-1. 현재 고립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주로 어떤 시도를 했나요?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음
- ② 취미활동을 했음
- ③ 심리상담을 받음
- ④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음
- 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
- ⑥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 ⑦ 관련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음
- ⑧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터넷에 검색함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18-2. 고립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지만, 다시 고립 생활로 돌아온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고립 생활을 벗어나는 데 효과가 없었음
- ②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③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④ 의논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음
- ⑤ 고립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 ⑥ 기타(구체적으로: )

19.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주로 도움을 받았나요? [순위별 1개 선택]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없음 → 19-1로 이동
  - ② 지자체·관공서의 도움(시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 19-2로 이동
  - ③ 민간단체·기관의 도움(복지재단, 복지관 등) → 19-2로 이동
  - ④ 종교기관의 도움 → 19-2로 이동
  - 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 19-2로 이동
  - ⑥ 인터넷 등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 → 19-2로 이동
  - ⑦ 공공단체·공공기관의 도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19-2로 이동
  - ⑧ 학교 선생님 또는 교수의 도움 → 19-2로 이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9-2로 이동

19-1.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받은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항별 1 개 선택]

- 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 ② 도움받을 만한 지원 기관이 없어서
- ③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몰라서
- ④ 지원 기관이 멀리 있어서
- ⑤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0번으로 이동

19-2. 가능한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침표만 적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0. 고립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도움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요? [문항별 1 개 선택]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눈치 보지 않고 둘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①	②	③	④
(2) 일상생활 회복 지원	①	②	③	④
(3)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4) 같이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5)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①	②	③	④
(6) 또래, 멘토 등에 의한 상담·지지	①	②	③	④
(7) 교육·학습 지원	①	②	③	④
(8) 진로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9) 공동생활(규칙적인 생활 등)	①	②	③	④
(10)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11) 부모(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①	②	③	④

21. 이 외에 정부에서 고립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27.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1개 선택]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고시텔              ⑥ 아동·청소년시설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8. 현재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시나요? 모두 선택해주세요. [모두 선택]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형제·자매                              ⑥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이성 친구  
 ⑦ 나의 이성 친구 또는 배우자      ⑧ 조부모 이외의 친척(이모, 삼촌 등)  
 ⑨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⑩ 동성 친구  
 ⑪ 시설의 선생님                              ⑫ 위탁가정의 보호자  
 ⑬ 혼자 생활(=1인 가구)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9. 지난주에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했나요? [1개 선택]

- ① 일을 하였다(프리랜서, 배달, 알바 등 포함)  
 ② 일을 하지 않았다

30. 자신이 생각하시기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떠한가요? [1개 선택]

- ① 높은 편이다 ② 약간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 편이다

31.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용해보신 경우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군항	경험	이용해보신 경우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1) 청소년수련관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2) 청소년문화의집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3) 청소년수련원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4) 유스호텔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6) 청소년동반자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7) 청소년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8) 청소년자립지원관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1)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2)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디딤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4) 기타 청소년 기관이나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_____) * 가장 많이 이용해본 곳 1개만 적어 주세요.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 여성가족부는 올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고립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 포스터 페이지 삽입 → 포스터 본 후 다음 질문으로

32.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 받기 원하시나요? [1개 선택]

- ① 예 → 32-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33번으로 이동

32-1. 관련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 안 함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능력협회컨설팅	정책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1년 이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 고립 청소년을 대상으로 앞으로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실시될 경우 다시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의하시면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있을 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연구 관련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2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 응답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분들 중 동의해 주신 모든 분께 2,000원권 온라인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총 2분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답례품은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답례품 발송 업무 위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나요?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비즈쿠파((주) 다우기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답례품 발송	핸드폰 연락처	2024.9.30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1. 답례품 수령 핸드폰 연락처: (        ) - (        ) - (        )

35. 마지막으로 고립 청소년과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고립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립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② 고립 청소년용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본조사)」<sup>[19-24세용]</sup>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http://www.nypi.re.kr>)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청소년에게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전국의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전조사 결과 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돕는데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2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총 2분께 태블릿PC를 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따라 예상되는 별도의 위험과 부작용은 없지만 연구 참여에 동의 하신 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중단하실 수 있으며, 중단 이전까지 응답하신 데이터는 기록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 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를 하신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하겠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공동주관:  여성가족부
- 조사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02-3278-8595)으로 연락 주세요.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대상자로서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044-415-2188)에 연락주세요.

#### <조사 동의표>

이래 내용을 읽고 각각의 사항에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함	동의안함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2)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2)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1)	2)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① 사람을 적게 만나거나 ②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③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고 응답한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문항	가족/ 친척	친구	그 외 (아웃 등)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2) 필요할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3) 실망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15. 나의 가족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항	있는 경우	사이가 아주 좋다	사이가 좋다	사이가 중지도 나쁘지도 않다	사이가 나쁘다	사이가 아주 나쁘다	
(1) 아버지	① 있다	(1.1) 나는 아버지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2)로					
(2) 어머니	① 있다	(2.1) 나는 어머니와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3)으로					
(3) 형제·자매	① 있다	(3.1) 나는 형제·자매와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4)로					
(4) 그 외 가족 (구체적으로 _____)	① 있다	(4.1) 나는 그 외 가족과 대체로	①	②	③	④	⑤
	② 없다	→ 17로					

## 생각과 욕구

※ 다음은 자신과 주변의 생각, 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 또는 적어주세요.

16. 가족들은 여러분의 고립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1개 선택]

- ① 내가 고립생활을 하는지 모름
- ② 나의 고립생활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나의 고립생활을 문제라고 생각함
- ④ 나의 고립생활과 관련하여 갈등이 심각함
- ⑤ 나의 고립생활을 알지만 별 관심이 없음

17. 자신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개 선택]

- ① 고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② 고립하고 있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 ③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④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⑤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음

17-1.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18. 현재 고립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나요? [1개 선택]

- ① 있다 → 18-1로 이동
- ② 없다 → 19로 이동

18-1. 현재 고립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주로 어떤 시도를 했나요? 있는 대로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일이나 공부를 시작했음
- ② 취미활동을 했음
- ③ 심리상담을 받음
- ④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음
- 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
- ⑥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 ⑦ 관련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음
- ⑧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터넷에 검색함
- ⑨ 기타 (구체적으로: )

18-2. 고립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지만, 다시 고립 생활로 돌아온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고립 생활을 벗어나는 데 효과가 없었음
- ② 힘들고 지쳐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③ 돈이나 시간 등이 부족해서 계속할 수 없었음
- ④ 의논하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었음
- ⑤ 고립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 ⑥ 기타(구체적으로: )

19.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누구에게 주로 도움을 받았나요? [순위별 1개 선택]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없음 → 19-1로 이동
  - ② 지자체·관공서의 도움(시군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 19-2로 이동
  - ③ 민간단체·기관의 도움(복지재단, 복지관 등) → 19-2로 이동
  - ④ 종교기관의 도움 → 19-2로 이동
  - 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 19-2로 이동
  - ⑥ 인터넷 등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 → 19-2로 이동
  - ⑦ 공공단체·공공기관의 도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19-2로 이동
  - ⑧ 학교 선생님 또는 교수님의 도움 → 19-2로 이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19-2로 이동

19-1.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받은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항별 1 개 선택]

- ①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 ② 도움받을 만한 지원 기관이 없어서
- ③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을 몰라서
- ④ 지원 기관이 멀리 있어서
- ⑤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0번으로 이동

19-2. 가능한 경우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마침표만 적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0. 고립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도움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요? [문항별 1 개 선택]

문항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별로 필요하지 않음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	①	②	③	④
(2) 일상생활 회복 지원	①	②	③	④
(3) 혼자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4) 같이 하는 취미·문화·체육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5) 전문가에 의한 상담·치료	①	②	③	④
(6) 또래, 멘토 등에 의한 상담·지지	①	②	③	④
(7) 교육·학습 지원	①	②	③	④
(8) 진로활동, 취업(정보)·일 경험 지원	①	②	③	④
(9) 공동생활(규칙적인 생활 등)	①	②	③	④
(10)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11) 부모(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①	②	③	④

21. 이 외에 정부에서 고립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세요.

## 일반적 특성

※ 다음은 자신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내용에 표시 또는 적어주세요.

22.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    ② 여

23. 현재 사는 곳은 어디인가요? [1개 선택] [HQ 엑셀 파일 참고]

시/도	시/군/구
① 서울...⑰ 제주	① ...[prog: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자치단체 자동 제시]

24. 현재 여러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학교에 다닌다(휴학 포함) → 24-1번으로 이동
- ②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 24-2번으로 이동

24-1. 여러분이 현재 다니는 학교는 무엇인가요? [1개 선택]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전문)대학교
- ⑤ 대학원(석사, 박사)

24-2.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1개 선택]

- ① 학교에 한번도 다닌 적이 없다
- ②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않았다.
- ③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 ④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지 않았다
- ⑤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 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교에 가지 않았다
- ⑦ (전문)대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
- ⑧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석사, 박사)에 가지 않았다
- ⑨ 대학원을 다니다 그만두었다
- ⑩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5.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1개 선택]

- ① 아니오
- ② 예

26.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나요? [1개 선택]

- ① 아니오 → 27번으로 이동
- ② 예 → 26-1번으로 이동

26-1. 처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때는 대략 몇 세 때였습니까?

- ① 대략 \_\_\_\_\_ 세
- ② 잘 모름

27.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1개 선택]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④ 오피스텔                      ⑤ 고시원, 고시텔                      ⑥ 아동·청소년시설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8. 현재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시나요? 모두 선택해주세요. [모두 선택]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할아버지                      ④ 할머니  
 ⑤ 형제·자매                      ⑥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이성 친구  
 ⑦ 나의 이성 친구 또는 배우자                      ⑧ 조부모 이외의 친척(이모, 삼촌 등)  
 ⑨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⑩ 동성 친구  
 ⑪ 시설의 선생님                      ⑫ 위탁가정의 보호자  
 ⑬ 혼자 생활(=1인 가구)                      ⑭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29. 지난주에 돈을 벌기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했나요? [1개 선택]

- ① 일을 하였다(프리랜서, 배달, 알바 등 포함)  
 ② 일을 하지 않았다

30. 자신이 생각하시기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어떠한가요? [1개 선택]

- ① 높은 편이다 ② 약간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낮은 편이다 ⑤ 매우 낮은 편이다

31.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음 청소년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용해보신 경우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군항	경험	이용해보신 경우 얼마나 만족하셨나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1) 청소년수련관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2) 청소년문화의집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3) 청소년수련원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4) 유스호텔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6) 청소년동반자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7) 청소년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8) 청소년자립지원관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9) 청소년회복지원시설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1)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2)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디딤센터)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14) 기타 청소년 기관이나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_____) * 가장 많이 이용해본 곳 1개만 적어 주세요.	① 예	①	②	③	④
	② 아니오				

\* 여성가족부는 올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고립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내 포스터 페이지 삽입 → 포스터 본 후 다음 질문으로

32.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 받기 원하시나요? [1개 선택]

- ① 예 → 32-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33번으로 이동

32-1. 관련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락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 안 함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능력협회컨설팅	정책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1년 이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 고립 청소년을 대상으로 앞으로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실시될 경우 다시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의하시면 비슷한 조사나 인터뷰가 있을 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연구 관련 정보 제공	이름, 핸드폰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 거주지역(시군구)	2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 응답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설문을 완료해 주신 분들 중 동의해 주신 모든 분께 2,000원권 온라인 상품권을, 추첨을 통해 총 2분에게 태블릿 PC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답례품은 조사가 모두 종료된 후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답례품 발송 업무 위탁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시나요?

- ① 동의함
- ②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비즈쿠파((주) 다우기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답례품 발송	핸드폰 연락처	2024.9.30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4-1. 답례품 수령 핸드폰 연락처: (        ) - (        ) - (        )

35. 마지막으로 고립 청소년과 관련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

긴 시간 동안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고립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립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첫째, 학술 및 정책 자료 검토를 통해 고립·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실행 노력을 파악하고, 둘째,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9세~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실태 및 욕구에 대한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며, 셋째, 이를 토대로 고립·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에 기반한 법·제도적, 정책적, 실천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방법으로 국내·외 문헌 검토, 외국 사례 검토, 웹 기반(web-based) 청소년 설문조사, 청소년 일대일 심층 면접,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다. 실태 조사와 심층 면접에 앞서 본 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았다.

고립·은둔 청소년 설문조사는 SPSS for Window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t-검증, 일원 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은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비해당군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둘째,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양 또한 비해당군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었다. 셋째, 고립·은둔의 이유는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부·학업 관련 어려움, 진로·직업 관련 어려움, 가족 관련 어려움 순이었다. 넷째, 고립·은둔 청소년의 약 70% 이상이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9세~12세 연령대보다 13~18세 연령대, 19~24세 연령대로 갈수록 희망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다섯째, 고립·은둔 청소년의 약 70% 이상이 18세 이전에 고립·은둔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고립·은둔 청소년 심층 면접 결과는 면접자의 동의를 거쳐 녹취 후 전사되었으며 근거이론, 사례 연구,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혼합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전국 단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의 정기화, 공신력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개발 및 보급, 고립·은둔 예방·대응·회복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의 노력,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 활용 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고립·은둔 청소년, 웹 기반 청소년 설문조사, 청소년 일대일 심층 면접, 근거 기반 정책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implementation efforts to deal with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among youth via a review of academic and policy data, gather data on the status and needs of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from a nationwide survey conducted on youth aged 9 to 24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propose evidence-based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support youth i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To this end,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reviews were done along with the review of foreign cases, web-based youth survey,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youth, and expert consultations. Prior to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review and approval were received from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In relation to the survey on youth i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for Windows 22.0 softwa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 satisfaction of youth i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youth not i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Second, the number of social relationships that youth i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maintain wa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of social relationships that youth not i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have. Third, the most common reason for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was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followed by academic difficulties with studying, career concerns, and family-related problems. Fourth, more than 70% of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hoped to overcome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and the rate of hope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age from the age group of 9 to 12 years to the age group of 13 to 18 years and the age group of 19 to 24 years. Fifth, more than 70% of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bega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before the age of 18.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with youth i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with the consent of the interviewees, and interview transcripts were qualitatively analyzed using a combination of grounded theory, case studies and narrative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were proposed: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supporting youth i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conducting periodic nationwide surveys on the status of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developing and distributing a credible screening scale for youth i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joint efforts among relevant ministries to prevent, respond to and recover from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and utiliz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o support youth i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keywords: Youth in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Web-based youth survey,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youth, Evidence-based policy

##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연구보고24-기본02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 /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연구보고24-기본0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연구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연구보고24-기본07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연구보고24-일반01-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연구보고24-일반05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기현·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4-일반05-01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기현·오병돈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연구보고24-일반06-01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청년종합연구Ⅲ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김성아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임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4-수시0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익
연구보고24-수시02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고운·최홍일·이용해
연구보고24-수시03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연구보고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연구보고24-연적금01-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연구보고24-연적금02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 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 조은혜·이윤주

## 수 탁 과 제

### < 일 반 >

연구보고24-수탁01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근영·김기현·문호영·이용해·최홍일· 구본호·이자경·서지형
-------------	---

연구보고24-수탁0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연구보고24-수탁03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1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2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연구보고24-수탁0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지연·하형석·박지수
연구보고24-수탁05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하형석
연구보고24-수탁07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4-수탁08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세션 캠프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09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10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최용환·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1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2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연구보고24-수탁13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 황세영·유민상·남화성
연구보고24-수탁1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01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6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 박지수·이지연
연구보고24-수탁17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근희·김일우
연구보고24-수탁18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19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연구보고24-수탁20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장여옥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4-학폭01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4-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 연구보고24-학폭03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4-학폭04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 연구보고24-학폭05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 연구보고24-학폭06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모상현·최지윤
- 연구보고24-학폭07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08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09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 연구보고24-학폭10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4-대안01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 황세영
- 연구보고24-대안02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 연구보고24-대안0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 /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 연구보고24-위센터01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문세진·나예인·이유진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 〈 워크숍 〉

- 워크숍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감명령 이해하기 (24.8.29.)
- 워크숍24-02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4.8.7.)

### 〈 포럼 〉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 〈 콜로키움 〉

- 콜로키움24-01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III :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24.4.24.)

### 〈 기타 자료 집 〉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자료24-15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4-16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4-17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4-18	2024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자료24-19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 기타 발간물

###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 < NYPI Bluenote 통계 >

-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4-기본07

---

##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인 쇄 2025년 6월 30일

발 행 2025년 6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26-5

연구보고24-기본07

#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26-5